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목회학

조동호 엮음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본서에는 문화체육부 개발글꼴 훈민정음체(mh.ttf)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후에 Windows(윈도우즈) Fonts(폰트) 방에 옮겨 넣으신 다음에 한글
을 띄우시면 됩니다.

훈민정음체(mh.ttf)가 있는 곳:

http://www.sejongkorea.org/sub/sub05_03.php

PASTOR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Written by Min. R. S. Sung
and
Edited by Min.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0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신약교회의 선구자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의 저술 가운데는 『자서전』 말고도 단기 4286년 6월 10일 인쇄되어 동년 7월 3일 발행된 『신약교회 목회학』이 있다. 편집자는 이 귀한 책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벤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 하였던 지철휘 목사로부터 기증을 받아 공부할 행운을 얻었다. 본서는 본래 지철휘 목사의 장인 정귀남,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의 집사가 소유하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

월 10일 구입 지철휘”라고 적혀 있다. 참고로 지철휘 목사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한바가 있다.

『신약교회 목회학』은 서언부터 목차까지가 8쪽, 내용이 282쪽이며, 책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12.5, 17센티미터이다. 서언과 제18장의 판독 및 책 전체의 타이핑 작업은 편집자가 수고하였고, 제2장부터 17장까지의 판독과 노트에 옮기는 작업은 성낙소 목사의 수제자인 김종기 목사가 수고하였다. 김종기 목사는 내용의 일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쉬운 우리글로 풀어쓴 경향이 있어서 편집자가 이를 다시 원본과 축자대조(逐字對照)하여 원본대로 옮겨 적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는 본서의 판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이나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길 것은 내용의 모든 명사(名詞)가 한자로 쓰인 것을 한글로 적었고, 정확한 뜻의 파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한자를 병기(併記)하였다는 점이다. 이 작업을 시도한 김종기 목사나 편집자의 경우는 어려운 한자 판독을 위해서 수없이 옥편을 펼쳐야 했고, 흐려진 글씨 판독을 위해서 확대경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다. 더욱이 본서는 활자(活字) 인쇄본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필사(筆寫) 인쇄본이다. 따라서 끝까지 판독하지 못한 글자, 특히 한자들도 있음을 밝혀둔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을 ‘신약교회 목회학’이라고 한 점이다. 책의 제목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성낙소 목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이 ‘신약성경교회’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이나 본서를 통해서 볼 때, 성낙소 목사는 당대에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신학지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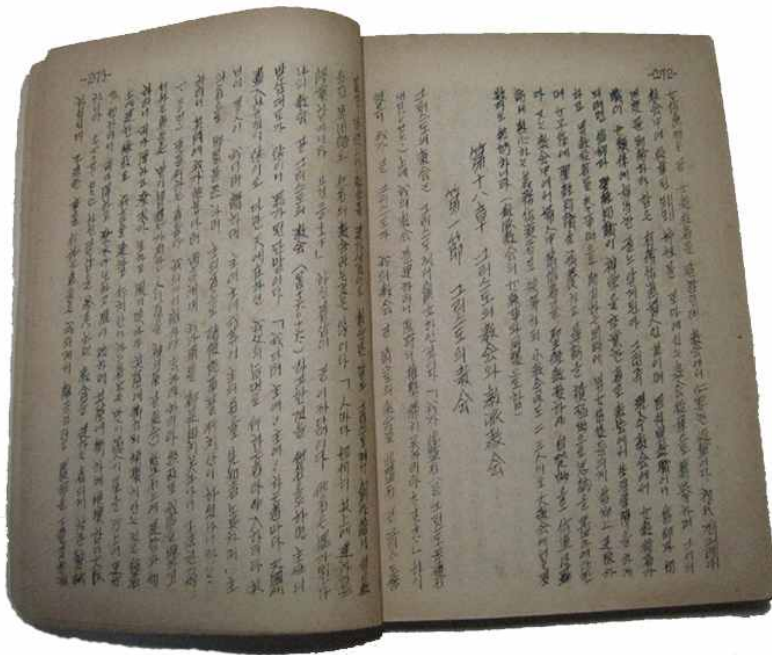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인식이 분명하였다.

본서 ‘제18장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파교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읽을 수 있다.

- 첫째,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이어야 한다.
 둘째, 교파교회의 명칭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넷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이다.
 여섯째, 교파적 신앙과 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일곱째, 모든 교파는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여덟째, 교파분열은 비성경적이다.
 아홉째, “신앙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신자가 되면 주일성찬으로 예배하는 신약 중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일(唯一) 교회이다.



2. 신약성경에 기초한 교회, 즉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였다.

책의 제목을 “신약교회 목회학”이라고 정한 것이나 서언(緒言)에서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란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도들이 신봉(信奉)하던 그 신경(信經)과 그 교리(敎理)와 그 신학(神學)을 성경그대로 고수(固守)”(제3장, 2절)하는 신약성경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교회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실천, 즉 사도전통을 모본(模本)하여야 한다는 성경해석학적 인식이 분명하였다. 특히 성서 중 신약 시대의 신앙교리를 강조해야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교회가 주님의 성훈(聖訓)과 사도들의 교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제3장, 3절, 3조).

셋째, 교회의 조직과 치리는 인위적인 교리를 배척하고, 신약교회 교리는 성서중교리(聖書中敎理)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제3장, 3절, 3조).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는 ‘성경이 명한대로’ 혹은 ‘하나님이 명한대로’ 따라야 한다는 신념(信念)이 철두철미(徹頭徹尾) 하였다.

聖書を 減하지도 말고, 異點을 加하지도 말고, 新約書中에 있는 그리스도의 教會로 還元하여 一教會가 되도록 祈禱하며, 役事할지니라(제18장, 3절).

우리가 聖經中에 있는 聖禮를 行할 때에는 聖經中에 記한 法을 依할지니, 何敎派立法이나 何人의 意見이나 方便을 推尋하지 말고 聖書에 根據하여 如何히 할지니라(제12장, 2절, 3조, 2).

3.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제12장 목회자와 성례급예식(聖禮及禮式), 제2절 침례(浸禮)’에서 약식세례는 서기 753년에 시작된 것으로써 “일종(一種) 허명(虛名)의 의식화하여진 것”이므로 “차(此)는 성경위반이다.”고 하였다.

둘째, 침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믿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誰든지 福音을 聽하고, 覺而信主하고, 過去 不信 不義 不法 不行과 其他諸般 罪惡을 眞心으로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할 수 있고(제12장, 2절, 1조).

셋째, 침례는 죄로 물든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물속에 장사하였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죄의 몸은 十字架에 釘死하고, 水中에 葬事하였다가 主任의 復活에 合하여 水과 聖神을 重生(新生)하여 上帝의 子女로 道の 乳으로 長成聖潔하나니(제12장, 2절, 1조).

넷째, 침례는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셨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대(大) 사명(使命)이며, 친히 아끼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셨으므로, 인간이 감(敢)히 변개(變改)치 못할 성례(聖禮)임을 피력 하였다.

浸禮를 主께서 當身이 親愛하시고 立하시고 命令하였으니 人間으로서는 敢히 變치 못할 것이요, 變치 못할지니라(제12장, 2절, 2조).

다섯째,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한 생명(生命)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수정, 배아, 태아, 출산, 성장의 과정을 차례로 거치게 된다. 수정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배아단계나 태아단계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출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죄(赦罪)의 구원도 믿음만으로 혹은 회개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성낙소 목사는 이런 뜻으로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救援이 곧 赦罪이다. 信仰하고 浸禮를 受하는 人은 救援을 得할 것이요 하였으니, 信仰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又は “悔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名으로 浸禮를 受하고 罪赦함을 得하라. 然하면, 恩惠의 聖神을 受하리니” 하였으니, 悔改만 하면 다 된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然則 信仰하고,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하여야, 救援을 곧 赦罪을 得할 뿐만 아니라, 恩惠로 聖神을 受한다고 主任과 使徒 베드로가 有力하게 말씀하시였다(제12장, 2절, 2조).

여섯째, 그리스도인 침례를 “중생(重生)의 침례,” “죄 사함과 성신을 수(受)하는(행 2:38)” 침례로 인식하였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막 16:16), 죄사(罪赦)함을 받고(행 2:38),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롬 6:3-7), 부활하고(고전 15:29), 중생하고(롬 6:5, 골 2:12, 딤후 3:5, 행 2:38), 그리스도로 옷 입고(갈 3:27),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왕(尋往)하고(벧전 3:21), 성령을 선물로 받는(행 2:38)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敎는 主 여호와 하나님 創造主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十字架에 犧牲하시고 復活하사 우리 人類를 贖罪救靈의 光明이 照하여 誰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悔改浸禮를 받으면 聖神이 即時 內住한 重生者가 主의 名으로 祈禱하면 信仰이 점점 長成하여 聖潔의 生活을 할 것이요, 聖神의 結果가 있어야 한다. 異蹟은 赦罪重生의 大하고 聖經에만 있는 異蹟, 요나의 異蹟과 같이 水中에서 重生의 異蹟이다. (제6장, 2절, 8조, 1)

일곱째, 침례의 집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신도일지라도 신앙생활이 무흠하면 집행할 수 있음을 성서적인 전거(典據)를 들어 설명하였다.

浸禮 執行者는 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이 聖書中에서 無欠하고, 聖神이 充滿者면 執行할 수 있음. 牧師라도 信仰生活에 聖書的 欠陷이 有한 者는 執禮資格을 喪失하였으므로 執行할 수 없을 것이다. 牧師나 長老나 執事나 平信徒나 聖書的 信仰生活이 無欠한 者가 執行함이 可하고, 牧師만 專行的으로 執行權을 聖書中에 주지 아니하였다(제12장,

2절, 3조, 1).

여덟째, 어떠한 경우에도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유아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으로 침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幼兒는 天國에 入할 資格이 有함은 예수님이 證明하셨다(太 18:3). 又난 病中에 主의 福音을 覺悟하고 確實한 信仰과 悔改와 告白이 分明하면, 浸禮를 施할 수 있으나, 危篤中 不完全 意識으로 信主한다는 것으로 로마 天主敎式으로 하면 안 된다. 浸禮가 안이고 略式洗禮는 容納할 聖書中에 條件이 없는 까닭이다. 囚獄罪人의게 傳道하여 確實한 信仰 悔改가 分明하면, 何人 男女를 莫論하고 獄官의 承認을 請하야 執行할 수 있나니라(제12장, 2절, 3조, 2).

4. 주의 만한 중심의 주일예배를 강조하였다.

첫째, 일요일을 성찬예배일로 인식하였다(제12장, 3절, 1조). 구약교회의 5대 제법(祭法) 곧 번제(燔祭), 평제(平祭), 소제(素祭), 죄제(罪祭), 건제(愆祭)가 신약교회에서는 찬송, 기도, 헌금, 성찬, 성경설교로 바뀌었으며, 안식일 대신 7일중 수일(首日)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으며, “주님이 일차(一次) 자기를 희생의 제사를 헌(獻)하시 죄를 속(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예배로 5대 제전(祭典)을 대신하였다.”고 하였다. 또 “구약예전은 신약의 영자(影子, 그림자)니, 할례는 신(身)의 사(事)요, 침례는 신심(身心)의 사(事)이며, 제례는 의식(儀式)이요, 성찬예배는 영(靈)의 사(事)이다.”고 하였다(제12장, 1절).

둘째, 초대교회에서의 주일예배는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3)主의 晚餐 - 主日 禮拜는 初代敎會 創立日로부터 始作한바 主님의 死中復活을 記念하는 無酵餅과 葡萄汁盞으로 主님의 살과 피를 代身하야 祝辭하고 浸禮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參與하야 主님의 十字架 犧牲祭를 記念하는 聖禮이니 初代敎會에서 安息日을 바리고 主日禮拜가 主

의 晚餐으로 創立하였다. “七日中 首일에 我等이 餅을 擘하려하여 집集하였더니”(行 20:7). 日曜集會는 餅을 擘하기 위하여 모였음이라. “恒常 使徒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交際하며 餅을 떼어 먹으며 祈禱하기를 務하더라”(行 2:42). 此는 곧 五旬節에 聖神降臨日, 그리스도인 浸禮 始作日, 그리스도의 教會創立日, 主日禮拜에 聖餐式한 것이다. 그런고로 모든 集會中에 主日禮拜가 此聖禮로 由하여 聖禮中 首位되는 聖會로 嚴守하는 것이다(제6장, 2절, 6조, 1).

셋째,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신 것임을 인식하였다.

使徒들이 主의 遺言의 命令을 受하였음으로 教會를 始作하면서 主日인 日曜日集會는 主의 晚餐禮拜로 實行順從한 것을 聖書中에서 明白히 發見하였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는 그대로 聖書的으로 主의 命令을 遵行하여 安息日이 안이고 곧 禧日에 神靈과 眞理인 十字架의 記念으로 聖餐의 禮拜를 奉行할지니라(제12장, 3절, 1조, 5).

넷째, 주의 만찬의 집행은 목사, 장로, 집사가 집행할 것이나, 만일 교직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집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新約時代 教會創立日인 日曜일에 主님의 遺言이며 命令을 受한 使徒들이 遵守하여 執行하였고(行 2:42), 바울 使徒도 主께 受한 命令을(고전 11:23) 各教會에서 執行하도록 하였으니, 牧師, 長老, 執事가 執行할 것이오, 萬一 教職者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主일에 執行하면 된다. 主日是 浸禮 받은 信者가 禮拜한다. 緣故로 初代教會에서는 安息日 翌日是 七日中 首일에 餅을 擘하는 禮拜集會(行 20:7)하였음으로, 安息日이 廢하고 主日禮拜가 始作된 것이니, 家庭에서도 信者들이 主日禮拜에 餅을 誠意로 擘하여 食하고 上帝를 讚頌하였다. 今日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 主日是 聖餐禮拜인 故로 牧師가 없는 教會에서는 平信徒들만 모여서 信徒中의 一人이 集禮한다. 大東亞戰爭時와 6.25事變 當時에 各家庭에서 或防空壕에서 山野江邊에서 主일을 當하면 家族的으로 個人的으로 聖餐禮拜를 主日마다 奉行하였다. 牧師가 없으면 家族 個人이 禮拜하지 못할 法이 聖書中에 無한 同時에 信者가 集禮할 것이니라(제12장, 3절, 2조, 1).

다섯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논하였다.

主日是 男女聖徒가 여호와 上帝께 神靈과 眞理로서 聖晚餐禮拜를 奉行하는 것이 聖旨의 禮典이다. 그러나 聖書中에 注意의 警戒가 嚴然하다(고전 11:30-32). 또 그렇타고 해서 主日 聖餐禮拜를 廢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然則 聖書대로 資格者는 堂堂히 參與할 것이니라. 1)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生涯中에 있는 者. 2)良心으로 回顧 곧 自醒하고 悔改한 後에야 食하고 飲할 것이오. 3)主의 몸과 피를 分辨하야 十字架의 釘死와 復活을 記念할 者이니라. 以上 三種의 以外에 處地에서는 絶對로 參與치 못할지니라(제12장, 3절, 2조, 2).

제대로 된 신학서적 한 권 없던 60여 년 전, 그것도 6.25사변 중, 성낙소 목사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신념이 이터했을진대 석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가 넘쳐나는 오늘날은 그 수준이 어떠해야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낙소 목사 정도의 인식을 가진 목회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 신학도의 탄식을 들어보자.

....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깊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겐 큰 교만이자 정죄 받아 마땅할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과의 교제가 망설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냥 어린 후배의 푸념으로 이해해 주시길^^)

60여 년 전 척박한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궈낸 선배 목사들의 열정과 신념은 대단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모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등 타 교단에서 환원한 분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어서였지만, 왜 오늘날에 서조차 우리 가운데서 환원 2-3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동석기, 강명석, 성낙소, 김은석, 이신과 같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인물들의 역량(力量)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고, 오늘의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본서를 읽는 이들에게 신약교회의 선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깊은 영성과 복음에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2010년 2월 25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서언



교제(敎弟)는 교파 중에서 두어 단체기관에서 수양하고, 국내각(國內各)와 국외 일본 동경 횡빈(橫濱) 등지(等地)에 21여성상(餘星相)을 교역하다가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선교부 지. 켄. 치에스와 켄. 켄. 힐 양인(兩人)이 내한하야 선교 초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수양(修養)하는 즉시로 입학하야 졸업기한인 4개년 수업을 제1회로 마치고,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역사(役事)를 6-7년간 하는 중 일본제정하(日本帝政下), 소위 대동아전쟁과 아울러 신궁(神宮) 참배문제로 박해 중에서 8.15해방의 축복을 받고, 비약적으로 기독교 통일운동을 하였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계는 일본 대마신(大魔神)에게 배복(拜服)함으로 인하여 사(死)한 심령이라. 그러한지 무감각하야 일인(一人)도 상응(相應)치 안코 다만 신궁 불참배한 교역자만 상응하여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야 수양기(修養期)에 의외(意外)에도 6.25사변과 1.4후퇴로 인하여 우리 신학교도 동결(凍結)상태에 있었다가 1952년 춘기(春期)에 복구로 개강을 하는 동시에 교제(敎弟)가 목회학 과정을 교수(敎授)하는 입장에서 디모데전후, 디도서의 목회서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외에 각 목회학을 수집(蒐集)하야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리와 초대교회의 목회의 차이점만 수정하고 기타(其他)에도 가감 편집하야 교수하게 된바 불충분한 점도 불무(不無)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허락이 있는 대로 불원(不遠)한 장래에 충분한 목회학을 저작하라 하노라.

주후 1952년 춘계(春季) 저작자



차례

신약교회의 선구자 성낙소 목사	3
서언	13

제1장 총론/19

제1절 목회학(牧會學)의 의의(意義)	19
제2절 목회학의 유래	20
제3절 목회학의 필요	21

제2장 목회자/23

제1절 목회자의 사명론	23
제2절 목회자의 각오	25
제3절 목회자의 명칭(엡 4:11-13)	27
제4절 목회자의 자격	30

제3장 목회자와 교회/41

제1절 교회의 의의(意義)	41
제2절 교회 신경	41
제3절 교회정치	42
제4절 목회자와 교회 간에 수(守)할 도덕	46

제4장 목회자와 설교/57

제1절 설교의 의의	57
제2절 설교연습	57
제3절 설교자의 주의	59
제4절 설교의 종류	63

제5절 설교의 방식(說敎方式)	64
제6절 집회별 설교 성질(性質)	65
제7절 특별설교(特別說敎)	67

제5장 목회자와 심방/69

제1절 심방의 의의	69
제2절 심방의 필요	69
제3절 심방 도수 급 시간(尋訪度數及時間)	70
제4절 심방 방법	71

제6장 목회자와 집회/79

제1절 집회의 필요	79
제2절 특별 집회	79

제7장 목회자와 서재/97

제1절 목사의 공부할 필요	97
제2절 주택과 서재 위치	98
제3절 서재 비품(書齋備品)	98
제4절 문고(文庫) 급(及) 서적류(書籍類)	100
제5절 독서시간 급(及) 방법	100
제6절 연구와 응용	101

제8장 성경 강해 강령(聖經講解綱領)/ 103

제1절 성경(聖經)은 신(神)의 묵시(默示)	103
제2절 성경(聖經) 기자(記者)	103
제3절 성경기록은 영감(靈感)	103

제9장 목회자와 개인전도/109

제1절 개인전도 의의(意義)	109
제2절 개인전도의 필요	109
제3절 개인전도자의 자격	111

제4절 개인전도 방법.	112
-------------------	-----

제10장 목회자와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123

제1절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123
제2절 본 단체 동역자간 (그리스도의 교회 단체)	128
제3절 타 단체 교역자간	130
제4절 전후임자간(前後任者間)에 수(守)할 도덕	130

제11장 목회자와 심리학/135

제1절 심리학의 의의	135
제2절 심리학의 필요	136
제3절 체질에 의한 심리차이	142
제4절 체질 음양과 심리 성격	144
제5절 동정(動靜)에 의한 심리상태	147

제12장 목회자와 성례 금 예식(聖禮及禮式)/151

제1절 이대(二大) 성례(聖禮)	151
제2절 침례(浸禮)	152
제3절 예배(禮拜)	158
제4절 4대 예식(禮式)	164
제5절 헌아식(獻兒式)	173
제6절 목회자 장립식(將立式) 안수식(按手式)	174

제13장 목회자와 개인 생활/177

제1절 육체상(肉體上) 생활(生活)	177
제2절 영적(靈的) 생활(生活)	187

제14장 목회자(牧會者)와 종교(宗教) 교육(教育)/191

제1절 종교(宗教) 교육(教育)의 의의(意義)	191
제2절 종교(宗教) 교육(教育)의 유래(由來)	192
제3절 종교(宗教) 교육(教育)의 종별(種別)	193

제15장 목회자(牧會者)와 교회 내 제반사업(諸般事業)/211

제1절 부인회(婦人會) 사업(事業)	211
제2절 청년(青年) 사업(事業)	214
제3절 자선사업(慈善事業)	217

제16장 목회자(牧會者)와 교회(教會) 재정문제(財政問題)/221

제1절 교회(教會) 재정(財政)의 필요(必要)	221
제2절 재정(財政) 모집(募集) 방법(方法)	222
제3절 재정(財政) 사용(使用) 방법(方法)	227
제4절 교역자(敎役者)의 보수(報酬) 문제(問題)	228
제5절 교회(教會) 기본재산(基本財産) 적립(積立)의 필요(必要) ·	231
제6절 기본금(基本金) 적립(積立) 방법(方法)	232
제7절 기본금(基本金) 모집(募集) 방법(方法)	233

제17장 교회(教會) 창립(創立)과 직원(職員)에 대(對)하여/235

제1절 교회(教會) 창립자(創立者)와 명칭(名稱)	235
제2절 교회원(敎會員)<성도(聖徒) 그리스도인>(빌 1:1)	236
제3절 감독(監督)들<장로(長老)들>(빌 1:2)	236
제4절 집사(執事)들(빌 1:1)	237
제5절 전도사(傳道師)<조사(助師)>	238
제6절 여전도사(女傳道師)	239

제18장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파교회/241

제1절 그리스도의 교회	241
제2절 교파교회	243
제3절 유일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246

제1장 총론

제1절 목회학(牧會學)의 의의(意義)

목회학은 실천신학의 일부분이 되나니, 곧 교역자가 신학에서 배운바 제반학과와 성경도리를 실지 응용하는 학문이다. 목회라 함은 말이 목자가 우양(牛羊)을 치는같이 영혼의 목자 되는 교역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중양(衆羊)되는 신자의 영혼을 진리로서 먹이는 것을 가라치심이니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삼차(三次)나 부탁하기를, “네가 차인(此人)들보다 나를 우애(尤愛)하나냐? 그러면 아(我)의 고양(羔羊)을 목(牧)하라” 하였고(요 21:15-17), 사도 바울은 밀네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구(請求)하여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목(牧)하라 하였다(행 20:28). 이로 보건댄, 교회의 사업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사도의 부탁인 동시에 자고로 교회에 없지 못할 귀중한 사업이다. 학이라 함은 기(其) 방법을 배움을 가라침이니, 가령 목자가 양을 치고자 할 때에 먼저 양치는 방법을 지(知)하여야 할지니, 양의 성질 여하(如何)와 사료의 호불호(好不好)와 병들면 치료하는 법과 용도일체를 자초지종(自初至終)으로 세밀히 하여야 할 기본지식이 없으면 그의 경영하는 목축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은 지론(持論)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신령한 양의 목자 되는 교역자가 양되는 신자를 인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목자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타도(他道)가 무(無)할 것이다. 그런고로 기(其)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가라침이 곧 소론(所論)의 목회학이다.

세상에 교역의 대지(大志)를 회(懷)하고 헌신 수양하여 못처럼 목사의 성직을 배수(拜受)하고 실지 교회에 당면한 자 중에서 성공한 자 적고 실패한 자 많음은 기(其) 원인이 타재(他在)하지만은 대개는

목회의 지식이 부족한 까닭이요 비록 법을 지(知)할지라도 탁상(卓上)에서 학문적으로 배운 그것과 실지 응용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두서(頭緒)를 못 차려서 학이미행(學而未行)케 되는 일도 미상불(未嘗不) 없지 안이하다. 그런고로 본서는 과학적 이론을 피하고 실지 경험한 바와 당면한 제 문제를 용이하고도 간명하게 알아내라 함이 본 목회학인 동시에 일체진(一切眞)이다.

제2절 목회학의 유래

목회학의 유래를 상고하면 기(其)역사가 멀니 창세기에서부터 기인(起因)됨을 지(知)할지니,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僕)을 택하사, 그 시대 민족을 교도(教導)하셨나니, 홍수전에는 에녹, 홍수(후)에는 노아,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열(以色列)의 구족자 모세, 구약시대에 16대 소선지는 유수(有數)한 목민자(牧民者)이다. 창세기로부터 말나기까지 4,000년 간 수없는 목회자를 보내셔서 기(其) 시대의 적당한 법으로서 지도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목민법(牧民法)이다. 신약에는 예수께서 3년 간 제자를 교양(教養)하사 전도케 하심과 기(其)후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직접 목회한 것을 볼 수 있나니, 바울의 서간 중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등은 유명한 목회학의 기본신학이 되었나니라. 사도시대 후로도 풀리갑 같은 목회자며 차(此) 사업을 불휴불식(不休不息)으로 계승하였고, 누터 개종 후 교파적으로라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목회사업이 급선무로 각지(覺知)하고 각 교파에서 각 국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상당한 목회자를 양성하여 실지 목회임무에 해당(該當)케 하였나니, 토마스 캠퍼벨씨도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 환원운동에도 신학교를 설립하고 목회자를 수양시켜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 사업을 하였나니, 그런즉 목회법은 유사시(有事時)로부터 시작되야 6,000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부단적(不斷的) 종사(從事)를 하고 있다.

제3절 목회학의 필요

목회학은 모든 신학 학과 중에 없수히 녀이지 못할 중요 학과이다. 인(人)에 헌신하여 신학을 공부함은 목회하라는 목적이다. 그런즉 목회하라는 인(人)이 성서적 목회학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의사가 의학을 부지(不知)함과 변호사가 법률학을 부지(不知)함과 다름이 없다. 의사는 의학에 능하여야 하고, 법학자는 법률에 능하여야 함같이 목회자는 목회에 능하여야 한다. 세상에 목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다(多)하되 성공하는 자 과(寡)하고, 성공하는 자 혹 유(有)하되 법을 지(知)하는 자 희(稀)하고, 법을 지(知)하는 자 혹 유(有)하되 응용자 소(小)하나니 일대(一大) 유감이다. 현하(現下) 교회 부진의 원인은 목회자가 독신중(篤信中) 성서를 통하여 목회법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지 못함에 재(在)하고, 교회에 복잡다단의 문제가 첩생(疊生)하는 원인(原因)도 교역자의 목회상 결함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수다한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실지 목회에 실패하면 전절(前切)이 가석(可惜)케 되나니, 그런고로 신학과와의 제반 학문은 목회에서 결과를 지우나니 잊이 등한시 할 수 있으리오. 피(彼)가 주시되, 혹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혹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완전케 하며, 교회사무를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신(身)을 성립(成立)하려 하시니라(엡 4:11-12). 주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말삼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되 고군(雇軍)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구하여 고군을 보내여 추수하게 하소서 하였다. 현하(現下) 교계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실로(失路)한 양들이 무수한 차시(此時)에 목회사업이 급무(急務)인 동시에 목회지식을 함양함은 불가결(不可缺)의 필요사(必要事)로 생각한다.



제2장 목회자

제1절 목회자의 사명론

대개 인간은 각자 천품(天稟)의 소질이 있나니 누구든지 사농공상간(士農工商間)에 기직(其職)을 선택코저 할 때에 먼저 자기 천품의 소질을 어기지 못할지니, 가령 공업에 소질이 있는 인(人)이 상업에 종사한다던가 농업에 소질이 있는 인(人)이 상업에 종사한다면 용이(容易)히 성공을 도(圖)할 수 없으리니, 차(此)는 자기 소질의 능력의 방향을 엮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목회자도 목회적 소질에다가 천래적(天來的) 소명(召命)을 가(加)하여서 비로소 목회자의 사명이 완성하여 지나니, 그런고로 명백한 사명이 있는 후 목회사업에 헌신할 것이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나니, 차(此)는 소(召)하시고 택하신 자로만 성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세사(世事)와 같이 일시취사(一時取捨)의 직분이 안이오, 성직인 동시에 종신직(終身職)이다.

소자(少者)는 백발로서 맹서하고 노자(老者)로서는 최후 호흡으로서 기직(其職)에 순(殉)하여야 한다. 세상종(世上種) 석차(夕此) 성직을 직업시(職業視)하고 헌신하는 자 불무(不無) 하나니 대오해이다. 요컨대 차(此) 성직은 자기가 하고저 함으로도 못하고 누가 억지로 식혀서도 못하고 다만 천(天)에서 소(召)한 자로만 부른 자로만 되나니, “성신이 바울과 바나바를 별립(別立)하사, 아(我)가 소(召)하여 사 용할 일을 하게 하라”(행 12:2). “주 가라사대, 기인(其人)을 아(我)의 택(擇)한 기(器)가 되어”(행 9:15) 이상 성구를 종합하면, 목회성직은 소명자로만 될 수 있음을 알지니라.

차(此) 소명론에 대하여 이하(以下)와 여(如)한 각론(各論)이 유(有) 하나니라.

(1)인위설(人爲說)

교역(敎役)의 직(職)은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는 동시에 교역하면 목회자라 한다. 결코 일부인(一部人)에게만 지목(指目)하여 편벽(偏僻)되게 인(人)을 사용하시는 상제(上帝)가 아니다. 단지(但只) 기인(其人)의 자격과 수양 여하를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하여 소명설(召命說)을 반대한다. 그러나 상제(上帝)께서 선지자, 성현을 택하실 때에 반드시 직접 소명하심을 볼 수 있나니, 아부라함, 모세, 다윗, 삼우엘, 기타 모든 선지자에 지(至)하기까지 실로 열거하기 난(難)하다. 신약에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열두 제자를 택하심과 사도들이 성신의 지시를 수(隨)하여 후계자를 택함을 보면 소명설을 부인할 수 없나니 사도 당시에도 소명설을 부인하는 자 다(多)한고로 '사도바울의 사도된 것은 인(人)에게서 출(出)한 것도 많ियो, 인(人)으로 인(因)하여 된 것도 안ियो, 천부(天父)로 인(因)하여 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갈 1:1).

(2)미신설(迷信說)

신(神)의 被召(피소)라 함은 문자 그대로 직해(直解)하여 하나님께서 인(人)을 소(召)하실 때에 무슨 소리라 혹은 환상이나 현몽이나 이상 중에서 인(人)의 육(肉)으로 건문(見聞)할 수 있는 기형이적적(畸形異蹟的)으로 소명한다하야 구약시대의 실례와 신약에 배드로, 바울, 골넬로의 사실을 들어 예증(例證)을 삼아 기사(奇事) 이적적(異蹟的) 이상론(異常論) 주창(主唱)하야 이러케 되지 못한 사람을 이단 혹은 무사명자(無使命者)라고 논파(論破)하나니 극단적 위험설이요 승인할 수 없는 미신설이다. 물론 신구약서에 현(現)한 사실을 보면 그런 실례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없는 특수사실이니라.

(3)신위설(神爲說)

차(此)는 인(人)의 노력이나 활동을 부정하고 단지 신(神)의에게만 일임하고 무슨 모양이던지 그의 지도를 따라 동정(動靜)한다하야 심지어 전도도 신(神)이 시키면 하고, 식키지 안이하면 언제든지 하지

말라고 가라치고, 설교도 신(神)이 시키면 하고, 안이시키면 안이한다
 하여 설교하다가도 중지하기도 하고, 헌신하였하다가도 중지하기도
 하고, 갑자기 헌신하기도 하나니, 신(神)이 시킨다는 의의(意義)가 어
 디(?邊)에 있난지 아지 못한다. 의식과 제도를 부인하고 개인주의에
 처(處)하나니, 일견(一見)에 그것이 신앙 값이도 하고 극단의 소명설
 같으나 일종의 신비설(神祕說)에 근(近)하고 잘못하면 미신에 함(陷)
 하기 이(易)하니라.

(4)정통설(正統說)

하나님께서 물론 인(人)을 소명하실 때에 모세와 바울 같이 직접
 유형적(有形的)으로 소(召)하실 수 있으나 차(此)는 특수문제이고 보
 통법으로는 신(神)께서 먼저 그 기인(其人)의 내심(內心)에 하(何)기회
 나 동기에던지 성서말씀을 통하여 복음전도코저 하는 대지(大志)를
 야기(惹起)케하여 기(其)열망이 점차(漸次) 창일(漲溢)하여 만강(滿腔)
 의 확신이 생기는 동시에 헌신의 용기가 내심(內心)에서 약동하고 사
 명을 위하여 육(肉)에 만반장애(萬般障礙)를 배제하고 환경의 굴레
 (??)에서 탈출하여 복음전도에 진출치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감이
 생(生)하게 되나니, 이것이 공통적 소명감이다. 내적 영(靈)의 운동이
 생기(生起)는 동시에 외적 진로가 개통하게 되나니, 환연하면, 신위적
 역사(神爲的 役事)가 임하는 동시에 인위적 준비가 필요하니 이에서
 완전한 목회자의 사명이 성립되나니라.

제2절 목회자의 각오

제1조 고난에 대한 각오

인간(人間) 수모(誰某)를 막론하고 기직(其職)에 취(就)하기 전에 기
 직(其職)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이 되나니, 차(此)는 기
 (其) 임무를 성공함에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까닭이다. 대개 전도직
 은 육적 사업이 아니요, 영적 사업인 동시에 고난을 경(經)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세상의 허다한 사업 중 전도 사업처럼 곤

란한 사업은 없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에 전도자 생활처럼 곤란, 노고, 위험, 치욕의 일은 없다고 하였고, 누터는 말하기를, 전도자의 제반 노고는 골수와 근육이 마쇄(磨碎)해야 로(老)와 사(死)를 조속(早速)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차(此)는 복음의 선배들이 당한 노고의 경험을 후배에게 각성시켜주는 경고이다. 요컨대 전도의 사업은 지자(知者)의 지식으로도 못하고, 부자의 부력(富力)으로도 못하고, 권가(權家)의 권력으로도 못하고, 다만 피소(被召)한 기인(其人)이 견고한 사명과 고난에 대한 심절(深切)한 각오로서 능히 성공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세상에는 전도자의 직분을 일종의 육적 영예의 직(職)으로 지(知)하는 자가 유(有)하고, 심(甚)하면 생활구급책으로 지(知)하는 자까지 불무(不無)하다. 모 성도 일즉이 말하기를 전도자가 되려거든, 먼저 굶는 법부터 배우라 하였다. 우왈(又曰) 교역자가 되려느냐? 먼저 타인(他人)의 세족(洗足)하여 주는 법을 배우라 하였다. 이 얼마나 전도자의 고충을 묘사(描寫)한 경험담인가? 실(實)로 그러하다. 인(人)에게 봉사를 수(受)하는 직분이 아니오 인(人)을 봉사할 뿐만 아니라, 양(羊)을 위하여 진명(盡命)하는 직분이다. 때로는 피살(被殺)할 양과 같이, 때로는 만물이 구(垢)와 같이, 때로는 철전투옥(鐵鏈投獄)과 기갈적신(飢渴赤身)으로 고(苦) 경험(經驗)을 하고 백인치명(白刃致命)의 모험적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를 따라 오라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겐세만에 동산에서 빌라도의 뜰을 지나 갈보리 산정(山頂)까지 사양치 않고 따라갈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제2조 영광에 대한 희망

전도자의 직분이 곤란한 것만 생각하고 비겁(卑怯) 낙심하지 말지니, 지(地)에서는 그보다 더 고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음을 각오(覺悟)하여야 한다. 대개 무슨 일이던지 고난이 다(多)할수록 정비레로 사업자체가 영귀(榮貴)하여지는 법이다. 교회의 성직은 지(地)에 있던 인간이 수수(授受)하는 직분이 아니오 만왕의 왕 되신 천부께서 친임(親任)하신 성직이니, 천국의 전권공사(全權公使)요, 화평의 사자이다. 지상에서 찍어지고 없어질 사업도 오히려 영광이라고 자만자과(自慢自誇)하거든, 황불후(況不朽) 불쇠불멸(不衰不滅)의

영존(永存)의 사업일까 보나. 이에 헌신하는 자는 영귀(永貴)하고, 차(此)에 신(身)을 종(終)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런고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아(我)의 사랑(思量)에는 금(今)의 고난을 수(受)하는 것과 장래 우리의게 현(顯)할 영광을 비교하면 족히 비교할 수 없나니라”(롬 8:18). 모세는 바로의 공자(公子)의 영광의 자리를 떠러진 신발갸치 버서바리고 애굽이 모든 재물을 분토와 같이 던져바리고 하나님의 민(民)과 장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에서 낙을 형(亨)하는 것보다 더욱 조와 하였다. 이와 같이 전도자는 맛당히 자기 직분이 신성무비(神聖無比)의 고상한 성직임을 각오(覺悟)하여야 소임의 직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나니라.

제3절 목회자의 명칭(엡 4:11-13)

제1조 초대교회 칭명(稱名)

1. 사도(使徒)

주님께서 12사도를 특별히 택립(擇立)하사 사도라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주사 복음을 전하고 신앙하고 회개자에게 침례를 시(施)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권(權)을 주시었다(행 1:2, 2:1, 47). 사도는 아모나 되는 것이 많이고 침례 요한의 시(時)로부터 주님 부활 승천까지 동참수양견습자(同參修養見習者)라야 유자격자인 동시에 피택(被擇) 하였나니라(행 1:21-22, 1:24-26). 복음서에서는 흔히 제자라 칭하였고, 기후(其後) 사도시대에도 사도라 통칭하였나니, 차시(此時)에 한(限)한 특수한 칭명(稱名)이라. 바울에게도 사도의 존칭을 하였나니라(고전 9:1-2, 고후 12:12). 기후(其後) 인(人)의 일반적 의의로 비준(比準)하여 목회 특별한 사역자에게도 사자(使者)라는 명칭을 부(附)하였다(빌 2:25). (그러나) 사도는 아니다. 그런즉 자격으로만이 사도가 되나니라(행 1:21).

2. 선지자(先知者)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수(數) 선지자가 유(有)하고(행 13:1), 가

이사람에 선지자가 유(有)하였다(행 21:9-10). 선지자는 유대교 시대에서부터 유(有)한 바이니라.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목민(牧民)하고, 신약시대에 성취할 예언한바 말라기까지 있었고, 침례 요한은 신약시대 초대 선지자로 왔었다. 그러나 복음이 완전함을 따라 구원이 성취함으로 교회가 조직되고 성서가 완성함으로 주님 그리스도가 재림 할 시(時)까지는 묵시록에 예언이 있으니, 금일(今日) 교회에는 선지자가 불필요함으로 선지자가 없는 줄로 알고, 만일 있다고 하면, 그는 우리 구원에 대한 예언이나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신약성서 이외는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약유(若有) 선지자면 위자(僞者)이다(태 7:22).

3. 전도사(傳道師)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들으게 복음적 신앙을 수년 교양한 자들이 복음을 미(未) 신자들에게 전도하여 예수가 하나님인 성자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신앙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난 자에게 침례를 시(施)하여 죄 사함과 성령 받아 중생의 은사를 받도록(행 2:38)하여 복음이 지극(地極)까지 선포하난 개척적인 동시에 순회전도사업에 종사하는 교역자이다. 사도시대나 현시대에서나 일반적 의의로 종사하는 자이니 대외적으로는 선교사요, 대내적으로는 개척(開拓) 우(又)는 각 지방을 순회 전도사를 운(云)함이다.

4. 목사(牧師)

차(此) 성직은 교회에서 책임적 목회자인 동시에 신자들을 양과 같이 목회하는 직분인고로 성서에 지식이 능하여야 교회(教會) 정치역량(政治力量)과 영적 진리로 양군(羊群)과 같은 신자를 목회할 수 있나니, 적어도 성서를 전문적으로 3-4년 간 수양(修養)하여야 한다. 목사는 장로와 이명동의(異名同意)하니, 감독으로서는 지식과 자격이 충분하여야 한다(딤후 5:17).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들을 청하여 언급할 시(時)에, “너희들이 너희를 위하여 신(愼)하고 또 전(全) 양군(羊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목(牧)하라.... 그런고로 너희들이 경성(敬聖)하여 3년이나 주야로 불휴(不休)하고 누

(淚)를 류(流)하며 너희를 권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0:28,31) 하였으니, 3년 간 주야로 교양(教養)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즉 우리 전도사 목사들은 필(必)히 성서를 전문적으로 3년 이상 교양을 하여야 교역자의 자격이 유(有)하다.

5. 교사(教師)

목사로서 실지 교회에서 다년간 목회의 경험이 확실한 자로서 성서의 지식이 풍부하고 학연적 실력(學研的實力)이 유(有)한 동시에 교수(教授)의 명철한 능(能)이 있어야 교양(教養)을 받는 신학생들이 명랑(明朗)해야 장래 교역자의 입장에서 위대한 성업에 공훈을 발휘할 것이다(행 13:1, 딤후 1:11). 사도들도 주님 예수씨의 교장님으께 3년 간 주야로 교양을 받았으며, 바울 사도도 목회자들을 3년간 교양하였으니, 현대 교회에서도 전도자나 목사나 감독(장로)들이나 교사들이 되려면 3년 이상을 성서를 전문적으로 교양하여야 필요함으로 신학교에 교사를 통하여야 함으로 이상(以上) 같은 자격자로 성서 교수(教授)하는 교사를 통하는 것이다. 근래 강사라는 명칭은 임시로 하(何) 과(科)에 강설자(講說者)를 지칭함.

6. 감독(監督) 혹은(或)은 장로(長老)

장로들은 원래 유대교에서 사용하던 명칭이니, 기(其) 역사가 멀리 출애굽에서 기인(起因)되야 유대인(猶太人) 간(間)에 다용(多用)하였고, 감독이라 함은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교에 직명(職名)을 습용(襲用)치 않고 교회를 감독한다는 의(意)로서 감독이라는 존호(尊號)를 부(附)하였나니, 그런고로 장로와 감독은 실상 이명의(異名意)로 해석 사용하였나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을 삼았다는 것과(딤후 1:5) 장로와(딤후 3:1) 감독은 동일한 의의(意義)이니라. 장로들은 교회를 처리하는 성직인 동시에 목회자이다.

7. 집사(執事)

차(此)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구제사무(救濟事務)를 일임(一任)키 위하여 7인 집사를 택한 후(後)붙어 교회가 필요를 인정

할 시(時)에 또는 집사의 자격이 충분(뮈전 3:13)한 자가 2명 이상이 유(有)하면 집사로 선택하여 교회 사무를 보게 하였나니, 그러나 광범한 의(意)로 해석하면, 일반 복음에 종사자를 통칭(通稱)하여 집사라 하였고(고전 3:10, 엡 3:7), 협의(狹義)로 해석하면, 시제사(施濟事)와 교회 사무를 방조(幫助)하는 남자역원(男子役員)을 지칭(指稱)함이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설교와 전도를 하였나니, 저 유명한 스테반과 빌립의 일을 보아서 지(知)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금일(今日) 교회의 집사와 동명이의(同名異義)이니라. 차(此)는 무타(無他)라, 사도으게 안수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설교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이 있음으로 그러하다. 금일(今日) 교회 집사도 성경을 잘 배우면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이적은 할 수 없으니, 동명이의(同名異義)이니라.

제4절 목회자의 자격

제1조 육체상의 자격

1. 신체건전(身體健全)

신체건전이 만사지본(萬事之本)이라는 것은 세상 사업뿐만 아니라, 교역사업일사록 육체상 건전이 필요하나니, 만일 병약자로서 교역의 직(職)에 취(就)함은 망상(妄想)이요 실패이다. 혹왈(或曰) 교역의 사(事)는 근육노동이 안이메, 신체강약을 논할 바 없다고 하나, 대(大)오해이다. 그런고로 서양속어에 자제 중 제일 약한 자를 가라쳐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색열민(以色列民)이 양(羊) 중에 제일 병약한 양을 잡아서 헌제(獻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해양을 왕래하는 함장(艦長)에 맹인을 요(要)치 않고, 군인에 좌각(坐脚)을 요치 않고, 역군(役軍)에 절수자(折手者)를 불요(不要)한다고 하면, 옳이하야 영적 함장이요, 그리스도의 정병이요, 천국의 역군된 교역자를 하필(何必) 병약자를 요(要)할가. 사회제반사업에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천국사업에 종사할 교역자의게도 신체검증이 필요하니, 차(此)는 교회성공과 신체건전은 불가분리의 기본 조건이 되는 까닭이다.

2. 연령(年齡)

목회자의 연령에 대하여 혹자는 연소(年少)를 주창(主唱)하고 혹자는 연로(年老)를 주창한다. 각기 일리가 불무(不無)하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연소함으로 인(人)에게 편(偏)함을 수(受)치 마라”(딤후 4:12)함과 같이 목사가 너무 연소하면 인(人)에게 수모(受侮)하기 이(易)하고, 너무 연로하면, 실패는 소(小)하나, 무력하기 이(易)하나니, 고래(古來) 히브리 인사(人事)를 참고하던지 성경상으로 보면, 30세에 비로서 사업적령기로 공인하였나니, 구약선지성군(舊約先知聖君)이며 신약의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도 30세에 전도 시작하심은 좋은 실례이다. 동양고어(東洋古語)에도 30에야 입지(立志)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고로 목사의 연령은 25세 혹(或) 40세로부터 65세까지가 최(最) 적년기라 하노라. 그러나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한 경우도 유(有)하나니라.

3. 지식과 상식

혹자는 운(云)하기를 목사의 직은 신령한 직분이니, 지식이나 상식이 별 필요가 없다. 도리어 지식이라는 것이 영적 사업에 방해물이 라하여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일까지도 있다. 차(此)에도 일리가 무(無)함은 아니다. 그러나 교역사업이 인간사회를 리(離)해야 되는 일이 많지요, 현실 거기서 지적 영적으로 원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지니, 기임(其任)에 해당하는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상식이라함은 지식과 상이(相異)하니, 비록 상당한 지식이 유(有)한 인(人)이라도 상식이 결함이 유(有)한 자(者) 다(多)하니, 교역자는 무엇보다도 상식이 풍부하여야 할지니, 사리판별과 예의작법(禮儀作法)에와 대인교제와 지신지심지조(持身持心持操) 등(等)에 대하여 차라리 과학적 지식보다 더욱 필요함이 되나니라.

4. 음성

교역자와 음성은 밀접한 관계가 유(有)하나니, 차(此)는 교역생활의 대부분이 언어용성(言語用聲)하는데 재(在)한 까닭이다. 음성은 가장

명랑(明朗)함을 요할지니, 어눌(語訥), 어급(語急), 성탁(聲濁), 성약(聲弱) 등은 교역자의 소질에 약점이다.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발표코저 하나 음성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면 소기 목적을 달성키 곤란하니, 대응변가 대설교가는 웅청(雄淸)한 성음(聲音)이 아니면 될 수 없나니라. 그러나 선천적 약점이 유한 인(人)이라도 특별한 주의와 부단의 연습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개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가정

목사의 가정이 완전하고 불완전함은 교역 성패에 대(大) 관계가 유(有)하나니 이는 목사의 가정은 교회의 축도(縮圖)인 까닭이다. 속담에 가화(家和)에 만사성(萬事成)이라고 하면, 가불화(家不和)면 만사가 패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의 일이다. 교역자의 가정은 청정(淸靜)하며, 정숙(靜肅)하며, 화평경건의 신덕(信德)으로서 일반 교우(敎友)의 가정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하(何) 신령한 목사님의 기처(其妻)의 불량으로 유(由)하여 목회를 하지 못하고, 순회전도 우(又)난 사경회, 부흥회로 일생을 마치며, 하(何) 목사는 모(母)와 처(妻)가 불량하여 교회(教會) 건덕상(建德上) 불능하여 교회에서 불환영 우(又)난 축출함으로 교역을 못하였다. 우(又)는 자녀가 불량으로 유(由)하여 교역하지 못한다. 그런즉 “자기 가(家)를 선치(善治)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할지니, 대개 인(人)이 자기 가(家)를 치(治)할 줄 지(知)치 못하면 엿이 하나님 의 교회를 찰(察)하리오”(딤후전 3:4-5). 고어(古語)에 일국(一國)은 가치(可治)이나 처(妻)는 난치(難治)라 하였고, 가정은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될 수 있다. 신앙과 화평과 인내로 조직되면 천국이요 불평불만 시비와 증오 죄악으로 조직되면 지옥으로 화(化)하나니, 교역자 생활의 실패원인이 대부분 가정 불완전에 있나니 만일 교역자로서 사정에 무슨 고통 되는 사(事)가 유(有)하면 혹 부덕성(不德性)이 유(有)하면 교역의 성공은 고사하고 실패뿐만 아니라, 수치를 자취(自取)하는 것이니, 차라리 예(豫)히 자퇴하는 것이 가(可)한 줄로 생각하노라.

제2조 신령상 자격

1. 사명감

전술한 바와 같이 교역자는 먼저 무엇보다도 사명감이 철저하여야 할지니, 자기라는 자신이 밭서 사인(私人)이 아니요 공인(公人)이며, 지(地)에 속한 인(人)이 아니요 천(天)에 속한 인(人)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명예, 지위, 재산, 가정, 자기 생명까지 주의 십자가 제단에 헌(獻)하고 세상이 아(我)를 향하여 십자가에 피정(被釘)하고 아(我)가 세상을 향하여 역연(亦然) 하다 함과 같이(갈 6:14) 밭서 자신이라는 자기는 없어지고 천부(天父)의 의(意)에 일임(一任)하여 바리고 생(生)하여도 주를 위하여 생(生)하고 사(死)하여도 주를 위하여 사(死)하나니 그런고로 생(生)나 사(死)하나 우리가 주(主)의 것이로다(롬 14:8) 함과 같이 주의 소유물임을 알고 사명만 위하여 충성을 다하라는 차(此) 사명감을 끝까지 수(守)하여야 성공함이다. 차(此) 사명감을 망각할 때가 혹 유(有)함으로 교회 내에서나 동역자간에 불만한 사(事)가 유(有)하거나 생활상 곤란한 시(時)가 유(有)할 때 교역을 기각(棄却)하게 된다. 우(又)난 자기와 불합(不合)한 경우에는 언필칭 교역을 그만 둔다는 것을 발언한다. 최초로 사명감이 명백할 시(時)에 하나님과 맹약(盟約)의 기도로써 교역의 노선을 밝은 사실이라면 하여(何如)한 환경이던지 배약적(背約的) 언행(言行)을 용(用)치 안은 것이 사명감의 확실자일 것이다.

2. 성경지식

농학자(農學者)는 농리(農理)에 능하여야 하고, 법학자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야 함과 같이 교역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숙하여야 한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말이家主(家主)가 곡간에 서 신물(新物)과 구물(舊物)과를 출래(出來)함과 여(如)하니라”(마 13:52). 교역자는 의당(宜當)이 세상 과학적 지식에도 능한 동시에 더욱이 성경 지식과 진리에 능통하여야 하나니, 만일 의사가 상공사(商工事)에 미숙함은 문제가 아니로되, 의술이 불능하다면 밭서 의사의 자격을 실(失)하니라. 마찬가지로 교역자가 성경의 지식이 불충분하면 교역자의 자격을 애실(哀失)하는 것이다. 연고(緣故)로 교역자는 성경에 능숙하여 사용하는데 좌우로 날선 이검(利劍)이요 무구(武具)

인 것이다(히 4:12). 차(此)로서 악마와 죄악을 격퇴하고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은 신자를 구원하는 신(神)의 능력이다. 또한 영혼을 장성케 하는 생명약식이라. 양식이 부족하면 영양이 부족함과 같이 교역자의 성경지식이 부족하면 신자의 영양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고로 필연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부족의 감(感)이 유(有)할 시(時)에는 갹(更)히 신학대학을 할지니라.

3. 기도생활

성경을 교역자의 제일 무기라 하면 기도는 제2의 무기이다. 교역자의 모든 자격이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요긴한 기도생애가 약하면 영(靈)의 불건강(不健康)이다. 아모리 성경지식이 다(多)할지라도 기도가 무(無)하면 무능한 일종(一種) 과학지식에 불과하다. 성경은 기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나니, 석일(昔日) 이색열민(以色列民)이 르비듬 광야에서 아멜렉 인(人)과 회전(會戰)하여 대승리(大勝利)케 됨은 전술에나 기수(其數)에 재(在)한 것이 아이오 다만 산정(山頂)에서 도고(禱告)하는 모세의 수완에 재(在)하였나니, 거수(舉手)하면 승(勝)하고 하수(下手)하면 패(敗)하였다. 차(此)는 교역자의 좋은 교훈이니,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안이하면 실패하였나니, 교회의 성패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재(在)하니라.

4. 전도

교역자가 충분한 성경지식과 성서적 진실된 기도로서 무장준비가 되었다면 무장군인이 전선에 출전함과 같이 영적 전지(戰地)에 용진(勇進)하여야 할지니 차(此)는 즉 전도이다. 금일 교역자의 결함점(缺陷點)은 직접 전도를 등한시한다. 무장군인이 병영(兵營)에만 재(在)하고 출전을 불궁(不攄)한다면 군인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도를 전파하고 시(時)를 득(得)하던지 완전히 면려(勉勵)하고”(딤후 4:2), 기신자(既信者)로만 만족치 말고 구령운동에 열중하는 교역자는 필히 성공하고 기(其) 교회는 부흥 되나니라. 대개(大概) 무엇이든지 진보가 없으면 퇴보요, 생산이 없으면 소비(消費?)요 빈궁이다. 교회에 신신자(新信者)가 들어오지 않으면 퇴보감소이니, 교역자가

의당히 전신자(全信者)를 동원하여 갓이고 구령의 제 전선에 출전할 지니라.

제3조 개성상(個性上) 자격(資格)

1. 열심(熱心)

교역자의 제반 소질 중 제일 귀한 것은 열심이다. 연고(然故)로 열심은 모든 결점을 덮는 보자기다. 교역자가 다소 부족이 있을지라도 열심만 있으면 중인(衆人)의 감화와 동정을 득(得)하나니 열심은 제(諸) 사업을 성공하는 유일의 비방(秘方)이다.

영적사업은 자격자로서 열심가를 통하여 성취되나니, 에레미야의 심중에 불 빛는 것과 같은 동족애의 눈(淚)로서 화하였고, 백절불굴의 모세의 열심은 이색열(以色列)의 구속자의 위업을 현(現)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히...” 운운하였다. 교역사업에 열심은 절반 역할을 점하나니, 현하(現下) 교계에는 이론가보다 지식가보다 열심가를 요구하나니라.

2. 용단성(勇斷性)

목회자는 용단적 기세(氣勢)와 역량이 유(有)하여야 할지니, 용단이 무(無)한 열심은 정차기(停車機)가 무(無)한 급행차(急行車) 같으니, 잘못하면 탈선 전복되기 이(易)하니 열심과 용단은 불가리(不可離)의 사실이다. 목회사업은 영적과 정치적을 합하여 성립되나니, 영적 방면에는 자모(慈母)와 같이 목자와 친우(親友)와 같이 대할 수 있으나 정치적 방면에는 엄부(嚴父)와 사우(師友)와 같이 용단적 판별의 지량(知量)이 없으면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불의와 죄에 대하여 이단과 비진리에 대하여는 사자적(獅子的) 용맹이 아니면 아니 된다. 양을 치는 목자으게 이조(二條)의 지물(持物)이 유(有)하니 책(策)과 절(節)이다. 책(策)은 외적을 방어하며 순종치 않는 양을 징치(懲治)하는데 용(用)하고, 쟁발(鎗拔)은 실족한 양을 함지(陷地)에서 구출하며 안위하난대 용(用)하나니, 차(此)는 목회자가 지(持)할 이중(二種)의 성격을 지(指)함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인자(仁慈)와 엄위(嚴威)가 유(有)하니, 타락자으게는 엄위하시고, 순종자에게는 인자하시나니

라. 무질서, 무분별, 만사를 개호주의(皆好主義)로 교회를 혼탁케 하고 신자의 심령을 부패(腐敗)케 하나니라.

3. 진실성(眞實性)

진실무위(眞實無爲)는 인간 공통적 미덕임은 부지재론(不持再論)이 어니와 중인(衆人)의 사표(師表) 되는 목회자일수록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세간에는 종종 교역자의 표리(表裏)와 언어부동을 지평(指評)하는 자 불무(不無)하다. 개중에는 무근(無根)의 악평도 유(有)하겠으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도 불무(不無)하나니 소심(小心)할 사(事)이다. 제일은 복음 전하는데 진실할지니, 이(異) 복음을 전하거나 비진리로 훈인(訓人)하는 것과 자기의 체험이 무(無)한 것을 외식으로 전하는 것이니, 교훈에 간사(奸邪)치 말나는 것은 차의(此意)이다. 제이는 실생활에 진실이니, 전한 바 복음과 교(敎)한바 훈화(訓話)와 나의 실생활과 동변(同邊) 삼각형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삼은 대인교제상 진실이니, 언실(言實)이 부합하여야 하고 실행이 난(難)한 사(事)를 과장적으로 언론(言論)치 말며, 약속한 사(事)에는 필수불위(必守不違)할 것이오, 표리부동적(表裏不同的) 언동을 신(愼)할지니, 범사에 진실 무위적(無違的) 미덕(美德)을 나타내서 인(人)의 모범적이 될지니라.

4. 경건성(敬虔性)

경건은 문자 그대로 공경과 정성의 태도를 지(指)함이니, 말이 제자가 선생을 시좌(侍坐)함과 하인이 상인(上人)을 대하야 소심(小心)하는 태도이니, 전전궁궁히 근신하는 태도이다. 자유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자행(自行) 자지적(自止的) 방종의 망동이 다(多)한 금일에 일동 일정(一動一靜)과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에 경건로써 자기 인격을 보수(保守)하고 목회자의 위신을 추실(墜失)치 말지니라 “신(身)을 연습함은 유익이 소(小)하고, 오직 경건함은 제사(諸事)에 유익하니”(딤후 4:8).

5. 침묵성(沈默性)

혹자는 교역자의 침묵주의를 반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교역자 생활처럼 다사(多事) 다언(多言)의 생애는 무(無)한데, 무사한인(無事閑人)처럼 침묵으로서 자안자위(自安自慰)하는 것은 빈약한 자의 태도이다. 교역자로서 취할 태도가 안이라 한다. 그러나 천어(千語)의 발표보다 일시(一時)의 침묵이 인(人)을 감복(感服)케 하는 실례가 다(多)하니, 발표를 은이라고 하면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발표는 인격보고(人格寶庫)를 개방하는 열쇠요, 침묵은 인격의 금고를 봉수(封守)하는 쇠(鎖)이다. 그러나 침묵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덕이었던 것은 무용(無用)의 언(言)으로서 자신과 교회를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이다. 차(此)는 인간은 욕언(欲言)의 동물인 까닭이다. 우자다언(愚者多言)이요, 언다즉실(言多即失)이니 교역자는 의당(宜當)히 안착침묵(安着沈默) 감인복무(感人服務)할지니라.

6. 쾌활성(快活性)

상술한 바와 같이 교역자가 침묵무언주의로서 일종학자(一種學者)나 도사풍(道士風)으로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쾌활 명량한 활기상(活氣像)으로서 언제든지 만족하고 미소의 태도로서 여하한 난관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낙천적(樂天的) 쾌기상(快氣像)으로서 접근중인(接近衆人)에게 영감을 주며, 은혜의 진광(眞光)을 조(照)할지니 울문고통적(鬱悶苦痛的) 사기상(死氣像)은 인(人)에게 쾌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악감(反對惡感)을 매(買)키 이(易)하니, 전도자에게 금물(禁物)이다. 만일 선천적으로 특성이 유(有)한 인(人)이면 특히 차(此)가 약점인 줄 각지(覺知)하고 은혜로서 조절할 지니라.

7. 인내성(忍耐性)

인내 이자(二字)는 너무 인간에게 귀보(貴寶)가 되어서 논하기 이(易)하나 행하기 난(難)하고 당(當)하기 이(易)하나 승(勝)하는 자 희소(稀少)하니 차(此)는 인내라는 것이 성공의 모(母)요 귀한 까닭이다. 교역자는 인내 이자(二字)를 명심불망(銘心不忘)할지니, 차(此)는 교역자 사업은 종시일관(終始一貫)으로 고난의 사업인 까닭이다. 연고(然故)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我) 육체에 보충하노

니, 차(此)는 그 몸이 되신 교회를 위함이라”(골 1:24). 목회사업 곳 기독교 사업은 고난을 경(經)하여야만 결실하는 희생적 사업이 된 까닭이다.

8. 온겸성(溫謙性)

대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척(斥)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벧전 5:5). 사울 척(斥)하시고 다윗을 입(立)하였나니라. 온겸무적(溫謙無敵)이라. 목회자의 패배의 원인 중 7-8은 온겸(溫謙)의 덕성이 결핍한 까닭이다. 온화한 태양은 인(人)의 흉금(胸襟)을 개방케 하되 결렬한 한풍(寒風)은 인(人)으로 하여금 속신도주(束身逃走)케 하나니, 온겸한 교역자하에는 중인(衆人)이 집합(集合)하되 거만한 자에는 있던 인(人)도 산거(散去)하나니, 온겸의 미덕은 인(人)을 인착(引着)케 하는 무형(無形)한 탄력(彈力)이 되나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지(地)를 차지할 것이다”(마 5:5). 연고(然故)로 주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나를 배호라”(태 11:29).

신자도 이 성격을 갖어야 하지만은 목회자는 특히 이 성격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님 예수씨의 심성인 온유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우리들에게 학(學)하라 하셨다.

9. 근면성(勤勉性)

세상에 종종 전도자를 무사라태배(無事癡怠輩)라 칭한다. 심지어 유의유식인(遊衣遊食人)과 동양시(同樣視)한다. 이는 과도한 혹평이다. 그러나 전연 무근지설(無根之說)이라고 속평(速評)하기 곤란하다. 차(此)는 전도자라는 미명하(美名下)에 무사안일주의자(無事安逸主義者)와 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야망가(野望家)가 간혹(間或) 잡재(雜在)한 까닭이다. 일근천하(一勤天下) 무난사(無難事)니, 목회자는 의당히 영의 사업이나 육(肉)의 사(事)나 범어사(凡於事)에 근면(勤勉)으로서 중인(衆人)의 모범이 되며 소임사(所任事)에 성공할지니라. 주 예수의 일상생활기(日常生活記)를 보면, 근면으로 일관하였나니, 심지어(甚至於) 음식(飲食)하실 여가도 없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중

여가에는 장막조제(帳幕造製)하여 동행자의 여비까지 공당(供當)함을 보면 진정한 목회자의 모범이 되었나니라.

제4조 도덕상의 자격

1. 애심(愛心)

애(愛)의 이중(二種)이 있나니, 일(一)은 인간애며, 인류 공통적 애(愛)이다. 자기를 애(愛)하는 자를 애(愛)하고, 근접자(近接者)를 근(近)하나니, 부(父)가 자(子)를 애(愛)함과 부(夫)가 부(婦)를 애(愛)함을 지(指)함이니, 차(此)는 비단(非担) 인류뿐만 아니라, 심지어 금수(禽獸)까지라도 유(有)하나니, 곧 인류 공통적 애(愛)이다. 차(此)는 천래적(天來的) 애(愛)이니 인간애에서 초월하여 원수를 애(愛)하고 핍박자와 대적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진정애(眞正愛)이다. 인간애에 천래적 애(愛)를 가(加)하면 미려(美麗)한 목회자 주의(周衣)가 되나니,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문(問)하는 자가 유(有)하다면, 일언(一言)으로 답할 수 있나니, 곧 애심(愛心)이다. 애(愛)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나니, 애(愛)은 일반 교역자의 덕중 제일위(第一位)가 되는 까닭에 성서중에도 신망애(信望愛) 차(此) 삼자(三者)는 항상 재(在)할 것인데, 기중(其中)에 제일은 애(愛)라 하였나니라(고전 13:13).

2. 동정심(同情心)

동정심은 애심(愛心)의 발표(發表)니, 애자(哀者)를 애(哀)하고, 곡자(哭者)를 동곡(同哭)하고, 홀빈구고(恤貧救孤)와 애경상조(哀慶相助)는 동정(同情)의 표(表)니, 곧 자비심(慈悲心)이다. 목회자의 대상(對象)되는 신자들은 대개가 약자요, 빈자요, 병고자(病苦者)이다. 그들은 가장 동정 깊은 목회자를 요구하나니, 제사장과 같이 잉과(仍過)치 말고, 레위인과 같이 시약불견(視若不見)의 태도를 취하지 말지니, 그들은 무정한 교역자의 대표니라.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인휼(憐恤)히 녀여 사중구생(死中救生)해야 주었나니, 차(此)는 동정심이 심후(深厚)한 교역자의 모형(模形)이다(눅 10:30-37).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피등(被等)이 자비함을 수(受)할 것이요”(마 5:7).

3. 예의(禮儀)작법(作法)

인간은 예의적 동물이다. 예의가 무(無)하면 타 동물과 다름이 없다. 연고(然故)로 예의 정도 여하를 따라 문야(文野)의 별(別)이 유(有)하니 미개한 인(人)일수록 무례무법(無禮無法)하니, 아프리카인(人)으로 잘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세간(世間)에는 종종 기독교인을 지칭하여 무례배(無禮輩)라 운(云)한다. 개중에는 종교의식상 문제와 친구풍속상 문제로 인하여 오해점도 불무(不無)하겠으나 판명키 곤란한 사(事)도 유(有)하리니 기독교인 중에 예의상 훈련이 부족한 자 간유(間有)한 까닭이다. 예의작법은 대인교제상 우(又)는 윤리도덕상 불가무(不可無)의 품성이다. 요컨대 인격고하와 수양여부는 예의작법으로 인하여 표현되나니, 교역자 의당히 신자의 모본이 되며 실지(實地)로 가라쳐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내외간에 예의상 결함이 무(無)케하여 세인의 악평을 수(受)치 말지니라. 그런고로 애정에도 무례하면 죄가 되나니라.

제3장 목회자와 교회

제1절 교회의 의의(意義)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빼내인 한 영적집단의 체(體)이다. 교회를 이중(二種)으로 분(分)하면 일(一)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인(因)하여 3,000명이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죄 사함과 성령을 수(受)하여 수(水)와 성령으로 중생되어 신(神)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일(其日)에 (곧 오순절 일요일) 주에 성만찬과 주의 명(名)으로 기도와 찬송과 헌금 교제와 성경설교로 집회한 정통적 그리스도의 교회요, 이(二)는 이상 정통적 그리스도의 교회와 유사적(類似的)으로 혹감(或減) 혹가(或加) 혹변(或變)하여 비 그리스도의 교회요 교파적으로 헌법규칙으로 조직한 교회이다. 연즉(然則)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身)이요 신자는 그 지체인 동시에 일(一) 교회이다. 다(多) 지체(肢體)라고 하여서 다(多) 교회는 아니다. 교회란 명(名)도 그리스도께서 창시(創始)하시였다(마 16:16).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라고 하시였다. 바울은 말하기를 “차(此) 교회는 자기 혈(血)로 가(價)를 득(得)한 것이다”(행 20:28)라고 하였다. 얼마나 고귀하며 의의(意義)가 심장(深長)한 교회인가? 지상에 재(在)한 소천국이요 인간고해의 구원선이니 영혼의 도피성이요 생명광(生命光)의 등대(燈臺)이다.

제2절 교회 신경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는 원래 일(一)이다. 성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체(體)라고 하였고(엡 1:23; 골 1:24), 체(體)도 일(一)이요(엡 4:4)

하였으니 동시에 교회는 일(一)이다. 그러나 금일 기독교계를 고찰하면 시대를 따라 신학상 주견(神學上主見)이 각이(各異)와 선교상 관계와 정치상 상위(相違)로 인(因)하여 교파가 생(生)하였으며 기후(其後) 인(因)에서 인(因)이 생(生)하고 파(派)에서 파(派)가 생(生)하여 현금(現今)은 세계에 기독교파가 기백(幾百)으로 산(算)할 수 있으리 만치 다인다파(多因多派)가 열립(列立)하게 되었다. 그런즉 교회신경은 성서에서 탈선되고 인조(人造)적 교리와 신경을 신(信)하고 수(守)한다. 차(此)는 초대 신약교회의 신경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 동시에 사도들이 신봉(信奉)하던 그 신경과 그 교리와 그 신학을 성경 그대로 고수(固守)할지니라.

제3절 교회정치

제1조 교회인물 등용상(登用上) 주의

국가 정치가(國家政治家)가 정견공명자(政見共鳴者)를 구하고 사업가가 사업동지자를 구함과 같이 목회자가 목교상(牧敎上) 보좌자(補佐者)를 양성임용(養成任用)함이 의당한 사(事)이다. 모세의 격렬한 사무는 기형(其兄) 아론의 도움이 거대(巨大)하고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디모데의 조력(助力)이 불소(不少)하였다. 그러나 인물 등용에 대하여 심심고려(深甚考慮)와 엄중한 주의를 하여야 할지니라. 인물(人物) 임용여하(任用如何)에 의하여 교회운명이 좌우되는 사(事) 다(多)한 까닭이다.

국가의 충신을 요하고 가정에 현처(賢妻)를 요하는 것 같이 교회는 더욱이 무엇보다도 진실한 인물을 요하나니 기독교회 만반사위(萬般事爲)는 신앙중심이다. 인물 지식 지위 재산만 고려하여 채용함은 위험한 사(事)이다. 인물 지식 지위 재산에 신앙을 가(加)하면 금상첨화의 격이 되지만, 다만 자격만 보고 신앙여하는 불원(不願)한다면 차(此)는 목회자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까닭이다.

제2조 인물양성의 필요

사회에서 인재를 양성함은 후일을 비(備)함이요 교회에서 중견 인물을 양성함은 제이세 교역자를 배출하라함이다. 고(故)로 선량한 목회자 하(下)에는 수다한 헌신자가 생(生)하나니 모세 하(下)에서 후계자 여호수아, 갈넵이 출(出)하였고, 바울 사도 하(下)에 디모데, 디도, 빌네몬 등의 양재(良材)가 출(出)하였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는 차사(此事)에 등한시한다. 교역자가 단지 소임의 목회에만 만족할 것이 안이오, 교회에 중견인재를 다수 배양하여 구령전선에 출진(出陣)케 함은 최급무(最急務)이다. 대개 교역의 사업은 교역자가 단독력(單獨力)으로 성공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고로 주님 예수께서도 12사도를 택정(擇定)하시고 기후(其後) 70문도를 선립(選立)하신 것이다. 교역자가 다수(多數)한 보조자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성서중에서 신약시대 교회에 선배들의 후배양성하심을 모본(模本)해야 할지니라. 노련한 목사는 말이 노장(老將)이 작전술(作戰術)에 능하여 군대를 사방으로 자유 수송(自由輸送)함과 같이 남녀노소 신자로 하여금 성서적 지식과 신앙으로 교양훈련하여 구령운동심(救靈運動心)을 야기(惹起)케하여 교역사업에 불식활동(不息活動)케 할지니라. 전쟁에는 장교 일인(一人)의 고전(孤戰)을 승리(勝利)할 수 없나니 목회자는 교회로 하여금 구령(救靈)의 총사령부를 만들고 제직(諸職)으로 각부대장이 되게 하시고 신자로 하여금 군대를 삼아 좌충우돌케 할진데, 교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성경학교 신학교를 교회와 교회의 연합하여 설립(設立)할지니라.

제3조 조직교회(빌 1:1)

조직교회라 함은 성서적으로 그리스도인(신주信主, 회개, 고백, 침례, 막 16:16; 행 2:38)된 다수의 신도들과 신자 중에 독실하고 성서적 자격자, 집사(딤후전 3:9-13)와 성서적 자격자 장로(딤후전 3:1-7; 딤후 1:5-9)를 2인 이상씩(以上式) 각각 선택장립(選擇將立)하고, 목사는 장로와 동일한 직(職)인 목회자인고로 자격도 장로와 동일한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곧 신약교회 교리를 수양종료자(修養終了者)를 교회에서 시취고빙(試取考聘)해야 장립(將立)한 교회가 조직된 교회라고 한다. 만약 이상과 같이 집사, 장로, 목사를 선정치 않

고 집사만 선정한 교회는 조직이 아직 되지 못한 교회이다. 그러므로 성서적 조직 교회라야 최고 권위를 점유(占有)한다. 여차(如此)한 조직이 무(無)하면 목회 통치상 곤란이 불무(不無)하리다. 연즉(然則) 조직교회에서 치리상 조건이 유(有)할 때에는 의회(議會)를 개(開)하고, 성서중교리(聖書中敎理)로 치리(治理)하나니라.

1. 의회(議會/행 15:22상반)

의회는 교회 전체가 회집(會集)해야 장로 목사로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치리적 문제를 토의하고 성서적 교리대로 다수가결하여 그리스도의 체(體)된 교회를 성결케 보존하며 세상에 광명을 줄 수 있게 할지니라. 그런즉 열심으로 기도를 전 교회가 주야로 만이한 후에 성령의 성언(聖言)인 성서적 치리의 의회가 되는 동시에 교회의 최고 기관이 되나니라.

2. 직원회(職員會)

직원회는 교회의 일반직원이 회합하는 토의기관(討議機關)이다. 회원은 남녀 교역자인 동시에 목사, 장로, 집사, 전도부인들도 조직된 기관이다. 교회제반 사무를 토의 결정할 수 있으나 치리상 난문제는 전 교회제직이 회집하는 의회로 넘겨 처리하게 하나니라. 차(此) 제직회에서도 피차간 겸양(謙讓)의 태도로서 신앙상 결점이 없도록 화평리(和平裡)에서 감사와 희열(喜悅)로서 시종일관(始終一貫)할지며 유백난지사(維百難之事)라도 제직각자(諸職各者)가 은혜와 인애로써 하며 기도로써 하며 신중한 태도로써 하며 조급경동(操急輕動)은 금물이다. 비록 자신에 불리한 문제가 생(生)할지라도 평화의 심리(心理)와 안색(顔色)으로 신앙결함(信仰缺陷)이 없게 하며, 미소로서 회원 각자가 성스럽게 현량(賢良)하게 하난데 더욱이 목사 장로들은 회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지니라.

제4조 미조직교회(未組職教會)

교역자가 신개척지(新開拓地)에서도 교역(敎役)을 하고 미조직교회에서도 교역을 하게 되면 기조직교회(既組職教會)와 여(如)한 방법으

로 취급한다면, 실패하기 이(易)하나니, 교역자 자신이 제반 직원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안이 된다. 또 그러타고 해서 주의치 않고 단독 주의(單獨主義)로 경(傾)하면 되지 않습니다. 차(此)에 잘못하면 중인(衆人)의 감정과 의심을 매(買)기 쉬우니라. 우(又)는 그러타고 급히 교회를 조직하라는 생각으로 미숙된 신자로 직원으로 급용(急用)하지 말지니 이는 실패의 원인이 되나니라. 교역자도 제대로 훈련과 신학을 수료치 않고 미숙자도 그러하고 신자도 미숙자로 직분을 급용(急用)하면 그러하다. 미숙한 과실(果實)은 소화불량증이 생(生)하나니라. 미조직교회는 대개 약소(弱少)한 교회니 교역자가 대교회 담임을 원하는 정신하에 현임교회(現任教會)를 불만족하게 사(思)하기 쉬우나 오해요 금할 사(事)이다. 하(何) 교회던지 자초(自初)로 대교회(大教會)가 되지 아니 하고 자소지대(自少至大)케 되었나니 현재 교회에서 진충갈력(盡忠竭力)하여 조직교회로 성취시키여 대 교회를 형성하기 까지 노력할지니라.

제5조 지교회(支教會)

교역자가 본 교회에만 전력(專力)할 뿐만 아니라, 힘써 부근지대와 적당한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할지니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 영광인 것과 같이 교회가 지교회가 다(多)한 것은 주님 전(前)과 인간전(人間前)에 영광이 되나니, 교회의 직원이나 혹 신자 중에 유위(有爲)의 형제가 유(有)하면 매시순번인도(每時順番引導)케 하여 신자열심(信者熱心)도 배양(培養)케 하고 전도실현(傳道實現)도 되나니 일거양득(一舉兩得)의 격(格)으로 유익할지니라. 그러하야 본교회는 신약시대에 이방인 교회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본부가 되고, 전도 실습처가 되면, 얼마나 미사(美事)인가. 일년기처(一年幾處)에 지교회를 수차식 집회(數次式集會)하야 사경회(查經會) 특별집회를 하야 신앙 양성을 할지니라. 교역자가 본 교회에만 고수(固守)하지 말고, 간간(間間) 기차식(幾次式) 지교회 순회전도를 하면 신앙심이 활발하고, 신앙(信樣)도 쾌활하는 동시에 건강하여지고 천국운동이 활달(活達)할지니라.

제6조 신개척교회(新開拓教會)

신개척이라 함은 교회가 무(無)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의 신개간지로 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듯고 신앙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서적 확실한 신앙과 회개하는 자에게는 뱀디조(침례)를 시행하여 죄의 몸은 주(主)와 같이 죽고 장사하고 주(主)와 같이 다시 사는 십자가를 경유(經由)하는 침수례(浸水禮)를 통하여 중생의 은혜인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롬 6:4, 요 3:5, 행 2:38)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產出)시키어 교회를 설립함을 운(云)함이니, 황무지를 개간토(開墾土)하는 것과 같은 노고의 사(事)이다. 그런고로 다수한 교역자는 신개간(新開墾) 토지(土地) 파견을 불공(不肯)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감이 유(有)한 교역자라면 기설(既設) 교회에서 편안히 목회함보다 신개척지로 자원출전(自願出戰) 할지니라. 군인이 병영(兵營)에서 사무(事務)하는 것보다 전지(戰地)로 출진(出陣)함이 가(可)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생산하는 일은 더욱 귀하다. 죄인의 영혼이 하나둘씩 신앙하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사죄의 구원을 득(得)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經綸)중에 최귀(最貴)한 일이 아닐까요? 과연 귀한 사(事)이니 우리 교역자들은 신개척 전도가 흥미 있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당(當)한 곤란은 막심한 동시에 상은 막대할 것이다. 그런고로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용진(勇進)할지니라.

제4절 목회자와 교회 간에 수(守)할 도덕

제1조 목사가 교회에 대하여

1. 임지(任地)에 대하여

교역자의 임지는 농부의 농지요 어부의 어장과 같다. 임지 선택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일차 교회에 파송 우(又)난 청빙하면 교회가 환영하던지 배척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으게 소임(所任)케 하신 임지임을 각오하고 심중안착(深重安着)의 태도로서 수기연후(雖幾年後)에 이거(離居)할지라도 평생불리(平生不離)하고 진충갈력(盡忠竭)

力)하야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심지(心志)를 갖고 담대히邁進)할지니 유약비겁실망(幼弱卑怯失望)의 태도를 불시(不示)할지라.

2. 생활보수에 대하여

생활보수(生活報酬)에 대하여 다소(多少)를 언론(言論)치 말지니 세상에서 주의 종의 성직을 직업적으로 할까 공(恐)함이다. 수(雖) 부족감(不足感)이 유(有)할지라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면 천(天)이 조력(助力)하는 동시에 교회가 부흥되어, 지(地)에서도 인간들이 동정(同情)이 유(有)하리라. 교역자가 여기에서 실수하야 부임 초부터 신자 으게 인격의 권위와 성직의 위신과 신망(信望)을 상실하기 이(易)하니 소(小心)할지니라.

3. 가정생활에 대하여

교역자는 가정생활문제를 비밀에 부(附)할지니, 모 교역자는 자기 생활 이면(裡面)을 봉인직설(逢人直說)한다. 예(例)를 거(擧)하면 생활이 너무 곤란하야 교역키 난(難)하다던가 가족이 너무 많아 곤란(困難)하다던가 매월 부채를 진다던가 식량(?糧)이 절핍(絶乏)하였다던가 주택이 불편(不便)하다던가 기타 등등사(其他等等事)인데 혹은 성질 상 습관으로 하는 인(人)도 유(有)하고 우(又)는 언중(言中)에 동정을 구하는 의미 하에서 하는 인(人)도 있나니 대금사(大禁事)일 것이다. 차(此)는 신자로 하여금 동정은 고사하고 반감을 매(買)하기 이(易)하고 교역자가 생활문제만 전념하게 되는 줄 알면 위신이 저락(低落)되고 염증을 야기케 되나니라.

4. 신자와 재정관계를 금할 것

교역자는 신자와 재정관계를 절대로 하지 말지니라. 원래 재산은 난(亂)의 시작이니 물질이 거래하는 중에는 정의(情誼)가 소원(疎遠)하여지고 심하면 분쟁키 이(易)하니라. 특히 금전대차(金錢貸借)를 금할지니 일차동정(一次同情)으로 대여하였으면 회수할 생각을 하지 말지니 교역자가 신자에게 줄 것은 금은(金銀)이 안이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줄지니라. 그러나 구제의 동정은 금할 것은 아니니라.

5. 편애를 삼갈 것

교역자는 편애를 하지 말지니 일반 신자를 가족적으로 간주(看做)하고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취급할지니 잘못하면 편애로 경향(傾向)하기 이(易)하니 목사도 인간이라 자기를 친애(親愛)하는 자를 친근히 하고 혹 불친애하는 자나 배척하는 자를 혐기(厭棄)하면 차(此)가 곧 편애니,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가정 불평이 생(生)하고, 교역자가 신자를 편애하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교역자 배척의 동기가 된다. 이것이 교회 분란의 문제와 목회의 실패이다. 목회자는 필히 차(此) 편애의 정신에서 멀리 떠나 불원(不遠) 불근(不近) 불편(不偏) 불의(不倚) 무과(無過) 무급(無及)의 태도로서 원만무결(圓滿無缺)하여야 할지니라.

6. 약속을 견수(堅守)할 것

교역자의 신실성은 제일(第一) 약속이나 작정(作定)한 바를 견수(堅守)함에 재(在)하니,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맹약(盟約)을 신실(信實)히 수(守)하며, 개인 생애(生涯)에 대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요, 기타 개인에게나 공중 전(前)에 일차(一次) 약속한 것을 필히 수(守)할지니, 불연(不然)하면 식언자(食言者)라, 우(又)는 언실부동자(言實不動者)라는 악평을 면할 수 없을 것이요, 일차(一次) 여차(如此)한 비평으로 인(因)하여 신용을 실(失)하게 되면, 기차(其次)에는 설교에나 치리상 곤란(困難)이 될 것이니, 천언(千言)의 변명보다 일언(一言)을 실행함이 귀(貴)하니, 일보다 말이 앞서지 말고, 말보다 일이 앞서야 할지니라.

7. 내심(內心)의 비밀을 번설(煩說)치 말 것

교역자는 비밀의 인(人)이 되어야 한다. 진리상(眞理上)으로도 그러하고 자신의 비밀이나 <자신은 비밀이 없고 광명(光明)한 자면 진인(眞人)일 것이다.> 타인의 비밀이나 필히 근수(謹守)할지니, 현재 친

근한 인(人)이라도 자신 내용이나 타인 비밀을 번설(煩說)치 말지니, 인심은 조석변(朝夕變)이다. 금일 친근인(親近人)이 내일 적이 되는 세상이다. 후일 소정일(後日疎情日)에는 회수할 수 없다. 후회한들 무용(無用)이다. 금일까지 애제(愛弟)로 있던 가론 유다는 후일에 매주(買主)의 적(敵)이 됨을 주의하라. 이것이 인간의 변하기 쉬운 심리이니라. 그렇다고 너무 인(人)을 의심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역자의 심량(深量)은 심(深)하기 해저(海底)와 같고 고(高)하기 태산 같아야 한다. 인(人)이 가(可)히 기심(其心)을 촌탁(忖度)할 수 없으리 만치 심오(深奧)하여야 한다. 상수인(相手人)에게 초자기성(硝子器盛)한 물건처럼 경박(輕薄)해야 심장부(心臟部)를 투명적(透明的)으로 알 수 있게 되면 안 된다.

8. 신자의 비밀을 번설(煩說)치 말 것

교역자 자신에 대한 비밀만 수(守)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대한 비밀도 수(守)하난 동시에 구태히 남의 비밀을 알고고도 할 필요도 없고 알어도 번설(煩說)치 말지니 이것이 차(此)가 후일 화근(禍根)이 됨을 예상하라. 특히 목회자로서 주의 할 것은 차(此) 신자(信者)의 내용을 피(彼) 신자에게 설파(說破)하고, 피(彼) 신자의 사(事)를 차인(此人)에게 하면, 이것이 신자를 타락케 하는 원인이 되고, 교회(教會) 분요(紛擾)의 장본(張本)이 되나니 소심(小心)할 사(事)라. 예컨대 모 신자가 범죄 하였다던가, 모 신자가 타락했다던가, 모 가정에 불미사(不美事)가 유(有)하다던가, 등등인데, 휘예손핍적(毀譽損貶)의 언동(言動)의 상습(常習)은 대금물(大禁物)이니 신중히 할지니라.

9. 타교역자의 결점을 번설(煩說)치 말 것

교역자가 교역자의 단처(短處)를 신자들에게 번설치 말지니, 차(此)는 자기 결점을 피로(披露)함과 무이(無異)하니, 자회책(自悔策)이다. 지각이 있는 신자는 벌써 목사의 심경(心境)의 정부직(正不直)을 관찰하나니, 신자들으게 인(人)을 폄론(貶論)치 말라는 설교를 할 면목이 무할지니, 대개 폄론을 수(受)치 안하랴거던 너도 타인을 폄론치 말라는 진리를 심각(深覺)할지니, 출호이자 급 호이(出乎爾者及乎爾)

가 되는 법이다.

10. 물질에 대한 청렴심(清廉心)

범물질(凡物質)은 인간 필수품인 동시에 천부께서 우리 육신 보장을 위하여 허락하셨나니, 물질 그것이 죄가 안이다. 교역자도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물질이 있어야 할 것은 사실이다. 물질을 요구한다고 죄 되거나 불신성(不神聖)할 것은 없다. 그러나 정욕으로 탐심으로 허영으로 애착심으로 파렴치(破廉恥)하게 물질욕에만 탐착(貪着)되면 결국 재노(財奴)가 되고 말지니, 신령한 것을 사모할 여가(餘暇)가 무(無)할지니, 차(此)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사(兼事)치 못한 까닭이다. 속어(俗語)에 남자의 인격은 금전으로서 시험하고 여자의 인격은 음식으로서 시험할 수가 있다 한다. 세간(世間)에는 교역자도 물질에는 신용할 수 없다한다. 자기 생활은 수입에서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질박검소(質朴儉素)를 위주(爲主)하고 외상거래나 부채생활(負債生活)을 절대로 금할지니, 차라리 혐의소식(險衣小食)할지라도 수입지출에 합하도록 생활하여 타인에게 금전애착성(金錢愛着性)이나 물질에 대한 구구한 자태(姿態)를 물시(勿示)할지니라.

11. 스사로 점잔은 체 하지 말라

교역자가 자수침중(自守沈重)함은 심미(甚美)한 사(事)로되 일부러 인(人)에게 보이려고 가작적(假作的)으로 점잔을 현출(顯出)하려는 것은 가증(可憎)한 사(事)이다. “삼가 인(人)에게 보이려고 인전(人前)에서 의를 행치 말라. 연(然)하면 천(天)에 재(在)하신 이등부(爾等父)께 상급을 득(得)치 못하나니라”(태 6:1). 신사풍(紳士風)이나 도사풍(道師風)으로 가식(假飾)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무사기(率直無邪氣)한 자연태도(自然態度)가 귀(貴)하나니라.

12. 경거망동을 피할 것

교역자는 대인접어(對人接語)에나 강단설교에나 대소사물(大小事物) 경거망동(輕舉妄動)을 피할지니라. 우(又)난 기쁘다고 너무 작약(雀躍)하지 말고, 슬쁘다고 너무 낙망하지 말고, 돌발사(突發事)와 난

사(難事)를 당하였다고 조급(躁急) 경동(輕動)치 말고 용지약사적 침착(容止若思의沈着)한 태도로서 사물(事物)에 당(當)할지니라. 선천적으로 체소기박(體小氣薄)하야 경동적 특성(輕動的特性)이 유(有)한 인(人)은 특별히 주의하야 은혜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안이 되나니라.

13. 고집성(固執性)을 신(愼)할 것

교역자는 곧 장로와 목사인 감독이니 “대개 감독은 하나님의 가(家)를 사(司)한 자니 의당(宜當)히 책망이 무(無)하고 저의 고집대로 하지 안이하며”(딤후 1:7) 성서에 말씀하시었다. 그런즉 목회자는 성서적 진리와 죄 되는 사(事)외에는 자기 의견과 성질상 기타는 고집하지 말고 겸양의 미덕을 현(現)하여야 할 것이요. 무익한 변론이나 무용한 사물(事物)에 대하여 너무 주창(主唱)만 입(立)할야고 하고 타에게 양보의 정신이 무(無)함은 고집성(固執性)이니, 교회직원회나 신자취급상 중의(衆意)를 존중시(尊重視)하며, 단독주창(單獨主唱)이나 고집불통주의(固執不通主義)를 신지신지(愼之愼之)할지니라.

14. 여자교제에 대하여 신(愼)할 것

교역자는 목회생활에 대부분이 대인교제인 동시에 기중(其中)에는 여자교제가 다변(多煩)하게 되나니 목회생애에 곤란한 점이다. 그러타고 해서 아조 여자교제를 말라는 것은 안이다. 근신(謹愼)하라는 것이다. 불연즉불즉(不然則不則)한 의심을 받기 쉽고 우(又)난 마귀유희에 함(陷)하기 쉬운 것이다. 교역자의 실패가 거개차사(舉皆此事)에 부주의함에 재(在)하나니, 연고(緣故)로 차(此)에 대하여 가일층 주의하며 자수근신(自守謹愼)할지니라. 이하 기조사항(以下幾條事項)을 참고할지니라.

(1)여자로 부터 장구(長久)한 시간으로 담화(談話)하지 말 것.

(2)남자로서 여자를 압근(狎近)하지 안은 것이 호(好)함을 성서에 말하였으니, 여자를 너머 간가히 하지 말 것(고전 7:1).

(3)여자 독재(女子獨在)한데 혼자 심방치 말지니, 만일 꼭 가야할 시(時)에는 전도부인이나 타인과 동반(同伴)할 것.

(4)여자 처소(女子處所)에 빈번히 출입하지 말 것.

(5)여자가 소요사(所要事)로 내심(來尋)하거던 타인 입회하에 상수(相手)하고, 만일 타인을 기(忌)하는 사(事)면 실외서 상거(相距)가 멀게 대할 것.

(6)여자로부터 물품 접수(物品接受)에 대하여 신(愼)할 것. <혹 무의미한 선물이나 안지등사(按指等事)>.

(7)여자에게 안수 기도를 하지 말 것.

(8)여자로부터 식언농담(食言弄談)을 피할 것 (경건의 태도로).

(9)여자로부터 담화할 시(時)에는 상대여빈적(相對如賓의)으로 신중할 것.

(10)여자로부터 더불어 의부모나 의남매를 맺지 말 것. (주안에 형제자매인 것을 망각하지 말 것.)

15. 통찰력(洞察力)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니, 목사가 일방(一方)으로 는 부모에나 친우적(親友的)으로 현(顯)할 것이오, 일방으로는 성서적 진리를 명철(明哲)하게 수양(修養)과 신앙의 혜각(慧覺)을 풍부히 한 영계안목(靈界眼目)으로 교회내외에 엄밀한 사찰적 지능(查察的知能)으로 검판관(檢判官)의 태도로 현(顯)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고(何故)이나?

교회는 중인집회처(衆人集會處)요, 외래(外來)의 빈객(賓客)들과 신자 중에는 각종 인물이 잡재(雜在)하나니,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자기주의(自己主義) 이파(異派) 이단(異端) 사욕(私慾)을 책모(策謀)하라는 자 - 불무(不無)하리니, 예선적 기민활동(預先的機敏活動)하야 미연방지케 하여야 한다. 통찰력이 예리(銳利)하여야 신자양군(信者羊群)을 위하여 신(愼)하며 교회를 목(牧)할지니라. 약무통찰(若無洞察)이면 목회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과 같으니라.

제2조 교회가 목사에게 대하여

1. 신임목사에게 대하여

교회는 신임목사를 충심(忠心)으로 환영할지니, 일차 청빙을 수(受)하야 부임한 목사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 차(此)는 예컨대 불환영, 배

척, 비평 등이니, 교회로서 하지 못할 사(事)이다. 신견이방(新見吏房)을 부러 보지도 않고 퇴거(退去)시키는 거와 같이 지내보지도 않고 배척부터 하는 일은 가장 비열한 행동이다. 만당히 그리스도의 애(愛)로서 환(歡)하고 예(禮)로서 대접하고 만년 혹은 일 년을 지내보고 성서에 불능(不能)하고 제반사(諸般事)가 목회자의 부족이 있는 동시에 정식으로 제직회에서 가결한 후에 은근(隱根)히 권고(勸告)할 지언정 부임 초에 불환영 비평 배척 등은 하지 말지니라.

2. 후임 목사에게 전임목사의 말을 말 것

교회에서 신자 중에 상식이 부족한 인(人)은 후임 목사 뜻난데 전임 목사의 말을 만이 하는 것은 대(大) 실례이다. 예컨대 전임목사는 애(愛)가 다(多)하다, 설교를 잘한다, 심방을 근면(勤勉)히 한다는 등 사(等事)인데, 후임목사의 입장과 기(其) 심리를 괴롭게 하는 일ियो. 우(又)난 전임목사의 비평도 말지니 차(此)는 신임목사의 입장을 곤란케 함ियो, 인신(人身)을 훼손(毀損)하는 죄가 되나니라.

3. 목사생활 보수문제

교회는 자기 목사의 생활을 보장할지니, 목자가 양의 유(乳)를 음(飲)하고 고군(雇軍)이 고가(雇價)를 수(受)함이 의당(宜當)한 사(事)이니라. 목사의 보수에 대하여 일정한 표준이나 지정(指定)이 유(有)한 것이 아니라, 시기시기(時期時期)에 물가(物價)를 따라서 교회에서 최선의 진력(盡力)해야 목사의 가족 및 생활 상태를 참작(參酌)하여 생활문제로 인하여 성역에 지장이 무(無)하도록 지급(支給)할지니, 차(此)는 목사로 하여금 생활염려를 성(省)하지 않고 신령한 사(事)에만 전념케 함이니라.

4. 목사의 주택

교회는 목사를 위하여 주택을 준비할지니 주택은 가급적 청정편리(淸靜便利)함을 요(要)할지니, 차(此)는 주택은 목사의 안식처요, 위로처(慰勞處)가 되는 까닭이다. 목사가 거주하는 동안은 목사의 소유이니 교회집회소나 구락부(俱樂部)와 같이 사(思)하고 무상출입(無常出

入)을 하여 목사의 설교준비에나 공부와 연구에나 은밀 기도(祈禱)에나 안식(安息)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5. 목사 가족

목사가 가족을 대동함은 원리상(原理上)으로나 역사상(役事上)에 필요한 사(事)니, 교회는 목사 가족을 논평(論評)하거나 고(苦)롭게 하지 말지니라. 예컨대 부인(夫人)이 합당치 안타던가, 자녀가 불효(不孝)하다던가, 생활법이 불절(不節)이니, 가족이 너무 많타던가 등인데, 목사는 장로와 동일함으로 가족과 가정생활이 선치(善治)할 것이다. 약불선치(若不善治)하여서 가족이 불일(不一)해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면 목회 하는 목사의 생활은 자퇴(自退)하고 전도의 직(職)으로 각지(各地)로 독행(獨行)하며 개척교회를 설립할 것이며, 목사의 가족은 목사의 책임이요, 교회책임이 아니니, 논평(論評)할 필요와 사(私)이 무(無)하나니, 목사로 하여금 이중 고통을 당케함이다. 반(反)히 목사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으로 하며, 동정(同情)을 표하라.

6. 목사의 목회와 치리를 논평치 말 것

교회는 목치(牧治)를 논평하지 말지니, 설교법, 심방법, 치리법이 여차여피(如此如彼)하다는 등사(等事)인데, 차(此)는 목사로 하여금 교역의 활력(活力)을 감손(減損)케 하는 것이다. 목회 치리는 목사마다 다소간(多少間) 차이가 유(有)하나니, 교회는 그 목회 치리가 성서적이면 협조하여 줄 것이요, 만일 대차오(大差誤)가 유(有)하여 교회에 유훼손(有毀損)하는 경우에는 충고타협(忠告妥協)으로 교정할지니라. 대소사(大小事)를 막론하고 간섭(干涉) 혹(或) 논평함은 목회상 방해가 되나니라.

7. 목사로 하여금 재정(財政) 염려를 말게 할 것

교회는 목사로 하여금 교회 재정 염려를 하지 말게 할지니, 최적합한 재정위원을 두고 수집 사용(收集使用)케 할 것이요, 목사가 직접 재정 수지의 노(勞)를 생략(省略)해야 줄지니, 목사가 강단에서 심

일조와 헌금의 진리는 교수(敎授)할지언정, 목사가 직접 헌금 광고나 수집 강요나 사용 보고를 하지 안도록만 할지니, 차(此)는 목사로 하여금 신령한 사(事)에만 전무(專務)케 할지니라.

8. 목사에게 순종할 것

원리상으로 보면 목사는 목자요, 신자는 양이다. 목자가 양을 애(愛)하고 양이 순종함은 지선지미(至善至美)한 사(事)이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이 만나는 그곳에 성서적 교회가 현출(顯出)하리라. 목자가 선하되 양이 불순종하면 목회적 진리를 성취할 수 없고, 양은 선하되 목자가 패괴(悖怪)하면, 교회 부흥과 발전을 기(期)할 수 무(無)하리니, 교회와 목사간에 여차(如此)히 지정지밀(至精至密)한 오의(奧義)를 각지(覺知)하고, 목사는 교회를 수호하여 선한 목자가 되고, 교회는 목사에게 순종하여 선한 양군(羊群)이 될지니라.

9. 교회는 목사를 동정할 것

누차 전술한 바와 같이 교역자의 생애는 고난 노고 위험과 뇌심조사(惱心焦思)는 실로 누구의 말과 같이 심신을 마취(磨醉)하여 노(老)와 사(死)를 촉진(促進)케 한다 함같이 전도자의 이면에 고충(苦衷)의 사정(事情)은 당면(當面)한 전도자 외에는 도저히 이해 동정할 자 - 무(無)하나니, 침불안식무미(寢不安而食無味)의 생애이다. 교회는 차(此) 고충(苦衷)의 전사(戰士)를 위하여 고락을 같이 하며 위로와 심심(甚深)한 동정 할지니라.

10. 교회는 목사를 보좌할 것

교회 사업은 목사 일개인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나니, 말이 전장에 대장(大將) 일인(一人)으로 능당(能當)할 수 없고 기만기천(幾萬幾千)의 장병의 공동합세(共動合勢)로서 공격하여야 승리를 기할 수 있다. 발전되어 나아가는 교회는 목사의 노력보다 신자의 노력이 심다(甚多)하나니, 력(力)을 합(合)하여 대(大)능력을 현(顯)하나니, 신자마다 부(副) 목사(牧師)라는 각오를 갖이고 상호상애(相助相愛)할지니, 하(何) 교회는 무엇이던지 목사에게만 추위(推委)하고 일수일지(一手

一指)를 가(加)하지 않는다. 연즉(然則) 목사는 석전경우지격(石田耕牛之格)으로 난(難)하나니, 교회는 목사를 보좌할지니라.

제4장 목회자와 설교

제1절 설교의 의의

목회자와 설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나니 설교는 신(神)의 성지(聖旨)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기관이니 곧 진리의 발표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말이 가주(家主)가 고간(庫間)에서 신물(新物)과 구물(舊物)을 출래(出來)함과 여(如)하니라”(마 13:52). 차언(此言)은 설교의 의의를 비유로서 선(善)히 교시(敎示)하셨나니, 신령한 고간(庫間)된 친구약전서에 축재(縮載)되어 있는 진리를 적발(摘發)하여 현출(顯出)하는 것이니, 기(其) 목적이 구령(救靈)에 있고 언변에 있지 아니하니라.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其) 신자의 주신 은사 중에 최(最)요긴(要緊)한 은사(恩賜)이라. 목회 중에 이대요사(二大要事)가 유하니 설교와 심방이다. 심방은 수모(誰某)던지 할 수 있으나 설교는 인(人)을 따라 능불능(能不能)이 유(有)하나니,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설교에 능하여야 한다. 일주간 부즈런히 심방하여 다수인(多數人)을 모아노코 불명(不明)한 설교를 하면 청중이 실망하여 차(此) 집회에 래참(來參)을 불궁(不肯)하나니, 그런고로 설교는 심방보다도 귀하고 요긴(要緊)하니라. 사도 베드로의 일차(一次)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뺄디조(침례)를 수(受)하고 사죄함과 성령까지 수(受)해야 수(水)와 성령으로 중생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행 2:38-41). 목회자로서 설교에 미능(未能)하다면 최요 자격(最要資格)을 상실(喪失)함이다. 그런고로 설교에 능력 있는 목회자는 교회 발전과 성공이 유(有)할지니라.

제2절 설교연습

설교에는 이종(二種)의 비밀이 유(有)하나니, 일(一)은 성령의 은사요, 일(一)은 인간의 노력이다. 차(此) 이종사(二種事)는 불가상리(不可相離)니, 비록 성령의 은사는 있을지라도 인(人)의 기량(器量)과 노력이 부족하면 소기의 목적을 성취키 난(難)하고, 인(人)의 노력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무(無)하면 명정(鳴靜)의 불과(不過)하나니, 성령은 합당한 기(器)를 통하여 우선(尤善)한 역사를 현출(顯出)하나니라. 그런데 인간은 언제든지 불완전하니, 수양과 훈련과 연마가 무(無)하면 소기의 목적을 속성(速成)키 난(難)하다. 설교는 신앙상 성령의 역사가 연습으로서 속달하여 질 수 있다. 자고(自古)로 대설교가의 역사를 보면 비수양(非修養)으로 자연히 된 것이 안이오, 비상(非常)한 노력과 수양을 요(要)하였나니, 혹은 산야공방(山野空房) 등에서 체격(體格) 자세(姿態) 발성법(發聲法) 조직법(組織法) 등을 교정 연습키 위하여 대체경(大體鏡)을 괘(掛)하고 애써 연습함으로 호성적(好成績)을 수득(修得)한 실례도 있고 혹 하인(何人)은 자기 부인으게 부탁하여 설교방법의 오점(汚點)을 개량하는 등 하선배중(何先輩中) 설교의 명망(名望)이 있는 이에게 심판을 받아 구체적 연습을 완성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차(此)는 다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발표하는 호기(好器)가 되기 위하여 부단(不斷)의 노력을 하는 것이 선량(善良)한 사(事)이다. 혹자는 차(此) 연습설(練習說)을 대(大) 반대(反對)한다. 설교는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안이오, 단(但) 신(神)의 역사(役事)이다. 하나님께서 단장고골(短杖枯骨)을 갖고이고도 역사하셨나니, 여하(如何)한 인(人)이라도 할 수 있다. 무엇 연습이니 수양이니 하여 인위적(人爲的) 가작(假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설교 연습자는 신앙과 성서 지식이 부족하고 단지(但只) 연습만 능숙히 하여 방법에만 지(止)한다면 그러할지라도 설교자가 하면 목회자인데 신학교에 3,4년간 성서를 전문적으로 학득(學得)하여 성서지식이 풍부하고 신앙이 독실하고 기도 생애로 신령한 능력이 충만한 자로서 연습을 성실히 하여 영능(靈能)과 설법(說法)이 구비하여 성령의 감화가 비범 초과(非凡超過)하면 위대한 설교가인 동시에 다수 심령에 막대한 은혜를 주면 진리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습이 필요할 것이니라.

제3절 설교자의 주의

제1조 등단전(登壇前)

설교는 보통 연설과는 상이(相異)하니 연설은 인(人)의 언변(言辯)이 재(在)하되 설교는 능란(能爛)한 언변으로도 못하고 능력을 겸하여야만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설교자가 등단하기 전에 능력의 원천되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서 주의 능력을 겸비하여야 하고 설교자는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안이고 천부(天父)의 성지(聖旨)를 전달하는 것이니, 기(其) 문제는 기도 중 성령의 감화로 천부의 성지(聖旨)인 성서의 진리를 설도(說導)함이다. 그런즉 설교 준비 시간을 요(要)하고 있다.

제2조 등단시(登壇時)

일반 청중의 시선(視線)은 설교자의 등단 태도에 집중하나니 경건, 겸비의 태도로서 중족신보(重足愼步)로 추진(趨進)하되 정각 5분전에 등단할 것이요, 등단 후에도 잠시 묵도한 후에 사회자의 좌편(左便)에 좌(坐)할지니라. 정좌(定坐)한 후에는 너무 경목괴안(驚目怪顔)으로서 청중을 환시(環視)하지 말고 태연자약적(泰然自若的) 평안(平顔)으로 정시(正視)할지니라.

제3조 성서낭독(聖書朗讀)

성서봉독은 인(人)의 국왕, 대통령의 칙어(勅語)를 봉독(奉讀)함과 같으니, 경외적(敬畏的) 태도(態度)로서 양수(兩手)로 공집(共執)하고 정확 명랑한 어조로서 신중히 문자 그대로 봉독할 것이요, 봉독을 필(畢)한 후에는 집회(集會)를 주께로 위임하는 뜻으로 잠시 기도로서 시작하되 설교 전에 무용(無用)의 수사(修辭)나 인사 잡담으로서 귀한 시간을 낭비치 말고 자신의 위신을 추실(墜失)치 말지니라. 혹은 인(或人)은 청중의 주의를 끌야는 의미로서 농담소어(弄談小語)로 재담적(才談的)으로 하나니, 차(此)는 주님의 전(前)과 인(人)의 전(前)에 실례요, 설교 전체의 위신을 잃게 되니, 차(此)에 대하여 조심할지니

라.

제4조 동작(動作)

설교자는 신(神)의 대언자니라. 신성불가침적 태도로서 신중하면서도 쾌활엄위(快活嚴威)를 요(要)할지니, 너무 부경활극적(浮輕活劇的)으로 하지 말고, 난잡(亂雜)한 극인(劇人)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온겸(溫謙)하면서도 위의(威儀)있게 현(現)하여야 한다. 그러타고 너무 고정적(固定的)으로 불요부동(不撓不動)의 태도도 불가하니,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설교성질(說敎性質)과 언변의의(言辯意義)에 수(隨)하여 동작할지니라. 설교자의 동작 여하는 설교 성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5조 어법(語法)

용어(用語)는 최고(最高) 경어(敬語)를 사용할지니, 용어 여하는 설교 위신에 지대한 영향을 급(及)하나니, 하등어(下等語)나 잡어(雜語)나 농어(弄語)나 무식(無識)한 문자사용은 설교를 망(亡)치고 인격을 손실케 하고 청중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事)이다. 대개 인(人)은 기(其) 언어 여하를 보아서 유무식(有無識)과 인격고하를 묵(默)하나니라. 어조는 너무 급속치도 말고 태완(太緩)하지도 말고 경쾌명랑(輕快明朗)에다가 정중권위(正重權威)를 가(加)하여 청중심벽(聽衆心壁) 부딪치도록 할 것이며, 빙상(氷上)에 박(朴)을 미는 것과 같이 내려 밀지도 말고 극장(劇場)에 변사(辯士)와 같이 괴이(怪異)한 어조도 말고 지완장단(遲緩長短)이 기의(其宜)에 합하도록 할지니라. 어태(語態)는 기(其) 설교어의(說敎語義)를 수(隨)하여 자유변화(自由變化)할지니, 희비시(喜悲時)에는 희비적으로, 죄를 공격시(攻擊時)에는 맹사(猛獅)와 같이 우(又)는 추상백인(秋霜白刃)과 같이 하고, 권어(勸語)에는 가장 친애(親愛)한 부형(父兄)과 같이 어성(語聲)을 저하(低下)하여 자비적(慈悲的) 태도(態度)로 권면적(勸勉的) 어태(語態)를 취할지니, 권면사(勸勉辭)에 공격태도(攻擊態度)와 공격사(攻擊辭)에 권면태(勸勉態)와 희사(喜事)에 비태(悲態)는 다 실격(失格)이다. 특히 차사(此事)에 불망유의(不忘留意)할지며 어종(語鍾)은 최평이(最平易)한 통

속적인 어(語)를 사용해야 청중일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지니라.

제6조 용성(用聲)

설교에는 용성조절(用聲調節)이 최(最) 긴급(緊要)한 사(事)이니 용성법을 부지(不知)하고는 설교가가 되기 난(難)하다. 용성법을 지(知)하면 기십차(幾十次) 설교를 계속할지라도 거성(去聲)하지 않는다. 용성법을 미지(未知)하는 소인(素人) 설교자(說教者)는 설교 일차를 필하기 전에 즉시 거성(去聲)되야 중도에 실패되나니, 수(誰)던지 초시(初時) 설교(說教)를 변변히 올케맞인 시(時)가 없난 것을 경험한다.

(1)설교 시작시와 종말시(終末時)는 온아(溫雅)한 기세(氣勢)와 저평(低平)한 성(聲)으로 시종(始終)할 것이요, 고성(高聲)이나 공격성(攻擊聲)을 피할 것.

(2)무변(無變)의 일률적(一律的) 용성(用聲)을 피할지니, 예컨데 언제던지 고성(高聲)이나 언제던지 저성(低聲)으로 하지 말고 어의(語意)를 따라서 고저(高低)의 음파(音波)가 명백(明白)할 것.

(3)예화나 역사 소개 시(時)에는 최(最) 평범한 담화적(談話的)으로 용성(用聲)할 것.

(4)죄악과 인류행위의 불의를 공격할 시(時)에는 질풍 신뢰적(疾風迅雷的) 열화성(熱火聲)으로 하되 성음(聲音)을 액기는 동시에 준엄한 선고식(宣告式)으로 할 것.

(5)비에 동정시(悲哀同情時)에는 약읍약애적(若泣若哀的) 표정(表情)의 성음(聲音)으로 할 것.

제7조 자태(姿態)

(1)최자신(最自信)있는 용착(蓉着) 자연적(自然的) 자태(姿態)와 부동(不動) 정기적(正氣的) 안색(顔色)을 지(持)하고 서기(舒氣) 안심(安心)의 자태(姿態)를 시(示)할 것.

(2)담대하야 여하한 사정과 청중동태여하(聽衆動態如何)를 불구하고 태연자약(泰然自若) 매진(邁進)할 수 있는 기세력량(氣勢力量)을 지(持)할 것.

(3)시선(視線)은 청중을 안중(眼中)에 넣고 자유 순시(自由巡視)하되 청중이 백천(百千) 명이라도 자기(自己) 안중(眼中)에 집어넣을 수 있는 영안을 지(持)하고 교단(敎壇)만 하시(下視)하거나 천정(天井)만 망견(望見)하거나 일편(一便)만 편시(偏視)하거나 창외(窓外)만 내다보는 것은 금사(禁事)이다.

(4)기량(氣量)이 능히 청중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靈)의 역량이 있어야 할지니 발서 청중을 견(見)하고 기약(氣弱) 전율(戰慄) 안적(顔赤) 압굴(壓屈) 등의 태도는 대개 실패하나니라.

(5)등단한 설교자는 사인(私人)이 아니라, 천(天)의 전권대사(全權大使)로서 신인간(神人間)에 입(立)하여 담판시(談判時)며 만왕의 왕의 칙사(勅使)로 칙지(勅旨)를 전달자(傳達者)의 자격이라는 우월감(優越感)이 (영육간)에 있어야 하나니라.

제8조 정신(情神)

(1)설교의 정신은 구령(救靈)에 재(在)하고 변설(辯說)에 재(在)치 아니하나니라.

(2)설교 시(時)를 이용하여 인신공격을 하지 말 것. 미국(美國) 모인(某人)이 설교 시(時)에 인신공격하다가 명예훼손죄에 처벌하였다.

(3)설교 시(時)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정비밀을 폭로치 말 것.

(4)설교 시(時)를 이용하여 자기인격이나 가정사(家庭事)를 과장(誇張)하지 말 것. 예컨대 자기 지위나 처자(妻子)들을 자랑 등사(等事)이다.

(5)설교 시(時)를 이용하여 사감(私感)무리를 하지 말지니, 신성한 강단을 오손(汚損) 우(牛)난 사용(私用)의 죄가 되나니라.

(6)설교 시(時)를 이용하여 자기 목적사(目的事)를 달성하라는 야망을 품지 말 것.

(7)설교 시(時)를 이용하여 자기 사상발표나 인심 선동(人心煽動)을 하지 말 것.

제9조 시간(時間)

(1)설교 시간은 태장(太長)하지 말 것. 기신자(既信者)는 염증(厭症)

을 야기(惹起)케 하며, 미신자(未信者)는 래회열(來會熱)을 감손(減損)케 하나니라.

(2)청중의 심리에 목사의 설교가 너무 장(長)해야 염증만 나는 것보다 금번 설교는 좀 더 계속하였더라면 하는 것이 우승(尤勝)하나니라.

(3)설교는 장시간 언다(言多)함에 재(在)하지 않고 권능인 성서 진리에 재(在)하나니, 서투른 공인(工人)이 다시간(多時間)을 요(要)함과 같이 서투른 사람이 횡설수설(橫說豎說)로 장시간을 허비하나니 주의 할 사(事)니라.

(4)목회설교는 대략 30분이 적합(適合)하나니라.

제10조 화용법(話用法)

(1)설교 시(時) 적합한 예화를 삽입하여 진리를 명확하게 함은 유익한 사(事)이니라.

(2)청중의 심리를 상하게 하는 해괴불신성(駭怪不神聖)한 예화는 불용할지니라.

(3)예화를 너무 다입(多入)하지 말지니, 차(此)는 설교위신을 실(失)하고 심하면 설교가 아니라 예화회(例話會)가 되고 마나니 일차(一次) 설교에 1,2예화가 합당하나니라.

(4)너무 장(長)한 예(例)로서 장시간을 허비치 말지니, 차(此)는 예화가 주격(主格)이 되고 설교는賓格(賓格)이 되나니라.

(5)청중의 환심(歡心)을 매(買)하라는 목적으로 너무 가소화(可笑話)를 다용(多用)치 말지니, 중인(衆人)의 염증(厭症)을 야기(惹起)하고 별 유익이 무(無)하나니라.

제4절 설교의 종류

제1조 본문설교(本文說教)

차(此) 본문설교는 성서본문에 근거를 두고 자초지종(自初至終)으로 본문의의(本文意義)에서 이탈치 말지니, 이하(以下) 양식(兩式)으로 진행하나니라.

(1) 강의식(講義式)이니, 본문장절(本文章節)을 대소지(大小旨)에 분열(分列)한 후에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법이니, 실패가 적고 안전한 법이나 성경지식에 능통(能通)하여야 할 것이요, 성경지식을 학득(學得)할 겸 양호(良好)한 법이나 능동적 활력이 소(小)할 것이다.

(2) 해석설교니, 초신자 및 미신자에게는 유익이 적고 실패와 조직상 곤란(困難)은 소(少)하나 고정적(固定的)인 동시에 구속(拘束)에 근(近)하니, 간혹(間或) 사용함은 호(好)하나 항용(恒用)할 필요는 무(無)하나니라.

제2조 제목설교

일정(一定)한 문제를 정한 후에 기(其) 문제에 적당한 제목을 신구 약성서에서 발출(拔出)하여 인조적(引照的)으로 진행하니, 설교의 중심사상이 문제에서 이탈치 안토록 할지니라. 차(此)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통용법(通用法)이니, 기신자와 초신자으게 공(共)히 유익하나니라.

제3조 역사설교(모형적설교)

성경 중에 유익한 역사를 열거(列舉)하여 모형적(模型的) 교훈적으로 진행하니, 본문 제목 겸용 설교로서 최유익(最有益)하니, 기신자 초신자에게 개호(皆好)하나 초신자으게 우익(尤益)하니라. 그러나 역사에 명백하여야 하고 모형교훈(模型教訓)에 탈선(脫線)되지 안토록 주의하라.

제5절 설교의 방식(說教方式)

제1조 낭독식(朗讀式)

낭독 설교는 하종류(何種類)의 설교를 막론하고 별지(別紙)에 기입(記入)하여 청중 앞에 낭독하는 방식이니, 별(別) 실수(失手)없음과 시간(時間) 경제상(經濟上) 유익하고, 매일 갱용상(更用上) 필요하나 청중으게는 유익이 소(少)함으로 다용(多用)하지 않고 식전(式典) 후

(或) 축사(祝辭) 조사(弔辭) 등에 다용(多用)하나니라.

제2조 암송식(暗誦式)

차(此) 암송식(暗誦式)은 낭독식과 정반대로 설교를 작성하여 가지고 능숙(能熟)히 암송하여 청중 전(前)에 암송함으로 진행하나니, 도중(途中)에 망각(忘却)할 염려가 유(有)하고 변화적 운동이 무(無)할뿐 아니라 청중에 유익이 무(無)함으로 다용치 아니 하나니라.

제3조 복고설교(腹稿說教)

복고 설교는 낭독 설교를 지상(紙上)에 기록함과 같이 설교 전부를 심중(心中)에 작성(作成) 기억(記憶)하여 순차(順次) 진행(進行)하나니, 최유익(最有益)하며, 보통으로 다용하는 것이니라.

제6절 집회별 설교 성질(性質)

제1조 옥내집회(屋內集會)

1. 특별집회설교

(1)목적: 특별집회 설교 목적은 인(人)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성서적 실천실행으로 신성(神聖)케 함에 재(在)하나니, 정신은 죄악을 공격하고, 신앙고취(信仰鼓吹)함과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명시(明示)하는 동시에 성서 중 신약시대에 신앙교리를 강조할지니라.

(2)시간: 40분으로 50분이 적당하니, 기(其) 이상은 초과치 말지니, 장설교(長說教)는 선망후실(先忘後失)의 염(念)이 무(無)치 아니함이니라.

(3)설교 후에는 회중의 초대(招待)를 청(請)할 것은 자유로 은혜 받은 자 중에서 회개자복 간증회를 간단히 함도 무방(無妨) 함.

2. 예배설교

(1)목적: 신자로 하여금 영적 향상케 함이 목적이니, 교훈 권위(勸慰) 경계(警戒) 향상(向上) 등으로 진행하나니, 목회설교에 무시(無時)

로 죄를 공격함은 신중(愼重)할지니라.

(2)시간은 30분 좌우가 적당하니, 목회설교에 장야(長惹)하면 실격(失格)이니라. 우(又) 집회열(集會熱)을 감퇴(減退)하는 염(念)이 유(有)하나니라.

(3)설교 후에 경우에 의(依)하여 회중에 예배시마다 결석치 안코 잘 출석하는 남녀(男女)에게 초청하여 신(神)의 존재와 예수씨가 신(神)의 자(子)인 것과 인류를 죄(罪) 구속(救贖)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사이부활(死而復活)하신 그리스도로 신앙자으게 뺨찌조(침례)를 받아 수(水)와 신령(神靈)으로 중생의 은혜를 받도록 권론(勸論)할지니라.

3. 구령설교(救靈說敎)

(1)목적: 미신자로 하여금 결심 신앙(決心信仰)케 함에 재(在)하니, 평이(平易)한 미신자(未信者)를 향한 설교로서 속죄구령(贖罪救靈)의 도(道)를 명시(明示)할지니, 구령회(救靈會)에 신자설교나 부흥회설교는 실격이니라.

(2)시간은 30분으로 40분이 적당하니, 장(長)하면 전설교(前說敎)를 무력(無力)케 하고 도중퇴장(途中退場)과 결심열(決心熱)을 감손(減損)케 하나니, 당시 용지(當時用知)할지니라.

(3)설교 후에 결심할 기회를 여(與)할지니, 거수기명(舉手記名)할지니라.

4. 기도회(祈禱會) 설교(說敎)

(1)목적: 신자로 하여금 영적 지성소로 소개하는 시간인 동시에 미신적인 기도를 피하고, 우(又)는 외식적 기도를 피하도록하고 신앙과 회개와 자복이 주요 목적이니라.

(2)시간은 15분으로 내지(乃至) 20분이니, 차(此) 시간은 설교자의 시간이 아니라, 일반 신자의 도고(禱告)시간이니, 설교로서 기도 시간을 탈(奪)치 말지니, 부흥설교 예배설교는 실격이니라.

(3)설교 후에 각각 기도하되, 타교파에서와 같이 일시에 각자 기도로 하지 말고, 개인 개인 윤회차례(輪回次例)로 기도하도록 하며, 될 수 있난데로 성음(聲音)과 어조(語調)가 경건지중(敬虔至重)하게 하고

고성논쟁적(高聲論爭的)이나 사신주송문(私神呪誦文)과 같이 하지 말지니라.

제2조 옥외집회(屋外集會)

1. 노방설교(路傍說教)

(1)목적: 복음선전(福音宣傳)에 재(在)하니, 기독교 진리 되는 속죄 구령(贖罪救靈)의 도(道)를 명시(明示)할지니라.

(2)시간은 10분으로 15분이 적당한즉 과즉실패(過則失敗)니라.

(3)설교 후에는 거수결심(舉手決心)케 하고 주소 성명을 기입하고 교회 출석을 권면할지니라.

2. 야외설교(野外說教)

(1)목적: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이니, 자연계를 통하여 조물주를 지시할 것.

(2)시간은 20분으로 30분이니 예배회(禮拜會)나 성질이 무이(無異)하나니라.

(3)설교 후에 감상담(感想談)이나 특별찬송으로 성도들의 자연계 쾌락(快樂)을 형(亨)할지니라.

제7절 특별설교(特別說教)

제1조 장례식(葬禮式) 설교(說教)

(1)목적: 장례식 설교 목적은 인생과 사망에 대한 관계와 유족을 위안(慰安)함과 내빈에게 인생관을 교시(敎示)함에 재(在)하나니라.

(2)시간: 장례식 설교는 간단하여야 하고, 장망(長慕)함은 실격(失格)이니 10분 좌우가 적합하니라.

(3)설교기도 후에는 식(式)을 필(畢)하고 출관 하관(出棺下棺)할 것.

제2조 혼례식(婚禮式) 설교(說教)

(1)목적: 결혼의 신성(神聖)과 진리와 행복을 지적(指摘)하며 인간

대사(人間大事)의 경하(慶賀)를 축복하나니라.

(2)시간: 10분 이내로 할 것. 장(長)하면 실례이다.

(3)설교 기도 후에는 식을 거행할지니라.

제3조 축하회(祝賀會) 설교(說敎)

(1)목적: 설교목적은 축하의 의(意)에서 이탈(離脫)치 말지니라.

(2)시간: 10분 이내가 적당하니 태장(太長)하면 전후순서에 지장이 되나니 실격치 말(지)니라.

(3)설교 후에는 사회자으게 일임(一任)할지니라.

제5장 목회자와 심방

제1절 심방의 의의

심방(尋訪)은 목회상 불가결(不可缺)의 요건(要件)이 되나니 심방은 영적사교(靈的社交)이다. 목회자가 기신자를 심방하여 영적 생애를 향상케 하며 병자를 방문하며 빈약자(貧弱者)를 심방하여 동정하며 낙심자를 권면(勸勉)하며 비애자(悲哀者)를 위로함은 실로 신성무비(神性無比)할 사(事)니 주님께서 사마리아 심방으로 위시(爲始)해야 발네스탄 전도(全道)를 방방곡곡(方方谷谷)이 심방하여 병약자, 비애자를 위문하며 빈자(貧者)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방 각처로 심방하실 때에 음식(飮食)의 가(暇)도 무(無)하였고 사도 바울은 구아대륙(歐亞大陸)을 3,4회나 순회심방(巡廻尋訪)하여 복음을 전하며 피등(彼等)의 신앙을 견고케 하였나니, “이등(爾等)에게 하사(何事)던지 유익하면 일언(一言)도 은(隱)함이 무(無)해야 혹 여러 사람 앞에서나 각가(各家)에 서나 이등(爾等)을 교시(敎示)하며 아(我)가 3년이나 루(淚)를 류(流)하면서 이등(爾等)을 권(勸)하던 것을 기억(記憶)하라”(행 20:20-31). 이는 목회자의 가장 좋은 모본(模本)이다. 목회의 성공은 부단(不斷)의 노력으로 부지런히 심방하는대 있다. 심방에 나태(懶怠)한 것은 농부가 하절(夏節)에 전(田)을 경(耕)하지 않고 황무(荒蕪)케 함과 무이(無異)하니 추수를 망(望)하지 말지니라. 여차(如此)히 목회자가 심방을 등한시(等閒視)하면 신자의 심령이 황무(荒蕪)케 될지니라.

제2절 심방의 필요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심방이 목회성공에 비결(秘訣)이 됨은 재론(再論)할 필요도 없거니와 혹자(或者)는 심방을 반대하여 여차(如

此)히 언(言)한다. 일(一)은 목사가 가가호호로 도라다니면서 심방하는 것은 위신상(威信上) 손(損)이 된다. 이(二)는 심방은 신자의 신앙을 자립적이 못되고 의뢰적(依賴的)이 되어서 유치(幼稚)케 만든다. 삼(三)은 심방은 시간낭비이니 기(其) 시간에 타사(他事)를 함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 오해(大誤解)이다. 목사가 심방에 나태(懶怠)하거나 차(此)를 무시하게 되면 실패의 초운(初運)이니, 차(此)는 신자는 웅변(雄辯)의 설교자보다 친절하고 열심 있는 심방자를 우호(友好)하는 까닭이다. 목사의 성공사(成功史)를 보면, 설교에 능한 자보다 심방에 근(勤)한 자(者) 다(多)하다. 양자(兩者)에 구능(俱能)하면 차(此)는 금상첨화격(錦上添花格)이니, 완전한 목사의 자격을 완성(完成)하나니라. 그런고로 설교는 구(口)요, 심방은 목(目)이니, 목(目)이 무(無)하여도 불구자(不具者)요, 목(目)이 유(有)하고 구(口)가 무(無)하여도 불구자이다. 목구(目口)가 구존(俱存)한 자(者)를 완전한 인(人)이라 하나니라.

제3절 심방 도수 급 시간(尋訪度數及時間)

제1조 심방 도수

목회심방은 너무 자조하여도 안이 되고 너무 드물게 하여도 안이 됩니다.

(1)너무 자주하면,

갑(甲). 목회자의 자신이 영적 수양 시간이 너무 부족함이요,

을(乙). 신자 신앙이 너무 의뢰적이요, 자립적이 못되고,

병(丙). 심방이 무력하게 되고 의례적(儀禮的)으로 사(思)하기 이(易)하나니라.

정(丁). 신자가 반(反)이 염증을 내기 이(易)하나니라.

(2)너무 드물게 하면,

갑(甲). 목회자가 나태하다는 평을 듣기 이(易)하고,

을(乙). 신자의 영적 지도가 무력하게 되기 이(易)하고,

병(丙). 구도자(求道者)에게 권도(勸道)의 기회가 일(逸)하기 이(易)하고,

정(丁). 결심자(決心者)에게도 수습력(收拾力)을 일(逸)하게 되나니라.

(3)신자별(信者別)에 의한 심방 도수

갑(甲). 신자 심방은 일 개월에 2회 매가(每家)에 <단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도 유(有)함>.

을(乙). 구도자 심방은 일 개월에 2회 내지(乃至) 4회.

병(丙). 결심자 심방은 일 개월에 4회 내지 6회 <단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

제2조 심방 시간

목회심방은 일정할 수 없으나 오전은 서재 공부(書齋工夫)에 주력(注力)하면 심방은 자연 오후가 될지니, 신자별(信者別)에 의한 심방 시간은 하(下)와 여(如)하나니라.

(1)신자 심방 자(自) 오후(自午後) 2시 지(至) 5시

(2)구도자 심방은 오후 2시 지(至) 4시

(3)결심자 심방은 자(自) 오후 4시 지(至) 5시

이상은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도 유(有)함.

제4절 심방 방법

제1조 신자 심방

1. 가정 심방

(1)목사가 심방코자 할 때에 동역자(同役者)나 <부임(副任) 혹 전도 부인(傳道婦人)> 신자를 동반(同伴)함이 호(好)하나니라.

(2)하가(何家)에 입(入)하던지 위선(爲先) 주인을 청(請)하여 내방(來訪)의 의(意)를 예통(豫通)한 후에 해가(該家)로 하여금 다소(多少) 준비한 후에 입(入)할 것이요 직입(直入)치 말지니, 이는 그 가정으로

하야금 경동미안(驚動未顔)케 함이니 실례(失禮)이니라.

(3)입가(入家)하거든 주인이 지도(指導)하는 좌석에 정좌(正座)할 것이요 자양(自讓)하는 듯이 문전(門前)에나 청전(廳前)에 거좌(踞座)치 말지니라.

(4)정좌(正座)한 후에는 기가(其家)를 위하여 축복(祝福)의 의(意)로 기도할지니라. <하가(何家)에 입(入)하던지 먼저 차가(此家)가 평안(平安)할지어다>.

(5)수인사후(修人事后)에는 찬송 성경으로서 간단한 기도회를 설(說)할지니라.

(6)권사중(勸辭中)에 너무 그 가정 내용을 지적(指摘) 공책적(攻責的) 언사(言辭)를 신(愼)할지니, 차(此)는 유익보다 반감(反感)을 매(買)키 이(易)하니라.

(7)기도회가 필(畢)하면 즉시 기좌(起座)할 것이요 무용(無用)의 언사(言辭)를 교환하지 말지니, 차(此)는 경건한 기도회를 말살(抹殺)식하는 것이 된다.

(8)약주인(若主人)이 목사를 위하여 감심(甘心)으로 혹 음식 등을 접대하고자 하면 너무 허식(虛飾)의 겸사(謙辭)를 말고 감사함으로 수(受)할지니라.

(9)식물에 대하여 논평적 호불호(好不好)를 언급치 말지니라. 기(其) 주부(主婦)를 괴롭게 하는 사(事)니라.

(10)가정 내용을 질문치 말지니, 차(此)는 목사가 가정 내용 조사하러 다닌다는 평(評)을 문(聞)할까 함이라.

(11)너무 긴 시간을 비(費)치 말지니 차(此)는 가정사(家庭事)에 방해되는 까닭이다.

(12)식사 시간에 심방을 피할지니, 차(此)는 목사가 음식대접을 받기 위하여 심방한다할까 함이요. 또는 본시(本是) 실례니라.

(13)타 가정사(家庭事)를 논평(論貶)치 말지니, 차(此)는 목사가 타인의 가(家)에 가서 자기 가정사(家庭事)도 말할 줄로 알고 의심케 함이라.

(14)환영 불환영을 고사(姑捨)하고 보편적으로 심방할 것

(15)가는 집만 가지 말고 평균적으로 심방할지니, 차(此)는 편애한

다는 오해를 피하라 함이라.

2. 개인 심방

(1)개인심방은 여인(興人) 동반(同伴)함보다 목사 개인이 우호(尤好)하니, <한어남자(限於男子)>, 차(此)는 상대자 개인이 목사에게 자기 사정을 통정(通情)할 기회를 여(興)함이니라.

(2)여자가 독재처(獨在處)에는 목사 단독으로 절대 심방하지 말 것 이오. 심방할 필요가 유(有)할 시(時)에는 타인과 동반할지니라.

(3)개인 심방시는 너무 엄격 신중한 자태를 시(示)치 말지니, 반(反)히 다정 다애적(多情多愛的) 표정(表情)을 시(示)하라. 차(此)는 상대로 하여금 흉금(胸襟)을 개방(開放)케 함이니라.

(4)개인 심방시에도 타인을 폄론(貶論)치 말지니, 차(此)는 상대자의 심문(心門)을 폐(閉)케 하는 것이니라.

(5)개인 심방시에 기인(其人)의 토정(吐情)을 타인에게 번설(煩設)치 말지니, 차(此)는 기인(其人)의 심령을 타락케 하나니라.

(6)개인 심방시에는 정식적 집회와 같이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한 성서 구절을 지시(指示) 권면한 후에 기도하고, 우(又) 상수자(相手者)로 기도케 할지니라.

(7)개인 심방시에는 너무 그 인(人)의 사정을 문책 공격치 말지니라.

(8)개인 심방시에는 기인(其人) 심리사정(心理事情)을 따라 권면할 지니라.

(9)개인 심방은 목사와 개인 신자간에 영적, 우(又)는 육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결(結)하나니라.

(10)개인 심방은 개인 심리를 잘 알아 지도함이 유익하니라.

3. 특수 심방

(1)병자 심방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중인(衆人)의 병자를 친근(親近)히 하사 위로(慰勞) 주셨나니 목사는 병자의 심방을 불태(不怠)할지니라.

①병자 심방시간은 오전이 적당하나 형편에 의(依)함도 무방(無妨)

하나니라.

- ②병자의 감정을 상치 안토록 주의할지니라.
- ③병자에게 비관이나 낙망의 고언(苦言)을 불(不)할지니라.
- ④병자에게 사망에 대한 언사로 권면치 말 것.
- ⑤병자에게 문답식으로 다언(多言)치 말지니라.
- ⑥병자가 특원(特願)키 전에 장시간을 비(費)치 말지니라.
- ⑦병자에게 질병의 공포적 언사를 신(愼)할지니, 예컨대 병우심(病尤甚)하다던가, 위태하다던가, 난치(難治), 등등사(等等事)이다.
- ⑧병자를 기피적(忌避的) 기색(氣色)으로 시(示)치 말지니, 일차 방문하였으면 수여하기병(誰如何忌病)이라도 담대자약(膽大自若)할지니라.
- ⑨최선의 위안적 신앙의 언(言)으로 권면 안심케 할지니라.

(2)환난 중에 있는 신자 심방

- ①친절한 지면(持面)과 동정적 태도로 취(就)할 것.
- ②소당사(小當事)를 열거(列擧)하여 시비(是非) 논평(論評)치 말 것.
- ③냉정무리(冷情無理)한 언사(言辭)로서 추궁(追窮)치 말 것. 예컨대 신앙이 부족한 고(故), 죄중(罪中)에 재(在)한 고(故), 정욕을 불기(不棄)한 고(故) 등사(等事)이다.
- ④인내(忍耐)가 복(福)됨을 교시(敎示)할 것(약 1:12; 태 5:11-12; 15:13).
- ⑤소망으로 위로 할 것(롬 8:18; 5:3; 12:12; 15:13).
- ⑥피로(避路)를 사(賜)하심(고전 10:13; 살전 1:6).
- ⑦신앙으로 승리를 권할 것이요(요 16:33; 롬 8:37; 고후 12:10).

(3)비관자(悲觀者) 심방(尋訪)

- ①비애적 동정의 표정으로 취(就)할 것.
- ②인간 상정(人間常情)에서 떠난 무리(無理)의 권위(勸慰)를 말 것.
- ③당면한 사정을 최 친애적(最親愛的) 어조(語調)로 문의(問議)할 것.
- ④위로한다는 의미에서 너무 담소 화락적(談笑和樂的) 자태를 시

(示)하지 말지니, 차(此)는 인성(人性)을 역(逆)하는 까닭이다.

⑤하나님은 인간 사정을 지(知)하시고 전화위복(轉禍爲福)케 한 능력이 있음을 지시(指示)할 것(고전 10:13; 롬 8:28).

⑥예수는 가장 동정적 친우(親友)임을 교시(敎示)할 것(요 15:13-14; 11:33-36; 14:1,18).

⑦성신은 권위사(勸慰師) 되심을 교시(敎示)할 것(요 14:16; 롬 8:36; 벧전 5:7).

(4)수금자(囚禁者)의 심방(尋訪)

①궁휼(矜恤) 온겸적(溫謙的) 태도로 취(就)할 것.

②피수(被囚) 사실(事實)을 문답치 말 것.

③법의 가부를 논란(論難)치 말 것.

④너무 소극적 연사로 추궁치 말 것.

⑤영적 자유를 신성(神聖)한 것으로 교시(敎示)할 것(고후 13:17).

⑥인내(忍耐)함이 복(福)된 것을 교시(敎示) 할 것(야 5:12).

⑦시련(試鍊)은 인간 연마(鍊磨)의 광(光)됨을 교시(敎示)할 것(고후 4:16-17).

제2조 결심자(決心者) 심방(尋訪)

목사가 구령회(救靈會)에서나 노방전도에서 결심자를 득(得)하면 분명히 주소 성명을 기록하여 결심자 명부를 작성하여 가지고 언제든지 성경 찬송과 같이 휴대할지니, 차(此)는 열심(熱心) 있고 영혼애(靈魂愛)의 충심(衷心)이다. 아모리 집회석(集會席)에서 다수(多數)한 결심자를 득(得)하였을지라도 부끄럽히 심방 수습(收拾)치 아니하면, 말이 과중한 농부가 추수하지 않음 같으니, 결심자를 심방 수습(收拾)함은 신신자(新信者)를 득(得)하는 유일한 비결이 되나니라. 말이 조어(釣魚)해야 입룡(入籠)함과 여(如)하고, 적과(摘果)해야 입상(入箱)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결심자 심방을 반대하는 인(人)과 찬성하는 인(人)이 유(有)하니 좌(左)와 여(如)하나니라.

1. 반대자

(1)결심자 중에서 대부분이 부득이한 권면에 불승(不勝)하야 결심 하였으니 희망이 무(無)함이요.

(2)결심자 대개가 자기 집을 심방함을 불궁(不肯)함이요.

(3)주소가 명확치 않음으로 심방키 곤란함이요.

(4)시간이 너무 태비(太費)하니 목회상 지장(支障)이 유(有)함이요.

(5)아무리 심방을 하여도 교회에 출석치 않음이라.

2. 찬성자

(1)결심자 심방처럼 자미(慈味)있는 일은 없나니라.

(2)수(雖) 부득이(不得已) 결심하였을지라도 목사가 친절히 심방함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나니라.

(3)결심자가 득교(得敎)하면 수다(數多) 친우(親友)를 인도할 수 있음이요.

(4)수(雖) 결심자 미신(未信)할지라도 결심자의 가족에게 전도할 호 기회(好機會)가 됨이요.

(5)결심자를 심방함으로 목사가 자기를 환영하는 심정에 감복됨이니, 결심자 심방은 결코 불태(不怠)할 사(事)이니라.

3. 심방방법

(1)온정(溫情) 다애적(多愛的) 태도를 취(就)할 것.

(2)끝까지 인내할지니, 혹 냉대하거나 심방을 불궁(不肯)하는 태도를 할지라도 경경(輕輕)히 표정(表情)을 변(變)치 말고 시종미소로서 인격적 감화를 현(顯)할 것.

(3)일차 심방하야 교회에 불출석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모 목사는 일(一) 결심자를 위하야 백번 심(尋)하야 필경(畢竟) 양호(良好)한 신자(信者)를 만드렀다.

(4)용어(用語)는 가장 고상함을 요하고, 수(雖) 청년(靑年)이라도 하시(下視)하지 말고 존경어로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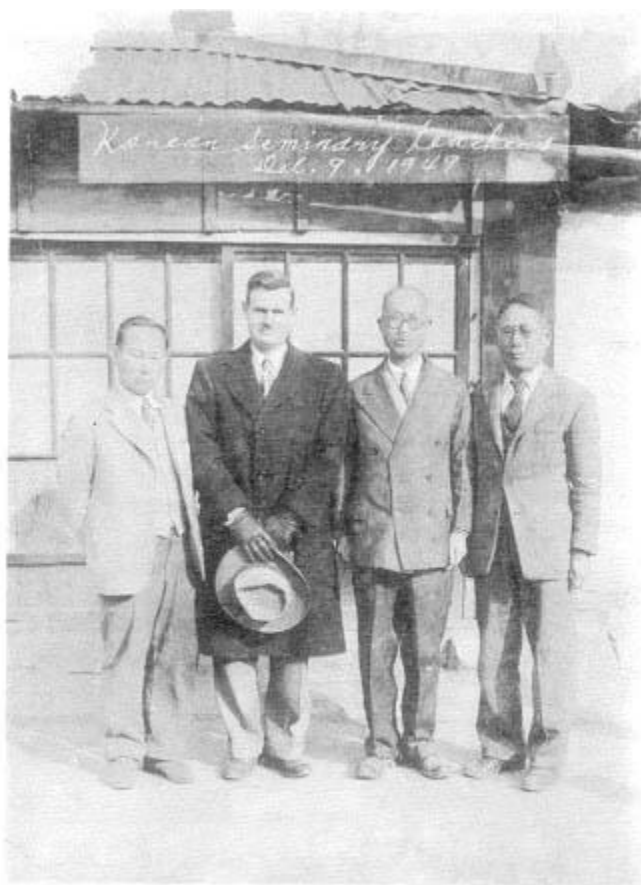
(5)가장 평이(平易)한 진리를 말하여 권면 기도할지니라.

(6)상대자가 여하(如何)한 실례되는 반대적 언사를 사용할지라도 변색치 말고 순애부적(順愛不敵) 할지니라.

(7)목사는 심방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밀실(密室)에서 피등(彼等)을 위하여 도고(禱告)할지니라.

목사 일주간 역사 할(牧師一週間役事割)

시간	사요 (事要)	월(月)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	일(日)
5시	기상							
5-6시	밀실(密室)							
6-7시	정리							
7-8시	식사							
8-9시	잡(雜) 사무(事務)	가사 준비	통신 급(及) 교회 사무	접빈 (接賓) 외출	사고	가사 정리	목욕 보고 서	주일 학교
9-12시	서재	차기 설교 준비	공과 급(及) 잡지	성경 연구 참고 서	신학 급(及) 과학	사학 (史學) 급(及) 전설	종교 교육 심리 학	공과 급(及) 예배
12-1시	식사(食事)							
1-2시	휴식 급(及) 준비	휴식 급(及) 준비	신문 급(及) 잡지	신문 급(及) 잡지	신문 급(及) 음악	신문 급(及) 정원	신문 급(及) 잡지	휴식
2-5시	심방	특수 심방	개인 심방	신자 가정 심방	개인 가정	결심 자 심방	신자 심방	직원 회
5-6시	식사(食事)							
6-9시	휴식 급(及) 잡무	휴식 급(及) 잡무	노방 전도	기도 회	성경 공부	가정 집회	설교 준비	구령 회
9-10시	밀실(密室)							
11-5시	취침							



오른쪽부터: 백낙준목사, 최상현목사, 할 요한선교사, 성낙소목사

From right: N.J.Beck, S.H.Chae, John Hill, Nak So Sung

제6장 목회자와 집회

제1절 집회의 필요

집회에 이중(二種)의 원리가 유(有)하니, 일(一)은 상(上)으로 신령과 진리로 주일에 설교 헌금 성찬 기도 찬송 이상 5목조(目條)로 상제(上帝)께 예배하는 것이요(행 2:42-47), 이(二)는 하(下)로 신자의 영성(靈性) 함양(涵養)과 영적(靈的) 사교(社交) 기관이다. “날마다 심(心)을 동(同)이하야 성전에 모으기를 무(務)하고”(행 2:46). “하인(何人)의 본을 받아 집회하기를 폐(廢)하지 말고 오직 상권(相勸)하야 기일(期日)이 근(近)함을 견(見)할수록 더욱더 회집(會集)할지니라”(히 10:25).

사도시대 신약교회에서 이상과 같이 집회를 무(務)하였다. 그럼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각국에 선교하는 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집회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령한 은혜를 수(受)하고 허다(許多)한 심령들이 차(此) 집회로 인하여 구원의 방법을 각득(覺得)한 후에 구원을 득(得)하였다. 연고(緣故)로 집회법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최대 예전(禮典)이 되었다. 차(此)는 실(實)로 신자의 영적 식탁이 되는 동시에 미신자(未信者)의 도피성(逃避城)이 되었다. 목회 사업은 집회로 유(由)하여 성공을 기(期)할 것이다. 목사는 필히 집회를 중요시하여야만 한다. 만일 집회를 등한시 하면 자연(自然) 실패일 것이다.

제2절 특별 집회

교회에서 최소한도로 1년에 춘추(春秋)로 특별집회를 2회는 하여야 한다. 신자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동시에 신앙생활에 영적 운동회가

된다. 그럼으로 신앙에 신앙을 더하여지고 교회가 흥왕하여질 것이다. 목회자는 될 수 있는 데로 1년에 4계(季)로 정기적으로 특별집회 할지니라.

제1조 특별집회 준비

- (1)준비 기도회를 1주일 전에 개(開)하고 합심 기도할 것.
- (2)특별집회는 돌연적(突然的)으로 작정치 말지니, 소(少)하여도 일 개월전부터 시일(時日)을 정하고 교회 일동으게 광고하여 신자 각자 심령을 준비하게 할 것이며, 우(又) 육신사(肉身事)도 지장이 무(無)케 준비할 기회를 여(與)할지니라.
- (3)특별집회에 소요한 금전(金錢)은 예(預)히 준비하고 집회 중에는 불합당한듯합니다.

제2조 특별집회 기간

특별집회 시기는 각자 형편에 의(依)하여 작정할 것이나 한국은 농업국인 만큼 농한기를 이용함이 가(可)하니, 음(陰) 정월(正月)이나 12월이나 8월 추수절이 적합하고 일자는 집회 왕래상 편의를 취(取)하여 월색(月色)을 이용함이 양호하니, 음력 9일로 21일 이내가 적당하고 기간은 최소 5일간이오, 최다 7일간이 합당하니라.

제3조 집회별

- (1)청신(淸晨) 기도회 - 신자 심령을 성별(聖別)케 하는 시(時)니, 집회 중 최요긴(最要緊)하니라.
- (2)오전 사경회(查經會) - 성경(聖經) 상고(詳考)에 공과적(工科的)으로 학이습지(學易習之)하여 신자의 신앙 교회생활에 실천을 목적함.
- (3)오후 찬송가 - 음악적 교수(教授) 시(時)으로 집회하여 주 여호와를 찬양함에 충분하도록 할 것. 찬송 교수자는 악보에 능한 음악적 교양이 유(有)한 자로 할지니라.
- (4)야간 구령회(救靈會) - 주로 미신자(未信者)로 표준하고 구령이 목적이니라.

제4조 집회 강사

(1)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 교회 목사보다 타 목사를 청함이 가(可)하니라.

(2) 강사는 1개월 전부터 교섭하여 돌지며 차(此)는 강사로 하여금 성서, 기도준비가 충분케 함이니라.

(3) 강사 처소는 조용한 독실로 정할지니, 차(此)는 강사의 숙소가 곧 집회 중 후궁(後宮)과 밀실(密室)이 되는 까닭이니라.

(4) 신자가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특별 사정 외에는 강사 방에 출입을 금할지니, 차(此)는 강사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함이니라.

(5) 강사 식사는 보통 신자 가정으로 순번으로 친목적(親睦的) 우(又)는 교회 경비상 유익함. 강사변(講師便)은 일정처(一定處)가 가함.

1. 본 교회 목사가 강사에 대한 주의 할 건(件)

(1) 강사의게 교회 사정이나 신자 형편을 예고치 말 것. 차(此)는 강사의 설교가 인위적이 될까 함이니라.

(2) 강사에게 무용(無用)의 담화를 교환하지 말지니, 차(此)는 강사의 영적 용력(用力)을 감손(減損)케 함이니라.

(3) 강사에게 집회 간섭을 하지 말지니, 차(此)는 집회 주인은 본 교회 목사가 아니오 강사이라.

(4) 설교 시간을 제재하지 말지니, 차(此)는 강사의 영적 정열을 감퇴(減退)케 함이요 자유를 구속(拘束)함이니라.

(5) 강사의 내력(來歷)을 대중 앞에 너무 과장적으로 소개하지 말지니, 차(此)는 신자들이 인물숭배를 주님보다 더 할까 함이라.

(6) 사회를 너무 장황(長荒)히 하지 말지니, 차(此)는 귀중한 강사의 시간을 탈취하는 실례이니라.

(7) 사회 시간에 초별 설교를 하지 말지니, 차(此)는 몰상식한 사(事)이니라. 하(何) 목사는 횡설수설로 강사의 절반 설교를 한다. 차(此)는 참 딱한 사(事)이다.

(8) 강사 설교 시간에 배후(背後)에 좌(坐)하여 불경건한 태도를 신(愼) 할지니, 차(此)는 청중의 청강력(聽講力)을 감손(減損)함이니라. 예컨대 수(睡)하는 것, 이(耳)를 휘비는 것, 비공모(鼻孔毛)를 뽑는 것,

가지개게는 것, 냉소(冷笑)하는 것, 군소리 하는 것, 조급한 태도 등이다.

(9)강사 배후빙(背後氷)이 되지 말지니, 강사 배후에 냉정한 사회자가 있으면 강사(講師)에게 무서운 빙괴(氷塊)니, 강사의 열을 냉각케 하고 신자 수감열(受感熱)에 수(水)를 살(撒) 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주의키 난(難)하면 강대하(講垓下) 우방(右傍) 좌청(坐聽)함이 무(無) 것 하니라.

(10)강사(講師) 배후에 홍로(紅爐)가 되어 사회자는 제2의 강사이니, 경건하게 기도하는 중 영감을 수(受)하거던 아멘으로서 신자의 수감력(受感力)을 조장(助獎)하고 강사를 응원하는 열정과 청중으로 감수열(感受熱)도 조금(助給)해야 배후 홍로(背後紅爐)가 되어야 한다.

(11)사회자는 강사 설교 중에는 좌석에서 이동치 말지니라. 하절(夏節)에는 서한(暑汗)을 불승(不勝)하여 외출소풍(外出逍風)하거나 동절(冬節)에는 한기불내(寒氣不耐)로 난로측(暖爐側)에 좌(坐)하면 차(此)는 실격이요 대 실례이다. 배후 원호(背後援護)의 세력이 전 집회에 여하한 영향이 급(及)함을 지(知)할지니라.

(12)신자에게 강사의 장단점을 평론(評論)치 말지니라.

(13)강사 설교 후에 재설교(再說敎)를 하지 말지니, 차(此)는 강사 설교를 무력케 함이오 실례이니라.

(14)강사 설교 후에는 회중에 초대할 것은 미신자(未信者)에게 결심할 것, 구도자에게 침례를 권면하되 집회 종말 경에 할지니라.

(15)집회 후에는 강사 육체의 피로를 위로키 위하여 다소의 다과로서 대접함이 호(好)함이니라.

(16)강사의 보수 급(及) 기념품은 형편에 의(依)해야 될 수 있으면 공중 전(前)에서 광고보다 사적으로 증정(贈呈)함이 우호(尤好)하다.

2. 강사가 본 교회 목사에게 대한 주의

(1)청빙(請聘)을 승락(承諾)한 동시(同時)에 자기가 성서에 대하여 잘 배우고 은혜를 만히 받은 구절과 성지(聖旨)를 갱(更)히 복습하고 더 상고(詳考)해야 숙습연마(熟習鍊磨)로 충분한 준비를 하되 많은 기도로 성신의 감화를 피(被)하도록 하고 해 교회(該教會)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며 준비할지니라.

(2)본 교회 목사의 지도에 순응할 것.

(3)본 교회 목사에게 교회 사정을 번문(煩問)치 말 것.

(4)처소(處所)와 식사에 불편할지라도 겸양(謙讓)의 덕(德)으로 묵인 감수(默忍甘受)할 것.

(5)중인(衆人)으로 더불어 잡담번설(雜談煩設)치 말고 침묵자중(沈默自重)할 것.

(6)본 교회의 목사와 신자(信者) 부탁(付託)을 수(受)하여 설교하지 말 것.

(7)설교 중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감화적으로 할지니라.

(8)설교 중 본 교회 목사를 공격적 의미로 하지 말 것.

(9)설교 중 신자 개인 결점을 폭로(暴露)치 말 것.

(10)설교 중에 자과적(自誇的) 언사(言辭)를 신(愼)할 것.

(11)야간 공동집회 설교준비는 미리한 중에서 집회상태를 수(隨)하여 임기변경(臨機變更)함이 우호(尤好)하니라.

(12)설교 중 시사(時事) 정치적 논(論)은 피하고 성서 중심에 순복음적으로 할 것이다.

(13)설교 시간은 장(長)하지 말지니, 기도회 30분, 성별회 50분, 사경회 1시, 구령회 40분이 적합하니라.

(14)설교 후에는 기민적(機敏的) 활동으로 초대하되 구도자(求道者)로서 출석이 다(多)한 자(者)에게 침례를 권하고 미신자(未信者)에게는 결심하도록 할지니 차시(此時)가 실로 최요긴(最要緊)하니라.

(15)집회 상황이 부진(不振)할지라도 초급낙망(焦急落望)치 말지니, 자기 할일을 다하였으면 다음 역사(役事)는 성신(聖神)께 위임할지니라.

(16)집회 중 여하한 동란마력(動亂魔力)이 기(起)할지라도 위축자약(萎縮自弱)하지 말고 담대자약(膽大自若)하여 관철(貫徹)할지니라.

(17)보수 혹 기념품은 다소를 불구하고 청렴감수(清廉甘受)할 것이요, 약(若) 교회가 빈약하거든 차임(車賃) 외(外)는 기부(寄附)할지니라.

제5조 사경회(查經會)

목사는 신자로 하여금 사경(查經)을 하도록 할지니, 대개 사경은 신자들이 성서지식을 함양하여 영적 양식으로 영양(榮養)을 득(得)한다. 교회에서 필히 매주간 중 일차씩 사경공부를 계속할지니라. 초대 교회에서는 주님의 성훈(聖訓)과 사도들의 교훈으로 주야로 배웠습니다.

“이등(爾等)이 성경을 상고(詳考)하는 것은 기중(其中)에 영생이 유(有)한 줄 지(知)하는 것이니, 차(此) 성경이 아(我)를 위하여 증거(證據)하는 것이니라”(요 5:39).

“베로아인은 데살가인보다 익귀(益貴)한지라. 간절(懇切)한 심(心)으로 언(言)을 수(受)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詳考)하여 차(此)가 연(然)한지 지(知)하라 하는 고(故)로 기중(其中)에 신자가 다(多)하고 헬라의 귀(貴)한 여자와 남자가 소(少)치 아니하나”(행 17:11-12).

“아(我)가 지(至)할 때까지 성경을 독(讀)하는 것과 권(勸)하는 것을 용력(用力)하라”(딤후 4:13).

“차예언(此豫言)의 언(言)을 독(讀)하는 자와 청(聽)하는 자와 기중(其中)에 기록한 것을 수(守)하는 자들이 복이 유(有)하리니 시(時)가 근(近)함이라”(묵 1:3).

이와 같이 사경(查經)한 것을 성구(聖句)에 지시(指示)하시였고, 석일(昔日) 구약시대에도 요시아 왕조(王朝)에 대부흥의 원동력은 율법책을 발견함에 있다. 그런즉 범신자(凡信者)의 신앙이 성경진리 생목변(生木邊)에 착근확립(着根確立)하지 않으면 위태하나니,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수(守)하며 기(其) 율법(律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차인(此人)은 비(比)컨데 계수변(溪水邊)에 식(植)한 수(樹)가 기(其) 시절을 종(從)하여 실(實)을 결(結)하며 기엽(其葉)이 불고(不枯)함과 여(如)하니”(시 1:2-3). 목회사업 중 사경회 역시(亦是) 중요한 역할(役割)을 점(點)하였나니라.

1. 특별 사경회

차(此)는 개교회에 시기를 수(隨)하여 개최하는 것이니, 소(少)하여도 년 1차씩 혹은 2차는 하여야 한다. 시기는 역시 음력 정월중이

합당하며 강사는 타인을 청함이 호(好)하고 본 교회 목사도 형편대로 할지니라.

2. 상설(常設) 사경회

차(此)는 제5조에 설명과 여(如)히 각 교회 내(內)에 1주간 중에 하(何) 시간에 사경(查經) 공부함을 운(云)함이니 요긴한 일이다. 혹 일정한 성경을 가지고 강의식으로 교수하는 것도 호(好)하며, 특히 청년 양성상(養成上) 유익하니 목사는 여차(如此)한 방법으로 신자의 사경열(查經熱)을 고취(鼓吹) 양성(養成)하면 교회는 흥왕하고 신자의 신앙은篤實(篤實)하여 지나니라.

3. 연합 대사경회(聯合大查經會)

차(此)는 일(一) 지방에 교회가 다(多)하면 교통과 집회장소의 편리 에 의(依)하여 각 교회가 연합함과 일(一) 교회 중심으로 부근 교회가 연합하여 사경회를 개최함을 운(云)하나니, 연합 사경회, 남녀 혹 여자 연합 사경회, 교직자 연합 사경회 등이니, 성도들의 성서 지식과 영적 교제와 친목 등사(等事)에 최요(最要)한 것이다. 강사는 특별히 청하거나 불연(不然)하면 각 교회 목사가 각 과목 중에 일과씩 담당 교수함도 무방하나니라. 사경은 성경 말삼은 곧 성신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記)케 한 것이다. 그 말삼을 통하여 성신 감화로 유(由)하여 심령이 부흥하는 것이다. 그런즉 성신은 그 말삼으로 신자의 심령에 열감(熱感)이 되난이라.

(1)접빈(接賓) 위원(委員)을 택정(擇定)하여 접빈 사무를 임(任)할지니, 회원 숙소 배정 식사 제공 등사(等事)니라.

(2)숙소 배정도 반별을 수(隨)하여 동반(同班)끼리 정(定)함이 호(好)하며 방장(房長)을 치(置)하여 옥내(屋內)를 감독할지니라.

(3)식사는 자취 공동별이 유(有)하나 공부를 위하여는 비용을 합하여 식모(食母)를 치(置)하고 공취(共炊)함이 호(好)하나니라.

(4)회장을 택하여 제반회무를 장리(掌理)케 할지니, 차(此)에는 본 교회 목사가 회장이 됨이 편리 하나니라.

(5)회감(會監)을 치(置)하여 전 회원을 감독 지도할지니라.

- (6)서기를 택하여 전회기(全會記)를 기록하여 보관할지니라.
- (7)회계를 택할지니, 접빈원중(接賓員中)에 겸임함이 호함.
- (8)시험(試驗)한 바를 고시 후 성적을 수(隨)하여 진급케 할 것.
- (9)반을 조직하되 기(其) 정도를 수(隨)하여 구도 침례인(求道浸禮人) 직원반(職員班)에 분(分)하여 조직할 것.
- (10)포창(褒彰)을 하되 성적이 우수한 교회와 개인에게 시상할 것.
- (11)차기(此機)를 이용하여 주일학교 강습회를 개(開)함이 호(好)하 나니라.
- (12)시기는 음력 8월 추석 정월 초에 합당함.

제6조 예배회(禮拜會)

목회자의 임무 중에 최(最) 귀중한 시간은 예배시간이다. “시(時)가 지(至)하려니와 지금도 기시(其時)라. 부(父)께 예배하는 인(人)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니, 부(父)께서 여차(如此)히 자기에게 예배하는 인(人)을 심(尋)하시나니라” <약(約, 요) 4:23>. 그리스도인 된 이는 수(誰)던지 칠일수일(七日首日)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死)하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그 피의 공로를 뵈(賴)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님의 명(名)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는 신령한 예배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진리 곧 사(死)하심과 장사(葬事)하심과 부활하신 차(此) 진리로 십자가 기념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신(新)하여지고 신성한 시간이다. 남녀신도는 6일간 각 직무에 골몰(汨沒)하다가 주일에 전적으로 공헌(貢獻)하여 예배하여야 한다. 목사는 6일간 신자 심방을 근면(勤勉)히 하고, 미신자(未信者)의 구령운동을 열심히 하고, 교회 제반 사무를 정리하고, 기타 모든 사위(事爲)의 중심사상은 공예배(公禮拜)를 왕성단(旺盛旦) 성화케 함에 재(在)하나니, 초대교회로부터 금일(今日)까지 주일 공예배회는 기독교 성회 중 수위(首位)되는 성회로 수(守)하여 왔었다.

1. 예배순서

- (1)찬송 - 차(此)는 하나님의 성덕(聖德)과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事)인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니라. “이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로 유(由)하여 항상(恒常) 찬미하난 제사를 상제께 헌(獻)할지니, 즉 그 이름을 찬송하는 순(脣)의 실(實)이니라”(히 13:15). 또는 인(人)의 심령을 영적 감정을 고취(鼓吹)시키는 성가(聖歌)이니라. “신령(神靈)한 가(歌)로 피차(彼此) 훈(訓)하며 권(勸)하고 은혜를 수(受)한 심(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시와 찬미와 신령한 가곡(歌曲)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구(口)으로 창(唱)하며, 심(心)으로 주께 찬송하고”(엡 5:19). 초대교회에서 이와 같이 찬송하였다.

(2)기도 - 신령한 예배에 성도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향연(香煙)과 같은 제사니라. “금대접을 지(持)하였는데 거기에 향을 가득히 담았으니 차향(此香)은 즉 성도의 기도라”(묵 5:8하반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수(手)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상(上)하는지라”(묵 8:4).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인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올리는 제사니라. 차(此) 예배(禮拜) 공기도(公祈禱)는 목사나 장로나 혹 집사가 하되 예배일(禮拜日) 전에 예정하여 2,3일간 기도할 성의(誠意)를 심중에 묵상으로 전 회중을 대표하여 할 것을 준비하였다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공기도(公祈禱) 하되 너무 장(長)하게 하지 말고, 신중히 집회를 위하여 모든 심령을 위하여 간절히 할지니라. 주의할 것은 문자(文字)나 시사적(詩詞的)으로도 말고, 성경 강해적으로도 하지 말고, 자기 개인만 위하는 기도도 말고, 인신 훼손이나 감정푸리나 자기 신세푸리를 하지 말고, 세계 일주나 중언부언(重言復言)하지 말 것이요, 전 회중의 심령을 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상태로 하되 음성은 전 회중이 청(聽)하고 동감할 만한 정도로 할지니라. (예배 중에 헌금 후 감사기도, 설교 후 기도도 있다.)

(3)주의 만찬 - 주일 예배는 초대교회 창립일로부터 시작한바 주님의 사중부활(死中復活)을 기념하는 무효병(無酵餅)과 포도즙(葡萄汁) 잔(盞)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축사하고 침례 받은 그리스도

인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 희생제를 기념하는 성례이니 초대교회에서 안식일을 바리고 주일 예배가 주의 만찬으로 창립하였다. “칠일 중(七日中) 수일(首日)에 이등(我等)이 병(餅)을 벽(擘)하려하여 집(集)하였더니”(행 20:7). 일요일집회는 병(餅)을 벽(擘)하기 위하여 모였음이라.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병(餅)을 떼어 먹으며 기도하기를 무(務)하더라”(행 2:42). 차(此)는 곧 오순절에 성신강림일, 그리스도인 침례 시작일,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일, 주일예배에 성찬식 한 것이다. 그런고로 모든 집회 중에 주일예배가 차(此) 성례(聖禮)로 유(由)하여 성례 중 수위(首位)되는 성회로 임수하는 것이다.

(4)헌금 - 차(此) 헌금법은 이색열(以色列)의 예전(禮典)되는 레위기에서 기인(起因)되었나니, 추(秋)에 초숙곡(初熟穀)을 헌(獻)하고, 초생장자(初生長子)를 헌(獻)하고, 수입 중 십일조를 헌(獻)한 것이다. 신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아전(我前)에 공수(空手)로 래(來)치 말라”(출 34:20). “매주일 수일(首日)에 이등(爾等)이 각기(各其) 이(利)를 득(得)한데로 저치(儲置)하여 아(我)가 거(去)할 시(時)에 연보하지 안케 하라”(고전 16:2). 예배 시에 헌금도 제사가 되는 것이다. “아(我)에게 모든 것이 유(有)하고 또 유여(裕餘)한지라. 아(我)가 풍족한 것은 에바브로디도 편(便)에 이등(爾等)이 급(給)한 것을 수(受)함이니, 차(此)가 미(美)한 향기(香氣)요 수(受)하실만한 제사(祭祀)니, 상제(上帝)를 열(悅)하시게 한 것이라”(빌 4:18). 그럼으로 진심(眞心) 성의(誠意)로 할지니라. 헌금을 필한 후 간단히 감사기도 하되 하나님께 성의로 밝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여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여 각 신자들로 십일조를 헌금함으로 고간(庫間)에 넘침으로 더 만이 바치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여 대표가 수금(收金) 집사 중에서 기도할지니라.

(5)설교 - 주일 예배는 정식 예배인 동시에 설교를 특수사정 외에는 목사가 할 것이요, 교회직원이나 타인에게 양여(讓與)치 말지니라. 설교는 여러 날 전에 기도 중 준비하고 수정(修整)하여 숙련(熟練)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본문(本文)과 인조절(引照節)은 필히 속독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신의 감동으로 유(由)해야 된 것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고로 인의적(人意的)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리(解理)하여 상제(上帝)의 경륜(經綸)과 오묘(奧妙)를 발견하여 모든 영혼들으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기갈(飢渴) 중에서 포식감음(飽食甘飮)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경건한 중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권위적 명량한 어조로서 전회중이 성훈(聖訓)에 감사(感辭)하도록 할 것이요, 혹 예배의 인식의 망각하여서 신문잡지에서 본 시사속화(時事俗話)이나 소롱야설(笑弄野說)로서 횡설수설하다가 시간만 보내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오, 둘째로는 회중에게 대 실망이 되는 것이니 회개할 문제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영계(靈界)는 기갈(飢渴)에 함(陷)한 것을 지(知)하여야 한다. “양(糧)이 무(無)해야 기근(饑饉)이 안이오 수(水)이 무(無)해야 갈(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언(言)을 문(聞)치 못하여 기근이니라”(암 8:11). “부(父)의 언(言)은 진리이니라”(요 17:17). 주일예배는 정식예배인 동시에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런즉 하나님 말씀인 설교로 진리로 예배한다.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자가 할 것).

이상 오항(五項)은 성서적(행 2:42-47)인 동시 일항(一項)도 감(減)할 수 없음. 차외(此外)에 묵도(默禱)와 헌금 감사기도와 설교 후 기도와 성만찬 축사(祝辭) 및 기도와 폐회 축복은 제2항 기도에 대한 것이요, 성만찬에 찬송, 헌금찬송, 특별찬송, 개회찬송도 제1항 찬송에 대한 것이고, 광고는 하(何) 항목에던지 해당치 안한 것은 신(神)께 대한 예배건(禮拜件)이 아니니, 정식 예배순서는 5항목뿐이다.

주일 정식 예배순서							
번호	내용	담당자	시간	번호	내용	담당자	시간
1	개회	묵도 (시편낭독)	3분	9	특별찬송	찬양대	3분
2	찬송	총기립	5분	10	주일헌금	일동	5분
3	기도	대표자	5분	11	감사기도	재무 혹은 직원	2분
4	찬송	합동	5분	12	설교	목사	30분
5	성찬성경	목사	3분	13	설교후기	목사	2분

	봉독				도		
6	떡을들어 축사	목사 혹 장로	5분	14	광고	대표	3분
7	잔을들어 축사	목사 혹 장로	5분	15	폐회찬송	일동	1분
8	성찬후 기도	목사	2분	16	축도	목사	1분

2. 주일예배 후 오후 역할

주일을 구약 유대인의 안식일 인식하는 자가 있다. 예배가 필(畢)하면 파열(罷悅)하고 안식(安息)하기를 도(圖)하나니 차(此)는 오해이다. 주일은 신자 영적활동시(靈的活動時)니, 육신은 더 분망(紛忙)하리라. 목사는 신자를 부려 쓰는 기회는 주일 오후밖에 없나니, 남녀 별동대(別働隊)를 조직하여 심방대, 개인전도대를 분(分)하여 직원은 대장이 되고, 일대(一隊)에 신자 3,4 인식(人式) 부(附)하여 각자 구역을 수(隨)하여 병고자(病苦者) 심방 미출석자 심방하게 하고 개인전도대원으로 하여금 결심자 심방과 개인전도에 전력(專力)케 할지니, 여차(如此)히 함으로 신자 열(熱)을 고취(鼓吹)케 하고, 우(又)는 친목(親睦)을 도(圖)케 하고 주일 오후에 육신(肉身) 사업편(事業便)에 경향심(傾向心)을 방지케 함에 유익하니라. 열심과 지혜 있는 목사는 영적전술에 권위 있는 사령관이 되여야 하나니라.

3. 주일 야간예배

주일야간예배는 보통예배인 동시에 구령회(救靈會)로 집회함이 합당하니 간혹(間或) 청년전도를 하게하여 미신자(未信者)를 인도케 하고 신자로 하여금 주일 오후에 개인전도한 인(人)을 야간 예배시에 인도케 한 후에 구령회(救靈會)로 개(開)할지니, 독창 등으로 일반의 심령을 유쾌(愉快)케 한 후 구령적 설교를 하여 결심케 할지니, 야간 예배회에 특별주의할 것은 장설(長說)을 말지니, 30분 혹은 40분이 적당하니라. 만일 장(長)하면 신자의 권태를 기(起)케 하고 미신자의 청도열(聽道熱)을 냉각케 하고 차기(此期) 출석(出席)을 방해(妨害)케 하는 무책적(無策的) 우사(愚事)니라.

제7조 전도회

1. 특별 전도회

목사가 목회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구령운동 즉 전도회를 중시(重視) 근면(勤勉)할지니, 목회사(牧會事)가 5라고 하면 구령전도도 5가 되지 않으면 안이 된다. 목사 중에는 구령회 등사(等事)는 도외시키고 일 년 중에 특별전도회 일차도 안이 한다. 생산이 무(無)하면 소모요, 진보가 무(無)하면 퇴보이다. 신신자(新信者)가 입래(入來)치 않으면 그 교회는 감소퇴보하나니라 (비상시국, 일정 신군참배문제시와 6.25사변류의 외(外)에는 할 것). “악인을 징계하여 기(其) 악로(惡路)를 이(離)하여 생명을 구원케 안이하면 기(其) 악인을 필히 기(其) 죄악 중에서 사(死)하려니와 아(我)가 필히 기(其) 혈(血)을 이수(爾手)에서 심문(審問)하리라” <結(결) 3:18 하반절>. 그러나 교계에 이중(二種)의 주창(主唱)이 유(有)하다. 특별전도회를 반대자와 찬성자가 각 유(各有)하니 여하(如何)함.

(1) 특별 전도회 반대론

- ①노력은 다(多)하고 결실는 소(少)하다고 함.
- ②분주복잡하여 신자의 정신상 손(損)이 된다고 함.
- ③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별무(別無)하다고 함.
- ④아무리 청독(聽讀)하여도 교회 출석이나 신앙치 않는다 함이요.
- ⑤비용상 문제가 다(多)하여 교회가 난감(難堪)하다 함이니라.

(2) 특별 전도회 찬성론

- ①특별전도회가 무(無)하면 신신자(新信者)를 불득(不得)함이요.
- ②특별 전도회가 무(無)하면 교회 활동력이 감쇠(減衰)함이요.
- ③특별전도회가 무(無)하면 득구(得救)할 자가 기회를 불득(不得)함이요.
- ④특별 전도회가 무(無)하면 교화운동(教化運動)이 침체함이요.
- ⑤교회에서 구령사업은 주님의 명령이요, 사도의 부탁인 까닭이다. 연고로 교회에 일 년에 춘추 2차는 필히 특별전도회를 개(開)하고

구령운동을 할 것이요. 우(又)는 혹 사회에 특별한 대회시 <물품(物品) 공진(共進) 품평회(品評會), 전람회, 박람회, 하(何) 기념회(紀念會) 등>을 이용하여 특별전도회를 함으로 복음 선전상 우(又)는 구령상 다대(多大)한 성과를 득할 것이다.

(3)특별전도회 방법

- ①강사는 구령상(救靈上) 열정 있고 은사 있음을 청빙할 것.
- ②광고지를 요로다인거래처(要路多人去來處)에 부칠 것.
- ③광고 전도지를 인쇄하여 인인가가(人人家家) 배포할 것.
- ④청년 전도 대원을 동원하여 악기를 준비하여 갖이고 노방전도식으로 선전할 것.
- ⑤신자 1인이 미신자(未信者) 1인을 필히 인래(引來)할 것.
- ⑥집회 중에는 신자 1인, 미신자 1인 측(側)에 견좌(肩座)할 것.
- ⑦설교 후에는 결심시킬 시(時)는 1인이 1인씩 붙을고 권면 결심케한 후에는 주소성명을 분명히 기입할 것.
- ⑧차회(次回) 출석을 권한 후에 전도지 일매(一枚)와 집회 순서지를 부여할 것.
- ⑨차회 광고 문제를 예(預)히 광고하여주고 전도지는 매시(每時) 다른 것을 줄 것.
- ⑩결심자는 기(其) 익일(翌日)에 꼭 심방할 것.
- ⑪집회 최종일에는 결심자 친목회를 개(開)하여 특별초청하고 간담(懇談) 혹은 다과연(茶果宴)을 설(設)함도 호(好)함.

2. 정기 전도회

교회는 매주일내(每週日內) 일차식(一次式) 정기 전도회를 개(開)하되 특히 청년 전도대 사업으로 하여 설교도 대원중에서 윤번제로 하고 목사는 후원하여 줄 것이요, 청년 전도대 사업으로 간단한 악기 준비(準備)하여 노방 선전한 후에 소수인이 입(入)하였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더욱이 열심 활동할지니, 이러케 함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동시에 설교 연습도 되고 청년 교양상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3. 노방 전도

목사는 교회직원이나 청년 전도대원을 인솔하고 노방가두에 입(立)하여 복음 선전에 불식불태(不息不怠)할지니라. 혹은 목사가 노방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기를 여하(如下)하다.

①목사가 노방에 입(立)함은 목사위신상 교회의 수치가 된다고 함.

②목사가 노방에 입(立)함은 사교상과 불량자의게 모욕(侮辱) 당케 이(易)하다고 함.

③목사가 노방에 입(立)하면 강단 설교 권위가 약하고 개인 전도상 불리하다는 등.

이상 논설에 일리가 유(有)하다고하나 그러나 목사는 목사요 신사가 안이다. 우(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요 바리새 서기관이 안이다. 영적 노동자요 도유객(都遊客)이 안이다. 그런즉 군인도 되고 노동자도 됨에 따라 노방에 입(立)한다고 수치 될 것이 없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노방에서 해변에서 산상(山上)에서 수가에 있는 야곱의 정변(井邊)에서 설교하시였다. “아(我)가 복음을 수치(羞恥)하지 안이하노니, 복음은 제(諸) 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롬 1:16). 사도들도 그러하였다. 노방으로부터 왕궁에까지 전도할 특권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시였다. 교회에서 복음전하기를 북그러워하면 복음이 교회를 수치스럽게 한다. “대개 차(此) 음란하고 죄가 다(多)한 세대에 재(在)하여 아(我)가 아도(我道)를 수(羞)하는 자는 인자도 부(父)의 영광으로 성천사(聖天使)와 함께 하래(下來)할 시(時)에 기인(其人)을 수(羞)하리라”(막 8:38)하시였다.

제8조 기도회

1. 수요일 야(夜) 기도회

일주간 수요일 야(夜)는 중간집회로서 통칭 삼일기도회라 하나니라. 목적이 기도에 재(在)하고 설교나 혹 기타 의식에 부재(不在)하나니, 신자의 영교(靈交) 개방시(開放時)이다. 장(長) 설교나 별 의식(別儀式)이 무용(無用)하고 개인 기도를 하되 유의(有意)한 자는 남녀를 물론하고 성의(誠意)로 간단히 하도록 하여 신자들이 하나님과 친근

하여지며, 성신의 감화를 수(受)하여 신앙에서 회개자복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사죄함과 성신의 내주(內住)로 수(水)와 성신으로 중생자가 되도록 하고 중생자들은 신앙에서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성결한 생활에서 성신의 구중과실(九重果實)을 결(結)하도록 할지니, 기도는 실로 영적 호흡이요 성서는 영적 양식이다. 식물로써 영양을 득한 후에 호흡으로써 산소를 흡(吸)하고 조혈정양(造血淨養)하여 건전(健全)을 도(圖)함과 같이 영적 생명이 건전할 것이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미신적으로 무삼 주송문류(呪誦文類)의 남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격으로 명상적(冥想的)에 입각(入覺)하여 환상(幻想)을 성신의 실적(實的)인 것으로 알고 허무맹랑(虛無孟浪)한 언동을 하지 말도록 할지니라. 차(此)는 정신작용과 심리적 작용으로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이다. 어로(魚魯)를 불변(不辨)의 격(格)으로 심리작용인지 성신의 작용인지 분변(分辨)하지 못한다. 근래(近來) 각(各) 이파(異派)에서는 불교식 신앙으로 미신에서 주송적(呪誦的) 기도(祈禱)로써 이적을 행하느니 예언을 행하느니 한다. 그런 등사(等事)가 타종교, 유사종교, 우상종교, 무당 등에게도 있다. 차편(此便)에는 성신이 안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敎)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말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사 우리 인류를 속죄 구령의 광명이 조(照)하여 수(誰)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 침례를 받으면 성신이 즉시 내주한 중생자가 주의 명(名)으로 기도하면 신앙이 점점 장성하여 성결의 생활을 할 것이요, 성신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적은 사죄 중생의 대(大)하고 성경에만 있는 이적 요나의 이적과 같이 수중(水中)에서 중생의 이적이다. 그런즉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성심(誠心)으로 기도하여 개인 자신의 신앙이 성결하여 지고 교회가 흥왕하여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다.

2. 특별기도회

목사가 기회를 수(隨)하여 특별기도회를 개(開)할지니, 교회가 약하여질 때, 교회에 난사(難事)가 생(生)할 시(時)에, 인선문제가 생(生)할 시에 혹 세말(世末) 세초(歲初)에 직원회의 결의로써 청신(淸晨)에나 야간에나 개(開)함이 무방하나 할 수 있으면 청신(淸晨)이 호(好)하니,

정신이 명량하고 사무에 번잡(煩雜)치 않고 시간 이용상 유익하니라. 목사는 영적의사이니 교회의 건강여부를 진찰하여 만일 하(何) 부분이 약 하던가 전체가 불건(不健)한 상태에 재(在)하면 특별기도회를 개(開)할지니, 기도회는 신도의 영적건강제가 되나니라. 그런즉 씨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할지니라.

3. 교회 직원 기도회

교회의 흥왕여하(興旺如何)는 직원조직에 유(有)함은 교직자로서 누구나 공지(共知)하는 바니 재론할 필요도 없는 사(事)이다. 조직된 직원으로 하여금 신령한 직원을 만드려 목회상 좌우익을 삼어야 한다. 그런고로 직원끼리 영적회합이 필요하니, 차(此)는 즉 직원 기도회이다. 소불하(少不下)로 일개월(一箇月)에 수차례 하되 설교나 예배식으로 하지 말고 친밀한 좌담식으로 회합하되 원탁회로 남녀직원이 분좌(分坐)하고 목사는 필요한 성서를 낭독설명한 후에 간단히 돌아가면서 기도하되 개인마다 기간 사언행중(其間思言行中)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함을 발견 기억하였다가 기도 중에 회개 자복하도록 하고 목사는 종말(終末)에 제직(諸職)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로서 영적 감화를 주고 성서적인 생활을 하며 교회에 충성스러운 역군(役軍) 노릇하도록 할지니라.

제9조 가정 집회

1. 정기 가정 집회

목사는 공예배집회뿐만 아니라 사예배회(私禮拜會)되는 가정 집회를 시무(時務)할지니라. 일 주내(一週內)에 일처(一處)나 수처(數處)를 지정 광고 후에 부근 신자를 집합하여 예배함을 운(云)함이니, 구역을 정하고 구역장을 직원 중 택립(擇立)하여 인도케 하고, 매월 최종 주일 야간 예배시간에 각구역회 성적을 보고케 함이 호(好)하니, 혹 칭(或稱) 구역회라고 하나니라.

차역시(此亦是) 유익이 막대하니, 일(一)은 장소 부근에 미신자(未信者)와 기(其) 가정을 인도하여 전도할 기회도 되고, 이(二)는 신자 가정상 친목(親睦) 연락(連絡)케 함이요, 삼(三)은 신자 영성 향상의

절대 필요함이라. 차시(此時)에 주최 가정에서 감사한 심(心)으로 다과의 대접(待接)이 유(有)할 시에는 거절(拒絶) 불능(不能)이나 차(此)가 예(例)가 되어 빈한(貧寒)한 형제의 가정에는 가정 집회 개최를 기(忌)할 뿐 아니라 중(重)한 짐이 되기 이(易)하니, 특별히 주의할 사(事)이니라.

2. 특별 가정 집회

교회 특별 가정 집회가 필요를 인식할 시에 우(又)는 신자가 요구할 시에 개(開)하는 것이니, 혹 병자를 위하여 비애자를 위하여 혹은 경하사(慶賀事)가 유할 시에, 이사시(移事時)에 특별 가정 집회를 청원하나니, 목사는 여하한 청원을 막론하고 거절치 말고 직원 급(及) 신자를 동원하여 왕조(往助)할지니, 차(此)가 애경위하(哀慶慰賀)의 미덕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나 혼연(婚宴)에 왕조(往助)하시고, 마태 가연(家宴)에 불사(不辭)하시고, 나사로의 애가(哀家)를 왕조(往弔)하시고, 야이로의 가녀(家女)를 위하여 친왕조위(親往助慰)하심은 목회자의 선구(先驅)이신 선미(善美)한 모본(模本)이시다.

제7장 목회자와 서재

제1절 목사의 공부할 필요

이상(以上)은 목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반 노력할 것을 약술(略述)하였거니와 금차(今此)에는 목사가 자기를 위하여 수양(修養)할 필요를 약술(略述)하라고 한다. 국가의 세출(歲出)이 다(多)하고 세입(歲入)이 소(少)하면 국고(國庫)는 공허(空虛)할 수밖에 없고, 가정생활에 지출이 다하고 수입이 소하면 결국 부채로 인하여 파산(破産)의 비운(悲運)에 함(陷)하게 된다. 목사가 만일 지출적(支出的) 설교, 심방, 교수, 전도 등의 사(事)만 하고 수입적(收入的) 학습, 연구, 수양 등의 사(事)가 무(無)하면 내부 실력이 공허(空虛)하여 영적 파산의 비운에 함(陷)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목사를 위하여 의당히 수양의 처소가 필요하니 곧 서재(書齋)이다.

실(實)로 서재는 목사의 독학 신학교요, 심령을 수양하는 훈육소(訓育所)이다. 목사가 매일 2, 3시간은 서재생활을 하여야 한다. 목양자(牧羊者)가 골(藁)과 생수(生水)를 풍족히 공급하여야 군양(群羊)이 번식(繁殖)할 것이다.

목사가 수양과 공부가 없으면 영육간(靈肉間) 퇴보인 동시에 신자는 영적빈혈과 신경쇠약에 지(至)하나니라. 설교는 항상 하는 그 말뿐이요, 신성(新聲)을 문(聞)할 수 없고, 기도는 주의 가라친 기도문이면 다 된다. 기도의 능력이 무(無)하나니, 결국은 외부(外富) 내빈적(內貧的) 위선자가 되기 이(易)하다. 하(何) 교역자는 일(一) 교회에서 2년만 있으면 설교할 재료가 무(無)하고 영력이 궁핍하여 더 있을 수 없어 필경은 궁여책(窮餘策)으로 전임운동(轉任運動)을 하지 안이 할 수 없다. 또는 불청객이(不請客而) 자래격(自來格)으로 매월 2, 3 차식(次式)은 타교회로 무임(無任)의 순회목사 노릇을 한다. 일(一)

교회에서 3개월을 집회마다 계속 집회설교를 하지 못한다. 차(此)가 속임이 없는 사실이다. 차(此)는 비타(非他)라. 목사의 서재 공부와 밀실생애(密室生涯)와 탐구적 문상(探究的問上)의 수양이 무(無)한 까닭이다. 교역사업은 기계적(機械的)이 안이오, 진리의 활동적(活動的)이다. 고정적(固定的)이 아니오, 무진장(無盡藏)의 발굴적(發掘的)이다. 여하(如何)한 재사 웅변 수완가(才士雄辯手腕家)라도 영적 진리 발견이 무(無)하고는 성역(聖役)을 감당(堪當)한다는 것이 녹목구어격(綠木求魚格)이 되리라. 고(故)로 세상에는 지자(智者)보다 학자(學者)가 귀(貴)하고, 변사(辯士)보다 실천자가 귀(貴)하고, 재사(才士)보다 근면자(勤勉者)가 성공하나니라.

제2절 주택과 서재 위치

서재는 될 수 있으면 주택과 상리(相離)하여 별실(別室)이 호(好)하나 경제상 불능하면 주택과 병조(竝造)하되, 내실과 거리를 원(遠)히 하되 통로를 두지 말고 구조는 남향으로 하고 삼면(三面)이나 이면(二面)은 초자창(硝子窓)으로 하고, 타면(他面)은 벽(壁)을 하여 책장(冊櫥)을 치(置)하고, 단층옥(單層屋)은 2, 3평으로 하되 광선조절과 공기유통을 편리케 하고, 정원(庭園) 근경(近景)의 관망(觀望)이 편리케 하고 내인거객(來人去客)의 통행을 비(秘)케 하되, 단층옥은 기도실로 겸용할 수 있게 하고, 층계옥에는 기도실과 서재를 구분하여 장자(障子)를 격케 하고 방음적(防音的)으로 수장(修粧)해야 밀실이 되어야 함이다. 원래 주택은 건축할 시(時)에 교회는 아무리 곤란(困難)할지라도 목사의 서재는 필히 이상적으로 건조(建造)할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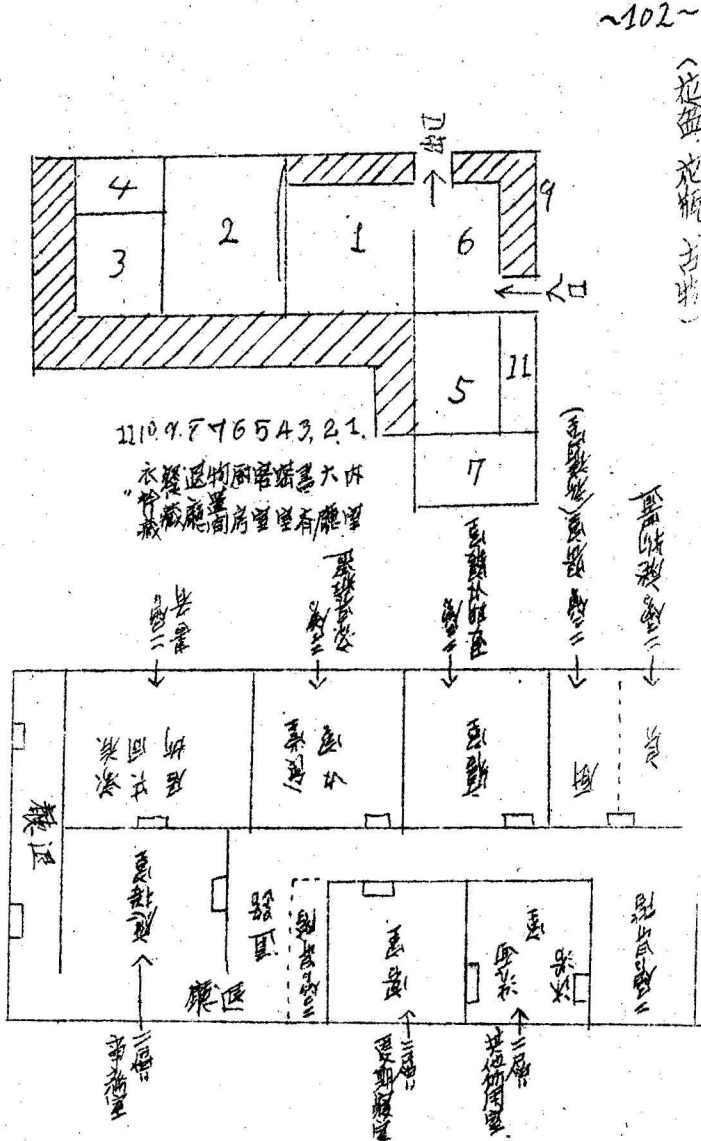
제3절 서재 비품(書齋備品)

1. 책장(冊櫥) -- 장광척(長廣尺)은 서재평(書齋坪)에 의(依)하되, 대개 장육척(長六尺) 광사척(廣四尺) 이층 제6단(二層制六段)으로 할 것.
2. 테-불 일좌(一坐) -- 장이척반(長二尺半) 광삼척(廣三尺) 측이척

(側二尺) 쌍립설합(雙立舌盒) 혹은 단위설합(單位舌盒)

3. 의자 2개

4. 문방구 일습(一襲), 괘경(掛鏡) 급(及) 시계(時計)



5. 산수화(山水畵) 약간(若干), 성상(聖像) 급(及) 위인화(偉人畵) 약

간(若干)

6. 패지도(掛地圖) -- 한국, 사도행전, 유대, 세계
7. 화초단수개(花草單數個) -- 화분, 화병, 고물(古物)

제4절 문고(文庫) 급(及) 서적류(書籍類)

1. 내외국 옥편 급(及) 사전류
2. 성경사전, 성경식물, 동물학, 물어(物語) 등
3. 주석 급(及) 강의서류
4. 신학서류일절(조직, 변증, 실천)
5. 역사서, 교회사 급(及) 환원운동사, 내외 국사(國史), 세계사학류(世界史學類), 선교사(宣敎史), 단기사(檀奇史)
6. 고고학, 성지지(聖地誌), 세계지지(世界地誌)
7. 전기류(傳記類), 종교인물 급(及) 내외국 위인전기 등
8. 교회정치 급(及) 교리<각 교과 급(及) 종파 각 단체>
9. 종교교육학류, 심리학류
10. 종교철학, 인류학류
11. 각종 설교집류, 설교학 급(及) 목회학류
12. 제반 참고서류(參考書類), 잡서류(雜書類)
13. 참고상(參考上) 과학제반서류(科學諸般書類)
14. 생리학, 해부학, 위생학, 화학, 이학류(理學類)
15. 천문학, 지리학 등

제5절 독서시간 급(及) 방법

독서시간은 상술한바와 같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적합하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 면회사절’이라는 서찰(書札)을 출입문 상(上)에 부(付)하고 내방인(來訪人)을 불입(不入)케 하고, 우(又)는 미리 목사 일과표를 작성하여 객실에 부(付)하여 내객(來客)으로 하여금 지(知)케 할 것이오, 우(又) 교회에 광고하여 공부시간에 특별한

사정 외에는 내방(來訪)치 않도록 할 것이요, 공부를 시작 전에 먼저 밀실 되는 기도실에서 상래(上來)한 영적 지혜와 총명(聰明)을 구하여 청결한 중(中)에서 수(受)하고(약 3:13-18) 서재실에 입(入)하여 독서하되 동일한 서적을 1시간 이상 계속치 말 것이요, 비망기(備忘記)를 만드러서 요긴(要緊)한 것을 기입할 것이요, 일(一) 서적을 필독(畢讀)하였으면, 비판적 두뇌를 갖이고 묵상할 것이요, 일(一) 서적을 공부하였으면, 기허간(幾許間) 휴식한 후에 타(他) 서적을 공부할 것이요, 공부를 필한 후에는 정원 화단에나 근산교외(近山郊外)에 청유산보(淸遊散步)하여 심신을 휴식할지니라.

제6절 연구와 응용

목사가 서재에서 성서를 공부하고 연구함에 있어서는 성서를 다독(多讀)할 뿐만 아니라, 성서에 신경적 계통을 잘 상고하여 기(其) 오묘(奧妙)를 각득(覺得)하여 설교에 응용하며 목사 자신이 실생활에 응용함으로 군양(群羊)을 진리의 추(蜀)로 목양하고 자신 급(及) 가족이 진리의 의(衣)를 의(衣)하고 주광적(晝光的) 생활(生活)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가 일신 우 일신(日新又日新)하면 자신도 기뻐할 일이련이와 신자들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그러한 설교는 재사(才士)와 웅변가(雄辯家)의 설교와 대상부동(大相不同)함으로 기(其) 교훈은 권세가 유(有)한 자와 여(如)하고 서기관과 부동(不同)함이다. 우(又)는 각 서적을 다독(多讀)한 중에 성서적 문학을 약술상(略述上) 응용(應用)이니, 저서는 인격과 사상 급(及) 신앙을 표현이다. 모세는 시내산 체험을 명기(明記)하였고, 요한은 밧모도(島)에서 여러 천(天)의 소견사(所見事)를 즉기(卽記)하였다. 목사는 필히 기본학문이 있고 신학을 갖추고 논문을 통과한 후에 교회에 초빙을 받아 장립안수식을 거행하였을지라도 목회상 기도의 밀실과 성경공부의 서재에서 지필묵(紙筆墨)의 친우(親友)로서 영구보존할 저서로써 개인의 유익을 유(遺)할지니, 다독(多讀) 다작(多作)은 목사의 내무(內務)인 동시에

문서로서 현재로는 원근(遠近)을 막론하고 불견인(不見人)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미래로는 목사가 사후(死後)에도 후인(後人)들에게 전도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8장 성경 강해 강령(聖經講解綱領)

제1절 성경(聖經)은 신(神)의 묵시(默示)

성경은 신(神)의 특별한 묵시적(默示的) 역사(役事)를 설명한 것이 포함된 것을 성경에 기사(記事) 함을(딤후 3:16-17) 신앙하는 동시에 이하(以下) 역종(役種)을 관심(關心)하여야 한다.

1. 인(人)이 그러한 묵시(默示)를 요구한다.
2. 하나님은 그러한 묵시(默示)를 하실 권능의 준비가 유(有)하였음.
3. 성경은 신임할만한 방식으로 된 묵시(默示)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절 성경(聖經) 기자(記者)

성경기자 등은 목도자(目睹者)와 목도자의 전수(傳授)한 자들인 동시에 자격이 유(有)함.

1. 기자(記者) 등(等)은 기(其) 수가 부족치 아니하다.
2. 기자(記者) 등(等)은 기(其) 사실을 확지(確知)함이요.
3. 기자(記者) 등(等)은 기(其) 사실을 이해(理解) 통달(通達)함이요.
4. 기자(記者) 등(等)은 기(其)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한 것이다.

제3절 성경기록은 영감(靈感)

성경기록에는 영감(靈感)이 안이고는 기록할 수 없는 것임은(고전 14:37) 지(知)하게 되었다.

1. 정의(定意) -- 첫째는 성경 기자(記者) 등이 성신(聖神) 감화할

것이 피등(彼等)의 성경이 신(神)의 언(言)인 것을 기(記)하였음(고전 14:37). 둘째는 성경 기자 등(等)에게 준 특별한 영적 감화는 성경이 인(人)의 구원을 위하여 신(神) 자체(自體)가 친히 현출(顯出)한 기록에 차오(差誤)가 무(無)함.

2. 성경 기자 등(等)이 자신이 영감(靈感)으로 서(書)한 것을 주장하였다(고전 2:12; 7:40; 14:37; 딤후 3:16-17; 벧후 1:20-21).

3. 중요구분

(1)인(人)으로 하여금 제(諸) 선사(善事)를 행할 자격이 있게 하는 실제적 목적(딤후 3:14-17).

(2)묵시(默示)는 영감으로 되어 보증한 진리임을 지(知)케 함.

(3)영감(靈感)은 후인(後人)에게 전하기 위하여 진리의 신임할만한 기록으로 준비되어 있음.

(4)특별한 초자연적 감화를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된 것을 부인한다.

(5)현대교회 신자들로서 주창(主唱)하는 신앙의 이종(二種)이 유(有)함.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함이다.

4. 성경은 문구(文句)에 의미가 절대적 이유로 포함된 것이 불소(不少)함을 금지할 것이다. (가령 병(餅)이 주의 신(身)이라 하나 신(身)은 아니라 신(身)으로 대용적신(代用的信) 할 수 있음.)

5. 호상(互相) 반의적(反意的)으로 보이는 원인 등.

(1)시기가 상이(相異)함(창 1:31; 6:6).

(2)소언자(所言者)가 부동(不同)함(창 2:17; 3:4).

(3)목적과 관찰점(觀察點)이 부족함.

(4)열거(列擧)한 기저(記著)한 방법이 부동(不同)함. (마태는 제목적(題目的)으로 마가는 시간적으로 기(記)하였음.)

(5)시간 계산방법이 부동(不同)함 <유대(猶太)월력과 로마(羅馬)월력>.

(6) 희백리(希伯利, 히브리) 숙어(熟語)와 희랍(希臘, 헬나) 숙어의 특이함.

(7)동일인(同一人)과 동일(同一)한 물(物)에 루명(累名)이 유(有)

함.

(8)동일한 명칭 가진 부동(不同)한 인물과 사건.

(9)언사(言辭)의 의미가 부동(不同) 점(행 9:7; 22:9-10).

(10)비교한즉 언절(言節)의 생략함.

(11)상상적(相像的) 배판(排判)이 부동(不同)함.

6. 난관(難關)에 대하여 적당한 태도(견해).

(1)좀 더 연구하면 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더 차출 수 없는 지식은 난문제를 해결함.

(3)하사건(何事件)을 설명할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하사(何事)는 인(人)의 지식으로 해결하기에 난(難)함.

7. 진리는 우주의 일반적 사실을 표시함으로 진리는 제간(第看)이 없음.

8. 성경은 동일한 제목으로 설명한 것이 안이라도 상충(相沖)되지 안음. (동일한 문제가 안이라도 상충이 무함).

행 2:40, 령(令)3:19,

갈 6:2, 령(令)6:5,

딤후전 4:16, 약 5:19-20,

출 20:13, 민 24:19,

눅 12:4, 약(約) 7:1,

출 20:5, 렘 18:20,

고전 9:19-22, 갈 1:10,

요(約) 5:31, 령(令)8:14,

약 2:24, 롬 3:28.

9. 성경은 일(一)편으로는 승인하고 일(一)편에서는 부인할지라도 성경구절은 충돌이 무(無)함.

눅 8:27, 태(太, 마) 8:28,

요(約) 19:17, 눅 23:26,

마(太) 8:5-13, 눅 7:1-10.

10. 동일한 사실에 진리적 사건은 중요한 상세점(詳細點)에 대하여 상이점(相異點)이 유(有)할 수 있음. (완전한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는 그런 상이점이 발생한다.)

(1)요(約) 12:18, 태(太, 마) 26:6-12, 막 14:3-8.

(2)마(太) 27:15, 행 1:18.

(3)마(太) 14:13-22. 막 6:32-44, 눅 9:10-17, 요 6:6-15.

(4)막 15:32, 눅 23:39-44.

11. 상이한 사건이 중요한 것은 상세점(詳細點)을 근사(近似)할 수가 있음.

(1)창 12:19, 20:2, 26:7.

(2)삼전(상) 23:19, 26:1.

(3)마(太) 5:29, 18:8.

(4)마(太) 9:32, 12:22.

(5)마(太) 5:34, 23:22.

12. 성서 중 하절(何節)은 설명에 나타난 제간(第看)된 듯한 것은 제간(第看)되게 한 절(節)에서 기(其) 의(意)가 다른 줄로 알 것.

(1)마(太) 28:19, 고전 1:17.

(2)롬 3:20, 약 2:24-26.

(3)요(約) 5:31, 8:14, 잠 26:4-5.

(4)마(太) 23:9-10, 고전 4:15.

(5)롬 15:2, 갈 1:10.

(6)고전 9:22, 엡 6:6-7.

(7)고전 10:33, 살전 2:4.

(8)마(太) 5:16, 6:1-6.

(9)딤후 1:10, 희 9:27.

(10)히 13:4, 고전 7:2-28, 령(令)7:1-8.

(11)벧전 2:18, 고전 7:23.

13. 구절(句節)이 제간(第看)된 듯한 때에 의미가 확실한 것이 해석상 표준이 됨.

(1)행 9:7, 22:9, 26:14-18.

(2)고전 7:6-12, 14:37.

14. 항상 저자의 정의를 오른 줄로 알 것이다.

(1)엡 6:17.

(2)살전 5:8.

(3)갈 3:16.

(4)딤후 3:17.

(5)롬 2:28-29.

(6)히(히) 5:14.

15. 상하 문맥이 연락(連絡)을 상람(詳覽)함으로 의미를 취할 것.
유사적(類似的)/비슷한)

(1)가치(價値)

①의미는 문맥으로써 작정할 것.

②말이 여러 의미로 된 것이 유(有)할 절(節)에는 문맥에 유력(有力)을 택취(擇取)할 것.

③새로 현(現)한 구절도 상하 문맥에 현(現)한 것으로 취(取)할 것.

(2)문맥 가치에의 실례(상하 문맥을 보아야 할 것).

①롬 14:23.

②요(約) 15:5.

③롬 1:3-4.

④히(히) 11:1.

⑤눅 9:60.

⑥요(約) 5:24-5, 5:20, 39.

⑦요(約) 1:27.

⑧눅 15:1-2(三比論).

⑨마(太) 20:1-16.

⑩마(太) 25:1-13, 24:51.

⑪마(太) 11:12.

⑫히(히) 4:14-16, 10:19.

(3)각 절은 병행(並行)하는 절과 조화(調和)해야 해석할 것.

①병행절의 종류.

a. 동일한 사건

①로마서, 갈나디야서를 도리적(道理的)으로 병행(並行).

②열왕기서, 역대기서, 사복음서는 역사적 병행(並行).

③구약에서 신약에 인증(引證)한 것 병행.

②병행의 기인(起因).

a. 위대한 진리는 점점 광대적(廣大的)으로 해명되고 동일한 저자나 타 저자로 인(因)해야 해명됨.

b. 중기(重記)한 사실.

①행 9장, 22장, 26장.

②행 10:9-48, 11:4-17.

③특별적.

a. 하인(何人)이 언(言)하였으며.

b. 하인(何人)으게.

c. 동시에.

d. 하고(何故)로 차(此)는 하자(何字)가 비결(秘訣)이 됨이다.

목회자가 서재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시에 이상과 여(如)한 강령(綱領)에 의하여 강해하여야 오해를 면할 것이니 특별히 주의하여 밀실의 기도와 묵상으로 지혜와 총명을 상(上)으로부터 가(加)하여 성경의 진리를 명랑(明朗)히 설교하며 그 오묘함을 저작(著作)에 저명(著名)하여야 한다.

제9장 목회자와 개인전도

제1절 개인전도 의의(意義)

대범(大凡) 전도에 이중(二種)의 방법이 유(有)하니, 대중적 전도와 개인전도이다. 대중전도라 함은 교회당에서나 노방(路傍)에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인을 회집하여 노고 복음 전도함을 운(云)함이니, 예수께서 군중 전(前)에 전도함과 피득(彼得)이 3천 혹은 5천명에게 전도함과 바울이 아덴 공원에 전도가 다 그것이다.

개인전도는 차(此)와 반대로 개인이 개인을 상대하여 복음 전(傳)함을 지(指)함이니 예수께서 니고대모으게 전도함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함과 집사 빌립이 구스 내시으게 전도함과 사도 빌립이 나다나엘으게 전도함과 바울이 루디아 여자으게 전도한 것은 개인전도의 좋은 모본(模本)이다.

개인전도는 대중적 전도보다 못하지 안은 위공(偉功)을 현(顯)하니, 차(此)는 말이 조어(釣魚)하야 하나둘씩 입룡(入籠)함과 과실을 적(摘)하야 입상(入箱)함과 같으니, 상(傷)하거나 유실(遺失)될 염려도 없이 최안전(最安全)한 방법이다. 주 예수님께서와 제자들도 개인전도에 공효(功效)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제2절 개인전도의 필요

교역자 중에 대중전도에는 전력(全力)을 다하지만은 개인전도에는 등한시하는 자(者)가 다(多)하다. 혹 반대자까지 유(有)하니,

1. 개인전도에는 대중전도보다 다시간(多時間)을 비(費)한다.
2. 개인전도는 노력은 다(多)하고 결과가 소(少)하다.
3. 개인전도는 면박(面薄)하야 죄를 책망(責望)할 수 없다.

4. 개인전도는 반대가 다(多)하다.

5. 신개척(新開拓)에는 필요할지나 목회에는 별무유익(別無有益)이라한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나 하고 심방이나 하면 소임(所任)의 직책을 다한 줄로 지(知)하나니, 차(此)는 오해이다. 개인전도는 목사의 본무(本務)와 같이 사(思)하여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道)를 전파하고 때를 득(得)하던지 불득(不得)하던지 완전히 면려(勉勵)하라고 하였다. 주께서는 제자으게 부탁하시기를 이등(爾等)은 왕(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마(太) 28:19; 막 16:15>고 하였다. 목사는 기신자(既信者)를 보수(保守)함도 귀한 사(事)이다. 신신자(新信者)를 득(得)함은 우귀(尤貴)한 사(事)이다.

부모가 자녀를 보육하는 동시에 생산함도 본무(本務)이다. 정치객(政治客)의 말에 의하면, 지역을 접수치 못하면 지(地)를 실(失)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차(此)와 여(如)히 교회에 신신자(新信者)가 생(生)치 안이하면 쇠약하여지는 증거이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친언(親言)하기를 “제인(諸人)의 혈(血)이 아(我)의 신(身)에 고(沽)치 아니한지라”(행 20:26) 하였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제인(諸人)의 혈(血)이라 함이다. 3년간 전도에 일개인이라도 복음을 문(聞)치 못한 자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 증거로는 “혹(或) 루인(屢人)의 전(前)에서나 각가(各家)에서 이등(爾等)을 교시(敎示)하며 유대인과 헬나인으게 회개(悔改)하여 하나님께 귀래(歸來)하여 아주(我主) 예수 그리스도를 신(信)하라 권(勸)하여 증거하였노라”(행 20:21) 하였다.

금일(今日) 전도자의 반성할 점은 개인전도에 나태(懶怠)에 재(在)하다. 교회의 부진(不振)의 원인도 역연(亦然)하다. 하(何) 교역자(敎役者)는 모지(某地)에서 전도 3개년에 신자 외에는 지면자(知面者)가 별무(別無)하다하니 차(此)는 개인전도를 하지 아니한 증명이다. 교역자는 하지(何地)에 재(在)하던지 이거시(移去時)에는 일인(一人)도 부지인(不知人)이 무(無)하여야 바울의 증언과 같이 일인(一人)의 혈(血)도 아신(我身)에 고(沽) 아니하였다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니라.

제1조 개인전도의 유익점(有益点)

1. 수모(誰某)던지 할 수 있음. 목사 뿐 아니라 평신도도 누구던지 할 수 있음.
2. 하시(何時)던지 할 수 있음. 일정한 시간이 안이라도 하시(何時)던지 할 수 있음.
3. 하처(何處)던지 할 수 있음. 지정한 장소가 안이라도 할 수 있음.
4. 하인(何人)에게던지 할 수 있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할 수 있음.
5. 신자가 되는 그날부터 할 수 있음.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에게, 빌립이 우인(友人) 나다나엘에게 신앙일(信仰日)부터 전도하였음.
6. 특별한 시간을 요(要)치 않음. 하사(何事)던지 하면서 할 수 있음.
7. 특별한 노력을 요(要)치 안음. 삼촌설(三寸舌)만 있으면 할 수 있음.
8. 사교(社交)의 기회가 됨. 전도로 시작하여 친밀한 교우를 득(得)할 수 있음.
9. 물질(物質)을 불요(不要)함. 일전(一錢)의 비용도 들지 않고 단지(但只) 친절(親切) 온겸(溫謙)의 덕(德)으로 할 수 있음.
10. 소간사(所幹事)에 피로를 망각(忘却)함. 차중(車中)에서나 행로중(行路中)에나 작업 중(作業中)에나 시간가는 줄을 모름.

제3절 개인전도자의 자격**제1조 신앙상 자격**

1. 자기가 확실히 구원의 체험자라야 함.
2. 부활의 주님의 신(神)이 침례 후에 자기 내(內)에 내주(內住)하심을 신(信)하는 자라야 함.
3. 전 생애를 주께 일임하고 자기는 주님의 소유물이요, 기계 됨을 각(覺)하는 자라야 함.

4. 청결한 생애로 주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하는 자라야 함.
5. 성령이 충만하여 영혼을 애(愛)함이 충일(充溢)한 자라야 함.
6.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상벌을 확신하는 자라야 함.
7. 인(人)의 영혼을 긍휼히 녀이여 기도와 전도할 심(心)이 간절한 자라야 함.

제2조 성질상 자격

1. 온겸(溫謙) 친절성이 유(有)하여야 하고 인성(忍性)이 유하여야 함.
2. 인(人)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자라야 함.
3. 예의(禮儀) 작법(作法)이 분명하여 타인으게 부덕(不德)이 무(無)한 자라야 함.
4. 어음(語音)이 급하거나 놀(訥)하지 안이한 자라야 함.
5. 개인 전도법을 잘 아는 자라야 함.

제4절 개인전도 방법.

제1조 개인전도 처소(處所).

1. 각 가정에서(행 20:20, 8:35; 히 13:2).
 2. 시가(市街)에서<행 17:17; 마(太) 22:9-10>.
 3. 공원에서(행 17:22).
 4. 노상(路上)에서(눅 24:32; 행 8:29-38).
 5. 사무처(事務處)나 병원과 옥중에서.
 6. 전차, 기차, 선중(船中) 전원(田園) 급(及) 공장에서.
- 이상을 총언(總言)하면 개인전도는 하처(何處)든지 할 수 있음.

제2조 개인전도 회화법

1. 시작하는 방법
 - (1)제반(諸般) 적당한 것을 문(問)함으로.
 - (2)전도지나 책자를 줌으로.

- (3)지극히 친절함으로 견(見)케 함으로.
- (4)인사함으로 혹은 무삼 물건을 줌으로.
- (5)시국토론이나 난경(難境)에서 도아줌으로.

2. 연속(連續)하는 법

- (1)수도자(修道者)로 하여금 문(問)코저 하도록 할 것.
- (2)답할 시(時)는 수도자(受道者)의 질문을 선(選)하되 장황(長荒)히 하지 말 것.
- (3) 수도자(受道者)의 동향(動響)과 표정을 따라 기민(機敏)하게 할 것.
- (4)수도자(受道者)의 질문이나 의사를 존중시 할 것.
- (5)수도자의 흥금을 개(開)하고 진정(眞情)을 토출(吐出)하도록 노력 할 것.
- (6)근리(近理)한 비유법(比喩法)으로 설명을 잘 할 것.
- (7)수도자 정도를 보아서 차차 인류는 타락함죄(墮落陷罪) 함을 지시(指示)할 것.
- (8)예수는 대인속죄(代人贖罪)하신 친애하는 구주이심을 지시할 것.
- (9)상제애(上帝愛)로 사죄(死罪)와 영생의 은사를 지시할 것.
- (10)기차(其次)에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생애를 지시할 것.
- (11)결심 시(時)에는 공복(公僕) 기도(祈禱) 후에 기명(記名)할 것.
- (12)간단한 초신도리(初信道理)인 회개와 신앙고백 후에 침례를 사죄(赦罪) 중생(重生)을 지시할 것.

3. 회화 중(會話中) 주의(主意)

- (1)유(類)를 따라할 것(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노인은 노인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 (2)상대자가 여하한 무례언(無禮言)으로 반대할지라도 미소로 감수(甘受)할 것.
- (3)성서를 개(開)하고 공견공독(共見共讀)할 것.
- (4)여하한 곤란(困難)이 유(有)할지라도 주께서 피영혼(彼靈魂)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지(持)할 것.

(5)피방(彼方)이 여하히 실례(失禮)할지라도 포책(捕責)치 말고 자신은 더욱 근신(謹慎)할 것.

(6)감정(感情)이나 쟁론(爭論)치 말고 온순한 담화와 미소로서 시종 일관(始終一貫)할 것.

(7)부경(浮輕) 조금(躁急)히 말고 유유(悠悠)히 대인(大人)의 금도(襟度)로써 인격적 영감을 시(示)할 것.

(8)종내(終乃) 반대(反對) 불수(不受)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불급불태(不急不怠) 계속할 것.

(9)시간이 너무 장황(長荒)하여 염증(厭症)이 생기기 전에 귀래(歸來)하고 실패 성공을 비교하여 기(其) 결점과 장점을 지(知)한 후에 취장사단(取長捨短)할 것.

제3조 각 종류인(種類人)을 인도법(引渡法)

1. 특수(特殊) 계급인(階級人)

(1)무신론 자에게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인(人)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인(人)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證據)하는 것은 최(最) 난사(難事)이다. 그러나 세상 무신론자는 여전히 대다수(大多數)를 묵유(默有)하고 있다. 엄어케 여차(如此)한 무신론자에게 생존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가 함이 문제이다. 요컨대 무신론자는 대개가 유식(有識) 계급(階級)에 재(在)한 인물들이다. 논리(論理) 변증(辨證)을 갖이고는 용이(容易)히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진리만 갖이고는 극복(克服)키 또한 곤란한 사(事)이다. 이하삼중(二下三種)의 논증(論證)을 참고(參考)로 약술(略述)함.

①자연인(自然人)에 대한 논증

우주의 대자연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기(其) 조(造)하신 만물을 견(見)하여 지(知)한다”(롬 1:20). 세간(世間)에 양설(兩說)이 유(有)하니, 자연설(自然說)과 창조설(創造說)이다. 창조설은 창세기 1:1에 기인(基因)한 기독교 우주관설(宇宙觀說)이오, 자연설은 근대 과학자를 통하여 주창(主唱)하는 진화론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초자연의 신이시라. 피조물(被造物) 되는 인간이 피조(被造)의 재료를 갖고, 조직된 과학을 갖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나니 과학은 피조(被造)된 물질 밖에 연구할 능력이 없다. 정신계를 주장하는 신경(神境)에까지 감히 이해할 수 없다. 영국 물리학 교수 푸라테는 모친(母親)의 루(淚)를 시험관에 입(入)하고 분석한 것을 학생에게 시(示)하면서 위(謂)하되, “제군(諸君)이여, 모친의 눈물도 과학으로 분석하니 수분과 염분뿐이다. 그러나 자모(慈母)의 쌍안(雙眼)에서 류(流)하는 누수 중(漏水中)에는 화학으로도 분석할 수 없는 모심(母心)의 애(愛)의 동력(動力)이 보이지 않는 중에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실로 대자연의 우주 배후에는 과학으로도, 안이 과학자라도 해득(解得)할 수 없고 견(見)할 수 없는 신(神)의 계획과 섭리와 운동의 능력이 활발함을 지(知)할지니라.

②심리적 논증

우주를 보고 자연뿐이라고 하는 인(人)은 인(人)을 보고 육(肉) 덩어리뿐이라고 하는 인(人)과 상사(相似)하다. 인(人)은 결코 육(肉)으로만 된 것이 안이오, 정신(精神)과 영(靈)으로 되었나니, 인간은 위급한 사(事)를 당하면 자기 이상의 력(力)을 의뢰하나니, 차(此)는 초인간적 능력을 지(持)하신 상제(上帝)가 존재하신 실증(實證)이다.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육체가 튼튼할 때에는 신(神)이니 종교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이 말이 주궁자(晝窮者)의 잠고대 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일조(一朝)에 실망(失望) 낙담(落膽) 공포(恐怖)에 함(陷)할 때는 자기라는 자체는 아무 것도 안이고 전능자의 능력을 의뢰코저 하나니라. 시고(是故)로 임사호천(臨死呼天)은 누구던지 자연성(自然聲)이다. 서양의 모 무신론자가 하시(何時) 도해(渡海)하는 중에 해중(海中) 풍랑(風浪) 대작(大作)에 위급(危急) 사경(死境)에 부지중(不知中)에 “오 하나님이여, 살려 주십시오.” 하였다. 행(幸)히 풍랑이 자고 파도는 진정되야 피안(彼岸)에 무사(無事) 상륙(上陸)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육지(陸地)에는 하나님이 없더니 해중(海中)에는 분명히 있더라.”고 하였다.

③ 성경상 논증

성경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영서(靈書)이다. 그 중에는 정치가 과학자 위대한 인(人)들이다. 차(此) 성경은 우주 대(大) 주재(主宰) 되신 상제(上帝)의 성서이심을 신봉(信奉)하여 왔다. 구약(舊約) 신약(新約) 성경은 문고(文庫)로 인정하고, 우리 신자는 상제(上帝)의 계시(啓示)하신 바의 교훈과 책망과 정직케 함과 의(義)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야 인생으로 완전케 하며 제선사(諸善事)를 행하기에 더욱 온전케 한다. 권위상으로는 세계 서적 중 수위를 점하였다. 600여만(萬) 언(言)과 인류 과반수의 신봉하는 신경(信經)이 되었다. 구약(舊約) 수사(首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였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였다. 차이(此二) 언약(言約)을 종합하면 상제(上帝)는 천지의 주인인 동시에 인류를 적자(赤子)와 같이 사랑하신다. 인류가 원류(猿類)로 진화하였다는 것보다 전능(全能) 다애(多愛)하신 상제(上帝)의 자녀 됨을 성경상에 합법 합리적으로 말삼하였읍니다.

④ 도덕상 논증

인간은 피조물 중에 최귀(最貴) 최영장(最靈長)이다. 차(此)는 천품(天稟)의 양심이 있는 까닭이다. 양심(良心)은 상제(上帝)가 인간에게 파송(派送)한 재판관이다. 선과 악을 지(知)하는 것은 양심의 판결이다. 인(人)의 선행을 할 때 기쁘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요 공포심이 생(生)한다. 차(此) 공포는 세상 법률을 외(畏)하는 공포가 안이요, 무인(無人) 독재처(獨在處)라도 악행 할 시는 전율(戰慄) 하나니, 차(此)는 양심 이상 도덕의 근본 되는 심판주(審判主) 상제(上帝)가 재(在)하신 증거이다. 일가(一家)에는 가장(家長)이 있고 일국(一國)에는 대통령(大總統)이 있다. 우주를 대통총(大總統)하시고 섭리하시는 상제(上帝)가 존재하심이 의당(宜當)한 사(事)이다.

(2) 회의론자(懷疑論者)에게

회의론자는 상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안이고 시인하지도 안은 인(人)이니, 다시 말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다

는 인(人)이니, 차(此)가 회의론자이다. 차(此)는 무신론자보다 반(反)히 인도키 곤란한 인(人)이다. “의심하는 자는 해랑(海浪)이 풍(風)에 당(撞)하야 요동(搖動)함과 여(如)한지라”(약 1:6).

① 성경을 의심한다.

성경은 과연 신(神)의 언(言)인가? 인(人)의 저작이 안인가 하여 의심한다. “대개 예언은 하시(何時)던지 인의(人意)로 출(出)함이 안이 오, 수인(誰人)이 성신(聖神)의 감동을 피(被)하야 하나님께 수(受)하야 어(語)한 것이라”(벧후 1:2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한 바니, 교훈과 책망과 정직케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야”(딤후 3:16) 인(人)이 만일 성경을 의심하거나 부인한다면, 상제(上帝)를 차자 불도리가 무(無)할지니, 차(此)는 상제를 심왕(尋往)하는 도(道)는 성경인 까닭이니라.

② 영혼을 부인한다.

인간은 물질로 되었나니 제반 동작은 정신의 작(作)이요, 정신은 뇌수(腦髓)의 산물이다. 그래서 정신의 원산지 되는 뇌수가 일시(一時) 피타(被打)되면 정신이 상실(喪失)하고, 심하면 사(死)하나니라. 영혼 유무는 논할 필요도 없다. 차(此)는 종교가의 추정설(推定說)이라 하여 배격한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유(有)한 영혼이 무(無)하야질리(理)는 없다. 비(比)컨대, 일광(日光)을 삼릉초자(三稜硝子)에 통(通)하면, 칠색(七色) 광채(光彩)를 발(發)하나니, 삼릉초자(三稜硝子)가 칠색광(七色光)을 조출(造出)하는 것이 아니요, 태양의 광(光)에 칠색(七色)이 자존(自存)함으로 삼릉초자는 일광을 수(受)하야 반영(反映)하야 주는 것뿐이다. 갱언(更言)하면 태양 중에 있는 칠색을 현출(顯出)하야 주는 기계뿐이다. 여차(如此)히 정신의 배후에 뇌수가 있고, 뇌수의 배후에 영혼이 의연(依然) 존재(存在)하야 뇌수를 조종하고 있음을 지(知)할지니라.

③ 구원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언제는 인류에게 죄를 주고 언제는 구원하시

는 하나님도 변덕(變德)이 다(多)하신다는 것보다 구원 이자(救援二字)는 종교가의 추상설(推想說)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人)이 범죄하면 판사가 판결해야 투옥한다. 그러면 판사가 기인(其人)을 투옥함이 안이라, 기인(其人)의 죄가 기인(其人)을 정죄(定罪)해야 입옥(入獄)케 한 것이다. 인류 범죄 책임이 상제(上帝)께 재(在)한 것이 안이다. 인류에게 재(在)하나니 투옥된 인물을 구출(救出)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좌(如左)의 다죄(多罪)한 인류를 구출함이 변덕이 안이오, 은혜이며, 농락(籠絡)이 안이오, 애(愛)이다<요(約) 3:16; 롬 6:23>.

④미래를 의심한다.

인간은 현실뿐이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논할 필요도 없고 신앙할 조건도 못된다. 공연(空然)히 비겁한 심(心)으로 지옥의 공포를 부르짖고 쓸데없는 허영심으로 천당(天堂)을 몽상(夢想)함은 종교가의 일종(一種) 공상(空想)이요 미신(迷信)이다 하야 내세설(來世說)을 반대한다. 신앙은 망(望)하는 사(事)에 실상(實狀)이요, 불견(不見)하는 사(事)의 증거이다. 근대과학은 원소불멸(元素不滅)을 주창(主唱)한다. 원소불멸은 즉 만물불멸(萬物不滅)이니, 만물불멸을 발견한 현대과학이 어찌하여 만물의 영장되는 인류의 원소격인 영혼(靈魂)은 영무(永無)한다고 주창하는가? 인(人)이 영무(永無)하지 않은 다고 하면 신자가 부활(復活)과 영생(永生)을 자증(自證)함이다.

(3)향락주의 자에게

상제(上帝), 천국(天國), 지옥(地獄) 같은 것은 있건 없건 머리 앞으
게 뇌심초사(惱心焦思)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그만이다. 복(腹)을 상제(上帝)로 삼고 북으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것이 향락주의자이다. 이상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보다 우난(尤
難)한 사람이니, 자기중심에서 사는 일종(一種) 이기주의자니, 현세
(現世)에서 부자와 귀인(貴人)이 그 사람이다.

①인생관(人生觀)을 보여줄 것(약 4:13-16; 벧전 1:24; 딤후 2:11; 요 2:16-17).

②인생(人生) 만반(萬般) 영위(營爲)가 허사(虛事)임을 시(示)할 것

(눅 12:15-21, 16:25; 약 5:1-2, 5; 전 5:15).

③금일 향락보다 영생(永生) 복(福)이 우승(尤勝)함을 시(示)할 것
(눅 16:22; 롬 8:18; 목 7:14-17).

④최후 심판을 제시할 것(롬 14:12, 2:16; 히 9:27).

(4)보통인에게

①영혼에 대하여 무주의자(無主義者)의게(롬 6:17; 요 3:18, 36; 8:24)

②자기는 가공(可憐)할 죄인이라는 인(人)의게<딤후 1:15; 새(사) 1:18; 시 51:14; 눅 23:43>

③아심(我心)이 너무 견고(堅固)하다는 인(人)의게<요 6:37; 결(結, 겔) 36:26; 고후 5:17>

④선(善)하여진 후에 신(信)하겠다는 인(人)의게(롬 3:10-12, 25; 눅 18:10, 14)

⑤중도에 폐(廢)할까 염려하는 인(人)의게(롬 14:4; 요 10:28, 37)

⑥악로(惡路)를 기(棄)할 수 없다는 사람의게(갈 6:7-8; 빌 4:13; 요 8:36; 롬 10:21)

⑦신앙하다가 타락한 인(人)의게(고후 6:8; 히 7:25, 10:27-39; 벧후 2:20-22)

⑧신앙하면 기(棄)할 것이 심다(甚多)하다는 사람에게(막 8:36; 요일 2:15-17; 눅 12:21)

⑨사업관계로 불신앙 하겠다는 사람에게(시 37:25-29; 막 8:36)

⑩신앙하면 친우(親友)를 실(失)한다는 인(人)의게(약 4:4; 잠 13:20; 요일 1:3; 막 10:29-30)

⑪외인(外人)의게 비소(鼻笑)를 수(受)할까 하는 인(人)의게<태(太, 마 12:40; 행 4:19; 잠 29:25; 목 21:8)

⑫핍박(逼迫)을 수(受)할까하는 인(人)의게(딤후 3:12; 마 5:10-11; 롬 8:18; 고후 4:17; 행 5:41)

⑬하(何) 생각(生覺)이 무(無)하다는 사람의게(히 9:27; 롬 8:6)

⑭기독(基督)을 심(尋)하였으나 불견(不見)하였다는 인(人)의게(렘 29:13; 눅 19:1-10, 15:3-10)

⑮신자(信者)를 견(見)하니 미신자(未信者)나 무이(無異)하다는 인(人)의게(롬 14:13; 마 7:1-5; 희 12:10-111; 갈 6:1)

⑯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인(人)의게<마(太) 6:15, 18:21-35; 엡 4:31>

⑰신앙의 장애사(障礙事)를 정리한 후에 신앙하겠다는 인(人)의게(요 3:36; 행 2:43; 빌 4:13; 눅 19:1-10)

⑱은혜시대에 범죄(犯罪)하였다는 인(人)의게(요 6:37; 롬 10:13; 눅 23:39-43)

⑲비관중(悲觀中)에 재(在)한 인(人)의게(요 14:1,27, 16:22; 마 11:28; 빌 4:4-7; 잠 12:25)

⑳생활난으로 불신앙하겠다는 인(人)의게(마 6:25-34, 2:15; 잠 11:28, 15:16, 16:8; 시 27:25)

제4조 공동 개인전도법(共同個人傳導法)

이상은 목사 자신의 개인전도에 대한 것을 약속하였거니와 금(今)에는 신자로 하여금 개인전도에 열중케 할지니, 목사는 친히 개인전도법을 교수할 것이오, 실지로 실행하도록 할지니, 이하와 같이 하면 많은 자미(滋味)와 성과(成果)를 봄이라.

1. 개인전도회를 조직하여 자원하는 신자로 하여금 회원이 되게 할 것이오.
2. 신자로 하여금 일개월간 개인전도한 것을 익월초(翌月初) 주일에 전월분(前月分)을 보고케 함.
3. 성적(成績) 일람표(一覽表)를 작성하여 남녀반 벽상 선견처(壁上先見處)에 첨부하고 매월 보고한 것을 기입할 것.
4. 성적부(成績簿)를 작성하여 서기로 하여금 보고한 것을 기입할 것.
5. 연말에는 총계를 보고 후에 포상(褒賞)할 것 (혹 망년회 석상에서)
6. 매월 기입(記入) 부호(符號)는 분수법(分數法) 약호(略號)로 기입하되 전도한 인수(人數)를 분모(分母)로 가정(假定)하고 결심자를 분자(分子)로 삼고 회(會)에 일차(一次)라도 출석한 사람을 완전수로 정

한 후에 기입할지니, 예(例)하면, $1\frac{2}{3}$ 라면 3인 전도에 2인 결심하고, 2인중 1인이 교회에 출석하였다는 의(意)이다. $5\frac{10}{20}$ 라면 20인 전도에 10인이 결심하고 10인 중 5인이 완전히 출석하였다는 의(意)이다. 여차(如此)한 의의(意義)의 약호(略號)로 기입하되, 차(此) 방법(方法)을 개 교회에 실시해 본 결과 심(甚)히 양호한 성적을 득(得)하였으므로 일지방(一地方)에 결의(決議)하여 전지방적(全地方的)으로 실행하여 지방교회들이 일 년간의 성적을 보고케 하고 우량한 교회와 개인의게 포창(褒彰)을 하여 각 교회 배(倍)가 운동에 성공한 경험을 견(見)하였다.

明 說

例 凡

凡人修道成績簿

成氏	朴氏	李氏	金氏	姓氏	月別
$\frac{2}{13}$	$\frac{1}{4}$	$\frac{5}{7}$	$\frac{2}{15}$	一月	
$\frac{4}{26}$	$\frac{5}{30}$	$\frac{5}{27}$	$\frac{2}{19}$	二月	
$\frac{5}{10}$	$\frac{7}{29}$	$\frac{2}{5}$	$\frac{1}{12}$	三月	
$\frac{5}{11}$	$\frac{5}{15}$	$\frac{6}{28}$	$\frac{3}{10}$	四月	
$\frac{1}{13}$	$\frac{0}{4}$	$\frac{9}{120}$	$\frac{1}{20}$	五月	
$\frac{4}{28}$	$\frac{4}{26}$	$\frac{5}{40}$	$\frac{4}{17}$	六月	
$\frac{0}{10}$	$\frac{3}{13}$	$\frac{2}{22}$	$\frac{4}{15}$	七月	
$\frac{2}{7}$	$\frac{3}{28}$	$\frac{2}{13}$	$\frac{1}{11}$	八月	
$\frac{1}{11}$	$\frac{2}{3}$	$\frac{12}{15}$	$\frac{8}{10}$	九月	
$\frac{1}{10}$	$\frac{4}{9}$	$\frac{9}{1}$	$\frac{0}{0}$	十月	
$\frac{3}{5}$	$\frac{1}{12}$	$\frac{2}{14}$	$\frac{3}{10}$	十一月	
$\frac{5}{7}$	$\frac{9}{10}$	$\frac{2}{15}$	$\frac{1}{12}$	十二月	
$\frac{25}{91}$	$\frac{42}{81}$	$\frac{31}{59}$	$\frac{36}{96}$	合計	

金氏는 一年에 七名 修道에 三十八名이 決心 十三名 出席

李氏는 一年에 五十九名 修道에 三十一名이 決心 三十一名 出席

朴氏는 一年에 八十一名 修道에 四十二名이 決心 三十一名이 出席

成氏는 一年에 九十一名 修道에 三十五名이 決心 三十一名 出席

기평(既評) 전도(傳道)는 성씨가 우승이오, 결심자는 박씨가 우승이오, 출석은 성씨가 우승이다. 평균수는 김씨 125, 이씨 106, 박씨 143, 성씨 147, 총우승은 성씨이다.

제10장 목회자와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제1절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동역자라 함은 직분의 차이는 고사(姑捨)하고 주의 복음의 사명을 대(帶)하고 영혼을 위하여 공생애(公生涯)를 보내는 일반 사역자를 지(指)함시오, 도덕이라 함은 호상간(互相間)에 수(守)할 본분, 의무, 예의를 지(指)함이라. 혹은(或人)은 언(言)하기를 종교 내에는 무차별적(無差別的) 일시(一時) 동인(同仁) 하(下)에서 평등주의이면 그만이다. 하사회(何社會)처럼 법이니 계급이니 할 필요도 없다한다. 종교는 사회를 떠나지 못할지니, 기독교는 사회의 일분자(一分子)에서 초월한 것만큼 질서와 법도가 사회보다는 더 명랑(明朗)하고 철저하여야 한다. 만일 불연(不然)이면 종교라는 기(其) 자체가 광명정대하게 사회에 홀립(屹立)해야 민중을 인도할 자격을 상실하여 일종(一種) 조생모산(朝生暮散)의 유사종교에 불과할 것이다. 애(愛)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나니, 교역자는 차점(此點)에 심신(深愼) 주의(注意)하여 자신이 실천공행(實踐躬行)하고 우(又) 신자와 일반 민중을 지도하여야 하나니라.

제1조 주임(主任)과 부주임(副主間)

소교회는 막론하고 대교회에는 주임목사 일인(一人)으로서는 도저히 감내(堪耐)키 난(難)함으로 부임(副任) 목사(牧師) 혹 전도사를 치(置)하여 주임목사를 조력(助役)케 하나니, 호상(互相) 예의(禮儀)로써 상애(相愛) 상호(相助)할지니라.

1. 주임목사(主任牧師)

주임목사는 영적 정치적으로 문자 그대로 틀림없는 주임이다. 의

당히 주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불여덕(政不如德)이오, 법불여애(法不如愛)니, 부하(部下) 동역자를 심심(深甚) 동정(同情)하여 상휴상제(相携相提)함이 교회 통치상으로는 덕의상(德義上)으로나 의당(宜當)한 사(事)이다. “인자(人子)가 래(來)한 것은 봉사(奉仕)를 수(受)하려함이 아니오, 사(事)하라고 중인(衆人)을 위하여 기명(棄命) 속죄(贖罪)함이라” <마(太) 20:28>. “이등(爾等) 주재자(主宰者)의게 주장(主掌)된 적세(籍勢)를 하지 말고, 오직 중(衆)의 본이 되라”(벧전 5:3). 인간은 부족하여 항상 자기라는 괴물을 앞장세우기 이(易)하니라. 그러므로 “무어시던지 타인에게 대접을 수(受)하고 저 하는 대로 이등(爾等)도 타인을 대접하라” <마(太) 7:12>. 공자는 소구호봉우(所求乎朋友)로 선시(先施)에 미능(未能)이라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타인을 대접하라. 차(此)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지(大旨)라 하였다. 주임목사가 부임자(副任者)를 대하여 수(受)할 덕의(德義)가 하(下)와 여(如)하다.

(1)정지사지적(情之思之의) 아량(雅量)으로 동정(同情)할 것.

(2)식히라는 정신을 기(棄)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정신을 지(持)할 것.

(3)언사(言詞)를 주의할지니, 명령적임을 기(棄)하고 동의적(動議的)을 표(表)할지니, 예컨대 이러케 하시오, 그러케 하면 안이 되오 등. 이렇게 하면 어떻할가요? 그렇게 하면 안이 될듯합니다 등. 동의(同意)인 것 같으나 상대방의게 다대(多大)한 차이가 유(有)함을 각지(覺知)할지니라.

(4)표정에는 언제든지 미소적(微笑的)으로 대할지니, 교사노교적(驕邪怒教的) 태도(態度)를 신(愼)할지니라.

(5)신자들의게 그를 존중시(尊重視)하는 본(本)을 시(示)할 것.

(6)자립 자주적 정신을 꾀하고 호상 의뢰적(互相依賴的) 방법을 취할 것.

(7)세소(細少)한 사(事)를 간섭(干涉)치 말고 대인적(大人的) 금도(襟度)를 시(示)할 것.

(8)그의 역사(役事)할 자유적 전도(前途)를 개방(開放)하여 줄 것.

(9)설교 심방 등사(等事)에 공의(共議) 공행(共行)할 것.

(10)교회(教會) 일체(一切) 사항(事項)을 직원회를 하기 전에 상의(相議)할 것.

(11)그의 원대(遠大)한 장래를 위하여 인도하며 축복할 것.

2. 부임목사(副任牧師)/ 전도사

부임은 주임을 방조(幫助)하여 역사(役事)할지니, 정치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주임에게 순복(順服)하며 동정함이 의당(宜當)하니라. 디모데가 바울의게 대하여 복음의 부(父)와 진리의 선배로 대접하였나니 부임자의 좋은 모본이다. 주임의 성공이 곧 자기 성공이요 주임을 도움은 곧 자신을 도움이다. 세상에 허다한 사업 중 교역의 사업이 중하고, 많은 인간 중에서 동역자의 연분(緣分)처럼 호합(好合)의 연분은 없나니라. 만일 주임 부주임간에 의견(意見) 상충(相衝)이나 소원(疏遠)의 기색이 현(顯)하면 차 영향(此影響)은 일반교회에 파급(波及)하여 중대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나니, 차점(此點)에 호상(互相) 주의(注意)할지니라.

(1)언제든지 선배라는 정신 하에서 우대(優待)할 것.

(2)언제든지 조급(助給)하겠다는 정신을 불망(不忘)할 것.

(3)언사(言詞)는 언제든지 문의적(問議的)으로 할 것이요, 독단적으로 말 것.

(4)표정은 온겸(溫謙) 양보적(讓步的) 태도를 취할 것.

(5)신자의게 절대로 주임(主任)의 사(事)를 논(論)치 말 것.

(6)주임의 허락이 무(無)하고는 교회 내에 공사회(公私會)를 개(開)치 말 것.

(7)수소(雖少)의 사(事)라도 주임의게 문의(問議)하여 피지배정신(被支配精神)을 불망(不忘)할 것.

(8)주임의 권리를 침해(侵害)하거나 월권(越權)의 행동을 신(愼)할 것.

(9)주임의 가사(家事)나 교회 행정을 타인의게 비난(誹難)하지 말 것.

(10)의견(意見) 상의(相議)가 유(有)할지라도 자기종인적(捨己從人的) 정신(精神)으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말 것.

(11)자기가 주임보다 우수한 칭찬을 수(受)하겠다는 경쟁적 심리를 표면(表面)으로나 이면(裏面)으로나 표현치 말 것.

제2조 남녀(男女) 동역자간(同役者間)

교회를 가정으로 비하면 남녀교역자는 영적 부부격(夫婦格)이다. 가정은 부부호합(夫婦好合)으로 단란(團欒)하고 교회는 남녀교역자 화합으로 부흥된다. 현하(現下) 교회의 불상사의 원인은 남녀교역자의 충돌에 재(在)하나니, 교계의 대문제(大問題)이다. 차(此)는 비타(非他)라 남녀교역자간에 상수(相守)할 도덕을 수(守)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1. 남교역자 대(對) 여교역자

남교역자라 함은 목사와 전도사를 지(指)함이니, 일 교회에 청빙을 수(受)해야 주임 부주임이 될 수 있다. 일가(一家)로 언(言)하면 가장격(家長格)이다. 영적 우(又)는 치리적으로 지배권이 유(有)함은 물론 어머니와 동역하는 여교역자를 동정(同情) 선대(善待)할지니, 차(此)는 자신을 위하여서도 의당(宜當)하고 교회를 위하여서도 합당(合當)한 사(事)이다. 남자가 아모리 활동해야 수입이 다(多)할지라도 부인이 가내(家內)에서 치산(治産)을 잘못하면 무저용(無底甕)에다가 급수(汲水)하는 격이라. 여차(如此)히 남교역자가 열심활동할지라도 여전도인의 심(心)을 실(失)하면 곧 부인 신자들의 심(心)을 실(失)할 리서(裏書)니 상휼(相恤)함이 의당(宜當)하니라. 전도부인 중에 대개가 천국을 위하여 독신(獨身) 봉역 중(奉役中)이니 가정생활(家庭生活)하는 남교역자보다 육체는 제방면(諸方面)으로 고독할지니, 특별 호위(護慰)할지니라.

- (1)연약한 주의 기(器)니 애휼(愛恤)할 것.
- (2)여성적 심리를 이해하여 감정을 상(傷)치 말 것.
- (3)생활법을 될 수 있는 대로 지도해 줄 것.
- (4)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전도부인을 동정케 할 것.
- (5)자기 부인의 언(言)을 문(聞)하고 전도부인을 인정논평(認定論駁)치 말 것이요, 반(反)하여 부인을 권면할 것 (남여 교역자의 충돌의

시작은 부인과 전도부인 간에부터 시작되나니 부인의 논평(論貶)을 신청(愼聽)할지니라.

(6)신자로 하여금 전도부인을 경애하도록 교시(敎示)할 것.

(7)수(誰) 전도부인이 미합(未合)한 점이 유(有)할지라도 은인자중(隱忍自重)하고 책망이나 권면적으로 경경(輕輕)히 발표치 말 것.

(8)전도부인의 역사적(役事的) 활동(活動)을 너무 구속하지 말 것.

(9)전도부인에게 대한 표정은 너무 엄격도 말고 너무 애정도 말고 경(敬)하야 상대여빈적(相對如賓的)으로 할 것.

(10)전도부인과 대화시에는 경건(敬虔) 예의(禮儀)에서 탈(脫)치 말 것.

(11)전도부인 방에 단독 출입(出入)치 말고 소요건(所要件)이 유(有)하면 타인 대동하고 입(入)할 것.

(12)신자의게 전도부인사(傳道婦人事)는 논평(論評)치 말고 신자가 수문(誰問)할지라도 거절할 것.

2. 여교역자 대(對) 남교역자

여교역자라 함은 복음의 사명 하에 공생애를 보내는 부인을 칭함이니, 곧 전도부인이다. 가정으로 말하면 주부격이다. 기십 기백명(幾十幾百名)의 주부니, 기(其) 책임과 의무도 막중하겠거니와 특히 동역하는 남교역자의 역사(役事)를 충심으로 봉내조(封內助)하지 않으면 얕이 된다.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이며, 언제든지 자신은 여자이라는 것을 망각치 말고 동심(同心) 합력(合力)하야 소임의 역사(役事)에 성공할지니라. 부부(夫婦) 불화(不和)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됨과 같이 남녀교역자가 불화한 교회 망치는 장본(張本)이요, 귀한 주의 사명에서 실각(失脚)하는 초보(初歩)가 된다.

(1)남교역자를 진심으로 순복(順服)할지니라.

(2)목사 부인을 논평치 말 것. 예컨대 살림을 못한다. 아해(兒孩)를 양육할 줄 모른다. 손님 접대를 못한다. 무식하다. 민음이 없다. 목사 부인은 목사가 감독할 것이요, 전도부인은 감독할 권(權)이 없다. 차(此)로써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3)목사 가정사(家庭事)를 간섭치 말 것. 차(此)는 목사 가정 시험

을 기(起)케 하는 원인이 되나이라.

(4)목사의 가정에 너무 빈번(頻煩)히 출입하지 말지니 차(此)는 무례한 사(事)니라.

(5)무인시(無人時)에 목사방에 출입치 말지니, 세인(世人)의게 의심을 피(被)하고 무례한 사(事)이니라. 소요사(所要事) 유(有)하면 재인시(在人時)에 입(入)할지니라.

(6)목사 부인이 있난데 목사를 너무 칭찬치 말지니, 차(此)는 그 부인의 오해를 피(被)할가 함이라.

(7)신자의게 목사를 논평치 말지니, 차(此)는 교회분쟁의 시작이다. 신자가 혹시 문(問)할지라도 거부(拒否)할지니라.

(8)목사와 담화시는 근신(勤愼)을 주로 할지니, 소담(笑談) 애교(愛嬌) 등(等)은 금물이다.

(9)신자로 하여금 목사의 치리와 교양과 인도를 복종하도록 할지니라.

(10)집회 시에 목사의 설교를 비평하지 말지니, 차(此)는 신자의 수혜(受惠)를 방해케 함이니라. 차라리 아멘으로서 신자의 수혜열(受惠熱)을 고취하라.

(11)목사의 허락 없이 부인회의 등을 하지 말 것.

(12)목사와 의견(意見) 상위(相違)가 유(有)할지라도 변색(變色)하지 말지니, 차(此)는 자기와 주의 교회를 위하는 미덕이 되나이라.

제2절 본 단체 동역자간 (그리스도의 교회 단체)

단체를 축소하면 일 가정이다. 부모구존(父母俱存)하시며 부화부순(夫和婦順)하며, 형우제공(兄友弟恭)은 군자(君子) 가정(家庭) 단락(團樂)이다. 세상 사업 중에 종교 사업에 헌신한 자 귀(貴)하며 허다한 단체 중에 동일한 신조와 교리 하에서 동역자 반열을 묵유(默有)하게 됨은 인간사에 다(多)치 않은 인연이다. “이등(爾等)은 외인도 안이오, 객(客)도 안이오, 성도들과 동국인(同國人)이오, 또 상제(上帝)의 권속이다”(엡 2:19). 단체 동역자는 주님의 권속이다. 얼마나 의미심

장(意味深長)한 말삼인가? 가화(家和)에는 만사(萬事)가 성(成)하고, 가불화(家不和)에는 만사가 패(敗)하나니, 단체일사록 더욱 화평하여야 한다. 일 단체의 지체격인 교역자 대(對) 교역자간에 상애상조(相愛相助)하며 상경상존(相敬相尊)해야 권속적(眷屬的) 이상(理想)을 실현함이 지당(至當) 무의(無疑) 사(事)이다. 내세 교계를 보면, 너무나 차(此)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사(事)가 다(多)함은 유감천만이다. 차(此)는 무타(無他)라 성서적 신앙과 성서적 인물이 되지 못하고 교역자가 된 연고(緣故)일 것이다.

제1조 동역자간에 수(守)할 도덕

- (1) 동역자간에 지킬 도덕은 상지(詳知)할 것.
- (2) 타인을 존중시 하는 정신을 지(持)할 것.
- (3) 강담(岡談) 피단(彼短) 할 것. 타인의 단처(短處)를 발견할 시는 자기 단처를 발견할 것을 반사(反思)하고 자반이축지(自反而縮之)할 것.
- (4) 타인의 성공을 볼 때에 훼손할 악마의 심정을 갖지 말고, 그의 뒤를 조장(助長)하며 동반(同伴)하면 자기도 성공할 것을 지(知)하여야 한다.
- (5)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는 야심적 근성을 근절할 것.
- (6) 타인의 의견이나 주의(主義)를 성서적 위반이 안이면 무시하지 말고 존중시 할 것.
- (7) 자기(自己) 지반(地盤) 보존키 위하여 타인의 향상을 좌절치 말 것.
- (8) 자신 향상키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지 말 것.
- (9) 공존 공영(共存共榮)의 도덕적 정신을 함양할 것.
- (10) 편당(偏黨)이나 편애심(偏愛心)에서 속히 떠나 일시동인적(一視同仁的) 대금도(大襟度)를 시(示) 할 것.
- (11) 직접문견사(直接聞見事)이외에는 신인(信認)치도 말고 속단(速斷)치도 말 것.
- (12) 타인을 조(助)함은 곧 자기를 조(助)함이라는 금언(金言)대로 할 것.

(13) 사람을 훼예(毀譽)키 위하여 선동적 행동을 취하면 죄가 된다.

(14)그리스도의 내(內)에서 일(一) 형제인 것을 지(知)하고 우월감을 기(棄)하라.

제3절 타 단체 교역자간

이단 교파는 제외하고 성서적 신앙에서 미각(味覺)한 점의 다소(多少)와 교파열이 무(無)한 교역자들의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친근(親近)상종(相從)해야 완전한 성서적 차이가 없는 각오(覺悟)를 주어 초대 신약교회로 환원해야 체(體)도 일(一)이라 한 일(一)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립(成立)해야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역자가 되도록 노력할지니, 만일 반목질시(反目嫉視)함은 종교 도덕적 상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 미비(未備)의 표시이다.

1.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정신과 상제(上帝)를 경외함이 동일한 즉 상애상경(相愛相敬) 할 것.

2. 동일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함은 동일한 주의 사명임을 인정할 것.

3.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당(派黨)이 생(生)해야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교회가 반역적 행동을 명시(明示)할 것.

4. 침례(뱀뱌조)가 약식세례 원인은 천주교 법왕 식티브 제2세 시대에 병인(病人)의게 행(行)함과 르벤라 종교회의에서 변경을 명시할 것.

5. 성서적과 차이점은 악마적 유혹에서 출생된 것을 동화중(同和中)에서 명시할 것.

6. 예수를 믿음에서 생활하는 자로서는 성서적으로 살야는 것은 성서가 권면하는 것을 명시할 것.

제4절 전후임자간(前後任者間)에 수(守)할 도덕

전후임자라 함은 교역자가 갑(甲)교회에서 역사하다가 을(乙)교회

로 전임되고 기(其) 후임으로 타교역자가 취임할 제(際)에 수(守)할 도덕을 운(云)함이니, 갑(甲)교회에는 전임자요, 을(乙)교회에는 후임자이다. 일생 교역에 자연적으로 기십번 전후임자가 된다. 그런고로 호상(互相) 지(知)하여야 하고, 수(守)하여야 할 도덕이 없을 수 없다. 잘못하면 전후임자에 복잡한 사단(事端)이 다(多)하여 신자의게까지 부덕을 유(遺)하고, 심하면 주(主)의 성명(聖名)과 신성한 교회까지 훼손케 되는 사(事)가 다출(多出)할 것이다. 떠나는 자, 오는 자, 의당히 겸양의 덕으로 거래(去來)치 않으면 안이 된다. 구약의 전임자 되신 침례 요한 씨, 신약의 후임자 되신 예수 씨를 제자들의게 소개할 때에 아후(我后)에 래(來)하신 이는 아(我)보다 능력이 다(多)하니, 아(我)는 기(其) 리(履)를 거(擧)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기(其)는 흥하여야 하고, 아(我)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 얼마나 전임자인 요한 씨, 후임자인 예수를 위하여 겸양과 진실한 표정의 소개인가? 우(又)는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제자의게 증거 하시기를 차인(此人)은 선지자보다 우승(尤勝)하니, 여인이 생(生)한 중(中)에는 요한보다 우대(尤大)한 자 무(無)하다 하였나니, 신약의 후임자 되는 예수께서 전임자 요한을 위하여 얼마나 극찬하시였는가를 알 수 있다. 교회 전임자의 모본(模本)할 좋은 전형(典型)이다.

제1조 전임자가 후임자의게

전임목사는 1주일 전에 교회 일체 사무를 정리 완비하였다가 장로들이 있는 교회면 당회를 개(開)하고 장로들의게 사무 인계식을 행하고, 만일 장로들이 없는 교회이면, 집사들을 회집하고 제직회 하에서 후임자의게 인계하라.

1. 인계할 문부(文簿)는 대략 여하(如下)함.

(1)신자명부록 - 침례인명록, 구도자명부

(2)재정문부 - 금전출납부, 일기장, 대차증서, 헌금기(獻金記), 예금통장, 기타

(3)비품장 - 비품장을 신임자의게 줄 때에 비품을 일일이 지시(指示)할 것.

- (4)도서부 - 서적 목록을 들고 도서를 일일이 지시할 것.
- (5)보고철 - 본 단체 공문철, 관공서 공문철.
- (6)주택기구 - 부정(釜鼎) 급(及) 일체구(一切具) 등.
- (7)인장 급(及) 건(鍵) - 교회의 일체 인장 급(及) 부속품 교회당 급(及) 비품 건(鍵).
- (8)회록류(會錄類) - 당회록, 직원회록, 사무적 회회록.
- (9)부속사업 - ①주일학교 - 직원명부, 생도명부, 재정부, 비품기.
 ②부인회 - 회원명부, 재정문부, 성미장, 회록 등.
 ③청년사업 - 회원명부, 재정부, 회록, 등.
 ④자선사업 - 일체 사업에 대한 문부(文簿).
- (10)지회 급(及) 기도소 - 소속 지회급(及) 기도소(祈禱所)에 대한 일체 문부.

이상 사무인계는 완전 조직치 못한 교회는 전임자가 후임자의게 하려이와 완전 조직한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는 교회면 사무(事務) 인계(引繼) 여부(與否)가 있게 된다. 왜 그러야 하면, 교회 재정 급(及) 각문부(各文簿), 비품 등 제반 일체를 장로들이 주장함으로 목사는 목회 사역만 할 뿐인 고로 사무인계는 장로의게 수(受)하고 이거시(移去時)에는 다시 장로들의게 인계할 것이다. 차(此) 사건(事件)도 교회의 중요한 사(事)이니, 성서적 신앙 중에서 엄격히 신성성(神聖性)으로 사무 인계식을 행할지니라.

2. 전임자의 주의사항

- (1)전임목사는 극력(極力) 후임목사를 공사간(公私間)에 소개할 것.
- (2)전임자는 필히 후임자가 이사 오기 전에 이거(移去)할 것.
- (3)교회에서 교역자를 이거(移去)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결정한 이상에는 여하한 사정을 막론하고 정연속거(正然速去)할 것.
- (4)전임자가 이거(移去)할 시(時)에는 신자나 상점에 거래와 제반(諸般) 세음(細音)을 이거(移去) 전에 청산(清算) 청장(清帳)할 것.
- (5)관공서 급(及) 유지(有志) 사회인의게 전임인사를 할 것.
- (6)신자들의게 신임자의 내력이나 결점을 구외(口外) 불출(不出)할 것.

- (7)전임자가 자기의 사업성적을 과장하지 말 것.
- (8)후임자의게 교회 사업내용을 상시(詳示)하여 줄 것.
- (9)신자들의게 이거(移去)할 의사가 부족한 언사나 표정을 시(示)치 말 것.
- (10)일차 이거(移去) 후에는 전임신자와 거래나 통신을 단절할 것.
- (11)신임지에서 전임지 자량을 하지 말 것.

제2조 신임목사의 수(守)할 도덕

신임목사가 부임(赴任)하여 사무 인계를 수(受)하고 신임식을 필한 후에는 비로소 권위가 있게 된다. 만사가 생소할 것이니 제직과 신자의게 문의하여 실수하지 안토록 할지니, 신임초가 처신(處身)이 제일 곤란하니라. 차(此)는 인(人)의 초면목(初面目)의 시선(視線)이 필폐(畢幣)해야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음이라. 연고(緣故)로 목사가 첫 눈에 신자의게 부덕(不德)으로 잘못 보이면 좀처럼 만회키 곤란하다. 일동(一動) 일정(一靜)을 조심하되 열정적에서 너머 경망(輕妄)함으로 부덕 되지 않게 할지며 모든 것이 불편(不便) 불만(不滿)할지라도 은인자중(隱忍自重)하고 경경(輕輕)히 출색(出色)치 말 것.

1. 신임자의 주의 사항

- (1)임지에 속히 부임할 것.
- (2)신임 초에 너무 능동적 태도를 신(愼)할 것.
- (3)당분간은 전임자의 사업을 계승할 것.
- (4)신자 전(前)에 결점을 논평치 말 것.
- (5)신임지의 교세를 논란치 말 것. 교회가 약하다. 냉랭하다 등.
- (6)신자의 심리와 교회 내정(內情)을 낱나히 찰지(察知)할 것.
- (7)신임설교를 너무 공격적이나 책망적으로 하지 말 것.
- (8)자기를 나타내려는 자과적(自誇的) 태도를 표시치 말 것.
- (9)신자들의 호감을 득(得)하라고 박약(薄弱)한 표정을 말고 침중(沈重) 자약(自若)할 것.
- (10)부임후 교세가 전진(前進)하였을지라도 경경(輕輕)히 과장치 말

것.

(11)관공서 급(及) 사회 유지의게 신임인사 함이 가함.

(12)약(若) 전임자가 적래(適來)하면 전공자로 예우(禮遇) 선대(善待)할 것.

제11장 목회자와 심리학

제1절 심리학의 의의

심리학은 인간심(人間心)의 원리와 동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원래 물심양방면으로 조직된 것이니, 즉 심령과 육체이다. 인(人)의 일체동작의 기인(起因)은 심(心)이니, 내적 기관이 되는 심(心)에서 정신을 통하여 외적 기관 되는 신경을 통하여 육체에 표현하는 것이 동작이요 표정이다. 대개 인(人)의 동작과 표정을 따라서 기인(其人)의 내적 심리상태 여하를 표준하게 되나니라. 내적 심리상태를 지(知)하므로 춘도(忖度)할 수 있나니 요긴하면서도 용이한 것은 아니다. 대개 인간의 심(心)은 내적인 동시에 비은(秘隱)하여 그렇게 용이(容易)히 찰지(察知)할 수 없나니 속어(俗語) 오십인수심(五十仞水深)은 지(知)하되 일인인심(一仞人心)은 부지(不知)하다고 하나니라. 인심(人心)을 지(知)하시는 이는 인(人)을 조성(造成)하신 상제(上帝) 외(外)는 없다. “대개 아(我)의 시(視)하는 것이 이(異)하니 인(人)은 외모를 시(視)하나 아(我)는 중심을 시(視)하노라”(삼상 16:7). 피조물 되는 인간은 오묘한 진리를 성서를 통하여 지(知)하고 난지(難知)의 인심을 전폭적(全幅的)으로 지(知)키 불능(不能)하나 선철(先哲)의 심리학상으로 혹은 경험상으로 하(何) 정도까지 지(知)할 수 있나니, 그런고로 목회자로서는 자기 본위에서만 사는 생애가 안이오, 중인(衆人)을 위하여 사는 생애이니, 대중을 지도하고 중양(衆羊)을 목양하려면 우선 기(其) 심리를 지(知)하는 것은 최요긴한 사(事)이다. 인(人)의 외양(外樣)도 각이(各異)하니, 각인(各人)의 심리를 수(隨)하여 인도하는 것이 최지혜(最智慧) 있는 목회자이다. 인간 처세에 수모(誰某)의게나 다 필요 하겠지만은 특히 목회자의게 제일 필요한 사(事)라 하노라.

제2절 심리학의 필요

제1조 목회상(牧會上) 필요

목회자가 목회하라면 일종(一種)의 인(人)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류와 각 계급의 인을 상수(相手)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개 인간의 심리는 계급과 환경과 연령과 남녀별을 따라서 차이가 유(有)하니, 남자의 심리와 여자의 심리가 다르고, 노인의 심리와 소년의 심리가 상이(相異)하니, 만일 목회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한다면 성공할 수 없고 실패가 다(多)할지니라. 그런고로 금(今)에 연령별에 수(隨)하여 심리작용이 다소 차이가 유(有)함을 시(示)하노라.

1. 노인의 심리

노인이라 함은 남녀를 물론하고 고령자를 운(云)함이니, 연령별로 운(云)하면 60이상 된 자이다. 노인이라고 근본 노인이 아니라. 유년(幼年)에서 소년(少年)에서 청년(青年) 장년(壯年)을 지나서 노인(老人)이 되나니, 금일 노인은 전일(前日)에 유년이며 청년임을 연상하게 된다. 노인의 장점은 침중(沈重) 내구성(耐久性)이 있고, 인간(人間) 세고(世苦)에서 싸온 경험이 다(多)하고 전후좌우사(前後左右事)에 대하여 숙고심사적(熟考心思的) 아량(雅量)이 있고 도덕적 관념이 후(厚)하고 지인지감적(知人知感的) 관찰(觀察)이 강한 편으로는 목회에 없지 못할 중보(重寶)라 할 수 있다. 기(其) 반면에 단점으로는 비겁성(卑怯性)이 있으나 고집(固執)이 유(有)하여 보존적(保守)적, 진보적은 약하다. 창설적(創設的)에는 불능(不能)하고 사고(思考)에는 숙(熟)하나 유예성(猶豫性)이 유(有)하고 심중성(深重性)은 유(有)하나 감정적 운동이 둔하고 도덕심은 후(厚)하고 용단성은 박(薄)하나니, 그런고로 노인이 다(多)한 교회는 실패가 소(少)한 동시에 진보가 지연(遲延)하나니라.

2. 장년 심리

장년이라 함은 노인(老人) 미급(未及)이요, 청년 기과자(既過者)라. 40이상 50좌우이다. 인생으로 언(言)하면 정오기(正午期)니 제반사(諸般事)이 차기(此期)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나니, 그런고로 차기를 사업기(事業期)라고도 하나니라. 맹자왈(孟子曰) 아(我)는 40이.라 부동심(不動心)이라 하였고, 공자언(孔子言)에 50에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으니, 종교적 활동도 차기에 적당하니라. 장년기 장점은 심리작용이 안착(安着)하고 견인불원(堅忍不援)의 인내심에서 과감 용단성이 부(富)하고 외래적 유혹에서 저항력이 강하고 자주 독립적 의지가 확실하고 사업적 투지가 유(有)해야 교회부흥을 기(起)케 할 호시기이다. 자고(自古)로 사업가들이 차(此) 장년시기를 응용하였다. 약점으로는 인내심이 유(有)한 반면에 관용성이 박(薄)하고, 용단성을 따라 포용성이 약하고, 유혹을 저항하는 힘이 강한 반면에 복수심이 반(伴)하기 이(易)하고, 사업욕이 유(有)한 반면에 욕속부달(欲速不達)의 폐(弊)도 불무(不無)하다. 그러나 인간 인생에 최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 교회 내에 장년이 다(多) 하면 능동적 력(力)이 부(富)해야 진보부흥에 유력(有力)하니라.

3. 청년 심리

청년이라 함은 연령으로는 20세 이상으로 30세 좌우를 지(指)함이니, 수양시(修養時)와 사업시작기도 30세에는 됨이다. 제반 학구적 수양을 필하고 심신을 정하여 가지고 사업에 진(進)하라는 희망기이다. 그런고로 성서중 위인들도 대개 30세에 사업에 취(就)하였나니, 침례 요한이도 우리 구주께서도 30세에 전도를 시작 하셨나니라. 청년 시기는 인생의게 가장 귀한 시기이니, 일일지기(一日之期)는 신(晨)에 있고, 일년지기(一年之期)는 춘(春)에 재(在)하고, 일생지기(一生之期)는 청년기에 재(在)하나니라. 차기(此期)를 실(失)함은 농부가 춘기(春期)를 실패와 무이(無異)하니라. 장점으로는 용약적(勇躍的) 기질(氣質)이 다(多)하고 급진(急進) 무외적(無畏的) 심리에다가 이론 학구적 정신이 발달한 시기이다. 그러나 차(此) 시기(時期)는 가장 위험한 시(時)이니, 인간 일생사가 판정되는 시(時)이다. 단점으로는 용약적(勇躍的) 기질(氣質)이 다(多)함으로 따라서 경거망동(輕舉妄動)하기 이

(易)하고, 급진적 심리가 강한 동시에 하시(何時)든지 완력투쟁에 소(訴)하고, 이지적 판단이 약하며 이론적 정신이 발달된 것만큼 덕의상(德義上) 관용심이 박(薄)하고, 감정이 예민하고, 기단(氣短)하여 표정이 무상(無常)해야 잘못하면 타락전복(墮落轉覆)키 최용이(最容易)한 대(때)이다. 또는 종교심이 박약하다. 신앙 유지키 심난(甚難)한 시기이다. 교회 내에 청년이 다(多)한 것은 경하(慶賀)할 일이지만, 선량한 지도자가 무(無)하면 해(害)를 수(受)하기 이(易)하고, 잘 교양하면 훌륭한 양재(良材)를 만들 수 있나니, 목회자를 무시하지 말고, 우(又)는 너무 위험시 하지 말고, 기(其) 교양에 부심노력(腐心努力)할지니라.

4. 소년의 심리

소년이라 함은 10세 이상으로 20세 미만자를 운(云)함이니, 신체발육이 왕성한 시기이다. 따라서 종교적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이(爾)가 소(少)하였을 때에 너의 조물주를 기억하라”(전 12:1). 인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때요, 선악의 기로선(岐路線)이다. 지도 방법 여하를 따라서 좌우되는 요긴한 시(時)이다. 덕육(德育), 체육(體育), 지육(智育)으로서 외적 인격을 양성하고, 신앙으로서 내적 영성을 수양하여 내외가 구비한 완전한 인격을 양성하여야 한다. 차(此) 시기의 심리는 다종다양(多種多樣)으로 호기심이 부(富)하고, 모방심이 다(多)하고 경민(輕敏) 쾌활(快活)을 호(好)하고, 신체발육이 연년(年年)히 차이 있음과 지적양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함을 따라 심리적 작용도 연년(年年)히 변하나니, 기(其) 변할 시(時)마다 새로운 것을 수입 모방하는 작용이 강하다. 그런고로 상대방이 선(善)을 영입(映入)하고 악(惡)하면 악을 영수(影受)함이 말이 사진(寫眞) 건판(乾板)이 상대 물체를 그대로 촬영케 됨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 주위와 환경의 지배를 제일 많이 받는 만큼 위험성이 역다(亦多)하니, 후견(後見)과 지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나니, 내(內)로는 종교교육(宗教教育)을 불태(不怠)할 것이요, 외(外)로는 악한 류(類)의 교접(交接)과 불의(不義)와 그리고 서적과 불결한 영화 급(及) 회합을 주의케 하여 기(其) 순량(純良) 본성(本性)을 보수케 하고 타락을 방지할지니라. 목회자는 가

정부모를 대표하고 학교교사를 대표하여 그의 영적지도에 심심한 노력을 다할지니라.

5. 유년 심리

유년이라 함은 지각(知覺) 언어(言語)를 근해(僅解)할 수 있는 4세로부터 10세 좌우를 지(指)함이니 해제지동(孩提之童)이라. 인생(人生) 행각(行脚)의 시작이니, 차시(此時)에 최(最) 필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다. 자신의 의지 판단이 약한 동시에 외래의 감화를 다수(多受)하니, 주야로 상대하는 가정인(家庭人)의 행동을 담고 수입하는 천진무사기(天真無邪氣)한 때이다.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부모의 감화니, 부모는 육체와 성질계통을 수(受)하였고, 보육상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만큼 수(受)하는 감화도 강하다. 기중(其中)에도 부(父)의 감화력보다 모(母)의 감화력이 우강(尤強)하니, 부모된 자는 의당히 경건함과 진실함으로서 사언행(思言行)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전형적 모본이 되지 않아서는 안이 된다. 세상에 위인(偉人) 군자(君子)는 다 현부양모(賢父良母)로 인하여 산출하였나니, 삼우엘의 모친 한나, 주의 모친 마리아, 디모데의 모친 유니게와 유교에 맹자 모친과 정치가의 화성돈(華盛頓, 위싱턴)의 모친과 신라시대 김유신의 모친 등등, 일일이 매거(枚擧)키 불능(不能)하거니와 위인 부모자(父母者), 자녀를 위하여 물실차호기(勿失此好機)하고 신앙과 진리 중심하에서 호감화(好感化)로서 급여(及與)할 것이요. 목회자 역시 주일학교를 통하여 진실한 영감을 태급(胎及)할지니, 여차히 내외호응하여 지도에 노력하면 마전지봉장(麻田之蓬長)으로 인격의 초석이 된다.

6. 남성 심리

남녀간의 성별이 다른 고로 심리상태도 다소 차이가 유(有)하니, 목회자는 남녀를 지도하는 책임이 재(在)하니, 기(其) 심리적 차이점을 지(知)하여 교도(教導)할 필요가 있다. 남자에게 대하는 태도로 여자에게 대하면 불합리요. 여자에게 대하는 태도로 남자에게 대하면 역시 불합할지니, 각각 남녀간 심리를 선해(善解)하여야 목회상에 지혜 있는 공인(工人)이 목재와 철재를 구별 급(及) 성질을 따라서 양구(良

具)를 제작함과 무이(無異)하다. 남자의 심리는 천차만별의 차가 유(有)하다. 보통으로 언(言)하면, 강완견박(強頑堅朴)하고, 호용투한(好勇鬪悍)하며, 소정근리(疎情近里)하고, 건조담담(乾操談談)하며,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과단엄정(果斷嚴正)해야 생존경쟁리(生存競爭裡)에 능당(能當)할 수 있는 소질이 유(有)하나니, 기(其) 심리작용이 여성에 비하여 일정(一定) 단순(單純)치 않고 다각적으로 변태(變態)하나 근본중심사상이 난리(亂離)케 됨은 남성적 특성이다. 그런고로 종교심이 용이(容易)히 기(其) 완강(頑強)한 심벽(心壁)을 투입(投入)키 난(難)하고 일차 신앙하면 경경(輕輕)히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고로 교회에 남자가 다(多)치 못한 기(其) 원인 중에 일(一)이다. 남자가 다(多)한 교회가 기초가 견고한 것도 그 까닭이다.

7. 여성의 심리

남자를 외(外)라고 하면 여자는 내(內)이다. 기(其) 심리도 남자와 정반대가 되나니, 남자가 강완견박(強頑堅朴)한 대신 여자는 연약온밀(軟弱溫密)하며, 호용투한(好勇鬪悍)한 반면에 다집화순(多法和順)하며, 소정근리(疎情近里)한 반면에 다정다애(多情多愛)하며, 포조무미(袍操無味)한 남성에 비하여 표정용심(表情用心)이 솔직무사기(率直無邪氣)하며, 유혹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며, 과단엄밀(果斷嚴密)한 남자에 비하여 유예성(猶豫性)과 의뢰심이 다(多)하고, 종교심은 부(富)해야 일차 결심하면 경경(輕輕)히 변치 아니 하나니, 자고로 유명한 신앙가(信仰家)가 여인 중에 다(多)함을 견(見)할지라 입증할 수 있다. 현대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다(多)함도 차(此)가 원인일 것이다.

제2조 개인전도상 필요

심리학의 응용을 목회뿐 안이라 개인전도상에도 필요하나니, 전도는 매시(每時)에 이상 각 종류의 인(人)을 상대할 시(時)에든지 관형찰색(觀形察色)에 능하고 심리감별에 지식적 관찰이 민첩하여야 할 지니, 차(此)는 인(人)의 심성이 각이(各異)한 까닭이다. 예수께서도 인(人)의 심전(心田)을 사종(四種)으로 비유하셨나니, 즉 노변(路邊)

석전(石田) 옥토(沃土) 등이다. 천국복음의 종자(種子)는 수도자(修道者)의 심전(心田) 여하(如何)를 따라서 기(其) 결과를 현(現)하나니, 노변(路邊)은 완고한 심리를 지(指)함이니, 청도(聽道)할지라도 각오(覺悟)할 수 없고, 석전(石田)은 감정(感情)이 빠르고 인내성이 약하며 경동적심리(輕動的心理)가 유(有)해야 수도(受道)는 속(速)하나 유지(維持)에 불능(不能)해야 속진속퇴적(速進速退的) 신경질적 인(人)이 오, 형전(荊田)은 다욕다사자(多慾多思者)의 심리니, 청도(聽道) 수도(受道)해야 발아(發芽) 생장(生長)하되, 그 많은 재욕(財慾)과 각종 사료심(思料心)의 방해로 인하여 결실을 불능케 하나니, 근육질(筋肉質)의 인(人)에 근(近)하나니라. 옥토(沃土)는 제종(諸種) 심리(心理)의 장점만 취한 자니, 석전(石田)에서 신속한 감정을 취하고, 형전(荊田)에서 진취욕(進就慾)을 취하고, 노변(路邊)에서 견인성(堅忍性)을 취해야 청도시(聽道時)에 신속히 수도(受道)하고 진취성으로 발육성장하고, 견인한 인내심에서 결실해야 백배(百倍) 추수(秋收)를 하게하나니, 차(此)가 옥지(沃志)이라. 전도자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시(時)에 차종(此種) 심리(心理)를 지(知)해야 인도함은 말이 농부가 기(其) 토질을 선지파종(善知播種)함과 동일야(同一也)라.

제3조 사교상(社交上) 필요

사교라 함은 인(人)으로 흥(興)하여 교제함을 지(指)함이니, 묵회사업은 대인(對人) 교제(交際)하는 시간이 최다(最多)한 사업이다. 전술(前述)한바와 같이 동일한 인간이로되 십인십색(十人十色)의 외형적 차(差)를 수(隨)하여 심리의 상위(相違)가 유(有)하나니, 예컨대 신경질이 유(有)한 갑(甲)에게 대한 태도를 활액질(活液質)을 가진 을(乙)에게 대하면 불합(不合)하고, 근육질(筋骨質)을 가진 병(丙)에게 하던 태도를 다혈질(多血質)을 가진 정(丁)에 대하면 열화적(熱火的) 충돌(衝突)을 야기(惹起)하게 되나니, 그런고로 위선(爲先) 상대자의 심리형편을 찰지(察知)해야 지혜 있게 교제함은 최호사(最好事)이다. 특히 교역자의게는 불가결의 요건이 되나니, 사교적 기능이 능(能)한 것은 인간 처세에 귀중한 보화가 되나니라.

제3절 체질에 의한 심리차이

인(人)의 체질과 심리는 밀접한 관계가 유(有)하나니, 대개 인(人)은 기(其) 체질에 의(依)하여 심리작용의 다대(多大)한 차이가 유(有)함을 지(知)할지니라. 말이 기(器)에 의하여 수(水)의 모양이 다른 것과 같은 이(理)이다. 인(人)의 신체의 대소(大小) 장단(長短) 강약(強弱)의 별(別)이 있다. 그러나 차(此)를 대별하면 사종(四種)에 분(分)할 수 있으니 신경질(神經質)과 다혈질(多血質)과 근골질(筋骨質)과 활액질(活液質)이다.

1. 신경질의 인(人)은 최(最)히 신경이 예민한 인(人)이니, 체격은 세약(細弱)하고 색소(色素)는 창백색(蒼白色)에 빈혈질(貧血質)이오, 비박(肥薄)하며 동작이 민첩하고 감정이 신속하여 변하기 자조하며 기단(氣短) 조급(操急)하여 인내성이 약하고 의심오해하여 교제상 곤란한 점이 다(多)하나니라. 사려심(思慮沁)이 다(多)하여 일차 생각한 것을 용이히 망각치 안이하는 특성이 유(有)하고, 차(此)에 의(依)하여 사고학구적기능이 다(多)하고 비상한 재사(才士)들이 다(多)하여 정도를 지나치지만 안이하면 선량 정직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차(此) 신경질적 인(人)이 주의할 것은 신경쇠약증, 뇌통, 빈혈증에 리(罹)하기 이(易)한다고 하였다.

2. 다혈질의 인(人)은 다혈(多血)인 것만큼 체격은 튼튼하고 강장(強壯)하여 성질이 활발하고 건전하며 심리는 시기심과 완력성(腕力性)이 부(富)하고 감정적 표정이 다하고 분노심을 참지 못하고 성(性)이 완이급(緩而急)하여 일차 발노(發怒)하면 기(其) 열화적 노기(怒氣)는 다혈(多血)로 된 기(其) 혈액고동이 정식(靜息)될 때까지 빠치고 나가나니, 혈기적(血氣的) 인(人)이다. 이론을 후(後)하고 완력(腕力)을 선(先)하고 역병적(憶病的) 벽성(癖性)이 다(多)하여 사물상(事物上) 실패가 다(多)하나니라. 여차(如此)한 인(人)은 뇌출혈, 심장마비에 리(罹)하기 이(易)한다고 하였다.

3. 근골질(筋骨跌)의 인(人)은 최(最)히 근골(筋骨)이 발달되고 강대하며 신장(身長) 비박(肥薄)하며 색흑혈소(色黑血少)하며 체질은 건전해야 외침(外侵)에서 용이(容易)히 저항력이 강하고 성질은 분노심과 과격성이 다(多)하고 적개심(敵愾心)과 복잡성이 강하고 우월감과 영웅적 야심(野心)이 부(富)하고 우울(憂鬱) 번민성이 다(多)하고 정(情)에는 원(遠)하고 기(氣)에는 근(近)해야 급진과단성이 유(有)하고 기상(氣狀)은 활발 건전해야 용이(容易)히 타인에게 양보치 않으려고 한다. 자고(自古)로 차중중(此種中)에서 영웅과 위인이 다산(多産)하나니라. 차중인(此種人)이 폐병과 심장병에 걸리기 리(罹)하기 이(易)한다고 한다.

4. 침액질(沾液質)의 인(人)은 체격이 단대(短大) 비후(肥厚)하며 지방질이 다(多)하고 동작이 둔하여 활발치 못하고 심리작용은 침착(沈着)해야 감정에 동(動)치 안이하고 인내력과 관용성이 부(富)하고 분노심이 소(少)하고 저항성이 약(弱)해야 도덕적 소질이 다(多)하고 일편(一便)으로 나약(懦弱) 무능(無能)하기 이(易)하고 항상 진보력이 소(少)하나 교제상에는 용이하며 처세도(處世道)에 적의(適宜)한자니 자고(自古)로 차중인(此種人)중에서 도덕군자와 종교가가 다산(多産)하나니라. 차중인(此種人)중에는 신장병과 뇌일혈병에 리(罹)하기 이(易)한다고 한다.

5. 중간질(中間質)의 인(人)이라고 함은 이상 사중(四種) 체질(體質)에 전속치 않고 부분적으로 조합(組合)된 체질이니, 분류키 난(難)한 고로 중간질이라 하나니, 예컨대 신경질과 침액질에서 조화된 인(人)은 체격이 단소(短少)하나 단단하고 체질이 민활하면서 단아(端雅)하고 심리작용이 온량(溫良) 공겸(恭謙)해야 처세도와 교인상호인(交人上好人)이 되나니라. 근골질과 침액질로 조합된 인(人)은 체격이 장대하고 튼튼하며 기(其) 발달된 골격에다가 비후침질(肥厚沾質)을 가(加)하여 인격다운 체격에다가 대인적 위풍이 유(有)해야 체격 중 최호(最好)한 체격을 지(持)한 자(者)니, 심리작용도 관후(寬厚)한 도덕

심에다가 쾌활(快活) 용단적(勇斷的) 영웅질을 가(加)하여 용심법(用心法)이 원만하고 사상(思想) 웅대(雄大)하여 대소사업에 성공의 가능성이 유(有)하나니, 여차(如此)한 인물 중에 정치가 위인이 다산(多産)하나니라. 인(人)의 체질이나 심리는 전속질(全屬質)보다 중간 조화질(造化質)이 양호한 실례가 다(多)하나니라. 그러나 신경질과 다혈질 혹은 근골질이 조합되면 도면(刀面?)칼날 같은 심리와 열화 같은 기질이 유(有)하여 처세방(處世方)에는 자신 급(及)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사(事)가 다(多)다고 하였다.

제4절 체질 음양과 심리 성격

음양(陰陽)에 대한 학설은 철학적인 동시에 탐원난구(探源難究)뿐만 아니라, 난해(難解)이며 지자(知者)도 극소(極少) 부다(不多)한 것이다. 구약성경 중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상제(上帝)가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였고, 신약성경 중 약한복음(約翰福音,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태초(太初)에 도(道)가 유(有)하니, 도(道)가 상제(上帝)와 동재(同在)함때 도(道)는 즉 상제(上帝)시다 하였다. 태초라 함은 도(道)가 시작되는 즉시(卽時)부터이다. 천지는 도(道)로서 창조하였다. 차(此)는 대철학이다. 동양(東洋) 역경(易經)에 보면 태극(太極)이 생양(生兩儀), 음양(陰陽)하고 양의(兩儀)가 생사상(生四象), 태소(太少) 음양(陰陽)이라 하였고, 사상(四象)이 생만물(生萬物)이라 하였다. 연즉(然則) 사상(四象)은 태양(太陽) 태음(太陰) 소양(少陽) 소음(少陰)을 운(云)함이라. 지구는 남북동서인 사방(四方)과 기후에는 춘하추동이 사절(四節)이 있어 만물이 조성(造成)하는 동시에 인간도 조성한바 일신(一身)에 사지(四肢)가 유(有)하고 일면(一面)에는 이목구비(耳目口鼻)가 있고, 일심장(一心臟)에 속한 폐비간신(肺脾肝腎)이 유(有)하고, 심리적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단(四端)이 유(有)하여 심리상 원칙이 되었고, 주 예수께서도 인간의 심리가 사종(四種)으로 된 것은 말삼한바 있다. 첫째로 도변(途邊), 둘째로 석전(石田), 셋째로 형전(荊田), 넷째로 옥토(沃土)로 비유하였다(마 13:3-8). 인간들도 사

상(四象)으로 사형(四型)이 유(有)해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유(有)한바 체질이 각이(各異)한 동시에 심리와 성격도 각이(各異)함은 하(下)와 여(如)하다.

1. 태양인은 폐대간소자(肺大肝小者)임으로 상장(上長) 하단(下短)해야 좌세(坐勢)가 장위(壯威)하고 강준용안(降準龍顏)이며 이대(耳大) 자고(自顧)할만 하고 배여복포(背如覆匏) 함은 폐대(肺大)한 까닭이다.

뇌안(腦顔)의 기세(氣勢)는 성장(盛壯)하고 간소(肝小)로 요위(腰圍)의 입세(入勢)는 고약(孤弱)하고 융통성이 장(長)하고 재간(材幹)은 교우(交遇)에 능(能)하고 과단성이 유(有)하고 정의(正義)에는 여남산 부동(如南山不動)해야 만인이 부당(不當)의 최고 의기자(義氣者)라. 자고(自故)로 영웅과 위인이 차형인(此型人)에 재(在)하다.

태양형(太陽型) 여인(女人)도 폐대(肺大)함으로 배고(背高)하고 간소(肝小)함으로 협착(脅窄)해야 자궁(子宮)이 부족으로 생산불능이고 약유포태(若有胞胎)하면 필히 수술노 인공산아하여야 한다. 국부(局部)가 환골(環骨)인 관계니, 수류(獸類)에 라(驪)와 여(如)하다. 폐대(肺大)한 고(故)로 무병자(無病者)다. 병이 생(生)하면 질격반위증(膈反胃症)일 것이다. 근골질(筋骨跌)과 근사(近似)하다고 할 것이다.

2. 태음인(太陰人)은 간대폐소자(肝大肺小者)이고로 중부(中部) 장대(壯大)하고 육후(肉厚) 비대(肥大)하고 요위(腰圍)의 입세(入勢)가 성장(盛壯)하고, 뇌안(腦顔)의 기세(氣勢)가 고약(孤弱)하되 체격은 튼튼하고 성질은 쾌활건전하며 벽성(癖性)이 부(富)하고 과격적 분노와 완이급(緩而急)하고, 완력(腕力)을 선(先)하고 이론을 후(後)에 한다. 진취성이 다(多)하며 관찰력이 속(速)하며 차중(此種)은 색소(色素)가 황(黃) 적(赤) 흑(黑)한 자는 완중(緩中)에 일차(一次) 발노(發怒)하면 열화적 분노를 금치 못하고, 색소가 청백자(靑白者)는 화평적 아량(雅量)이 다(多)해야 유덕자(有德者)인 동시에 만사성취하게 된다. 폐소자(肺小者)이니 폐병(肺病)을 신중하여야 하고, 뇌충혈(腦充血) 뇌일혈(腦溢血) 병에 이(罹)하기 이(易)하고 다혈질(多血質)과 근사(近

似)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양인(少陽人)은 비대신소자(脾大腎小者)인 고(故)로 하부(下部)가 약(弱)해야 보측양비(步則兩臂)가 재후(在後)하고 상부(上部)가 동요(動撓)된다. 흉금(胸襟)의 포세(包勢)가 감장(感壯)하고 요위(腰圍)의 입세(入勢)가 고약(孤弱)하고 호남성(好男性)이 장(長)하고 재간(材幹)은 사무에 능(能)하고 표예강직(票銳剛直)하며 경박(輕薄) 예민(銳敏)하며 비박(肥薄) 세약(細弱)해야 동작이 민첩하고 감정이 신속하고, 기단(氣短) 조급(躁急)하고 인내성이 약(弱)하나 사고 학구적 기능이 다(多)하고 비상한 재사(才士)들이 다(多)하고 정직한 동시에 외무(外務)를 기(企)하며 능(能)하다. 벌심(伐心)과 경심(驚心)은 마(馬)와 여(如)하다. 신소(腎小)함으로 신장병(腎臟病)과 뇌통증(腦痛症)에 근신(謹慎)하여야 한다. 신경질에 근(近)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4. 소음인(少陰人)은 신대(腎大) 비소(脾小)한 자인 동시에 하부(下部) 유력(有力)해야 보측불요동(步則不搖動)하며, 방광(膀胱)의 좌세(坐勢)가 성장(盛壯)하고 흉금(胸襟)의 포세(包勢)가 고약(孤弱)하고 단소(短少) 단정(端正)하며, 성질에 장점은 온순(溫順) 겸양(謙良)하며 침착(沈着) 내구(內究)하고 관용성이 부(富)하고 분노심이 소(少)해야 저항력이 약하며 유예(猶豫) 미결적(未決的)이며 의심이 많고 인색심(吝嗇心)이 유(有)하며 도덕적 소질이 다(多)해야 종교적 군자의 품이 유(有)해야 자고로 성현군자가 소음인에서 다산(多産)한다. 근신심(謹慎心)은 려성(驢性)과 여(如)하니라 비소(脾小)한 고(故)로 소화기가 부족해야 불능(不能) 다식(多食)하고 병즉황증(病則黃症) 부종(浮腫) 급(及) 복막염(腹膜炎) 병을 주의하고 약(若) 음식(飲食)이 선화(善化)하면 완실(完實) 무병(無病)할 것이다. 차종인(此種人)은 침액질(沾液質)에 근사(近似)할 듯하다.

5. 중간체질은 사상적 태소음양의 이치로는 조성(造成)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중국 영구서(靈樞書)에 오행인론(五行人論)이 약득외형(略得外形)하고 미득장리(未得臟理)하였으나 불가득성(不可得

成)이니, 근래(近來) 중간체질론자도 영구서(靈樞書)의 논(論)과 근사(近似)하다. 음양(陰陽)의 이치(理致)를 불변(不辨)한 것이다.

사상론(四象論)에 의(依)하면, 태양인(太陽人) 중에 열다인(熱多人)과 한다인(寒多人)이 유(有)한데, 한다인(寒多人)은 태음인 중에도 색소(色素)가 청백(靑白)하며 성정(性情)이 소음인(少陰人)에 근(近)하여 도덕적 화평의 아량이 유(有)함으로 색소가 황(黃) 적(赤) 흑(黑)한 열다인(熱多人)의 과격성과 차이가 유(有)하다. 그러나 태양인형(太陽人型)이다. 연고(緣故)로 태소음양사상외(太少陰陽四象外)에서 관찰할 시(時)는 중간체질이 유(有)한 것으로 논(論)할 것이다. 차(此)는 외적 관찰인 논(論)이오, 내적 음양에 한 관찰의 논(論)은 앎인 동시에 음양학상(陰陽學上) 지식이 부족한 까닭이니 논평(論評)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제5절 동정(動靜)에 의한 심리상태

1. 언어

인간은 중심사상과 감각상태를 언어로 발표하나니, 고(故)로 외부로 표시되는 중심상태를 알 수 있는 기관은 언어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중심에 대하여 말삼하시기를 선수(善樹)가 선과(善果)를 결(結)한다하시고 악수(惡樹)마다 악과(惡果)를 결(結)한다 하였고, 유서(儒書)에 왈(曰), 존재중이발어외자(存諸中而發於外者)는 언야(言也)라 하였다. 차(此)는 인지중심사상(人之中心思)은 언어로 표시함을 지(指)함이다. 상대자의 언어를 통하여 해인지심리(該人之心理)를 존도(忖度)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성(語聲)이 웅대(雄大)하고 대의적 탄력(彈力) 인착성(引着性)이 유(有)하고, 폭로적(暴怒的) 표정이 다(多)한자는 태양지인(太陽之人)이오 근골질(筋骨質)에 근(近)하며, 어성(語聲)이 불청이탁응(不清而濁應)하고 어법(語法)이 급하면서 언어가 대개는 자주하지 안고 심리 냉적적(冷情的)으로 객관시(客觀視) 태도이면서도 감시적(監視的) 기분의 인(人)은 태음인(太陰人)이오 다혈질에 가까우며, 어성(語聲)이 경박(輕薄)하며 강기(强氣)가

유(有)하고 어법에 두미(頭尾)가 명확하며 조직적 태도는 소양인(少陽人)이오 신경질에 근(近)하며, 어성(語聲)이 온순명랑하고 어법유완재 즉변재(語法攸緩則辯才)나 불사즉졸어(不思則拙語)이나 어의(語意)가 전후를 지이며 침착미(沈着味)가 유(有)하고 유예(猶豫) 미결(未決)의 회의적인 동시에 인색한 심리도 유하나 도덕성인 인자심이 다(多)하야 긍휼히 녀이는 태도이며 희락의 표정이 유(有)한자 소음인(少陰人)이오 첨액질(沾液質)에 근(近)하며 심내사(心內事)를 용이히 표시치 안이하나니 처세도에 최적자(最適者)이니 내심(內心) 외교(外交)가 공편자(共便者)로서 현인군자지풍(賢人君子之風)이 유(有)하니라.

2. 행동

인지행동(人之行動)이 심리작용의 표현이니, 내적심리는 정(情)을 통(通)하야 외부동작으로 표시하고, 외계사정(外界事情)과 환경에 의(依)하야 내적심리를 행동케 한다. 인지오관(人之五官)은 이목비구피부(耳目鼻口皮膚)이오, 심지칠정(心之七情)은 희노애락공경비(喜怒哀樂恐驚悲)인데 오관(五官)을 통(通)하야 심리작용이 민활케 표시한다. 예컨대 태양인의 이(耳)는 천시(天時)에 광박(廣博)하며 능(能)하야 시대를 명취(明取)하고 폭로심애(暴怒深哀)의 감(感)이 유(有)하고 안여반개봉목즉자고교심(眼如半開鳳目則自高驕心)이 유(有)하야 인(人)을 무시하는 성(性)이 다함으로 근골질(筋骨跌)에 근(近)하고, 태음인의 비(鼻)는 인륜에 광박(廣博)하며 능(能)하야 묵탐각인지현불초(默探各人之玄不肖)하고, 낭락심희(浪樂深喜)의 감(感)이 유(有)하고, 안전(眼轉) 윤시(倫視)는 정탐적(偵探的) 심리(心理)와 인사를 간섭하려는 주관성이 다(多)함으로 다혈질에 속한 자로 인정된다. 소양인의 목(目)은 세회(世會)에 광박(廣博)하며 능(能)하야 교제상(交際上) 특수한 점과 동작이 민첩하고 폭애심로(暴愛心努)의 감이 유(有)하고, 안면(眼面)을 공회 등(公會等)의 담화(談話)는 사고학구적기능(思考學究的技能)이 다(多)한 비상재사(非常才士)인데 신경질에 근(近)한 자로 역일 것이다. 소음인(少陰人)의 구(口)는 지방(地方)에 광박(廣博)하며 능(能)함으로 처어지방(處於地方)하야 각처(各處) 인민생활(人民生活)의 지리(地利)를 균상(均嘗)하고 낭희심락(浪喜深樂)의 감(感)이 유(有)하

며 안함개폐평상적담화(眼驗開閉平常的談話)는 기(其) 사물에 의(依)하여 적의(適宜)한 이지(理智)가 발달된 건전한 심리를 지(指)한 자인 동시에 침액질(沾液質)에 해당자일 것이다. 그런즉 우리 인간의 육체는 심리작용의 일종 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기계라는 것은 자동적이 안이오 피동적이니, 육체는 심리의 동작여하를 수(隨)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기계이다. 비컨데 말이 풍(風)을 견(見)할 수 없나니, 수목의 지엽동정(枝葉動靜)을 보아서 풍세(風勢)의 강약(強弱)을 지(知)함과 여(如)하다. 심(心)을 견(見)할 수 없으나 기인(其人)의 행동을 보아서 심리형편을 추지(推知)한다. 연고(緣故)로 관기간자(觀其懇姿)면 인언수자(人焉瘦者)리오 하였다. 이상 음양심리학설은 이제마호(李濟馬號)에 동무선생(東武先生)의 사상의학(四象醫學書) 중에서 참고하였노라.



1949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

제12장 목회자와 성례 급 예식(聖禮及禮式)

제1절 이대(二大) 성례(聖禮)

구약시대 이색열민(以色列民)의게 이대(二大) 성전(聖典)이 유(有)하였나니 할례(割禮)와 제례(祭禮)이다. 할례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기(其) 방법은 초생 남자마다 제8일만에 신말(腎末) 양피(陽皮)를 소할(小割)함으로 음란(淫亂)을 제거하고 성결한 선민이 되는 표(票)를 삼았다(창 17:9-14). 제전(祭典)은 최초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홍수심판 후에 노아가 시작한 동시에(창 4:3,4; 8:20)모세가 5대 제법으로(레위기 1:1-7:34) 상제(上帝)의 선민(選民)으로서 여호와 의 신(神)께 헌제(獻祭)하는 법이니, 제물은 동물식물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헌(獻)하나니, 5대 제법(祭法)이 유(有)하다.

1. 번제(燔祭)니 신인(神人) 화목(和睦)의 의(意)
2. 평제(平祭)니 신인(神人) 교통(交通)의 의(意)
3. 소제(素祭)니 헌신(獻身)의 의(意)
4. 죄제(罪祭)니 속죄(贖罪)의 의(意)
5. 건제(愆祭)니 제과(除過)의 의(意)

이상 5대 제전(祭典)은 선민의 신성한 예전(禮典)으로 필수(必守)해야 선지자 말나기 시(時)까지 지(至)하였고, 신약시대에 지(至)하여 할례(割禮) 대(代)로 세례(洗禮)를 신(神)이 명령하여(요 1:33) 제사장 의 계통인 사가랴의 자(子) 침례(浸禮) 약한(約翰)을 통하여 시작하였고, 신약교회 시대 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의게 침례를 수(受)하시고, 또 고난의 침례를 수하시고, 부활 후 승천 시(時)에 사도들의게 대사명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신앙자의게 부(父)와 자(子)와 성신(聖神)의 명(名)으로 침례를 시(施)하고 교훈하

라<태(太) 28:19-20) 하였고, 신앙하고 침례를 수(受)하는 인(人)은 구원을 득(得)할 것이라(막 16:16) 하였으며, 사도들은 성신(聖神) 침례를 수(受)한 후에 주님의 대사명에 의하여 복음을 대중의게 설교하고 신이회개자(信而悔改者) 3천명의게 중생(重生)의 침례를 시행하여 죄사함과 성신을 수(受)하도록(행 2:38) 하였다. 제례(祭禮)의 대(代)는 신약교회에서 안식일 대(代) 주일에 <7일중 수일(首日) 주님이 부활일> 주님이 일차(一次) 자기를 희생의 제사를 헌(獻)하사 죄를 속(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예배로 5대제전을 대신하였나니 곧 예배의 5종 순서가 유(有)하다.

1. 찬송(히 13:15) -- 신인(神人) 화목(和睦)의 의(意)
2. 기도 -- 신인(神人) 교통(交通)의 의(意)
3. 헌금(빌 4:18하) -- 물심(物心) 전체를 헌(獻)한 의(意)
4. 성찬(눅 22:19-20, 고전 11:23-29) -- 십자가를 기념과 속죄(贖罪)의 의(意)
5. 성경설교 -- 제과(除過) 성결(聖潔)의 의(意)

이상 5대 순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상제(上帝)께 대(對)한 신성한 예전으로 필수(必守)해야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일 곧 오순절 일(日)붙어 금일까지 주일은 성찬예배로 봉헌(奉獻)하고 있다. 연즉(然則) 신약교회에서 뺏디쥬(침례) 예전과 성찬예배의 성례인 신령과 진리로 봉행(奉行)하였도다. 구약예전은 신약의 영자(影子)니, 할례는 신(身)의 사(事)요, 침례는 신심(身心)의 사(事)이며, 제례는 의식(儀式)이요, 성찬예배는 영(靈)의 사(事)이다.

제2절 침례(浸禮)

제1조 침례의 의의

침례를 수수(授受)한 자 중에 기(其) 진리를 미해(未解)하는 자 다(多)함으로 침례는 일종(一種) 허명(虛名)의 의식화하여진 것은 서기 753년에 로마법왕 스톰 제2세가 애들퍼스의 가(家)에서 약식세례식

부터 시작된 것이다. 차(此)는 성경 위반이다. 연즉(然則) 수(誰)든지 복음을 청(聽)하고, 각이신주(覺而信主)하고, 과거 불신(不信) 불의(不義) 불법(不法) 불행(不行)과 기타(其他) 제반(諸般)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수(受)할 수 있고, 침례의 진의(眞意)는 롬 6:5, 골 2:12에 명시하였나니, <연고(緣故)로 우리가 기(其) 사망(死亡)을 합(合)하여 침례를 수(受)함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葬事)하였나니, 차(此)는 부(父)의 영광(榮光)을 인(因)하여 그리스도를 갱생(更生)케 함과 같이 우리도 새로 생(生)함을 득(得)하여 행(行)함이라 (롬 6:4). 상언(詳言)하면, 죄의 몸은 십자가에 정사(釘死)하고, 수중(水中)에 장사(葬事)하였다가 주님의 부활(復活)에 합(合)하여 수(水)과 성신(聖神)을 중생(重生)<신생(新生)>하여 상제(上帝)의 자녀로 도(道)의 유(乳)으로 장성(長成) 성결(聖潔)하나니, 교역자는 문저 침례의의(意義)를 충분히 교수(教授)할지니라.

제2조 침례는 구원방법에 중요성

침례는 하(何) 인간(人間)에 제정한 의식이 안이오, 여호와 신(神)이 침례 요한의게 명령하였으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갈릴니 나사렛에서 요단강 2일(二日) 노정(路程)을 행(行)하시여 요한의게 침례를 수(受)하시며, 하나님님의 제위(諸位)를 행(行)함이 합당하다 <태(太) 3:15> 하시고, 상제(上帝)의 성지(聖旨) 명령을 순종하시고, 우(又)는 십자가에 고난의 침례를 수(受)하여 부활하신 후에 승천(昇天) 시기(時期)에 최종의 대사명(大使命)을 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부(父)와 자(子)와 성신(聖神)의 명(名)으로 침례를 시(施)하고” <태(太) 28:19> 하였다. 차(此)는 요컨대 침례를 주께서 당신이 친애(親愛)하시고 입(立)하시고 명령하였으니 인간으로서는 감(敢)히 변(變)치 못할 것이오, 변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신약교회(新約教會)에 사도 베드로와 11(十一) 사도들이 삼천명(三千名)의게 침례를 시(施)하였고, 집사 빌립이 구스 내시(內侍)의게 침례를 시(施)하였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평신도가 사울의게 침례를 시(施)하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사장(獄司長)과 기(其) 가족의게 침례를 시(施)하였으니,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

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되는 이유는 주님 예수께서 대 사명(大使命) 중(中)에 “신(信)하고 침례(浸禮)를 수(受)하는 인(人)은 구원(救援)을 득(得)할 것이오”(막 16:16), 우(又)는 베드로 왈(曰), “이 등(爾等)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침례를 수(受)하고, 죄사함을 득(得)하라. 연(然)하면, 은혜로 성신(聖神)을 수(受)하리니”<행(行) 2:38>. “수(水)가 유(有)하니, 침례를 수(受)하여도 관계치 안이 하뇨? 빌립 왈 이(爾)가 심(心)을 완전히 신(信)해야 신(信)하면 가(可)하니라. 답(答)해야 왈(曰), 아(我)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제(上帝)의 자(子)인 줄 신(信)하노라”<행(行) 8:36-37> 하였다.

구원이 곧 사죄이다. 신앙(信仰)하고 침례를 수(受)하는 인(人)은 구원을 득(得)할 것이오 하였으니, 신앙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안이오, 침례를 수(受)하여야 한다. 우(又)는 “회개(悔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침례(浸禮)를 수(受)하고 죄사(罪赦)함을 득(得)하라. 연(然)하면, 은혜(恩惠)의 성신(聖神)을 수(受)하리니” 하였으니, 회개(悔改)만 하면 다 된 것이 안이오, 침례(浸禮)를 수(受)하여야 한다. 연즉(然則) 신앙(信仰)하고, 회개(悔改)하고, 신앙고백(信仰告白)하고, 침례를 수하여야, 구원을 곧 사죄(赦罪)를 득(得)할 뿐만 아니라, 은혜(恩惠)로 성신(聖神)을 수(受)한다고 주님과 사도 베드로가 유력(有力)하게 말씀하시었다.

이상 침례의 의의(意義)를 술(述)한 중(中)에 말한바와 같이, 중생(重生) 신주(信主) 회개(悔改) 고백(告白) 침례(浸禮)로 십자가에 연합하여 중생한다. 바울이 서신(書信) 중(中)에 “아등(我等)을 구원(救援)하심이 아등(我等)이 의(義)를 행(行)함으로 유(有)한 것이 안이오, 오직 그 긍휼(矜恤)하심을 종(從)하여 중생(重生)의 세(洗)함과 성신(聖神)의 신(新)케 하심으로 유(由)함이니”(딤후 3:5). 예수 말삼에 “수(水)와 성신(聖神)으로 중생(重生)치 안이하면 상제국(上帝國)에 입(入)치 못하니니”(요 3:5) 하였다. 수(水)와 성신(聖神)으로 중생(重生)한다는 것은 수(水)에 장사(葬事)하는 침례수(浸禮水)와 회개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사죄(赦罪)한 후(後)에 성신(聖神)을 수(受)한다 하였다. 성신으로 중생한다는 십자가(十字架) 도(道)의 오묘(奧妙)이다. 차(此) 오묘를 각득(覺得)치 못한 자들이 주례(注禮)의 약식(略式)이니, 침례(浸

禮) 무용설(無用說)을 주창(主唱)하는 성지(聖旨)를 감(減)하는 죄(罪)를 자작(自作)하고 있다. 성경이 신(神)의 묵시(默示)한 바를 신앙하는 자(者)라면 침례를 변경(變更) 우(又)는 제(除)하지 못할지니라.

1. 침례를 수(受)함으로 구원을 득(得)함이오(막 16:16).
2. 침례를 수(受)함으로 죄사(罪赦)함을 득(得)함이오(행 2:38).
3. 침례를 수(受)함으로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정부(釘付)함이요(롬 6:3-7).
4. 침례를 수(受)함으로 부활할 것이오(고전 15:29).
5. 침례를 수(受)함으로 중생함이요(롬 6:5, 골 2:12, 딤후 3:5, 행 2:38).
6. 침례를 수(受)함으로 그리스도를 의(衣)함이요(갈 3:27).
7. 침례를 수(受)함으로 양심(良心)이 상제(上帝)를 향(向)하여 심왕(尋往)하는 것이오(벧전 3:21).
8. 침례를 수(受)함으로 성신(聖神)을 수(受)함이니라(행 2:38).

제3조 침례 수수자(授受者)의 자격과 방법

1. 집행자(執行者)

성서(聖書) 중(中)에는 선지자 급(及) 제사장의 계통이 침례 요한이 신(神)의 명령으로 요단강에서 다인(多人)과 예수에게 침례를 시(施)하였고<태(太) 3:5-16>,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지방에서 침례를 시(施)하였고(요 3:22-26), 침례를 수(受)한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다시(多施)하였고(요 4:1), 사도들과 베드로가 오순절 일(日)에 예루살렘에서 3천명(三千名)에게 침례를 시(施)함<행(行) 2:37-41>.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와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구스 내시(內侍)에게 침례를 시(施)함<행(行) 8:12-38>. 아나인안 신도(信徒)인대 다매석에서 사울에게 침례를 시(施)함<행(行) 9:18>. 연즉(然則) 침례 집행자는 침례를 수(受)한 자(者)로서 신앙이 성서중에서 무흠(無欠)하고, 성신(聖神)이 충만자(充滿者)면 집행할 수 있음. 목사라도 신앙생활에 성서적 흠함(欠陷)이 유(有)한 자(者)는 침례 자격을 상실(喪失)하였으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성서적 신앙생활이 무흠(無欠)한 자(者)가 집행함이 가(可)하고, 목사만 전행적(專行的)으

로 집행권(執行權)을 성서중에 주지 안이하였다. 각교파에는 라마(羅馬) 천주교회 전통적으로 목사만 침례 집행권은 성서적 차이(差異)라고 안이할 수 없다. 라마(羅馬)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신부(神父)가 주는 법(法)이나 급(急)한 부득기할 시(時)에 남녀간 하인(何人)던지 줄 수 있게 되었나니, 차(此)는 비타(非他)라. 인(人)이 사(死)할 시(時)에 수례(受禮)치 못하면, 천당을 못 간다는 의미 하(下)에서 밋어 신부(神父)가 미급(未及)될 시(時)에 운명(殞命)케 되면 신도중에서 수(誰)던지 주는 응급책이다. 차(此)에 대하여 장(長) 일단(一短)이 유(有)하다. 침례의 중요성은 일장(一長)이나 침례의의를 망각(忘却)하고 십자가 연합하는 예수와 합(合)해야 장사(葬事)와 소생(甦生)은 없이 약식영세(略式永洗)라고 시(施)함이 일단(一短)이라는 것보다도 십자가 정사(釘死)에 연합치 못하고, 하(何) 노선(路線)을 통하여 죄사함을 득(得)할가, 진리 위반자라고 안이할 수 없다. 교파에서는 침례권이 목사(牧師)의게만 전용(專用)하면서 성례(聖禮)는 최(最) 신성(神聖)인 까닭에 아무나 할 것이 안이오, 신령(神靈)한 목사만 한다니 차(此)는 대(大) 오해(誤解)이다. 장로, 집사, 성도 중(中)에 목사보다 신령한 자가 없다는 전제(專制) 조건(條件)인가, 성서중에 집사 빌립, 신도(信徒) 아나니아는 주 예수와 성신이 직접(直接) 명령하사 침례 집행(執行)함 불법(不法)일가? 신도로서 신앙생활에 있어 열정적(熱情的)과 평범적(平凡的) 차이는 일을런지 모르나 성경 중(中)에 분명히 표현한바 주님의 명령의 신성한 제전(祭典)을 변경함이 불법(不法)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성서에 의(依)해야 할지니라.

2. 수례자(受禮者)의 자격(資格)

우리가 성경(聖經) 중(中)에 있는 성례(聖禮)를 행(行)할 시(時)에는 성경(聖經) 중(中)에 기(記)한 법(法)을 의(依)할지니, 하(何) 교파(教派) 입법(立法)이나 하인(何人)의 의견(意見)이나 방편(方便)을 추심(推尋)하지 말고 성서(聖書)에 근거(根據)하여 여하(如何)히 할지니라.

1) 믿을 만치 장성한 자<태(太) 7:24, 롬 10:17>

2) 신앙자(막 16:16)

3) 문(聞)하고 신(信)하고 순종자(順從者)<행(行) 18:8>

4) 믿는 남녀의게<행(行) 8:12>

5) 회개한 자<행(行) 2:38>

6) 신앙고백한 자<행(行) 8:37>

이상(以上)과 같이 되는 자(者)의게 침례를 수여(授與)하나니라. 참고할 것은 유아 침례식은 성경에 하등(何等) 근거(根據)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파에서 거연(據)연(然)히 행(行)함은 성서에 가법(加法)하는 불법(不法)이니, 우리 신약(新約) 중(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유아(乳兒) 침례(浸禮)는 시행(施行)치 아니함.

천국(天國)에 입장표(入場票)인 중생(重生)은 죄중(罪中)에서 사장(死葬)의 침례(浸禮)를 통(通)하여 십자가(十字架)와 연합(聯合)하여 사죄(赦罪)로 득성(得成)하는 것인데, 유아(幼兒)는 천국에 입(入)할 자격이 유(有)함은 예수님이 증명(證明)하셨다<태(太) 18:3>. 우(又)난 병중(病中)에 주(主)의 복음을 각오(覺悟)하고 확실한 신앙과 회개와 고백이 분명하면, 침례를 시(施)할 수 있으나, 위독(危篤) 중(中) 불완전 의식으로 신주(信主)한다는 것으로 로마 천주교식(天主教式)으로 하면 안 된다. 침례(浸禮)가 안이고 약식(略式) 세례(洗禮)는 용납(容納)할 성서(聖書) 중(中)에 조건이 없는 까닭이다. 수옥(囚獄) 죄인(罪人)의게 전도하여 확실한 신앙 회개가 분명하면, 하인(何人) 남녀(男女)를 막론하고 옥관(獄官)의 승인을 청(請)하여 집행(執行)할 수 있나니라.

3. 집행(執行) 방법(方法)

우리 주(主) 예수께서 갈릴니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2일 노정(路程)을 행(行)하시여 요한의게 “여(예)수 침례(浸禮)를 수(受)하시고, 곧 수(水)에서 상래(上來) 하실새”<태(太) 3:16>. 에논에서도 요한씨가 침례를 시행(施行)함은 해처(該處)에 수(水)들이 다(多)한 연고(緣故)라 하였으며, 구스 내시(內侍)가 집사 빌립의게 침례를 수(受)하고 수(水)에서 상거(上去)할새<행(行) 8:39>. 이상 사실을 불지라도 자연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분명하다.

1) 수(水)로 행(行)할 것<행(行) 10:47>

2) 다(多)한 수(水)로 행(行)할 것(요 3:23)

- 3)수(水)로 거(去)할 것<행(行) 8:38>
- 4)수중(水中)에 입거(入去)할 것<행(行) 8:38>
- 5)수(水)에서 출래(出來)할 것<가(可) 1:10, 태(太) 3:16, 행(行) 8:38>
- 6)수(水)로 몸을 씻을 것(히 10:22)
- 7)장사(葬事)지낼 것(롬 6:4, 골 2:12)
- 8)부활(復活)함으로 예수와 연합(聯合)함(골 2:12, 롬 6:5)

제3절 예배(禮拜)

제1조 여호와 신(神)께 예배(禮拜)와 의의(意義)와 유래(由來)

예배(禮拜)는 구약시대에 제전(祭典)인 동시에 창조 후에 가인과 아벨이 동물과 식물로 드린 제사와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 신(神)을 위(爲)하여 제단(祭壇)을 축(築)하고 제수(諸獸)와 조중(鳥中)에 정결(淨潔)한 것을 취(取)하여 번제(燔祭)를 헌(獻)하였고(창 8:20), 지극(至極)히 존(尊)하신 상제(上帝)의 제사장(祭司長)인 멜기세덱이 병(餅)과 포도주(葡萄酒)를 지(持)하고 출래(出來)하여 아부라함의게 축복(祝福)하는 제례(祭禮)를 하였고(창 14:18-19), 유월절(踰越節)에 무효(無酵餅)과 양혈(羊血)으로 제사(祭祀)하였으며(신 16:2-6), 신약시대에 “주 예수 씨 말삼에 여인아 나를 신(信)하라. 시(時)가 지(至)하리니, 차산(此山)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너희들이 부(父)께 예배(禮拜)하지 안이하리라”<약(約) 4:21> 하였다. 차(此)는 주(主) 예수를 신앙자(信仰者)들은 하처(何處)에서든지 신령(神靈)과 진리(眞理)로 예배(禮拜)할 것을 예언(豫言)하시였음이라. 기후(其後)에 주(主) 예수께서 유월절(踰越節) 양(羊)으로 십자가에 희생제(犧牲祭)로 사(死)한지 삼일(三日)만에 곧 칠일(七日) 중(中) 수일(首日)인 주일(主日)에 부활(復活)하심으로 차(此) 십자가 진리를 시작하여 각지(各地)에 복음이 전파(傳播)되난데로 신자들이 “칠일(七日) 수일(首日)에 병(餅)으로 벽(擘)하려 집회(集會)하였더니<행(行) 20:7> 하였으니, 일요일은 성찬예배일이 되었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드로아까지, 아세아(亞細亞)지방에서 구라과(歐羅巴)지방, 빌

림, 데살로니가, 고린도, 각(各) 지방(地方)과 로마, 서반아(西班牙)까지 복음을 전(傳)해야 교회를 설립(設立)하고 신령(神靈)한 진리(真理)의 성찬예배를 봉헌(奉獻)하였다. 그럼으로 금일(今日)도 칠일(七日) 중(中) 수일(首日) 곧 일요일(日曜日)에 성찬예배를 존봉(尊奉)하는데 그 순서(順序)는 구약(舊約) 제전(祭典) 오종(五種)과 같이 예배에도 오종(五種)의 순서가 여하(如何)함.

1. 찬송(讚頌)

차(此) 유래(由來)는 노아가 홍수(洪水) 후(後)에 대취농수(大醉濃睡)를 각성(覺醒)하고 기(其) 장자(長子) 셈이 여호와를 찬송(讚頌)함이며 하였고(창 9:26), 제사장 메기새택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적(敵)을 전승(戰勝)함을 찬송(讚頌)할 것을 말하였고(창 14:20), 모세가 홍해(紅海)를 도(渡)하고 인민(人民)들과 하나님께 찬송(讚頌)할 때에 여인(女人)들이 소고(小鼓)를 치며 찬송(讚頌)하였다(출 15:1-20). 그뿐 아니라, 천군천사도 찬송을 하였다(눅 2:13-14).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오순절 주일에 상제(上帝)를 찬송하였으므로 우리도 찬송하는 데 찬송은 제사(祭祀)라고 하였다(히 13:15). 그런고(故)로 주(主)의 성만찬(聖晚餐) 예배 중(中)에는 성악(聲樂)으로만 상제(上帝)를 찬송함으로 상제(上帝)께 영광(榮光)을 돌리는 동시(同時)에 수삼회(數三回)로 찬송(讚頌)함이다.

2. 기도(祈禱)

차(此) 기도(祈禱)의 유래(由來)는 제사(祭祀)가 시작(始作)되는 동시(同時)에 상제(上帝)께 감사(感謝)와 축복(祝福)의 대화(對話)인 동시(同時)에 경건(敬虔) 생애(生涯)이며, 신인(神人) 교제(交際)에 본성(本性)을 각득(覺得)해야 성결(聖潔)의 입각(立脚)에서 문영(聞靈)이 공화도성(共和道性)하는 기독교(基督) 종교(宗教)에 유일(唯一)한 생명(生命) 노선(路線)이다. 연고(緣故)로 선지(先知) 성인(聖人)도 기도(祈禱)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였고<약(約) 17장>, 사도들도 항상 기도하였음<행(行) 1:14>.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항상 할 것(롬 12:12)과 식(息)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하였다. 이뿐

안이라, 예배 시(時)에는 성도들이 일당(一堂)에서 합심(合心) 기도(祈禱)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합심기도를 명(命)하시었으니<태(太) 18:19> 하여야 할지니라.

3. 헌금(獻金)

차(此) 헌금(獻金)은 그 유래(由來)를 삭구(朔究)하면, 아부라함이 전취물(戰取物)을 십분지일(十分之一)을 제사장 뢰기세텍의게 준 것(창 14:20)으로 시작하여 야곱이 벳엘에서 수입 중에서 십분지일(十分之一)을 헌(獻)하기로 약속(창 28:22). 이색열민(以色列民) 중(中) 십일조를 상제(上帝)께 헌납(獻納)할 것을 모세를 통(通)하여 명령하였고<신(申) 18:21-28>,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십일조를 기(棄)치 말나<태 23:23>하시였고, 사도시대에도 교회에서 소유물을 사도 전(前)에 치(置)하였고(행 4:38) 예배 시(時)에 각기 자기 목줄내여 교접(交接)하였으니<행(行) 2:42> 헌금도 제사(祭祀)이니(빌 4:18하) 꼭하여야 하는 동시(同時)에 상제(上帝)께서 열납(悅納)하시나니, 방법(方法)은 하(下)와 여(如)함. “차중(此中) 이익(利益)에서 십분지일(十分之一)을 헌납(獻納)하면 만족함” 매주일 수일(首日)인 (일요일)에 각각 기리(其利)를 득(得)한대로 연보(捐補)할 것도 성서에 말삼하시었으니 참고(參考)할 것(고전 16:2).

4. 성경(聖經) 설교(說教)

여호와 신(神)의 경륜(經綸)을 최초(最初)에는 모세를 통(通)하여 오경(五經)을 기(記)하여 이색열민족(以色列民族)을 목양(牧養)하시고, 대소(大小) 선지자(先知者)를 택(擇)하시여 신약시대에 성취될 것을 예언과 당시(當時) 목민지도(牧民之道)를 훈육(訓育)한바 되었고, 신약시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降生)하시고, 전 세계 인류를 십자가의 도(道)로 구원하시는 진리를 사도들을 통(通)하여 초대교회에서 설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하였고, 그리스도 교회 조직 방법까지 강화함으로써 금일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상제(上帝)의 계시(啓示)하신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정직케 함과 의(義)로 교육하기

에 유익하여 상제(上帝)의 인(人)으로 완전케 하며 제(諸) 선사(善事)를 행(行)하기에 더욱 완전케 하나니라”(딤후 3:16) 하였다. 하신 것 같이 교훈하는 설교로 상제(上帝)의 대언(代言)함이나라.

5. 성만찬(聖晚餐)

주의 만찬(고전 11:20)은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마즈막 유언(遺言)으로 명령하시되 “병(餅)을 취(取)하사 축사하시고 벽(擘)하야 주시며 왈(曰), “차(此)는 아(我)의 신(身)이라. 이등(爾等)을 위하야 사(賜)한 것이니, 이등(爾等)은 차(此)를 행(行)하야 아(我)를 기념(記念)하라 하시고(눅 22:19), 배(盃)를 지(持)하시고 왈(曰), 차배(此盃)은 아(我)의 혈(血)로 건(建)한 신약(新約)이니, 차(此)를 행(行)하야 음(飲)할 시(時)마다 아(我)를 기념(記念)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 하였음으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주의 만찬을 주의 재림 시(時)까지 전행(傳行)할 것을 말하였다. “대개(大概) 이등(爾等)이 차병(此餅)을 식(食)하며 차배(此盃)를 음(飲)할 시(時)마다 주(主)의 사(死)하심을 임(臨)할 시(時)까지 전(傳)하는 것이니”(고전 11:26) 하였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 당시인 오순절 곧 칠일(七日) 중(中) 수일(首日)에 집회 예배에 주의 만찬을 하였고(행 2:42) 기타 지방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인 집회는 주의 만찬으로 하였으니, 사도(使徒)들이 주(主)의 유언(遺言)의 명령(命令)을 수(受)하였음으로 교회(教會)를 시작(始作)하면서 주일(主日)인 일요일(日曜日) 집회(集會)는 주(主)의 만찬(晚餐)예배(禮拜)로 실행(實行)순중(順從)한 것을 성서(聖書)중(中)에서 명백(明白)히 발견(發見)하였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教會)에서는 그대로 성서적(聖書的)으로 주(主)의 명령(命令)을 준행(遵行)하야 안식일(安息日)이 안이고 곧 희(禧)일(日)에 신령(神靈)과 진리(眞理)인 십자가(十字架)의 기념(記念)으로 성찬(聖餐)의 예배(禮拜)를 봉행(奉行)할지니라.

제2조 주의 만찬 집례와 순서

1. 집례자

신약시대(新約時代) 교회(教會) 창립일(創立日)인 일요일(日曜日)에

주(主)님의 유언(遺言)이며 명령(命令)을 수(受)한 사도(使徒)들이 준수(遵守)해야 집행(執行)하였고<행(行) 2:42>, 바울 사도(使徒)도 주(主)께 수(受)한 명령(命令)을(고전 11:23) 각(各) 교회(教會)에서 집행(執行)하도록 하였으니, 목사(牧師), 장로(長老), 집사(執事)가 집행(執行)할 것이요, 만일(萬一) 교직자(教職者)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主日)에 집행(執行)하면 된다. 주일(主日)은 침례(浸禮) 받은 신자(信者)가 예배(禮拜)한다. 연고(緣故)로 초대교회(初代教會)에서는 안식일(安息日) 익일(翌日)은 칠일중(七日中) 수일(首日)에 병(餅)을 벽(擘)하는 예배집회(禮拜集會)<행(行) 20:7>하였으므로, 안식일(安息日)이 폐(廢)하고 주일예배(主日禮拜)가 시작(始作)된 것이니, 가정(家庭)에서도 신자(信者)들이 주일예배(主日禮拜)에 병(餅)을 성의(誠意)로 벽(擘)해야 식(食)하고 상제(上帝)를 찬송(讚頌)하였다. 금일(今日)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教會)에서 주일(主日)은 성찬예배(聖餐禮拜)인 고(故)로 목사(牧師)가 없는 교회(教會)에서는 평신도(平信徒)들만 모여서 신도중(信徒中)의 일인(一人)이 집례(集禮)한다. 대동아전쟁시(大東亞戰爭時와 6.25사변(事變) 당시(當時)에 각(各) 가정(家庭)에서 혹(或) 방공호(防空壕)에서 산야강변(山野江邊)에서 주일(主日)을 당(當)하면 가족적(家族的)으로 개인적(個人的)으로 성찬예배(聖餐禮拜)를 주일(主日)마다 봉행(奉行)하였다. 목사(牧師)가 없으면 가족(家族) 개인(個人)이 예배(禮拜)하지 못할 법(法)이 성서중(聖書中)에 무(無)한 동시(同時)에 신자(信者)가 집례(集禮)할 것이니라.

2. 주의 만찬에 참여(參與)할 자(者)

상술한바와 같이 주일은 남녀 성도가 여호와 상제(上帝)께 신령(神靈)과 진리(眞理)로서 성만찬예배를 봉행(奉行)하는 것이 성지(聖旨)의 예전(禮典)이다. 그러나 성서중에 주의(注意)의 경계(警戒)가 엄연(嚴然)하다(고전 11:30-32).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찬예배를 폐(廢)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연즉(然則) 성서대로 자격자는 당당히 참여할 것이니라.

1) 침례를 수(受)한 자로서 신앙 생애(生涯) 중에 있는 자.

2) 양심으로 회고(回顧) 곧 자성(自醒)하고 회개(悔改)한 후에야 식

(食)하고 음(飲)할 것이오.

3)주의 몸과 피를 분변(分辨)하여 십자가의 정사(釘死)와 부활을 기념할 자(者)이니라. 이상 삼종(三種)의 이외에 처지(處地)에서는 절대로 참여(參與)치 못할지니라.

3. 주(主)의 만찬(晚餐) 집례(集禮) 순서(順序)

1)주례자(主禮者)가 성만찬에 해당(該當)한 성경절을 낭독하고 기본문의 선포와 의의(意義)를 설명하고 <해당(該當)한 성경절은 여하함. 눅 22:19-20, 태(太) 26:26-28, 막 14:22-24, 약(約) 6:31-35, 47-58, 행(行) 2:42, 20:7, 히 9:11-22, 23-28, 10:19-25, 고전 11:23-29, 10:16-17, 20. 이상 성경 중에서 일처를 택할 것이다.>

2)병(餅)은 무효병(無酵餅)으로 사용하되, 일괴(一塊)로 한다(고전 10:17).

3)배(盃)는 포도즙(葡萄汁) 잔(盞)이다<태 26:29>.

4)병(餅)을 거(舉)하고 축사한 후에 주례자가 병(餅)을 벽(擘)하여 참여할 자(者)에게 남녀직원으로 배종자(倍從者)로 택(擇)하여 분배하고 각인(各人) 식후에 혹 미급자(未及者) 있거던 거수(舉手) 표시하면 배여(配與)하겠다고 한 후 약유즉(若有則) 배여(配與)할 것.

5)배(盃)를 거(舉)하고 축사한 후에 배종자(倍從自)를 통(通)하여 분배하여 각인(各人)이 음(飲)한 후에 갱문(更問) 미급자(未及者) 약유(若有)이거던 거수(舉手) 표시하면 배여(配與)하겠다고 조금 기다린 후에 무미급자(無未及者)면 즉시 주례자는 기도할 지니라.

(1)병(餅)을 거(舉)하고 축사(祝辭)하는 문(文)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지여 감사하옵나니다. 오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중(死中)에서 부활하신 칠일(七日) 중(中) 첫째날을 당하여 주님의 사(死)하심과 부활(復活)하심을 기념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옵나니다. 지금은 차 병(此餅)을 거(舉)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하나님께 축사하옵나니다. 주께서 축사하신 떡과 한가지로 거룩되히 구별하시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하는 병(餅)이되야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동시에 내적(內的)에 관한 죄과(罪過)를 자심(自審)하여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주(主)의 명(名)으로

축사하옵나니다. 아멘.”

(2)배(盃)을 거(擧)하고 축사(祝辭)하는 문(文)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시 이 잔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축사를 하옵나니, 주께서 축사하신 잔과 한가지로 거룩되히 구별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동시에 심령적(心靈的) 죄과(罪過)를 자심(自審)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사죄(赦罪)의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축사합니다. 아멘.”

(3)병(餅)과 배(盃)을 식(食)하고 음(飲)한 후(後)에 기도문(祈禱文)

“거룩하고 감사하신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지여 감사하옵나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의 살과 혈(血)을 대신하는 병(餅)과 잔(盞)을 수(受)하고 음(飲)하였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삼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살고 꽃날에 부활과 영생활 것을 약속하신 말삼이 우리들의게도 성취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4절 4대 예식(禮式)

우리 한국은 고래(古來)로 관혼상제(冠婚喪祭) 4대 예전(禮典)을 수행하여왔다. 자녀가 연기장성(年既長成)하면 양가(兩家)에서 매개(媒介)를 통(通)하여 문벌(門閥)과 자격과 심리(心理)현불초(賢不肖)와 신체건강 악질(惡疾)과 생활여하를 인지(認知) 연후(然後)에 양가 합의하면 주단(柱段) 거래(去來)한 후에는 관례(冠禮)<약혼식(約婚式)>식을 행하고 길일양신(吉日良辰) 택(擇)하여 혼인예식(婚姻禮式)<결혼식(結婚式)>을 행(行)하나니, 이상(以上)은 관혼식(冠婚式)이오, 인간이 사망(死亡)하면 장례식(葬禮式)을 행(行)하고 기후(其後)에는 인(人)의 대(對)한 제례(祭禮)가<추도식(追悼式)> 유(有)한다. 이상(以上)이 상제(喪祭)의 예식(禮式)이니, 곧 관혼상제(冠婚喪祭)인 4종이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식(教會式)으로 할지니라.

제1조 관혼식(冠婚式)

태초(太初)에 여호와 상제(上帝)가 인류(人類) 시조(始祖)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배필(配匹)인 해와를 조(造)하사 신성한 부부로 배정하여 주셨나니, 기후(其後) 각국(各國) 민족들이 혼인은 인간(人間) 대사(大事)요, 귀중한 예식임을 공지(共知)하여 왔나니, 교회는 더욱 혼례는 신성(神聖)無比(無比)의 예식임을 지(知)하고 신중시(慎重視)해야 왔다. 목사는 교회에 신남(信男) 신녀(信女) 등을 교회법이나 국법에 위반되는 사(事)가 무(無)하고 쌍방(雙方)이 가합(可合)한 줄로 인정할 시(時)에는 위선(爲先) 약혼식(約婚式)<관례식(冠禮式)>을 행(行)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혼예식을 거행(舉行)하여 부부로 배정하여 줄이 의당(宜當)한 사(事)이다. 부부는 이성지합(二姓之合)이요, 백복지원(百福之源)이라고 고인(古人)의 유전(遺傳)과 같이 일차(一次) 상제(上帝)가 배정하여 결혼케 한 후에는 인(人)이 가(可)히 분(分)할 수 없는 인간의 처음이 겸(兼) 마지막 사(事)이다. 근자(近者) 혼인에 대하여 폐해(弊害)가 일반사회에 문제가 되었다. 사회뿐 아니라 교회 내(內)에까지 폐해가 파급(波及)된다. 차(此) 결혼초에 유처취처(有妻娶妻)인지 철저(徹底) 조사(調查)하여야 할 것이요, 만일(萬一) 의심할 점(點)이 유(有)할 시(時)에는 단연(斷然)히 주례(主禮)를 목사는 거절(拒絕)할 것이다. 또한 강조(強調)할 것은 동일(同一)한 단체(團體) 중(中) 동역자(同役者)의 자녀의 혼례라도 기(其) 내용(內容)을 엄밀(嚴密)히 정탐(偵探)하여 상세히 알고 주례를 하여야 한다. 필자가 일차(一次)에 전감(前鑑)될 만한 사(事)를 당하였다. 나의 신임(信任)하는 동역자가 와서 수월(數月) 후(後)에 자기 여식(女息)의 결혼식에 주례를 청하였다. 나는 무의적(無疑的)으로 일언(一言)에 허락하고 해당(該當) 일(日)에 예식장에 정각 5분전에 달(達)하였다. 그러자 2분후에 신랑과 신부가 자동차로 예식장에 입장하라고 하차하자 하(何) 미묘(美妙)한 소녀(少女)가 현출(顯出)하여 신랑의게 흰화(喧譁)하며 신랑은 자기의 부군(夫君)이라고 하였다. 차(此)는 연애(戀愛) 자유결혼이다. 기(其) 부모는 내용까지도 알면서 승인하고 결혼식을 행(行)하라고 한대 대(對)하여 나는 즉석(卽席)에서 파혼(破婚)의 경고(警告)를

하고 귀환(歸還)하였으나 타인을 청(請)하여 사회식(社會式)으로 예식하였으므로 나는 해(該) 교역자의게 면직분(免職分)을 단(斷)하였다. 연즉(然則) 혼인(婚姻)은 인간에 대사(大事)인즉 선찰(先察)하여 주례(主禮)할지니라.

1. 관례(약혼식)식

우리 한국인은 자고(自古)로 관례식(冠禮式)이 있어 전래(傳來)하였다. 주단거래(柱段去來)<사주(四柱)>한 후(後)에 길일(吉日)을 택(擇)하여 성관례식(成冠禮式)을 행(行)하는데 편발(編髮)을 상발속곳(上髮束串)(상투)하고 망건(網巾)으로 요두(撓頭)하고 초립(草笠)을 재(載)하고 포의(袍衣)의 예복(禮服)을 피(被)하고 선참조신배축(先參祖神拜祝)한 후(後)에 조부모(祖父母) 가족수상(家族手上) 제위(諸位)의 배알(拜謁)하고 연회청빈제현(宴會請賓諸賢) 중(中)에 관례(冠禮) 선포(宣布)하였다. 지금은 교회에서 약혼식을 행한다. 신랑(新郎)될 남자와 신부(新婦)될 규수(閨守)와 양가 부모 친족이 합석(合席)하고 교회원들이 참가하여 주임 목사가 상제(上帝)께 예배인도로 남녀 양인(兩人)이 상제(上帝)와 교회 중 약혼 축복 선포와 약혼 예물교환으로 약혼식을 행(行)하나니라. 장소는 회당(會堂)이나 양가 중 자택도 무방(無妨)하니라.

2. 결혼식(혼인예식)

약혼한 남녀와 양가(兩家)에서 장시일간(長時日間) 각각 성혼에 대하여 결함이 없을 경우에 길월양신(吉月良辰)을 선택하여 결혼식을 거행하되 고래(古來)의 예풍(禮風)에는 신랑이 후행배종자(後行陪從者)와 차마(車馬)로 신부댁에 가서 행례(行禮)를 하는데 존봉(尊鳳)납폐(納幣)하고 천신(天神)께 제물을 진설(陳設)하고 신랑이 주배(酒盃)로 헌신(獻神)하고 신부도 역(亦) 주배(酒盃)로 헌신(獻身)하되 각각 삼배(三盃)를 교체(交替)로 한 후(後)에 각(各) 사배(四拜)로 천신(天神)께 백년가약(百年佳約)의 결혼식을 필(畢)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교회당 혹 자가(自家)에서 신랑신부와 배종자(陪從者) 남녀가 남좌(男左) 여우(女右)로 분립(分立)하되 주례자는 정면 전(前)

에 신랑은 주례자 우편이오, 신부는 좌편에 상대 면(面)으로 정립(正立)하고 다수경하인(多數慶賀人)의게 신랑 모군과 신부 모양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선언 후에 식순대로 진행할지니라.

3. 식순

혼인예식의 순서는 하(下)와 여(如)함.

1)개회선언

2)찬송

3)기도

4)예식문과 성경낭독<태(太) 19:4-6, 엡 5:22,25>

5)신랑의 약속문답

6)신부의 약속문답

7)예물교환

8)주례자가 신랑의 우수(右手)와 신부의 우수(右手)로 악수례 중에 약속의 공포와 축복기도

9)특별 찬송

10)축전, 축문 낭독 급(及) 축사

11)혼가(婚家)의 광고

12)신랑 신부 퇴장

13)폐회 - 차후(此後) 기념촬영, 기타 등등

4. 주례자와 준비

주례자는 목사와 전도사가 할지니라. 연(然)이나 목사가 유고시(有故時)에는 장로 집사의게 위임하여 주례할 수도 있나니라. 주례자는 특별히 준비할 것은 주례의 예문(禮文)을 휴대(携帶)할지니라.

1)혼례식문

<주례자가 (목사) 식장에서 신랑을 우편에 신부를 좌편 전(前)에 입(立)하게 하고, 주례자는 이하와 같이 말할지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이 이인(二人)으로 거룩한 혼인의례(禮)를 이르러 왔으니, 혼인은 심(甚)히 귀중한 것이

라. 이 혼인은 인간이 범죄(犯罪) 하기 전(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행(行)함으로 백복(百福)의 근원이 됨을 깃버하셨나니라. 그런 고(故)로 가(可)히 경홀(輕忽)히 하지 못하고, 맛당히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과 하나님을 경외(敬畏)함으로 인간대사(人間大事)를 이룰지니라. 지금 차(此) 이인(二人)이 이 거룩한 혼인을 성취하려함이다.

성경낭독. “예수 답(答)해야 왈(曰), 인(人)을 조(造)하신 이가 자초(自初)로 일남(一男) 일녀(一女)를 조(造)하시고 언(言)하시기를 이런 고(故)로 인(人)이 부모를 리(離)하여 처(妻)의게 합(合)하매 이(二)가 일신(一身)이 된다 하신 차서(此書)를 독(讀)하지 못하였나. 여차(如此)한 즉(則) 이(二)가 안이요 일체(一體)니 연(然)함으로 상제(上帝)가 작배(作配)하여 주신 것을 인(人)이 분(分)치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태(太) 19:4-6, 엠 5:22-25>.

2) 주례자가 신랑의게 묻기를

000 형제가 이 신부 000양의게 장가드러 안애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이 거룩한 혼인을 하매, 처지(處地)대로 함께 살며, 신부가 병(病)이 들던지, 평안(平安)하던지, 저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사랑히 녀기고 타인(他人)을 도라보지 아니 하고 형제와 자매 두 사람이 종신(終身)토록 이만 직히고 살겠나뇨.

3) 신랑이 대답하는 말

네. 그리하겠습시다.

4) 주례자가 신부에게 묻기를

000자매가 이 신랑 000군의게 출가(出家)하여 남편을 삼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이 거룩한 혼인을 하매, 처지(處地)대로 함께 살며, 신랑이 병(病)이 들던지, 평안(平安)하던지, 저를 사랑하고 경외(敬畏)하며 또한 타인(他人)을 도라보지 아니 하고 형제자매 두 사람이 종신(終身)토록 이 이만 직히고 살겠나뇨?

5)신부가 대답하는 말

네. 그리하겠습니다.

6)예물교환

신랑이 반지를 신부의 좌수(左手) 무명지(無名指)에 끼여주고, 신부도 신랑에게 그리함 (신부는 얹이 하여도 무방함).

7)주례자가 신랑의 우수(右手)로 신부의 좌수(左手)를 잡게 하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는 사람이 난호지 못하나니, 신랑 000군과 신부 000양이 금일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거룩한 혼인을 피차(彼此)에 맺는 동시에 정성된 마음으로 맹세하고 기(其) 우수(右手)를 서로 악수(握手)함으로 빙거(憑據)를 삼았으니, 내가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신(聖神)의 명(名)으로 이 이인(二人)의 부부됨을 공포(公布)하노라.

8)축복기도

천지만물을 조성(造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일남(一男) 일녀(一女)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 하옵나니다. 신랑신부 이 두 사람이 백년가약(百年佳約)의 결혼(結婚) 대사(大事)를 이루게 하시였아옵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세인(世人)의 모본적(模本的) 신(新)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축복하옵나니다. 아멘.

제2조 상제식(喪祭式)<장례(葬禮)와 추도식(追悼式)>

자고(自古)로 한국에 상례(喪禮)와 제례식(祭禮式)이 심(甚)히 번잡(煩雜)하여 허례(虛禮)와 형식(形式)이 태다(太多)하였다. 상례(喪禮)는 불교식이 유포되고, 제례(祭禮)는 유교풍이 다(多)하여 복잡 중(中)인데 상례(喪禮)와 제례(祭禮)가 가위(可謂) 종교적 갖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동시에 차(此)에 대(對)하여 복잡할 것이 없나니, 생(生)은 기(奇)이요, 사(死)는 귀(歸)라

는 철언(哲言)과 같이 역려과객(歷旅過客)의 인간이 수십 년간 여정(旅程)을 펼(畢)하고 귀향(歸鄉)하는 시간이며, 사즉귀토(死則歸土)의 송별식이니,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장례식을 거행하되,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통곡의 비애(悲哀)를 감(感)치 말고, 부활의 소망을 신앙하고 위로할지니라. 제례(祭禮)는 기일(忌日) 기념하는 추도식(追悼式)이니, 유래적(遺來的)으로 초기(初期)인 소상(小祥)과 재기(再期)인 대상(大祥)에 유가족(遺家族)과 신우(信友)들이 기일(忌日)에 회집(會集)하여 교회식으로 기념할지니라.

1. 장례식<상례(喪禮)>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남녀간 별세(別世)하시면, 교회에 통지(通知)하여 즉시 제직회를 소집하고 임시위원을 선출하여 상가(喪家)와 협의하여 전후(前後) 행사를 결정하고 교회식대로 진행할지니, 상가(喪家)에서나 예배당에서나 관위(棺位)를 횡치(橫置)하고 주례자는 단상(壇上)에 입(立)하고 가족과 친척은 순위를 수(隨)하여 관전(棺前)에 좌(座)할 것이요. 교우와 조객(弔客)은 관(棺)을 중심으로 원립(圓立)한 후에 잠시 묵도하고 찬송가(해당 찬송가), 기도(주례자 혹 직원), 별세자의 약력 낭독(직원 중), 특별찬송(찬양대), 주례 목사는 하(下)와 여(如)히 성경을 낭독할지니라.

예수 가라사대 아(我)는 부활(復活)이요, 생명(生命)이니, 아(我)를 믿는 인(人)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인(人)은 영원(永遠)히 죽지 안하리라(요 11:25-26).

내가 알거니와 아(我)의 구주(救主)가 살아 계시니, 후일(後日)에 지상(地上)에 서리도다. 나의 이가 죽어 썩은 후에 아(我)가 차(此) 육체(肉體)를 떠나 하나님을 보리로다. 나 곧 내가 친(親)히 피(彼)를 보고 내 눈으로 볼 때에 외인(外人)으로 보지 안하리니, 내 간장(肝臟)이 속에서 소멸(消滅)하도다(욥 19:25-27).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세상을 떠날 때에도 또한 아모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딤후 6:7).

주여 대대(代代)로 우리의 거(居)한 곳이 되셨나니다. 산(山)이 나기 전에 주께서 지(地)와 세계를 지으시기 전(前)에 영원부터 영원까

지 주께서 하나님으로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진애(塵埃)에 또 도라가게 하시고, 이에 갈아사대, 인생들아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시나니다. 대개(大概) 주의 눈에는 천년이 작일(昨日)의 지냄과 같으며, 피등(彼等)이 하로밤 잠자는 것 같으며, 또 아침에 풀이 자라는 것 같으니, 아침에는 밋나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버힌즉 마르난도다(시 90:1-6, 뫼전 6:7).

이하는 참고하라. 시 90편, 고전 15:4'-58, 고후 5:1-10, 살전 4:13-18, 뫼 21:21-27).

유아(幼兒)들이 죽은데 대(對)하야는 이하(以下)의 성경을 낭독함이 가(可)한이라.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빼앗셨으니, 여호와와 일흠을 가(可)히 찬송하리로다(욥 1:21, 막 10:13-16, 18:1-10, 삼후 12:16-23).

1)시체를 지중(地中)에 하관(下棺)하고 목사는 상가(喪家)의 예물(禮物)을 관상(棺上)에 치(置)하고 이하(以下)와 같이 말할지니라.

모든 일에 지혜(智慧) 되시는 하나님께서 차인(此人)을 부르심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再臨)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차(此)시체(屍體)를 묘중(墓中)에 안장(安葬)하였으니, 그가 오실 시(時)에 그의 십자가(十字架) 보혈(寶血)노 유(由)하야 성지(聖旨)대로 완전(完全) 구원(救援)한 성도(聖徒)는 부활(復活)식히실 것을 믿고 차(此) 장례(葬禮)를 행하노라.

2)목사는 축복기도로서 예식을 필(畢)할지니라.

지금(只今)은 우리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恩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聖神)의 보호(保護)가 침자(寢者)의 영혼(靈魂)과 시체(屍體)를 영원(永遠)히 있기를 주(主)의 명(名)으로 축복(祝福) 하옵나니다. 아멘.

3)장례식의 주의 사항

(1)상가(喪家)에 너무 흰화(喧譁)치 말고 정숙(靜肅)을 수(守)할 것.

(2)시신(屍身)은 10시 내(內)에 염습입관(殮襲入棺)하되 관개(棺蓋)은 밀봉(密封)치 말 것.

(3)관구(棺柩)는 독실(獨室)에 안치(安置)하고 빈번(頻繁) 출입(出入)을 금(禁)할 것<전염병(傳染病)이면 우심(尤甚)>.

(4)전염병사(傳染病死)면 의사(醫師)의 인정(認定)이 충분하다고 할 시(時)까지 시체(屍體) 급(及) 실내외(室內外) 의류(衣類) 침구(寢具) 등을 불태(不怠)하고 소독(消毒)할 것.

(5)상가(喪家)에 가서 기피적(忌避的) 태도를 시(示)치 말고 대담(大膽) 친절(親切)할 것.

(6)사후(死後) 24시전에는 출관(出棺)치 말 것.

(7)상가(喪家) 음식은 조심하되, 특히 전염병사(傳染病死)면 상가음식은 전폐(全廢)함이 가(可)함 <특별자(特別者)면 타가(他家)에서 제공(提供)할 것>.

(8)입관식(入棺式), 영결식(永訣式), 매장식(埋葬式)은 될 수 있는 데로 간단히 할 것.

(9)시체(屍體)는 필(畢)히 관(棺)을 사용할 것

(10)장지(葬地)는 심굴(深掘)하되 5-6척이 충분함.

(11)장례(葬禮)를 오래 끌지 말 것. 3일이나 혹은 5일이면 가(可)하나라.

(12)행상(行喪)은 재래(在來)의 상여(喪輿)를 하게 되면 정숙(靜肅)히 하고, 속풍허행(俗風虛行)을 금(禁)하고 도중(途中) 정상시(停喪時)에는 적당한 찬송을 부를 것이요, 도시에서는 영구차(靈柩車)로 할지니라.

(13)장례(葬禮) 행상시(行喪時)에는 상주(喪主)인 남자 마포주의(麻布周衣)와 세마포(細麻布) 완장(腕章)을 하고 여자는 세마포 당기를 하고 진당목 치마를 의(衣)할지니라.

(14)주례자는 목사, 장로, 집사 교직자로서 할 것.

2. 추도식

재래식(在來式)으로는 3년간은 소대상(小大喪)이라 하여 성대하게 제사를 거행하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는 제사는 허례(虛禮) 허배(虛拜)의 죄가 되나니, 이는 인간이 사후(死後)에는 금세의 생자(生者)와 같이 음(飲)이 관계(關係)가 무(無)한 연고(緣故)이니, 제물(祭物) 축배(祝杯)는 허위적(虛僞的) 예식이라. 단 기일(忌日) 기념으로 추도식(追悼式)을 거행(舉行)해야 고인(故人)의 일생 약력을 통과(通過) 기치(記

置)하야 자손(子孫)과 신우(信友)에게 참고가 되는 것이 양호(良好)한 사(事)이다. 복제(服製)는 유전적(遺傳的)으로 3년간 백의(白衣)를 의(衣)하는 것보다 한복에는 북세포(北細布)로 완장(腕章)을 하고, 양복에는 흑포(黑布)로 완장(腕章)할지며, 여자는 북세포(北細布)로 화형(花形)같이 두발(頭髮)에 삽재(插載)함이 역호(亦好)함이라. 기간은 재기(再期) 기일(忌日)까지 함이 좋으나 각자 효심에 한(限)할지니라. 식순(式順)은 찬송, 기도, 고인의 약력낭독, 특별찬송, 성경낭독, 설교, 기도, 찬송, 축도, 폐회.

제5절 헌아식(獻兒式)

헌아(獻兒)의 의(意)는 아해(兒孩)를 상제(上帝)께 헌(獻)하는 의(意)이니, 기(其) 유래(由來)는 구약(舊約)에도 종종(種種) 헌아(獻兒)하는 사(事)가 유(有)하였거니와 예수께서도 아해(兒孩)를 위(爲)하야 축복(祝福)하신 시(時)로부터 된듯하다. “이에 유아(幼兒)들을 비(臂)로 포(抱)하고 복(福)을 축(祝)하시며 수(手)로 기(其) 두상(頭上)에 안(按)하시더라(막 10:16). 부부(夫婦)가 신앙이 일치(一致)하야 주(主)의 성지(聖旨)인 성서(聖書)대로 신앙 생활하는 진실한 중(中)에 생산아(生産兒)라야 하나니라. 아해(兒孩)를 모(母)가 신앙심으로 상제(上帝)께 헌(獻)아키를 원(願)하고 목사의게 청(請)할 시에 거절(拒絕)하지 말고 기(其) 부모를 강단 전(前)으로 아해(兒孩)를 대리고 나온 후에 신인(神人)의 전(前)에 아(兒) 양육과 장래 주(主)의 성지(聖旨)대로 지도할 사(事)에 대하여 맹약(盟約)한 후(後)에 목사는 하(下)와 같이 성경을 낭독한 후 막 10:13-16과 태(太) 18:1-6까지 목사는 아해(兒孩)를 받아 안고 기(其) 수(首)에 수(手)를 얹고 차(此)와 같이 축복기도할지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신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의 도리(道理)로 구원하심을 감사 하옵나이다. 오날은 우리 주를 믿는 000 부부의게 선물로 주신 000 아해(兒孩)를 만복(萬福)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

님 아버지께 받치옵고 기도 하옵나니다. 차(此) 아해(兒孩)의게 축복 하시여 죄 빠지지 안게 하시고 위태(危殆)함과 모든 시험(試驗)과 무식(無識)함을 면(免)케 하고, 모든 악(惡)을 행(行)치 안게 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여 하나님의 진리 중(中)으로 인도하사, 그로 하여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국의 인물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도록 하옵시기를 주(主)의 명(名)으로 축복하나니다.

제6절 목회자 장립식(將立式) 안수식(按手式)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군주(君主)의 장립식에는 고(膏)를 주(注)하였고, 신약시대에는 목회자 장립식에도 선배(先輩)들이 안수(按手)로 장립식(將立式)을 행(行)하였음(행 13:1-3, 6:6). 그런고로 목회자를 선택하여 임명할 때에 해(孩) 교회에서 장립식(將立式)을 거행(舉行)함에 있어서는 안수례(按手禮)로 축복기도할지니라. 신약시대의 안수에 대하여는 삼중(三種)이 있었음을 참고할 것.

1. 예수씨가 아해(兒孩)를 포(抱)하시고 축복의 안수하심(막 10:16).
2. 사도들이 신자들의게 성신(聖神) 전달의 안수<행(行) 8:17-18>.
3. 교역자들의 장립식(將立式)의 안수<행(行) 6:6, 13:3>. 그런고로 사도 바울이 후세의 감(鑑)이 되기 위(爲)하야 모인(某人)의게나 거연(遽然)히 안수하지 말라 하였음(딤후 5:22).

현대 종파교회에서 여자들도 안수기도를 유행적으로 한다. 안수의 해당한 사(事)가 하(何)인지도 모르고 수(誰)든지 하모(何某)에게던지 안수함은 죄(罪)가 되나니라.

제1조 장립식(將立式) 순서(順序)

장립식(將立式)에 안수(按手)할 임원(任員)들은 강단(講壇)에 좌(座)하고 안수(按手)받을 피선거자(被選者)들은 강단(講壇) 전(前)에 좌(座)케한 후(後)에 교회에서 이하(以下)와 같이 순서를 거행(舉行)할지니라.

1. 찬송-나 말은 본분은
2. 기도-안수 임원 중에서
3. 찬송-만세반석
4. 성경-딤후전 3장과 딤후 4장 1-8, 딤후 3장 1-11.

안수(按手) 받을 자(者)에게 설명한 후에 응락(應諾)을 받은 후(後)에 회중(會中)에 설교하고 안수임원들이 안수 받을 자(者)들의게 개인 개인의게 수(手)를 두상(頭上)에 안(按)하고 이하(以下)와 여(如)히 위원장이 대표로 도고(禱告)하나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聖子) 그리스도와 성신(聖神) 보혜사(保惠師)의 명(名)으로 모(某)에게 하나님의 소(召)하심과 선택(選擇)하신 사명(使命)의 권세(權勢)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聖經)을 전(傳)하게 하며, 군양(群羊)을 목(牧)하며 모든 성례(聖禮)를 봉행(奉行)하도록 주(主)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축복(祝福)하옵나니라. 아멘. 찬송(讚頌)하고 축도(祝禱)하고서 폐회(閉會)할지니라.

(1) 海雲洞 그리스도교회 還京後 洗禮人

朴鎮蕘 32才主婦	1952年五月十一日主日	洗禮元曉路
文在性 22才小女	〃 〃 〃	洗禮金海島
金分伊 50才主婦	〃 〃 〃	洗禮玉仁洞
池千蘭	至歸 1952年七月十五日主日	洗禮因需洞
李慶順 59才主婦	〃 〃 〃	洗禮
方玉順 36才主婦	〃 〃 〃	洗禮 玉仁洞
李春植 17才小女	〃 〃 〃	洗禮 社稷洞
朴三福 22才小女	〃 〃 〃	洗禮 社稷洞
李 丙	女 〃 〃 〃	洗禮
金慶玉 16才 女	1952年十一月二日主日	洗禮 社稷洞
長炳珠 20才 女	〃 〃 〃	洗禮 社稷洞
金奇池 33才 女	〃 〃 〃	洗禮 元曉路
權富禮 43才 女	〃 〃 〃	洗禮 社稷洞
金 柱 69才 女	〃 〃 〃	洗禮 社稷洞
跨士分 73才 女	1953年 七月二日主日	洗禮慶南巨倉
李春和 62才 女	〃 〃 〃	洗禮通仁洞
金南均 20才 男	〃 〃 〃	洗禮 江島邑
沈鉉浩 28才 女	〃 〃 九月二七日	洗禮 社稷洞
李錦星 25才 女	〃 〃 〃	洗禮 社稷洞

제13장 목회자와 개인 생활

제1절 육체상(肉體上) 생활(生活)

제1조 자신상(自身上) 생활(生活)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을 요(要)할지니, 신체는 만사(萬事)의 본(本)이다. 그런데 더욱더 격렬(激烈)한 목회사업에는 보통의 인성(人性)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육체의 정욕(情慾)과 차생(此生)의 과장(誇裝)을 십자가에 정(釘)하여 상제(上帝)의 성지(聖旨)대로 행(行)하는 자(者)는 건전(健全)할지니라(요일 2:16-17, 갈 5:24). 그럼으로 주의 말씀 중에 “천국(天國)을 위(爲)하여 자엄(自閼)된 자도 유(有)하도다. 차언(此言)을 수(受)할만한 자(者)는 수(受)할지니라” <태(太) 19:12> 하시였음으로 사도 바울은 독신(獨身)생활을 한듯도 하다. 목회자는 주야(晝夜)로 기도(祈禱) 생활(生活)노 인(因)하여 부부(夫婦) 분석(分席)이 다(多)함으로(고전 7:5), 31세로 40세까지는 1개월 중(中)에 1회 부부(夫婦) 동방(同房)하되, 약(若) 신양(身養)이 부족(不足) 우(又)는 과로(過勞) <전도회 급(及) 사경회> 신양(身樣)이 노곤(勞困)하거나 본시(本是) 신체가 약(弱)하면 1개년 2-3회 가합(可合)하며, 41세로 50세까지는 2개월 중에 합방(合房) 1회가 가적(可適)하며, 51세 이상에는 1개년 중 1-2회가 가(可)하고, 60세 이상은 단방(斷房)이 가야(可也)니라. 연즉(然則) 신체가 건전하야 천국 사업에 다대(多大)한 유익(有益)이 될 것이다. 이상(以上) 소언(所言)은 필자 자신이 약한 관계로 일생을 조심한 결과 63세에 차언(此言)을 서(書)하는 중(中) 무병(無病) 건전(健全)의 체험적인 동시(同時)에 조혼(早婚)의 악폐(惡弊)로 조색과도(阜色過度)하야 쇠약부족증(衰弱不足症) <폐병자여(肺病者如)함>으로 자각적(自覺的) 단방(斷房) 3년에 신체는 회복되

고 기후(其後) 31세까지 10년간을 혹 일 년 단방(斷房) 반년 단방(斷房)함으로 유(由)하여 건전한 생활이어서 교역에 지장이 별무(別無)한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한 자는 신앙심이 견고한 동시에 나와 같이 약자라야 하지, 신앙심이 부족<부부 중(中) 일(一)이라도>하거나 건재하면 이행(履行)키 불능(不能)하나 할 수 있는 데로 정욕(情慾)을 금(禁)하면 신체가 건전하고 장수(長壽)도 할지니라.

우리 교역자는 주님의 것이다. 고전 6장에 대(對)하여 삼종(三種)의 교훈이 유(有)하니, 15절에 신(身)은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요, 19절은 성신(聖神)이 거(居)할 전(殿)이요, 20절에는 신(身)으로 상제(上帝)를 영화롭게 할 것을 교훈하였다. 혹(惑)은 영적(靈的) 치중(致重) 편견(偏見)하는 동시(同時)에 육체를 경멸시(輕蔑時) 하는 폐(弊)가 불무(不無)하나니, 차(此)는 대(大) 오해이다. “이등(爾等)의 신흔신(神魂身)을 완전히 보존하사”(살전 5:23) 하였다. 신(身)을 완전히 보존하사 건강케 함은 신앙이 성경적 생활의 표현(表現)이다.

1.조기(早起)

매일 하절(夏節)은 5시, 동(冬)에는 5시 반에는 기상(起床)하여 일(一) 시간 밀실기도와 가배(家拜)를 필(畢)하고, 정리하고, 산상(山上) 혹은 교외(郊外)에 청정(淸淨)한 공기를 호흡하고 산보(散步) 급(及) 체조(體操)하며, 자연계의 미관 중(中)에서 심신(心身)을 유쾌하게 할 지니, 일일(一日)의 사무(事務)할 건전한 정신과 유쾌한 심신으로서 감당할 만치 준비가 되어 한다. 고어(古語)에 일년지계(一年之計)은 재어춘(在於春)이요, 일일지계(一日之計)는 재어신(在於晨)이라 하였다.

2. 교역자(敎役者)의 주의(注意)

1)공상(空想)과 우수(憂愁)이다. 미신자는 육체상 공상과 우수이나 우리 교역자는 신령상 공상과 우수는 교회가 부진(不振)하던지 교역상 자기 장래를 추측(推測)하던지, 하사(何事)던지 공상(空想)은 보건상(保健上) 불가(不可)하니, 주의할 것.

2)교역자는 신자 중(中) 허다(許多)한 병자를 근접 기도한 동시(同時) 전염병도 불구하고, 의사와 같이 소독법을 학습 준비함이 필요하다. 자신도 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함ियो. 예컨데 전염병자의 게 기도하고 타신자의 가정에 기도한 후에 자기는 요행히 무관하나 신자의 가정에 전염(傳染)식하면 책임이 어더할가? 그런즉 특별 주의할 것.

3)교역자로서는 아무리 친우(親友)던지, 친척(親戚)이던지, 신우(信友)들이던지, 여하(如何)한 일이던지, 보증인 급(及) 연대인의 관계 날인(捺印)치 말 것.

4)시간관념을 특별 주의할 것. 가정생활에서나 직무상에서나 대인 약속이나 시간을 엄수할 것.

5)성서중에 경계한 말삼은 특별히 주의할지니라.

제2조 가정생활

1. 자녀가 부모의게 대하여

동양 도덕의 중심은 자녀가 부모의게 대한 효도로서 시작하였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상제(上帝)의 계명 중에 인간의 대하여는 초계(初戒)가 부모를 공경하라 함이다. 차(此)는 허락(許諾)이 있는 첫 계명이니, 지상에 창성(昌盛)하고 장수(長壽)한다 하였다(엡 6:1-3). 부모를 시봉(侍奉)하는 교역자는 의당(宜當)히 효행(孝行)으로서 일반 신자의게 모본(模本)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조부모 사후 기일에도 무심히 과(過)치 말고, 추도식으로 유가(儒家)의 봉제사식(奉祭祀式)과 부동(不同)이나 기념(記念) 봉사(奉事)는 동일(同一)하니, 경엄(敬嚴)히 할지니라. 고어(古語)에 구충신어효자지문(求忠臣於孝子之門)이라 함은 부모에게 효(孝)하는 인(人)은 군(君)의게 충성(忠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즉(然則) 부모의게 효양지성(孝養之誠)을 봉행(奉行)하는 인(人)이라야 상제(上帝)께 대(對)하여도 충성을 진(盡)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을 잘 공경(恭敬)한다는 인(人)이 부모의게 불효한다면 신용할 수 없는 신앙이다. 교역자는 교우들로 하여금 부모봉양을 효성으로 하되, 성서로 설교보다 자신이 친히 효행으로 모본이 되어만 할지니라.

2.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여

부모가 되시는 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경계(敬戒)와 교훈으로서 양육하라(엡 6:4). 자녀를 주께 헌(獻)하여 교역자를 만든 부모는 행복스러운 부모라고 한다. 서양 언어(諺語)에 목사의 부모는 인간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한다. 얼마나 귀(貴)한 사(事)인가 고로 교역자의 부모되신 분은 범사(凡事)에 그를 도와 밀실(密室) 도 고자(禱告者)가 되지 않으면 안이 된다. 자녀의 교역을 위하여 석일(昔日) 이색열(以色列)의 승리를 위(爲)하여 산상(山上)도고(禱告)한 모세와 같이 부단(不斷)의 성의(聖意)로서 축복(祝福)할지니라.

제3조 부부간의 관계

1. 목사가 부인에게 대하여

목사는 부인을 애호(愛護)할지니라. 대개(大概) 부인은 천성노정(天城路程)의 동행자요, 성역(聖域)의 동역자이다. 목회상 부인의 공로가 다대(多大)하나니, 목사는 부인을 일(一) 가정(家庭) 주부(主婦)로만 사(思)할 것이 아니라, 성역(聖域)을 돕는 동로자(同勞者)로 지(知)하고 친애(親愛) 후대(厚待)할지니라. 왜 그리할 것이야 하면, 성서중에 “여자는 이(爾)보다 연약한 기(器)오, 또 영생의 은혜를 해향(偕享)할 자(者)가 됨이라(벧전 3:7). 교역자가 부부생활에 화순(和順)치 못하고 불화(不和)하면 목회생활에 실패원인이 되나니, “대개(大概) 인(人)이 자가(自家)를 선치(善治)할 줄 지(知)치 못하면, 잊이 상제(上帝)의 교회를 찰(察)하리요(딤후 3:5). 목사는 너무 부인을 괴롭게 하지 말지니, 차(此)는 부부(夫婦) 일신(一身)의 원리를 위반함시오, 연약한 기(器)를 무리 사용한 과오가 되나니라. 우(又)는 부인의 사(事)를 너무 간섭치도 말고 압제(壓制) 하지도 말지니라. 남자는 거외이불언내(居外而不言內)라는 말이 있다. 가정살림을 부인(婦人)에게 일임하고 후원 고찰(考察)할지니라. 목사의 가정은 교회(教會) 축소(縮圖)이니, 신자 가정의 모범이다. 만일 목사의 가(家)의 불화(不和)하다던가, 부부간에 충돌(衝突)이 빈번(頻繁)하면 차(此)는 목사 내적(內的) 생애(生涯)의 실패니, 목회성공을 기대하지 말지니라. “부(夫)된 자(者)여 부

(婦)를 애(愛)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애(愛)하사 신(身)을 사(捨)하심같이 하라.”(엡 5:25). 그렇다고 무조건 애(愛)하기만 하여 가정문란이 되던지 목회상 부인의 말만 듣고 하던지, 가정 살림에 부인의 요구만 듣고 허화(虛華) 낭비(浪費)의 생활을 하거나 내 주장(主掌)의 비법적(非法的) 가정이 되면, 외인(外人)의게도 수치(羞恥)니, 목사 위신(威信)의 타락(墮落)으로 목회불능야(牧會不能也)니라.

2. 부인이 목사의게 대해야

세상에 목사의 부인된 자(者)처럼 행복스러운 여자는 무(無)하나니, 신앙상으로는 교회의 모(母)요, 정신상으로는 부목사이다. 보통 가정 부인과 같이 생활문제 치산문제(治産問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성역방조자(聖域幫助者)라는 각오를 불망(不忘)할지니라. “부녀(婦女)된 자(者)여, 부(夫)에게 순종하기를 주(主)께 순종하듯 하라(엡 5:22). 부화부순(夫和婦順)은 성도 부부생활의 비결이다. 현량(賢良)한 남편과 유순(柔順)한 부인은 이상적 가정을 조성한다 하나니, 목사의 부인은 보통부인에서 초월한 현숙한 덕행과 온아(溫雅)한 자태(姿態)와 독실(篤實)한 신앙으로서 일반 신도의게 모범이 되어서 교회의 영적(靈的) 모(母)가 될 만하여야 한다. 목사를 도운 것은 교회를 도움이요, 교회를 도움은 주(主)를 도움이요, 주(主)를 도움은 즉(卽) 자기를 도움이다. 실로 목사 부인의 역사(役事)가 다대(多大)하다. 루터의 개혁운동에도 기(其) 부인의 보조와 공훈이 다대(多大)하였다 하며, 뿌두의 구세군 창립에도 기(其) 부인의 활동과 공로가 역시 다대(多大)하다고 한다. 목사의 교역성공의 력(力)이 10이라면, 부인의 조력(助力)이 5가 되어야 한다. 종일 전선(戰線)에서 열력(熱力) 고투(苦鬪)하고 도라오는 목사를 위하여 교회일로 주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나머지 안식(安息) 위로(慰勞)하여줄 이는 기(其) 부인밖에 없다. 목사의 부인 되신 분은 깊은 각오(覺悟)와 심절(深切)한 동정(同情)으로 보조(補助)할지니라.

1) 목사 부인의 자각(自覺)할 것이니, 자기는 목사 부인이라는 것을 잊이 말 것. 담임한 교회의 대표적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언행(思言行)을 조심하여 목사부인다운 미덕을 발휘할지니, 자기는 일(一)

가정의 주부가 안이고 주(主)의 여복(女僕)임을 심각(深覺)할 것.

2)고난을 각오할지니, 교역자의 영육생활은 십자가를 부(負)하고 갈보리 산정(山頂)으로 향상(向上)하는 생활이다. 제일 당면 문제는 생활고(生活苦)이니, 가정(家庭) 치산상(治産上) 주밀(周密)한 아량(雅量)으로서 적당한 생활을 해야 목사로 하여금 교회 일에만 전념케 하고 가정염려를 생략해야 좋을지니,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는 목사의 부인(婦人)에게 우호(尤好)한 격언(格言)이다.

3)동정심이니, 목사의 부인은 먼저 교역사업이 얼마나 곤란하다는 것을 각오하고 동정함이 필요하니라. 그러나 동정심이 무(無)한 부인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배(倍)나 고통을 주나니, 목회의 성패(成敗) 원인(原因)이 부인의게 막대한 책임이 유(有)하니라. “현(賢)한 여인은 기부(其夫)의 면류관이 되고 욕(辱)을 이(貽)하는 여인(女人)은 기부(其夫)의 골수(骨髓)를 썩힘과 여(如)하니라”(잠 12:4). 현량(賢良)한 부인은 목사의 금세 면류관이 되고, 천국의 동반자가 될지니라.

3. 자녀 양육상(養育上) 책임

1)목사가 자녀(子女)에게 대(對)하여

목사의 자녀는 기(其) 가족 중(中)에 상제(上帝)의 선물이요, 제2세 천국 역군(役軍)이다. 교육의 책임이 중대(重大)하다. 세평(世評)에 목사 가정 불완전이라던지, 자녀교육상 결함의 문제가 다(多)하나니, 기(其) 원인(原因) 중(中)에는 동정할 점도 유(有)하거니와 책임문제도 불무(不無)하다.

(1)목사는 교역상 다망(多忙)함으로 자녀문제를 등한시함도 불무(不無)함이요.

(2)영적 일에 편중(偏重)함으로 육(肉)의 사(事)를 경시(輕視)함이요.

(3)생활난의 관계로 자녀교육이 불충분함이요.

(4)무조건 애육(愛育)은 종교예의상 결함이요.

(5)신앙이 정적화(情的化) 되지 못하고 의식화(儀式化)함이요.

이상 조건(條件) 외(外)에 책임문제가 유(有)하니, 대개 자녀는 부모 교양 여하(如何)에 의하여 선불선(善不善)이 판정(判定) 되나니, 목사는 영적 사업 뿐 아니라 자녀 교육 방면에 등한시 하지 말고 심

심(甚深) 유의(留意)해야 실패가 무(無)할지니, 자녀 중에 일차 실광(失光失德事)가 유(有)하면 목사 자신을 매장하고 전도문을 막고, 강단에 입(立)할 용기가 무(無)할지니, 결국 실패니라. 교양상(敎養上) 주의 사항(事項)은 이하(以下)와 여(如)함.

(1)가정생활 경건이니-자녀의게 대(對)하여 불경건한 생활과 언실(言實) 부동(不同)의 태도는 부모 위신(威信)을 상실(喪失)함.

(2)편애(偏愛)-자녀 양육에 편애는 아동 심리를 악화(惡化)케 함이니, 남중여천(男重女賤) 여귀남증(女貴男憎) 제애형모(弟愛兄侮) 등(等)이니, 특히 조심할 사(事)이니라.

(3)상벌(賞罰)을 명백히 할 것-무조건애(無條件愛)와 무조건(無條件) 엄격(嚴格)은 금사(禁事)니, 태애즉무례(太愛則無禮)하고 태엄즉무기(太嚴則無氣)하고 임시(臨時)체변(體辯)해야 선악(善惡)의 별(別)을 명시(明示)할지니라.

2)자녀가 목사의게 대하여

세상에 목사의 자녀된 인연(因緣)처럼 행복스러운 일은 없다. 신령한 아버지와 신애(信愛)하시는 어머니에서 신앙과 진리 중(中)에 성장하게 되었으니, 무상(無上)의 축복이다. 자녀된 자(者)는 의당(宜當)히 상(上)으로는 상제(上帝)께 감사하고 부모(父母)의게 지성봉효(至誠奉孝)하여야 한다. 아동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은 일반 아동(兒童)의게 대한 교훈이지만은, 목사의 자녀된 자 더욱 차(此) 성언(聖言)을 근수(謹守)해야 중아(衆兒)의 모범(模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친(父親)의 뒤를 따라 제2세 천국민(天國民)이 되지 않으면 안이 된다. 연(然)이나 목사 가정에 목사 계승하는 것이 아주 희귀(稀貴)하니, 기(其) 이유(理由)는 여하(如下)함.

(1)자녀된 자(者)가 부친의 목사 생활의 고난사를 목도(目睹)한 고로 헌신키를 원치 않음시오.

(2)부(父)된 목사가 교역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녀들이 교역자 되는 것을 요망(要望)치 안이 한다.

(3)목사 자녀들이 대개는 진실한 신앙이 무(無)한 까닭이다.

그러나 목사의 자녀된 자(者) 심절(深切)한 각오하(覺悟下)에 부친

의 사업을 동정(同情) 보조(補助)하며 자녀로 인(因)하여 고통을 당치 않고, 신령한 사업에 성공하도록 기도할지니라.

제4조 의식주(衣食住)

1. 의복(衣服)

의복(衣服)은 폐신지물(蔽身之物)이라. 각인(各人)이 기분(其分)에 적합하도록 의(衣)할지니, 약(若) 신분(身分)에 상응치 않게 의복을 의(衣)하면 차(此)는 외식(外飾)과 허영(虛榮)에 근(近)하니라. 현세 교회에 출입하는 남녀청년들이 동서(東西)의 신풍조(新風潮)를 수입(輸入)하여 의복사치가 사회보다 우심(尤甚)하여 종교적 기분(氣分)이 없고, 너무나 화려하여서 빈핍(貧乏)한 신자의 고통거리가 되야 의복문제로 교회출석까지 기피하는 사(事)가 다(多)하여 교회마다 공석(空席)이 다(多)하니, 차(此)는 입(入)하여야 할 빈자(貧者)의 좌석이다. 목사는 의당히 교회에서 과도한 사치를 숙정(肅正)하여 검소(儉素)미려(美麗)하게 정결(淨潔) 미덕(美德)을 현출(顯出)할지니라. 목사 자신이 차사(此事)에 모본이 되어서 지도 교훈에 수괴(羞愧)치 않게 할지니라. 대개 교역자의 생활은 본자(本資)가 없는 자(者)로서 여유가 별무(別無)하나니, 사치(奢侈) 미복(美服)은 감내(堪耐)키 난(難)할지라. 결국은 부채(負債)케 된다. 부채생활은 강단에 권위를 손실케 한다. 의복(衣服)미치(未侈)의 수치(羞恥)보다 과분(過分)의 사치(奢侈)로 부채생활의 수치(羞恥)가 우심(尤甚)한 것을 지(知)하여야 한다. 목사 자신은 검박(儉朴)하나 부인과 가족 사치로 인(因)하여 자급 부진(不振)의 결과가 되나니라.

1) 목사 자신의 의복은 성역상(聖役上) 위신에 손(損)되지 않도록 집중(執中)할지니, 너무 사치(奢侈)치도 말고, 너무 추(醜)하지도 말고 중도(中道)를 취(取)할지니라.

2) 가족의 의복은 신자 상하를 표준하여 중용(中庸)을 취(取)할 것.

3) 청결은 의질호불호(衣質好不好)에 재(在)한 것이 아니니, 자주 세탁하여서 청결할 것.

4) 의복제도는 너무 신식(新式)을 취(取)치 말고, 구식(舊式)도 말고 보통식(普通式)으로 할 것.

5)의복은 협소(狹小)하게 하지 말고, 장광(長廣)이 비교적 넉넉하게 할 것.

6)의복이 경제적으로 실질(實質)을 취(取)할 것.

7)의관(衣冠)은 단정(端正)을 주(主)로 하고 무례(無禮) 실격(失格)을 근신(謹慎)할 것.

2. 음식(飲食)

음식은 인간생활 삼요소중(三要素中) 일(一)이 되나니, 일일(一日)이라도 불가결(不可缺)이다. 그러나 인(人)이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음식이 사람을 위하여 재(在)하나니, 그런고로 인(人)이 음식에 노(奴)가 되어서는 안이 된다. 음식 역시 의복과 같이 신분에 상응(相應)하여 할지니, 미미(美味) 호식(好食)의 욕(慾)은 인지상정이되, 과분하면 무모(無謀) 허위(虛僞)의 생활이니, 건과(愆過)이다. 해와의 먹음직한 생각은 식욕이 발생함이니, 결국은 죄를 산출(產出)하였다. 인생의 타락의 원인 중에는 음식으로 위시하여 대부분을 점(點)하고 있다. 마귀의 호기회(好機會)이다. 태초에 아담을 음식으로 타락케 하던 마귀는 제2 아담 되는 예수를 음식으로 시험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인(人)이 병(餅)으로만 살 것이 안이오. 하나님의 도언(道言)으로 산다”는 것은 마귀에 대(對)하여 폭탄적 선언인 동시에 신자의 생활 원칙이다. 목사는 음식에 대하여 모본이 될지니, 탐식자(貪食者)가 되지 말 것. (음식을 노래 부르지 말 것.) 음식에도 검소(儉素)하되, 너무 절식(節食)하여 영양부족으로 성역에 지장이 무(無)케 하고 너무 호식하여 적자생활을 하지도 말지니, 생활보수에 의(依)하여 적합하도록 조절할지니, 차역(此亦) 신자의 생활정도에 비(比)하여 거기중(居其中)을 취(取)할지니라.

1)선(先)히 생활(生活) 예산표(豫算表)를 정(定)하여 해예산(該豫算)에 초과치 말 것.

2)자량(資糧)에 대(對)하여 현금주의(現金主義)로 하고 외상(外上)하지 말지니, 외상은 부채의 모체(母體)이다.

3)음식은 청결을 요(要)하고 위생적 합리화로 할 것.

4)음식 하는 것보다 적당히 감식(甘食)할지니, 위량(胃量)의 칠분

(七分)음식은 최(最)건강 장수법이니라.

5)육식보다 채식(菜食) 과식(果食)주의(主義)를 요(要)할지니, 차(此)가 위생상 적합할 것.

6)음식은 최(最) 청렴(淸廉)할지니, 음식은 인격고하를 점(點)하는 수준기(水準器)가 되나니라.

7)간식(間食)을 폐(廢)할지니, 소아(小兒) 장년(長年)을 막론(莫論)하고 위(胃)에 손상(損傷)을 주고 관습이 되면 난기(難棄)의 악습(惡習)이 되나니라.

3. 거처(居處)

거처(居處)는 즉(卽) 주택(住宅)을 말함이니, 목사의 주택은 교회(教會)가 요, 목사의 가(家)가 안이니, 일반적으로 논(論)하면 주택은 외양(外樣)의 미려(美麗)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생활상 편리케 할지니, 주택 역시 실질주의하(實質主義下)에서 분수(分數)에 과(過)치 않도록 함이 가(可)하고, 만일 주택을 건축할 시(時)에는 먼저 제직과 상의 양해를 득(得)해야 합의를 함으로써 할 것이요, 독단적으로나 또는 교회보다 화려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何) 교파(敎派)에는 교회당은 미려하게 하고 교역자 주택은 보잘것없다. 또 다른 하(何) 교파에서는 차(此)와 반대로 선교사, 목사의 주택은 훌륭한 양옥이요, 교회당은 초가(草家)로 두는 것은 대불가(大不可)인 대수치(大羞恥)의 사(事)이다. 목사가 교회 주택에 거주할 동안은 자기가(自己家)와 같이 잘 보관하고 청결케 하고 파손은 즉시 수리할지니라.

1)목사의 주택은 교회당에서 최(最) 근처를 요(要)할 것.

2)주택은 언제든지 청결 정숙을 요(要)할 것.

3)목사는 정원, 소제(掃除), 분재(盆栽) 정리 등사(等事)는 타인의 수(手)를 번로(煩勞)치 말고 자수(自手)로 친로(親勞)할지니라.

4)목사 부인은 의복, 음식, 거처, 등사(等事)에 신자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

5)목사의 주택은 수도(修道)의 낙원(樂園)이어서 매일 승리의 생애로 보낼 것.

6)물품매입은 일정한 처(處)에서 배달식으로 하고 목사 부인이 가

로상(街路上)에서의 재물(載物)은 피할 것. (비상(非常) 전시(戰時)에서는 할 수 있음).

7)해월(該月) 생활은 월초(月初)에 준비할 것.

제2절 영적(靈的) 생활(生活)

제1조 밀실(密室) 생애(生涯)

“이등(爾等)이 기도할 때에 동방(洞房)에 입(入)하여 문을 폐(閉)하고 은밀한 중(中)에 재(在)하신 이부(爾父)의게 기도하라. 은밀 중(中)에 감(鑑)하시는 이부(爾父)가 보(報)하시리라” <태(太) 5:6>.

목사 사무(事務) 중(中) 제일 귀한 시간은 밀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목사는 타인과 달라서 그의 생애 전부가 기도 정신이 안이면 안이 된다. 일동일정(一動一靜)과 일언반사(一言半詞)와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이 기도로 화(化)하여야 한다. 교회는 신자 모집인 동시에 기도회실(祈禱會室)이다. “아실(我室)은 기도하는 실(室)이어늘” <태(太) 21:13>. 교회당이 기도실이라면 목사는 기도인(祈禱人)이다. 여차(如此)하여야 기(其) 교회는 초대(初代)와 같이 흥왕(興旺)할 것이다. 상제(上帝)는 은밀(隱密) 중(中)에 재(在)하시며 감(鑑)하시니, 기도코저 하는 자(者) 은밀처(隱密處)를 심방(尋訪)하신다. 그곳이 밀실(密室)이다. 목사는 최소한도로 매(每) 이차식(二次式) 밀실에 있어야 한다. 사다즉(事多則) 기도(祈禱)도 다(多)하여야 다사(多事)를 주(主)의 성지(聖旨)로 처리(處理) 된다. 기도(祈禱) 중(中)에는 주신(主神)과 교제(交際)하여 감동과 감화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까닭이다.

제2조 서재(書齋) 생활(生活)

목사가 성경을 상고(詳考)하지 안하면 영생의 도리를 알지 못할지니 <약(約) 5:39>, 매일 서재(書齋)에서 성경을 독구(讀究)하며 묵상(默想)하야 목사 자신이 진리의 오묘(奧妙)를 각득(覺得)하야 영적 양식이 풍부함으로 군양(群羊)의게 포양(飽養)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선배 교

역자들의 명저서(名著書)와 기타(其他) 도학(道學) 서적과 종교철학 및 과학 등등을 숙독공부하여 성서를 상고(詳考)하는대 개금(開金)이 될 뿐 아니라, 설교요리에 양염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매일 2-3시간은 서재생애를 하여야 한다. 목사가 서재에서 공부하는 것은 야장(冶匠)이 무딘 부인(斧刃)을 연단(練鍛)함과 같이 모든 지식과 성지(聖旨)의 현묘(玄妙)를 학습연구 수양하는 야장(冶匠)과 요리(料理)의 주방(廚房)이다. 내부실력을 충분히 준비의 시기가 늘 있어야 할지라.

제3조 반성(反省)의 생애(生涯)

목사는 신(神)이 안이오 인(人)이다. 신(神)의게는 반성(反省)이 무(無)하러니와 인(人)은 반성으로서 완전케 되나니,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인적(人的) 완전이오, 신적(神的) 완전은 안이다. 목사 역시 신(神)과 같이 전지전능이 아닌 이상에 무시(無時)로 반구제기(反求諸己)로서 고상한 생애를 유지할 수 있나니, 반성이 무(無)하면 타락(墮落)이요, 낙오(落伍)케 된다. 사도 바울이 아신(我身)을 격복(擊服)한다 함은 반성의 의(意)를 표시(表示)함이다. 대개 인간이 반성이 무(無)하면 진보와 개량이 무(無)하나니, 유성증자(儒聖曾子)는 일일삼성오신(一日三省吾身)이라 하였다. 자고(自古)로 성현군자와 의인(義人) 성도(聖徒)가 초인(超人)의 고상(高尚)한 생애를 보내는 비결은 추호의 과실이라도 발견하는 동시에 즉시 반성하였나니, 반성이 민속(敏速)할수록 진보력이 속(速)하나니라. 교역자의 생애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 의사가 타인의 병은 잘 집중(執症)하면서 자신의 병증(病症)은 등한시 함같이 목사가 타인을 교훈하는 것만큼 자기를 교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자기 사언행(思言行)에 병적이상을 발견하는 시(時)에는 즉시 겸비한 심(心)으로 자반성(自反省)하여 신(新) 경험(經驗)으로써 이(移)할지니라.

제4조 영적(靈的) 향상(向上)의 생애(生涯)

인지성(人之性)이 유수(猶水)하야 유하(流下)하기는 이(易)하나 향상(向上)하기는 난(難)하니, 역류(逆流)에서 주(舟)를 끌고 상행(上行)함과 같으니, 역상(逆上)함은 유하(流下)함보다 다량(多量)의 력(力)을

요(要)하나니, 최선의 노력이 안이면 향상(向上)의 생애를 보낼 수 없다. 교역의 사업이 곤란한 것만큼 각양(各樣) 고난이 부닥쳐 올 시(時)에 낙망하기 이(易)하니, 교역자 태반이나 고난(苦難) 이자(二字)로 인(因)하여 낙제한다. 원래 곤란 그것이 인(人)을 타락케 하라함이 아니라, 인(人)으로 하여금 완전 향상케 하라함이다. 역풍(逆風)을 이용하지 못하면 침몰하는 주(舟)도 있는 동시에 역풍(逆風)을 이용만 잘하면 향상의 귀범(歸帆)이 속(速)하게 하는 주(舟)도 유(有)하나니라. 이용 여하(如何)에 재(在)한다. 곤란(困難)을 잘 이용하면 성공하고 잘못하면 실패하나니라. 자고(自古)로 고상(高尚)한 생애(生涯)를 보내는 성도사(聖徒史)를 보면, 비상(非常)한 시험(試驗)을 경(經)하였나니,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주 예수, 바울, 실(實)로 매거(枚擧)키 불능하니 차(此)는 향상이라는 그것은 고난을 경(經)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다. 교역자는 향상의 은사(恩師)되는 고난을 피(避)하려고 하지 말고 권영이용(勸迎利用)해야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성할지라.



제14장 목회자(牧會者)와 종교(宗教) 교육(教育)

제1절 종교(宗教) 교육(教育)의 의의(意義)

인간(人間)은 생이지지(生而知之)가 안이오, 학이지지(學而知之)이다. 학(學)이 없으면 지(知)가 없고, 지(知)가 없으면 보통 동물이나 틀림없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나니, 곧 야만화(野蠻化)한다. 교육이 무(無)한 아프리카인과 식인종을 보아서 잘 알 수 있다. 그들도 잘 교육만하면 훌륭한 위인(偉人) 학자(學者)가 될 수 있다. 교육은 천부(天父)께서 인간(人間)에게 품여(稟與)하신 제반(諸般) 기량(技量)과 성능(性能)과 보고(寶庫)를 개발(開發) 연마(鍊磨)시키는 방법이오, 인격(人格) 완성(完成)케 하는 공작(工作)이다. 일봉(一棒)의 철(鐵)을 갖고 잘 연단(練鍛)하면 기십만(幾十萬)원의 가치(價値) 있는 기계(器械)를 만들 수 있고, 잘못 연단(練鍛)하면 기십(幾十)원의 무가치한 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 차(此) 교육은 인격조성의 야정(冶丁)의 망치가 되는 까닭이다.

교육에 이중(二種)이 유(有)하니, 종교 교육과 보통 교육이다. 종교 교육이라 함은 인간만물의 영장(靈長)이라는 영성(靈性)을 수양(修養)함이니, 영성(靈性)의 교양에는 영(靈)의 주인공이 되신 신(神)이라야 하고, 교과서는 신(神)의 도언(道言)인 성경(聖經)이라야 하나니, 연고(緣故)로 가라치는 신(神)과 학(學)하는 영(靈)이 합(合)해야 비로소 신령(神靈)한 내부 인격을 완성함이오, 보통 교육이라 함은 외부 인격을 완성하랴 함이니, 지육(智育), 덕육(德育), 체육(體育)이 그것이다. 인간은 종교 교육과 보통 교육이 합(合)해야 비로소 완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나니, 기중(其中)에 일(一)이라도 결(缺)하면 반신불수적(半身不隨的) 불구(不具)의 인격(人格)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종교 교육은 인간(人間)에게 없지 못할 필요(必要)를 감(感)하여 한다.

제2절 종교(宗教) 교육(教育)의 유래(由來)

종교 교육의 기원(起源)을 소구(遡求)하라면 인류(人類) 창세기(創世時)를 언(言)하지 않을 수 없나니, 인류 시조(始祖) 아담과 해와를 창조(創造)하여 에덴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은 시시(時時)로 순회(巡廻)하시면서 교훈하시었고, 타락(墮落) 후에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은 기(其) 시대(時代)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인민(人民)을 교훈하는 좋은 교육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모세 시(時)에 지(至)하여 기(其) 교육방법은 구체화하여 신성(神聖)한 율법(律法)이 생(生)하게 되고, 사회제도와 종교의식과 생활법칙이 신(神)의 성지(聖旨)를 종(從)하여 입법(立法) 제정(制定)케 되었나니, 전부가 종교 교육적 중심 하(下)에 모세는 친히 교훈 지도자가 되었다. 유목시대(遊牧時代)에 비(比)하여 대(大) 발달이오,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기후(其後) 사사(士師), 군주(君主), 제사장(祭司長), 선지자(先知者)를 통(通)하여 말라기 시대까지 유사(有史) 사천년간 꾸준히 교육하여 왔다. 하시대(何時代)하처(何處)를 막론하고 선민(選民) 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부지런히 교육하여 온 것이 히브리인의 종교 교육사이다. 그들의 교과서는 율법(律法) 전부(全部)이다. “오즉 여호와와 율법(律法)을 락(樂)하며 기(其) 율법(律法)을 주야(晝夜)로 묵상(默想)하도다”(시 1:2). 차시(此詩)는 전민족(全民族)의 종교 교육의 사상(思想) 대표(代表)이다. 종교 교육 성쇠(盛衰) 여하(如何)에 종(從)하여 전민족의 운명(運命)을 대표(代表)하였다. 신약(新約) 초(初)에도 교법사(教法師), 제사장(祭司長), 서기관(書記官)을 통(通)하여 말면(末免) 의무교육(義務教育)이나 다름없이 열심히 교육 하였다. 예수께서 십이세시(十二歲時)에 성전(聖典)에서 강론(講論)함과 같이 바울이 가마니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함은 좋은 실례(實例)이다. 예수께서 삼년간 제자(弟子)들에게 혹(惑)은 개인이나 군중(群衆)에게 교훈하심과 사도(使徒)들에게 명(命)하사 교회

를 설립(設立)하고 내가 네게 분분(吩咐)한대로 가르쳐 수(守)케 하라 하심으로 그들은 종교 교육에 진력(盡力)하여왔다. 우리도 계승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남녀노소를 교육한다. 14세기 말엽에 영국인 르벳 레익쓰타는 인(人)이 노방(路傍)에서 유랑(流浪)하는 불량소년(不良少年)을 위(爲)하여 소옥(小屋)을 빌여가지고 사인(四人)교사를 고빙(雇聘)하여 가지고 성경을 교수(教授)한 것이 주일학교(主日學校)의 고시(稿矢)가 되었다. 그리하여서 금일(今日)에 도(到)하여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성행(盛行)하여 교육하며 종교 교육 중(中)에 청소년(靑少年)의게 막대한 공훈(功勳)이 되고 있다.

제3절 종교(宗教) 교육(教育)의 종별(種別)

제1조 특수(特殊) 교육(教育)

차(此)는 주일 이외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역자를 양성하며, 성경학원을 설립하여 교회 직원 양성을 하고, 개교회 내(個教會內)에서도 특별 사경회(查經會)와 지방적으로 수(數) 교회(教會)가 합(合)하여 대(大) 사경회(查經會)를 개(開)하고, 성경을 교육하여 하나님의 인(人)으로 완전케 하며, 제(諸) 선사(善事)를 행(行)하기에 우전(尤全)케 하나니라(딤후 3:17). 교회의 생명선은 연경열(研經熱)에 재(在)하나니라. 석일(昔日) 아모스 시대인(時代人)들의 타락의 원인은 예배에 불경건과 성언(聖言)을 무시한데 재(在)하였나니, “주(主) 여호와와 언(言)을 견(見)할지어다. 일(日)이 지(至)하매, 아(我)가 기근(饑饉)을 차지(此地)에 송(送)하리니, 양(糧)이 무(無)하여서 기근(饑饉)이 안이오, 수(水)가 무(無)하여서 갈(渴)함이 안이라, 여호와와 언(言)을 문(聞)치 못한 것이 기근(饑饉)이니라”(암 8:11). 차(此)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진상(眞狀)이다. 일본(日本) 정치초시대(政治初時代)에는 압박(壓迫) 중(中)에도 교회에서 특별히 성서를 교훈의 열(熱)이 일증월가(日增月加)하여 특별 사경회와 대 사경회가 성대히 할 시(時)에는 교회가 생명(生命)이 있게 되는 동시(同時)에 민족(民族)의 사상(思想)이 고상(高尚)하여지려 하더니, 이상재 월남 선생 서

거(逝去) 후(後)로부터 기독교 사상운동이 침체(沈滯)하며, 교회에서도 연경열(研經熱)이 소모(消耗)되고 농촌교회당에는 풍창파벽(風窓破壁)이오, 도시교회는 간판에 불과요, 성언(聖言)의 기근(饑饉)과 갈증(渴症)이어서 교계는 무능(無能)인 동시(同時)에 대동아(大東亞) 전쟁 초기에 일본 대마신(大魔神) 신궁참배(神宮參拜) 문제 중에 조선 각(各) 교파(敎派)를 통(通)하여 일본(日本) 기독교(基督教) 조선교단(朝鮮敎團)이란 명목하(名目下)에 합동 통일하여 장감성구(長監聖敎) 사대(四大) 교파(敎派)와 기타 소교파도 명칭 간판을 없애버리고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동시에 총회에서 신궁참배(神宮參拜)는 국가의례식이니, 상제(上帝)의게나 신앙상(信仰上) 죄(罪)되지 안이하니, 참배(參拜) 가결(可決)노 각(各) 교파(敎派)는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라는 대대양중(大岱襄中)에 합동 투입하여 일본 대마신(大魔神) 천조대신궁(天照大神宮)에 봉헌 참배한 사실이 기독교 사상에 일혈(一頁)을 점유(占有)한 명감(明鑑)을 비추어 교회에서는 반성 회개하고 종교 교육의 특수한 연경열(研經熱)을 고취(鼓吹)하며 교회 생명을 사중(死中)에 구출(救出)로 갱생(更生)의 노선(路線)을 개발(開發)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특수 교육을 할지니라.

제2조 장년(壯年) 주일학교(主日學校)

차(此)는 교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운(云)함이니, 신자는 신구(新舊)를 물론(勿論)하고 다 학생이 될 수 있다. 주일은 성만찬 예배 시(時)에 설교 중에 성경 교훈이 유(有)하나 성경공부를 학과적(學科的)으로 성경지식을 학득(學得)해야 자기 소유가 되어야 한다. 예배 전(前)에 공부하던지, 예배 후(後)에 공부하던지 주일에 성경공부는 꼭하여야 함이니라. 잘 신앙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재(在)한 고(故)로 목회자는 차(此)에 대(對)하여 대(大) 관심(關心)할지니라.

1. 장년(壯年) 주일학교(主日學校) 직원(職員)

1) 장년 주일학교장은 주임(主任) 교역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장로가 있는 교회면 장로 중(中) 일인(一人)이 될

수 있나니, 교장(校長)은 전교(全校)를 관리하여 지도하는 동시에 성경지식이 유(有)하여야 하고, 교우(敎友)의게 모본(模本)이 될 만한 신덕(信德)이 구비(具備)하여야 하고, 관리법이 능(能)하여야 할지니라.

2)서기(書記)는 직원 중(中) 일인(一人)이 되고, 기록에 민활(敏活)한 은사 있는 이로 하되 기사(記事) 급(及) 출석(出席), 인원수(人員數), 기타 일체(一切) 사무(事務)를 매주일 회중에 보고(報告)할지니라.

3)교사(敎師)는 될 수 있는대로 남녀직원 중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나, 교회 중(中)에 재덕(才德)이 겸비한 신자라도 교사가 될 수 있나니, 남반(男班)은 남자로, 부인반(婦人班)은 부인으로, 노인반(老人班)은 노인으로, 청년반(靑年班)은 청년으로 교사를 배치함이 필요함은 심리상으로도 예의상으로도 좋은 사(事)니, 각각 동년(同年)끼리 하는 것이 합당하고 특별히 교사임용에 대하여 주의할지니, 성경 교수(敎授)는 이론과 지식으로만 안이오, 신앙과 덕망이 있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신앙과 교훈대로 되나니, 교사가 만일 교수에 능(能)하다 할지라도 신앙상(信仰上) 덕행(德行)이 없으면 명쟁(鳴錚)과 같이 아무 유익(有益)이 없나니라. 가정이나 교회에 덕망이 유(有)한 자(者)로 택(擇)할지니, 교장이 자택(自擇)하되 임기(任期)는 일개년(一個年)으로 하고, 도중 결식 시(時)에는 교장이 임시(臨時) 보결(補缺)할지니라. 교사(敎師) 자격(資格)은 여하(如下) 약시(略示) 함.

(1)신앙(信仰)이 독실(篤實)하고, 가정(家庭)에서 무흠(無欠)한 생활을 하는 자(者).

(2)성경 지식이 부족(富足)하고, 교회에 덕망(德望)이 유(有)한 자(者).

(3)교수에 재능이 유(有)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心)이 유(有)한 자(者).

(4)매일(毎日) 생애(生涯)에 성결(聖潔)한 신자의 모본이 될 만한 자(者).

(5)교회 정치적(政治的)과 교리(敎理)에 복종(服從)하고, 이상(異狀)한 주의(主義) 사상(思想)이 무(無)한 자(者).

2. 반(班) 조직법(組織法)

반(班)을 조직(組織)함에는 삼중(三種)이 유(有)하니,

1)은 연령을 따라서 노인반, 장년반, 청년반이라 하여 신구인(新舊人)을 물론(勿論)하고, 연령별(年齡別)을 조차 작성(作定)하는 수도 있고,

2)은 교회 경력을 조차 침례반, 직원반, 구도반(求道班)이라는 명목(名目)도 있고,

3)연령과 경력을 참조하여 1,2,3,4,5의 숫자번호로서 반(班)을 조직하는 수도 있나니, 차(此)가 이상(以上) 양방법(兩方法)보다 편리하고도 보편적으로 양호한 방법이라고 사(思)한다. 매반(每班) 인수(人數)는 교사와 교실을 따라서 작성하되, 대교회는 이십 명, 중교회는 십오 명, 소교회는 십 명이 합당하니, 너무 다(多) 한즉 복잡하고, 너무 소(小)한즉 무력(無力)하니, 관리상 최적합 하도록 작성할 것이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인반(新人班)을 신설(新設)할지니, 신구인(新舊人)을 혼동케 함은 교수 정도상이나 문답상(問答上) 불합당한 사(事)이다.

3. 반(班) 좌석법(座席法)

교사를 중심으로 원형(圓形)으로 좌(座)할지니, 만일 학생이 다(多)하면 이열(二列)도 무방(無妨)하니, 두열(頭列)로 좌(座)치 말고, 후열인(後列人)이 전열인(前列人)의 간(間)에 좌(座)하여 교사를 정면으로 견(見)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사는 자기(自己) 반인(班人)이 자기를 다 볼 수 있고, 자기가 또한 학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여야 교수상(教授上) 편리하니라.

4. 공과(工課) 선택(選擇)

성경 공과(工課)는 각 교파에서 만국성경통일공과(萬國聖經統一工課)를 사용함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사용함에는 고사(考査)하여 초대교회 교리에 불합한 강해는 교정하여 교수하는 것이 양호하며, 교사는 공과를 보지 안코 교수할 수 있으리만치 능숙

(能熟)히 준비하여야 한다.

5. 출석부(出席簿)

출석부는 일 년에 일책(一冊)으로 할 것이요, 여러 책을 사용치 말지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성적 조건상(早見上) 불편하니라. 출석부 기입방식은 타첩식(打疊式) 일매(一枚)에 성명, 연령, 수례별(受禮別), 주소, 출석란(出席欄), 비고(備考) 등이니, 공부 시작기 전에 호명(呼名)할 것이요, 해(該) 주일(主日)에 미출석자(未出席者)는 표시하였다가 일주일간 기회를 타서 교사가 심방(尋訪)함이 합당하니, 교사는 자기 반 학생이 일인(一人)이라도 불출석자가 무(無)하도록 최선을 다 할지니라.

6. 교수법(教授法)

교수법(教授法)에 삼종(三種)이 유(有)하니,

1)은 통반(統班) 교수(教授)이니, 교사(教師)가 부족하거나 장소가 부족한 경우에 다용(多用)하는 법(法)인데, 교사 중(中) 매주일 돌려가면서 합반(合班)하여 교수(教授)하나니, 시간, 경제, 교사(教師) 절용상(節用上) 간단하고 유익하나. 통용법은 못된다.

2)남녀 합반(合班) 교수니, 남자반하나, 여자반하나 각각 통반 교수하나니, 신자가 소(小)하고, 교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방하나 대(大)교회는 불합당하니라.

3)각반(各班) 교수니, 매반(每班)교수 일인식(一人式) 담당 교수하는 법이다. 차(此)가 가장 합법적이다. 그러나 차(此)에는 한 가지 결함(缺陷)은 유(有)하다. 너무 다반(多班)하면 장소가 문제이다. 교수(教授) 성음(聲音)이 상충(相衝)되야 알아 듣기에 곤란하다. 교실이 다(多)하면 교사도 좌(座)하여 교(教)할 것이요, 의자(椅子)이면 입(立)하여 교(教)함이 편리하니, 교수 시(時)에 교사가 공과책(工課冊)만 들고 낭독식(朗讀式)으로 하지말지니, 공과는 미리 숙달하도록 준비하여 가지고 공과책은 별로 보지 안이하고 교수(教授)할 수 있도록 하며, 너무 고성(高聲)으로 하지 말고, 저음(低音)으로 자기반(自己班)만 잘 듯도록 하고, 일편(一便)만 편견(偏見)치 말고, 안목(眼目)을 개인

개인(個人)의게 보면서 주의인(注意人)의게는 수(手)로 주의(注意)를 식히고 일인(一人)이라도 주의(注意)해야 선청(善聽)치 않을 수 없도록 하고, 너무 장시(長時)를 요(要)치 말고, 간단(簡單) 명백(明白)하게 교(敎)하고 곧 문답(問答)할지니라.

7. 시간(時間)

장년주일학교 시간은 도합(都合) 일(一) 시간이면 넉넉하니, 시작할 때 찬송, 기도, 성경낭독에 15분간, 분반(分班) 교수에 25분간, 문답(問答), 기도, 폐회에 20분이니, 교수의 선불선(善不善)은 시간에 재(在)한 것이 아니라, 교수(敎授)의 기능(技能)에 재(在)하나니, 다언(多言)으로 시간을 다비(多費)함으로 뜻는 인(人)으로 요령(要領) 부득(不得)케 하고, 간단(簡單) 명백(明白)하게 하면 적은 시간에 최요(最要)한 것을 교(敎)할 수 있나니, 시간이 너무 지연(遲延)한즉 염증(厭症)이 생(生)해야 수(睡)하기 이(易)하다. 20분간 교수하고, 또 5분간 문답하고, 정각이 되면 명종(鳴鐘)과 동시(同時)에 교수(敎授) 중(中)이라도 중단하고 정숙 단정하게 정좌(正坐)할지니, 여차(如此)히 시간 엄수법(嚴守法)을 이행(履行)할지니라.

8. 문답(問答)

문답(問答)은 교장(校長)이나 교사(敎師) 중(中) 일인(一人)이 하여도 무방(無妨)하나 먼저 해(該) 주일(主日) 문답(問答)할 인(人)을 지정(指定)할 것이오, 문답 시(時)에는 재(再) 설명을 피할지니, 차는 교수시간이 안이오, 문답시간인 까닭이다. 반별로 문하면서 개인을 호명하여 문하던지 자유로 하되 대답 못한 인을 너무 면책적으로 말하지 말 것이오, 문답이 끝난 후에는 차기 공과본문을 교시하여 신자로 하여금 숙독하도록 하여 가지고 올게 할 지니라.

9. 공과(工課) 준비(準備)

교사를 위하여 공과(工課) 준비(準備) 공부 시간을 가질지니, 주간이나 야간이나 교사 출석상(出席上) 필요에 의(依)하여 작성하되, 월요일에 합당한 것은 교사로 하여금 일주간(一週間) 복습할 기회를 넘

넉하게 하라 함이다. 준비 교수는 주임 목사가 하는 것이 호(好)하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교사(教師)에게 있고, 교사(教師)가 교수(教授)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준비(準備) 교수(教授)에게 있게 되나니라. 연고(緣故)로 준비 교수는 능숙하여야 할지니, 각종 참고서와 기도 중(中) 성령의 지혜와 충명을 뵈(賴)하고 감화력이 강(强)해야 교사들이 먼저 감화 감동의 은혜를 풍부히 받아야 익주일(翌週日)에 신자들이 공과시간에 자미(滋味)있게 공부(工夫)할지니라.

제3조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

1.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의 유래(由來)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종교 교육이 멀리 인류 초대(初代)로불어 시작되었다면, 유년 교육도 동시(同時)에 병행(並行)하였던 것은 필연(必然)의 사실(事實)일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6세로불어 12세까지 유년 주일학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도 12세기에 장년들이 예루살렘에 집회(集會)하였을 적에 동참(同參)하였고, 예수님 전도 시(時)에도 그들은 무슨 집회(集會)에든지 아동(兒童)을 제휴(提携)한 것을 알 수 있다. 벧새다 평야에서 오병이어(五餅二魚)의 식사 시(時)에 “식(食)한 이는 여인(女人)과 유아(幼兒) 외(外)에 오천명(五千名)이나 되더라”<태(太) 14:21>하였으니, 기(其) 당시에 수다(數多)한 여인과 아동들이 참집(參集)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이 예루살렘 등극(登極) 시(時)에도 소아(小兒)들이 호산나로서 환영한 것이던지, 무리들이 소아(小兒)를 위(爲)하여 축복하여 달라고 주님께 요청(要請)한 것을 보면, 유아(幼兒)들을 위(爲)하여 관념(關念)이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이들을 위하여 교훈함과 사도 요한이 소자(小子)들을 위(爲)하여 유서(遺書)함을 보면, 사도시대교회에서도 유년(幼年)을 위(爲)하여 많이 노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전술(前述)한바와 같이 1780년에 영국인 레익쓰 씨(氏)가 클라우서드 지방(地方)에서 소아(小兒)들을 회집(會集)하고, 주일 오전에 성경을 교수한 것이 교시(矯矢)가 되어서 수십 년 내에 전(全) 영국에 홍포(洪布)하게 되었고, 미주(美洲)에까지 파급(波及)되었고, 전 세계에 풍

미(風靡)하여 인류 대사업 중(中)에 제일이 되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선포됨을 따라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설치(設置)하여 아동(兒童)들의게 진실한 종교 교육을 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는 백여만명(百餘萬名)이 된다고 함은 진정으로 감사한 사(事)라고 안이할 수 없다.

2.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의 필요(必要)

일반 교역자 중(中)에는 주일학교 사업을 등한시(等閑視)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론(反對論)까지 제창(提唱)하는 자(者) 유(有)하니, 그 이유(理由)는,

- 1) 유년(幼年)을 위(爲)하여서는 각자(各自) 가정에서 교육시킬 것.
- 2)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는 아동(兒童) 신앙을 의식화(意識化) 식힌다.
- 3) 유년(幼年) 사업(事業)은 노력(努力)은 다(多) 하되, 결과(結果)가 소(少)하다.
- 4) 철없는 아해(兒孩)의게 고상(高尚)한 진리를 넣어 주는 것보다 장성한 후에 인도하면 사반절배(事半切倍)가 될 것.
- 5) 주일(主日) 학생(學生) 중(中) 대부분이 장년기(壯年期)에 타락(墮落)한다.

이상(以上) 반대론(反對論) 중(中)에도 일리(一理)가 무(無)함은 아니다. 그러나 지기일(知其一)이오, 미지기이(未知其二)의 감(感)도 불무(不無)하다. 주님 당시에 도 제자들이 유아(幼兒)를 금지(禁止)하다가 주께 책망을 수(受)하였나니, 목회자는 아동(兒童) 멸시(蔑視)의 전통적 사상을 기(棄)하고 유년 주일학교나 장년사업이나 다름없이 동일적으로 중요시할지니, 제이세(第二世) 천국(天國)의 국민(國民) 곧 교회(教會) 후계자(後繼者)는 유년(幼年)이다. 교계(敎界)에 유명한 선배들도 유년시(幼年時)부터 종교 교육을 수(受)하였다. 유년 주일학교 사업은 구령사(救靈事)에 직접(直接) 간접(間接)으로 위대한 역할을 지(指)하고 있다. 신자 중(中)에 7-8할(割)은 유년시(幼年時)의 감화력(感化力)이다. 유년시는 가장 신뢰심이 강(強)한 때요, 종교(宗教) 본능(本能) 발휘(發揮)가 단순(單純)한 시(時)이다. 또한 진리(眞理) 흠

수력(吸收力)이 부(富)한 시(時)이다. 차물실호기적역사(此勿失好機的役事)는 사반절신지익(事半切信之益)이 유(有)하다. 유년시에 진리감화를 수(受)한 인(人)은 청년시기에 혹(惑) 일시(一時) 타락(墮落)하였을지라도, 진리(眞理)의 종자(種子)가 하시(何時)든지 발육(發育) 생장(生長)할 일이 유(有)한다. 연즉(然則) 유년 시대에 종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니라.

3. 유년(幼年) 주일학교(主日學校) 직원(職員)

1)교장(校長)

하(何) 학교(學校)를 막론하고 교장은 전교(全校)를 지배 관리하게 되나니, 은사(恩賜)가 있는 이로 선임(選任)할지니, 특히 주일학교를 이해하고 아동 애호심이 있고, 관리 교수법, 기타 제반 지도법에 숙달한 인(人)이라야 할지니, 신로(身老)한 인(人)보다 장년이 호(好)하니, 주임 교역자가 되는 것이 제(諸) 방면(方面)으로 합당(合當)하다. 만일 은사(恩賜)가 없으면 제직 중이나 신자 중에 덕망과 신앙과 은사가 있는 자로 제직회에서 신중히 고려하여 선임(選任)할 것이오, 특별한 과오(過誤)가 무(無)한 이상(以上) 경홀(輕忽)히 개임(改任)치 말고, 그로 하여곰 주일학교 사업을 위(爲)하여 헌신(獻身) 진충(盡忠)토록 조장(助長)할 지니라.

2)부교장(副校長)

부교장(副校長)은 교장(校長)을 도와서 교무(校務)를 집행(執行)함은 보통 사회학교나 무이(無異)하다. 특히 아동(兒童) 애호심(愛好心)과 주일학교(主日學校) 상식이 필요함은 교장이나 다름없다. 차외(此外)에 필요한 것은 협동심이니 보통 교역자가 교장이 되고 제직중(諸職中)에서 부교장(副校長)이 되는 것이 합당(合當)하나 정부교장(正副校長)을 다 신자(信者)와 제직(諸職) 중(中)에 특별 은사(恩賜) 있는 이로 선임(選任)하여도 무방(無妨)하니라. 여차(如此)한 경우(境遇)에는 교역자는 고문(顧問)이 되는 것이 호(好)하니라. 정부교장(正副校長) 임면권(任免權)이 당회(堂會)에 있어야 하고, 목사(牧師)는 당회장(堂會長)이니 전(全) 주일학교(主日學校)에 대(大) 관계(關係)가 유(有)하

니, 수(雖) 정부교장(正副校長)이라도 주임 교역자의 지도를 수(受)할 지니라.

3)서기(書記)

서기는 기록에 능(能)한 인(人)이 필요함은 필연의 사(事)요, 기외(其外)라도 신망(信望)이 유(有)한 인(人)이 최적합하며, 매주일 사항을 당회에서 보고하며, 제반(諸般) 문부(文簿)를 정당(正當) 보관(保管)해야 둘 수 있는 사무적(事務的) 규칙(規則) 인물(人物)이 필요하니라.

4)회계(會計)

회계(會計)는 금전(金錢) 출납(出納)을 장리(掌理)하는 직(職)이니, 별립(別立)함보다 직원 겸임(兼任)도 무방하겠으나 대교회(大教會) 주일학교는 재정(財政)이 복잡할지니, 일인(一人)보다도 이인(二人)이 되어 일인(一人)은 수입금(收入金) 급(及) 장부(帳簿)를 맡고, 일인(一人)은 금전(金錢) 급(及) 통장(通帳)을 맡고 하는 것이 합당(合當)하며 재정(財政) 사용 시(時)에는 교장(校長) 급(及) 직원회(職員會)의 결의(決議)를 수(受)할 것이오, 임의용지(任意用之)는 금사(禁事)니라.

5)교사(教師)

교사(教師)는 아동(兒童)과 밀접한 관계가 유(有)하나니, 직접(直接) 아동(兒童)과 대면(對面)할 기회(幾回)는 모든 직원보다 많으니만큼 아동(兒童)에게 선불선(善不善)에 주는 감화(感化)도 대(大)하다. 그런고(故)로 교사의 사용(使用) 여하(如何)는 일반 주일학교에 급(及)하는 영향이 크다. 피교자(被教者)는 교역자의 일체 언어 행동 심리까지 모본하는 것이 마치 상수(上水)가 하처(下處)로 류(流)함과 같다. 황차(況且) 무사기(無邪氣)한 아동(兒童)에게 신앙이 무(無)한 교수(教授)를 임교(任教)케 함은 위험한 사(事)이다. 아동 심리 사진기(寫眞機)의 종판(種板)과 같으니, 종판(種板)은 외계(外界) 물체를 그대로 영사(影寫)케 하나니, 산천 초목 인물 기타 하물체(何物體)던지 영사(影寫)됨과 같이, 선(善)한 교사하(教師下)에는 선(善)한 아동(兒童)이

생(生)하고, 불선(不善)한 교사하(教師下)에는 불선(不善)한 아동(兒童)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언(言)하면 상대자의 감응(感應)을 그대로 직수(直受)하는 법이다. 신앙이 무(無)하면, 수재지(雖才智)는 있을지라도 임용(任用)치 말지니, 차(此)는 아동(兒童)에게 신앙(信仰)을 양육(養育)하려는 목적인 연고(緣故)요, 지식(知識)을 교(敎)하려는 목적(目的)은 안인 까닭이다. 신앙(信仰)이 토대(土臺)되고 거기에서 아동(兒童) 애호심(愛好心)과 교수(敎授) 재능(才能)을 가(加)하면 금상첨화격(錦上添花格)으로 모본(模本) 교사(教師)가 되나니, 이러한 교사(教師)로 조직(組織)된 주일학교(主日學校)는 세상(世上)에 영광(榮光)이요, 천국(天國)의 중보(重寶)가 되나니라.

6)반(班) 조직법(組織法)

반(班)을 조직(組織)함에 이중(二種)의 법(法)이 유(有)하니,

(1)은 등급수(等級數)를 따라 고(高), 중(中), 초(初), 유(幼), 신입반(新入班)으로 조직(組織)하고, 인수(人數)가 다(多)하면 매반(每班)에 갑(甲), 을부(乙部)로 분(分)하고,

(2)는 수자(數字) 1, 2, 3, 4, 5반(班)에 분(分)하고, 인수(人數)가 다(多)하면 매반(每班)에 갑(甲), 을부(乙部)로 분(分)하여 반명(班名)을 부(付)하나니, 하(何) 방법(方法)이던지 호(好)하나, 전자법(前者法)을 다용(多用)하나니라. 매반(每班) 인수(人數)는 대교(大校)는 20명이요, 중교(中校)는 15명이요, 소교(小校)는 10명이 합당(合當)하니, 태다(太多)하면 복잡(複雜)하여 교수(敎授)에 불편하고, 태소(太小)하면 무력(無力)하나니라.

분반법(分班法)도 이중(二種)이 유(有)하니,

(1)은 연령(年齡)과 신장(身長)을 따라서 분반(分班)하기도 하고,

(2)는 입학별(入學別)을 중(從)하여 분반(分班)하나니, 전자(前者)보다 후자(後者)가 우승(尤勝)하나니라. 분반(分班) 후(後)에는 매반(每班)에 모범(模範)될만한 학생(學生) 일인(一人)을 택(擇)하여 반장(班長)을 치(置)하여 반(班)을 정리 감독케 할지니라.

7)좌석법(坐席法)

분반(分班) 후(後)에 하는 일은 좌석 정리니, 주일학교 지도법에 좌처(坐處) 정돈(整頓)은 가장 요긴(要緊)한 일이다. 교수(教授) 전(前)에는 강단(講壇)을 향(向)하여 각반(各班)마다 일열(一列) 혹은 이열(二列)로 좌(座)하되, 교사(教師)는 자기반말(自己班末)에 좌(座)하고, 반장(班長)은 반두(班頭)에 좌(座)케 하여 전후(前後)로 감독(監督)할 것이요, 찬송, 기도를 필(畢)하고 분반(分班) 교수령(教授令)이 발(發)하면, 교사(教師)는 중앙에 좌(座)하면, 학생(學生)은 규율(規律) 있게 좌(座)한 채로 뺄 도라 원형(圓形)으로 좌(座)하되, 인수(人數)가 다(多)하면, 이열(二列) 혹은(或) 삼열(三列)로 좌(座)할 것이요, 후열인(後列人)은 전열인(前列人)의 간(間)에 좌(座)하여 교사(教師)를 전면(全面)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할 것이요. 교사(教師)는 학생(學生)을 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手)가 학생(學生)의게 다 갈 수 있을만한 자리에 좌(座)하되, 언제든지 학생(學生) 석차(席次)는 불변(不變)할 것이요, 교수(教授)가 필(畢)하면 원상(原狀)대로 강단(講壇)을 향(向)하여 시작할 시(時)와 같이 좌(座)할지니라.

8)교수(教授) 준비(準備)

(1)기도(祈禱)

좌석(坐席)이 정비(整備)가 되거던 교사나 학생으로 하여곰 간단히 기도케 할지니, 기도시간에 떠들지 못하게 주의를 식히고 교사가 먼저 경건하게 좌(座)하여 겸손히 곡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우수(右手)를 이마에 얹고 학생으로 하여곰 기도의 경건을 모본(模本)케 할지니라.

(2)호명(呼名)

출석부에 학생 석차(席次)대로 기입(記入)한 후(後)에 호명(呼名)할 지니, 만일 출석에 부주의(不注意)하는 학생이 있을지라도 당석(當席)에서 면책(免責)하지 말고, 좋은 말노 권면(勸勉)할 것이요. 교사는 학생의 얼굴을 다 알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명지(明知)할지니, 차(此)는 출석(出席)치 않은 자(者)나 병고자(病苦者)가 유(有)한 시(時)는 교사가 가정(家庭) 심방(尋訪)에 편리(便利)한 까닭이다. 교사가 노상

(路上)에서나 하처(下處)던지 자기반(自己班) 학생을 봉(逢)하면 친절히 인사할 뿐 아니라 자기 자녀 자매같이 애호(愛好)할지니라.

(3) 헌금(獻金)

호명(呼名) 중(中) 헌금케 할지니, 교사는 헌금(獻金)에 대(對)한 진의(眞意)를 명시(明記)해야 주되, 권유론(勸諭論)은 할지언정 강요(強要)치는 말 것이오. 많이 내었다고 너무 칭찬치 말고 적게 내었다고 면책(免責)치 말지니, 아동심리(兒童心理)를 상실(喪失)치 안이하도록 주의 할 것이다. 헌금을 장려(獎勵)한다는 의미 하(下)에서 경쟁적으로 고취(鼓吹)하면, 빈아(貧兒)와 부모(父母) 불신하는 아동(兒童)의게는 고통(苦痛)이 될 뿐 아니라 차시(此時)부터 물질(物質)에 대(對)한 원한(怨恨)이 생(生)하기 이(易)하고, 심하면 시기심(猜忌心)까지 생(生)하기 이(易)하니, 조심(操心)할지니라.

9) 공과(工課) 교수(教授)

주일학교 모든 시간 중(中)에 가장 귀한 시간은 차시(此時)이다. 교수(教授)에 없지 못할 삼요소(三要素)는 교사(教師), 학생(學生), 공과(工課)이다. 차(此) 삼중(三種)이 꼭 마저야 합당(合當)한 교수(教授)이다. 연고(緣故)로 모자 교사(教師)가 주의할 것은 아동(兒童)의게 호기심(好奇心)이다. 유희적(遊藝的) 심리(心理)만 고취(鼓吹)하지 말고, 공과준비 중(中)에 성경의 진리를 심각(心刻)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런 고(故)로 교사(教師)가 자기반 학생을 위(爲)하여 일주간 용력(用力)의 기도하며 공과준비에 열성(熱誠)하여 능숙한 지식을 준비하되, 책을 보지 안어도 능(能)히 교수할 수 있도록 요긴(要緊)한 진리를 취출(取出)해야 간단(簡單)한 시간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教授)할지니, 중언부언(重言復言)으로 시간만 허비(虛費)치 말지니, 아동(兒童)의게 대(對)한 교사의 표정은 언제던지 미소(微笑)의 얼굴을 취할지니, 노기(怒氣)나 책망(責望)하는 것은 조심(操心)할지니라. 비록 아동(兒童) 중(中) 작난(作亂)잘하고 순종치 안이하더라도 책망만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면 감화를 수(受)하나니라. 만일 책망이나 책상을 난타(亂打)하거나 호령(號令)하거나 심지어 타두(打頭)까지 하는 것은

아동심리를 실(失)하고 악감화(惡感化)를 주는 것이 된다. 아동은 교사 눈치를 잘 찰지(察知)하는 지혜(智慧)가 유(有)하나니라. 공부 시간에 부주의(不注意)하는 아동(兒童)이 있으면 수(手)로서 주의를 식혀서 일아(一兒)라도 공부에 주목치 않는 아해(兒孩)가 없도록 할 것이요, 용어는 문자나 술어(述語)같은 알아듣기 난(難)한 언(言)을 사용하지 말고, 가장 평이(平易)하고 근리(近理)한 비사(比辭)로서 가라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음성은 너무 대성(大聲)으로 하지 말고, 아해(兒孩)들이 들을 수일을 만한 정도의 발성법(發聲法)으로 친절한 담화식(談話式)으로 하되, 용목(用目)은 일아(一兒)의게만 주목하지 말고, 제아(諸兒)를 환시(環視)하는 법(法)으로 하되, 안(眼)은 탐조등(探照燈)같이 순시(巡視)할지니라. 편애(偏愛)나 편중(偏重)의 태도를 절금(切禁)할지니라. 교사의 교수(教授) 여하(如何)에 의(依)하여 반(班)의 진퇴와 아동(兒童) 심령(心靈)이 좌우되나니, 일반교사들은 교수법(教授法)에 특히 용심(用心) 고구(考究)할지니라.

10) 공과(工課) 급(及) 준비(準備)

교수(教授)의 제이(第二) 문제(問題)는 공과(工課) 선택(選擇)이다. 현금(現今) 각(各) 교과 교회 내(內)에 유아(幼兒) 주일학교 공과(工課)를 만국(萬國) 유아(幼兒) 공과(工課)로 사용하는데 학생별(學生別)이 없이 하반(何班)에던지 공용(共用)함으로 아동(兒童)의 정도에 과불급(過不及)이 되어 학과(學課)의 불합(不合) 체제(體制)로 인(因)하여 성과(成果)가 별무(別無)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학년별(學年別)로 1, 2, 3, 4, 5, 6, 고등(高等)으로 공과(工課)를 저작(著作)한바 친구약성서에서 아동심리와 연령에 최적합하게 학제적(學制的)으로 되었으니,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최적당한 줄로 사(思)하노라. 그런데 교장이나 주임 교역자가 전담(全擔)해야 심심(甚深)한 연구하(下)에서 매주일 하(何) 시간이던지 이용하여 일반교사를 회합하여 놓고 준비를 식힐지니, 공과(工課)뿐 아니라, 교수법(教授法) 급(及) 관리법(管理法)을 상세히 교수(教授)할지니라.

11) 주일학교(主日學校) 목적(目的)

주일학교(主日學校) 학생(學生)은 일정한 표준이 별무(別無)하니, 주교(主校) 목적은 신자의 자녀는 신앙을 양성(養成)하고, 미신자의 자녀는 신앙으로 인도(引導)하라 함이 주일학교(主日學校) 목적(目的)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녀는 5세 이상(以上)으로 15세 이하(以下)는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요, 미신자(未信者)의 아동(兒童)은 될 수 있는 데로 다수(多數) 인도(引導)함은 귀(貴)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인구(人口)를 증가(增加)코져 할 시(時)에는 질적(質的)으로 퇴보(退步)되야 유명무실(有名無實)의 상태에 지(至)할 것이니, 양(量)의 다수(多數)를 불고(不顧)하고, 진리 배양(培養)에 주력(注力)할지니라. 신자 자녀 중(中)에 주교(主校) 출석에 대(對)하야 등한시(等閑視) 하는 자(者)가 유(有)하니, 이는 참으로 유감(遺憾)이다.

12)문답(問答)

교수(教授)한 후(後)에 교사(教師)는 간단(簡單)히 문답(問答)할지니, 문답(問答)으로 배운 바를 일층(一層)더 기억(記憶)하게 되고, 교수(教授)도 혹시(或時) 문답식으로 하는 것은 좋으니라. 그래서 성적부(成績簿)에 그날 공부한 성적을 기입(記入)하야 개인 공부 성적을 고취(鼓吹)할지니라. 각반(各班) 문답(問答)이 끝나면, 공동(共同) 문답(問答)을 할지니, 이렇게 함으로 반성적(班成績)을 지(知)하며 남녀(男女) 반별(班別)로나 남녀(男女) 동반별(同班別)나 문답(問答)하야 반우승(班優勝)을 결정(決定)할 지니라.

13)성적(成績) 보고서(報告書)와 결승(決勝)

교수(教授)가 끝나고 문답(問答)을 필(畢)하면, 서기(書記)는 각반(各班) 성적을 보고(報告)할지니, 출석, 인도, 헌금, 공부, 품행 등을 종합(綜合)하야 평균점만 보고함이 가(可)하고, 각과(各科) 보고는 시간상 관계로 약(略)함이 가(可)하니라. 보고가 필(畢)하면 우수반(優勝班)을 정(定)하고 포창(褒彰)함이 가(可)한데, 혹은 우수기(優勝旗)를 수여(授與)함으로, 혹은 상품(賞品)을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우수(優勝)을 포장(褒獎)함이 합당(合當)하니라.

14) 동화(童話)

동화(童話)는 아동(兒童)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주일학교를 지도(指導)하는데 좋은 방법이니, 아동심리(兒童心理)는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종화하나니, 동화(童話)는 아동(兒童)의 감정(感情)과 이지(理智)를 고무(鼓舞)시키는 유일(唯一)한 방법이니, 주일학교를 위(爲)해야 없지 못할 순서(順序)이다. 그러나 동화(童話)에 주의(注意)할 것은 너무 장황(長荒)이 하지말지니, 과즉십분(過則十分)이니라. 아동심리(兒童心理)는 솔직(率直) 무사기(無詐欺)해야 무슨 이야기던지 사실상 인정하나니, 그런고로 동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의 역사나 고래(古來) 성도(聖徒)의 신앙담(信仰談)이나 진리에 합당한 비유(比喻)나 현재 아동신앙 미담(美談) 등으로서 간단명료하게 진실한 어조(語調)로 하고, 속된 이야기나 무근(無根)한 야담(野談)이나 아동심리에 방해될 잡담(雜談) 같은 것은 특별히 주의하는 동시에 유희식(遊戱式)이나 괴상한 태도로서 하지 말지니, 아동(兒童) 심령(心靈)을 혼잡케하는 폐해(弊害)가 되나니, 동화의 정신이 다만 아동을 웃게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아동 심중(心中)에 진실한 진리를 인각(印刻)하며, 신앙을 함양(涵養) 식히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필자의 년구(年久)한 경험으로 보아서 유년시대에 성경의 인물의 소개와 역사에서 감화를 입어 장성(長成) 후(後)에 훌륭한 교역자가 되는 자(者)만토다.

15) 음악(音樂)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고무(鼓舞)시키는 일종(一種) 예술이다. 인간은 원래 오락적(娛樂的) 동물이다. 낙(樂)이 무(無)하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할 수 없고, 동원(冬園)과 같이 건조무미화(乾燥無味化) 된다. 더구나 종교와 음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윗의 좋은 금(琴)은 사울의 완고한 심(心)을 유화(柔和)케 하였다. 아동(兒童)은 원래 음악을 호(好)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고로 좋은 찬미(讚美)를 교(敎)하며, 때로는 독창(獨唱)을 시키는 것도 좋고, 혹(惑) 기악(器樂)을 써 심신(心神)을 유쾌(愉快)케 하는 것도 좋으나 속(俗)된 음악이나 가증(可憎)한 유희(遊戱) 같은 것은 금(禁)할지니라.

16) 시간(時間)

주일학교 시간은 너무 장(長)하지 말지니, 아동의 심리는 인내가 부족하고 조급성(躁急性)이 다(多)해야 무엇이던지 한 가지를 너무 장(長)하게 하면 염증(厭症)이 생(生)하나니, 무어시던지 간단 명료(明瞭)를 위주(爲主)할지니라.

주일학교(主日學校) 순서(順序) 급(及) 시간표(時間表)

- (1) 개회(開會) 찬송(讚頌)-5분
- (2) 대표(代表) 기도(祈禱)-5분
- (3) 신입생(新入生) 환영(歡迎), 환영가(歡迎歌)-5분
- (4) 광고(廣告)-2분
- (5) 분반(分班) 교수(教授)-20분
- (6) 특별(特別) 찬송(讚頌), 독창(獨唱)-합창(合唱)-5분
- (7) 문답(問答)/대표(代表)-10분
- (8) 성적(成績) 보고(報告)/서기(書記)-5분
- (9) 우승(優勝) 포상(褒賞)/교장(校長)-5분
- (10) 동화(童話)/교사(教師)-5분
- (11) 찬송(讚頌)/일동(一同)-5분
- (12) 기도(祈禱)/대표(代表)-3분
- (13) 폐회(閉會)-폐회가(閉會歌)

17) 폐회식(閉會式)

폐회(閉會) 찬송(讚頌)은 총(總) 기립(起立)해야 하고, 기도(祈禱)도 기립(起立)한 채로 하고, 기도(祈禱)를 필(畢)한 후(後)에는 폐회가(閉會歌)를 부르면서 풍금곡으로 순서 있게 문전반(門前班)부터가 선두(先頭)에서 목사(牧師)가 선두(先頭)에서 자기반 학생을 다리고나가면 학생은 일렬(一列)로 따라 가되 신발은 들고나가서 밖에서 신을 신게 하고, 일반이 다 나가면 이반(二班)이 후(後)를 따라 나가고, 차례로 여차(如此)히 규율(規律) 있게 나갈진이, 만일 폐회선언자(閉會宣言者)와 교사(教師)를 주의(注意)하지 않하며, 폐회(閉會) 선언(宣言)하

자마자 떠들게 되면 우당탕탕하며 혼잡(混雜)하게 나가면, 불합당(不恰當)한 사(事)니, 폐회시(閉會時)에 특별 주의할지니라.

제15장 목회자(牧會者)와 교회내(教會內) 제반사업(諸般事業)

제1절 부인회(婦人會) 사업(事業)

초대교회에서는 과부를 구호(救護)하는바 곧 부인(婦人) 사업(事業)이 교회 내(內)에 있었으나 부인(婦人)들이 하지 안이하고, 남자(男子) 칠인(七人)을 선택하여 집사(執事)의 직(職)을 주어 구제(救濟) 사업(事業)을 하였다<행(行) 6:1-6>. 그러므로 부녀(婦女)들은 교직(敎職)도 없고, 교회 중(中)에서 침묵(沈默)하고 말하는 것이 수치(羞恥)라고 하였고(고전 14:34-35) 또는 “부녀(婦女)가 순종(順從)하므로 도(道)를 학(學)할 것이오, 부녀(婦女)가 교수(敎授)하며 남자(男子)를 주관(主管)하난 것을 허락(許諾)치 안이하나니, 오즉 종용(從容)할지니라(딤후 전 2:12) 하였다. 차(此)는 부녀(婦女)가 남자(男子)에게 대(對)한 지도(指導)와 주관권(主管權)을 부여(附與)되지 못함이니, 부녀(婦女)가 부녀(婦女)에게 대(對)하여서는 권위(權威)를 발휘(發揮)할 것이다. 그런고(故)로 부인회(婦人會)를 교회 내(內)에 설치(設置)하고, 교회를 방조(幫助)하며, 전도(傳道) 심방(尋訪)으로 교역자를 수종(隨從)하여 교회발전에 활동하는 동시에 외면(外面)의 선교(宣敎) 사업까지 원조(援助)할만한 부인회(婦人會)의 목적을 달(達)하도록 할 것이니라. 차(此)는 신자로서 합심 단결하는 사업이고, 부녀 각자의 가정에서 취사(炊事), 제의(制衣), 양자녀(養子女) 등의 천직(天職)도 신앙으로 충성진(忠誠盡)하면서, 교회 내(內) 부인회 사업까지 충직(忠直)하게 할지니라. 그런고(故)로 교회마다 부인회를 조직(組織)할지니, 기(其) 방법(方法)은 여하(如何)하니라.

1. 회장(會長)

회장을 선택할지니, 회장은 동회 통할(統轄)하는 직분이니, 회칙(會則)에 대한 상식과 부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중한 인(人)이 안이면 안이 된다. 회장은 직무상 전도부인이 하는 것이 호(好)하다. 우(又)는 여신자 중(中)에 합당한 자격이 있으면 선택함도 무방하며, 여차(如此)한 경우에는 남녀 교역자는 필(必)히 고문(顧問)이 되어야 할진이라.

2. 부회장(副會長)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서 회무(會務)를 처리하나니, 부인 직원 중(中)에서 선택되되, 협동적 정신과 사업열이 있는 이로 택(擇)할지니, 회장이 유고시(有故時)에는 대무(代務)할 수 있나니, 신덕(信德)이 겸비한 부인을 택할진이라.

3. 서기(書記)

서기는 기록이 능하고 활동 있는 충직(忠直)한 인(人)으로 택(擇)할지니, 서기는 회록(會錄), 기사(記事), 문부(文簿), 장리(掌理) 등(等)이니, 여신자 회원 중에서 택할진이라.

4. 회계(會計)

회계는 일절(一切) 금전을 장리(掌理)하나니, 수입 지출을 기입(記入)하며, 재무(財務)와 협력하여 부인회의 결의에 의(依)하여 교회 재정 방조(幫助)하며 내외국(内外國) 전도비를 위하여 활동하며, 통장(通帳) 급(及) 장부(帳簿)를 주장(主掌)하나니라.

5. 재무(財務)

대(大) 교회(教會)면 회계 재무를 별립(別立)할 수 있으나, 소(小) 교회에서는 재무와 회계를 겸임함도 무방하니라. 재무는 부인회의 일절(一切) 금전을 수합(收合)하여 회계(會計)의게 넘겨서 영금(領金)케 할지니라.

6. 회금(會金)

회금(會金)은 월례금(月例金)과 특별회금(特別會金)의 별(別)이 유(有)하나니, 월례회금은 매(每) 월례회(月例會) 시(時) 납입하고, 특별회금은 국내전도와 국외선교비 등이니, 회(會)에서 정(定)한 기간에 납입(納入)할지니라.

7. 성미(誠米)

성미(誠米)는 부인회(婦人會) 사업(事業)으로 일반 신녀(信女)의게 권장(勸獎)해야 실행(實行)케 할지니, 기(其) 방법은 주부가 취사(炊事) 시(時)에는 식구(食口) 매인(每人) 하(下)에 일시식(一匙式) 떠서 두었다가 매주일에 헌납케 하나니, 등한시 할 수없는 대(大) 재원(財源)이 되나니, 약(約) 백 명이 회집하는 교회에서 열심 실행한 결과 매월 대두(大斗) 5두(五斗)의 판출(辦出)케 될 것이니, 차역(此亦) 재원(財源)이 부인(婦人)들의 성의로서만이 되는 것이니, 차(此)는 주임 교역자보다 부인회장이나 전도부인으로 하여금 전담(全擔) 권장(勸獎)할지니라.

8. 회원(會員)

부인회 회원은 침례 받은 부인들은 물론이요, 구도자 중에서도 자원입회 허입(許入)함이 가(可)하며, 교회 내(內)에 신덕(信德)이 유(有)한 자(者)들이 솔선 실행하여야 할진이라.

9. 사업(事業)

교회 내(內) 고독한 여신자 곧 진과부(眞寡婦)를(딤후 5:16하, 5:9) 초대교회와 같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애호(愛護)와 성신(聖神)의 감화 감동의 신앙으로 호상(互相) 친애(親愛)하는 중(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누추(陋醜)함이 없는 경건함은 곧 부모가 무(無)한 어린 아해(兒孩)와 과부(寡婦)를 환란(患亂) 중(中)에서 고(顧)하고<약(約) 1:27> 하였으니, 진과부(眞寡婦)가 고난과 환란 중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도라 보아야 하며 부모가 무(無)한 고아(孤兒)도 그러할지니라. 부녀 중에 신덕(信德)이 있고, 지식적 두뇌가 있

고, 기본적 학업이 있는 자(者)로서 교역에 헌신적 신앙과 사명감이 확실하면 부인회에서 여교역자를 양성시켜서 본(本) 교회(教會)에서도 채용하고 지(支) 교회(教會)에 파송(派送)할지니라. 우(又)는 부인 양성사업인 성경강습소와 학원을 설립함 호(好)하니라. 여자전도사업 등과 교풍절제운동(矯風節制運動)으로 사신(私神), 우상(偶像), 복술(卜術), 미신(迷信), 공창(公娼), 축첩(蓄妾) 등(等)의 악풍폐습을 교정(矯正)할지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환원운동에도 열정적으로 병진(並進)하기 위하여 각 교회 내(內) 부인회와 연합하여 대내(對內) 대외적(對外的)으로 초대교회 성경진리를 전파하도록 국내에 전도자를 파송하고 국외로는 선교사를 파견할지니라.

제2절 청년(青年) 사업(事業)

제1조 청년(青年) 사업(事業)의 목적(目的)과 필요(必要)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청년기를 일차식(一次式)은 경과(經過)치 안이치 못하나니, 금일(今日)의 청년은 후일(後日)의 노년이 되고, 금일의 노인은 전일의 청년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일지계(一日之計)에는 신(晨)에 재(在)하고, 일년지계(一年之計)는 춘(春)에 재(在)한 바와 같이 일생의 계획은 청년기에 재(在)하나니라. 인생의 유청장로(幼靑壯老)의 사기중(四期中)에 최귀(最貴)하고 요긴(要緊)한 시기는 청년시기이다. 그들 입장은 선악기로상(善惡岐路上)에서 입각(立脚)해야 좌우를 주저(躊躇)하고 있다. 교회는 그들을 환영하고, 교역자는 그들의 친우가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애호(愛護) 지도할 의무가 있다. 교역자 중에 하인(何人)은 청년사업을 반대하여 말하기를, 교회의 청년이 다(多)하면 위험하다. 청년은 혈기(血氣)가 방강(方強)하고, 말정(未定)해야 투쟁적 기분이 다(多)한 고(故)로 요란(撓亂)한 사(事)를 야기(惹起)하기 이(易)하다. 우(又)는 청년의 신앙은 독실(篤實) 열정적이나 너무나 변태무쌍(變態無雙)인 고(故)로 신용할 수 없다. 교회에 청년교역자를 두면 실수하는 사(事)가 다(多)함으로 신자들이 교역자를 신용치 안는다. 심지어는 선배의 은사를 배척하며, 수

석(首席)을 약탈(掠奪) 모략(謀略)과 단체(團體)를 파괴(破潰), 분열(分裂), 음모(陰謀)의 사(事)는 다 청년기에 처(處)한 자중(者中)에서 다출(多出)함이 교회 청년남녀가 다(多)하면 화근(禍根)이 된다하여 청년을 위험시(危險視)하고 심(甚)하면 배척(排斥)까지 한다. 그 말에 일리(一理)도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청년이 무(無)하면 반신불수적인 동시에 불구(不具)의 교회니, 무력(無力) 부진(不進)하나니라. 연고(緣故)로 청년지도에 심심(甚深) 유의(留意)해야 실패가 무(無)케 할지니라. 청년지도에 이중(二種)의 목적(目的)이 유(有)하니, 1은 청년으로 하여곰 진리로 함양(涵養)해야 완전한 종교적 인물을 조성(造成)하라 함이요, 2는 이러케 된 청년으로 하여곰 교회 내(內)에 제반(諸般) 사업(事業)에 제일선(第一線)에 입각(立脚)시켜서 연단(鍊鍛)한 후에 진(進)해야 유위(有爲)한 후계 사역자를 배출(倍出)하려함에 재(在)하나니라.

제2조 교회(教會)에 중견(中堅) 청년(青年) 양성(養成)의 필요성(必要性)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중견(中堅) 인물(人物)이 필요함은 재론(再論)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가정에 중견(中堅) 인물(人物)이 무(無)하면 불가치산(不可治産)이요, 사회에 중견 인물이 무(無)하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에 중견 인물이 무(無)하면 정치가 동요된다. 교회 내(內)에도 중견 인물이 없으면 무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결코 교역자 일개인으로서는 진행키 불능(不能)하니, 그러므로 교회의 중견 인물 유무를 중(從)해야 진퇴의 운을 결(決)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교역자는 교회에 중견 인물 될 만한 청년 양성에 불식(不息) 할지니, 비록 신덕(信德)이 무(無)한 인(人)이라도 지도여하에 따라서 잘되고 못되고 할 것이다. 차(此)는 말이 식목 배양할 시(時)에 목(木)이 유시(幼時)에 바로 잡아서 직장(直長)케 할 수 있으나 방임(放任)하면 굴곡(屈曲)되야 화목(火木)밖에 될 수 없다. 청년지도에 주의할 것은 기(其) 심리(心理)를 잘 이해하여 너무 구속적으로 하지 말고 부덕(不德)된 사(事)외에는 자유 활동을 승인하여 줄지며, 피등(被等)으로 하여곰 일할 길을 개방(開放)하여 줄지니라.

제3조 청년(靑年) 사업(事業)의 종목(種目)

1. 연경반(研經班)

청년 지도의 첫째 과목은 성경 연구이다. 청년은 흔히 이지적(理智的) 방면으로 전향(轉向)하여 신앙도 역시 지적화(智的化)하기 이(易)하다. 그런고로 성경진리로서 교육하여 신앙을 성경화(聖經化)하도록 주력(主力)할지니, 매주일 기(其) 시간(時間)이나 기(其) 일간(日間)을 정(定)하고 규칙적으로 연경반(研經班)을 조직하고 성경을 교수(敎授)할지니, 이렇게 하면 구도인(求道人)이나 신입자 청년(靑年)들의게나 일거양득(一舉兩得)의 익(益)이 유(有)하나니라. “이(爾)가 소(少)하여 서부터 성경(聖經)을 지(知)하나니, 성경(聖經)은 이(爾)로 하여곰 그리스도 예수 내(內)에 재(在)한 신앙(信仰)으로 인(因)하여 구원(救援)을 얻난 지혜(智慧)가 유(有)케 하나니라. 제(諸) 성경(聖經)은 하나님의 묵시(默示)하신바니, 교훈(敎訓)과 책망(責望)과 정직(正直)케 함과 의(義)로 교육(敎育)하기에 유익(有益)하여 하나님의 인(人)으로 완전(完全)케 하며, 제(諸) 선사(善事)를 행(行)하기에 우전(又全)케 하나니라”(딤후 3:15-17).

2. 청년회(靑年會)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특성이 유(有)하나니, 무슨 친목적 혹은 단결적 회합이 필요하니, 교회에 폐해(弊害) 되지 안은 한 청년회나 친목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청년지도기관을 삼아서 친목적 연락을 도(圖)하면 제반 역사(役事)에 방조(幫助) 기관(機關)을 삼을지나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주임 교역자의 지배를 수(受)할 것이요, 진리의 위반되는 세속적 행동이나 경향을 주의할지니라. 남자청년회사업으로 교풍(校風) 절제(節制) 운동(運動) 같은 것은 유익한 사(事)이니라.

3. 청년(靑年) 전도대(傳道隊)

청년 시(時)는 활동기이다. 활동을 좋아하는 청년들을 이용하여 전도대를 조직하여 노방전도(路傍傳道)에나 혹은 일주간 구령회시(救靈

會時)에 활동하여 미신자(未信者)를 인도하며, 설교도 시키며, 지회(支會) 혹 기도회에 파송하여 예배를 인도케 하여 악기(樂器)를 준비하여 가지고 외촌(外村) 전도(傳道) 등에 요용(要用)하나니, 지혜 있는 교역자는 친히 사령관이 되고, 교회는 사령부를 삼고, 삼천리 이내(以內)를 교구를 만드러서 제직(諸職)과 남녀청년을 정병(精兵)을 삼아 각(各) 전선(戰線)에 파송함과 동시에 승리의 공(功)을 세울지니라.

4. 청년(靑年) 성가대(聖歌隊)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가(聖歌)이다. 예배에 성가가 필요함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청년은 음악을 좋아하는 소질이 있다. 신앙이 갖고 진리가 같은 청년들이 신성(神聖)하게 성가(聖歌)로서 영귀(榮歸)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성악과 기악 등으로 노방전도(路傍傳道), 외촌전도(外村傳道) 구령회(救靈會) 등에 독창 합창 기악으로서 집회를 왕성케 하며 성찬 예배회에는 악기는 사용치 말고, 성악으로서 일층(一層) 신성(神聖)케 하며, 성호(聖號)를 찬양함은 귀(貴)한 일이다. 그러나 남녀(男女) 혼입(混入) 합창(合唱)이나 속가(俗歌)나 불신성(不神聖)한 가곡(歌曲) 등은 신(愼)할지니라.

5. 청년(靑年) 심방대(尋訪隊)

청년들을 인솔하고 청년 심방대를 조직할지니, 목사가 청년을 심방하는 것보다 청년끼리 심방케 하는 것이 좋으니, 매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심방대원들이 총출동하여 각각 자기친우를 차커가서 권면 인도케 하고 혹은 주일학생을 심방하며 혹은 전도를 듯고 결심자를 심방케하며, 병고자(病苦者)를 위문케 할지니, 이러케 활동하는 끝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령열(救靈熱)이 기(起)하고, 교회는 익익(益益)부흥할지니라. 교역자는 노소를 불문하고 청년의 친우가 되어 애호(愛護)지도(指導)에 노력할지니라.

제3절 자선사업(慈善事業)

제1조 자선사업(慈善事業)의 의의(意義)

목회자는 영적사업에만 편중(偏重)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인(人)을 위하여 동정(同情) 애호(愛護)할지니, 자선사업이 시야(是也)라. 예수께서 재세시(在世時)에 약자, 병자, 비애자(悲哀者), 실망자(失望者)를 위하여 지극한 동정과 자비로서 구조(救助)하여 주셨나니, 당신(當身)이 친(親)히 병자와 죄인의 친우와 린인(隣人)이 되심을 여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표시하였나니, 교회는 자선사업에 등한시 할 수 없나니, 교회 내에 할 수 있으면 자선 사업부를 조직함이 필요하리라. 교회가 잘못하면 영적사업에 편(偏)하는 동시에 육적사업에는 사회보다 뒤떨어지는 폐(弊)가 불무(不無)하나니, 진정한 그리스도 정신이 있다면, 자비 동정심이 반수(伴隨)하나니라. 사도시대에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구제 사업이라던지, 야고보의 홀빈(恤貧) 교훈은 모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해서 교회가 병자를 위하여 의료사업이 생(生)하고, 고아를 위하여 고아원이 설립되고, 무의(無依) 무탁(無托) 한 노인을 위하여 양로원이 창립되고, 빈자(貧者)를 위하여 구제 사업이 시작되어야 금일까지 지(至)케 되었다.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發露)는 대인(對人) 자선(慈善)이니, 골넬노의 백성을 구제함도, 도르가 동정과 사게오의 시제심(施濟心)과 오순절교회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은 좋은 실례이다. “선(善)을 행(行)하고, 호상(互相) 구제(救濟)하기를 망(忘)치 말라. 여차(如此)한 제사(祭祀)는 하나님이 열납(悅納)하시느니라”(히 13:16). 하나님 전(前)에 정결하고 누추함이 없는 경건함은 곧 부모 없는 아해(兒孩)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도라보고(약 1:20), 목회자는 교회에서 소규모라도 자선부(慈善部)를 조직하여 신자로 하여금 선한 사업에 용력(用力)케 할지니라.

제2조 자선사업(慈善事業)의 종목(種目)

1. 양로원(養老院)

차(此) 사업은 일(一) 교회(教會) 독립으로 경영하기는 곤난(困難)할지니, 혹 일(一) 지방에서 각 교회가 연합하여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되, 차(此)에 대한 특별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전문인(專務人)을 두어

서 차(此) 사업에만 전문(專務)케 할지니라. 그러나 비록 여차(如此) 한 기관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何) 방면(方面)으로든지 경로(敬老) 구빈적(救貧的) 정신 하(下)에서 소규모나마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2. 구고(救孤) 사업(事業)

구고(救孤) 사업이라 함은 부모가 무(無)한 고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니, 곧 고아원(孤兒院)이다. 차(此) 사업역시 일(一) 교회 독력(獨力)으로 경영키 곤란(困難)할지니, 소(小)하여도 일(一) 단체나 일(一) 지방적으로 경영함이 합당함이라. 외국에는 대(大) 교회에서는 단독력으로도 경영하는데도 있으나 한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초기에 있어서 아직은 없으나 선교회에서 일개소의 경영이 있고,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와 시(市) 사회과의 후원으로 일개소를 경영하고, 대전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시(市) 사회과의 후원으로 경영하고,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시(市) 사회과의 후원을 받아서 일개소를 경영하고 있으나 일(一) 교회에서나 각(各) 교회 연합적으로라도 교회적으로 경영되지 못함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교회의 발전을 따라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대규모의 고아원을 하기 바라노라.

3. 홀빈(恤貧) 과부(寡婦)의 사업(事業)

성서에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도라보고(약 1:27)하였으며, 교회에서는 진과부(眞寡婦)를 조급(助給)하게 하라(딤후 5:16하)하였으니, 차(此)는 고독한 진과부(眞寡婦)가 신앙 중에서 빈궁(貧窮)할 시(時)에는 구제할지니라. 그러나 잘못하면 차(此) 선(善)한 사업이 도로혀 교회에 방해가 되는 수도 유(有)하나니, 사도시대도 헬라를 종(從)하는 유대인이 매일 시제(施濟)함이 저의 과부(寡婦)에게 불급(不及)함으로 히브리인을 원망(怨望)하는데까지 지(至)하였다<행(行) 6:1>. 그러므로 주의할지니라. 교회가 육적사업에만 치중하고 진리와 영적사업을 등한시하면 필경은 원망시비가 다단(多端)할 것임으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傳)하기로 하고, 독실(篤實)히 신앙하고, 성신이 충만자(充

滿者) 칠인(七人)을 구제 사업에 전임토록 하였으니, 만일 구제 사업을 시작할 시에는 독신자(篤信者) 몇 사람을 선택하여 전임시키고 교역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문(專務)해야 신자가 영적 향상을 도(圖)할지니라.

4. 구제(救災) 사업(事業)

차(此) 구제(救災) 사업(事業)은 천재지변으로 불의의 재화(災禍)를 당할 시에 임시구급책을 지(指)함이니, 교회가 여차(如此)한 사(事)에 사회보다 선솔(先率)해야 진력(盡力) 구조할지니, 풍수(風水), 화재(火災)나 흉재(凶災) 급(及) 병환(病患)같은 사(事)에 대(對)하여 물심(物心)을 기우리며 동정하여야 할지니, 차(此)가 즉 인간(人間) 상휼지도(相恤之道)요, 기독교(基督) 이상(理上) 상애(相愛)의 정신이다. 이상(以上) 제반 사업을 통칭하여 자선사업이라 하나니, 교회가 소규모나마 자선부를 두어서 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차(此) 사업에 주력케 하되,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성서적 교훈에서 함이 합당하고, 목회자는 직접 책임을 부(負)치 말고 간접으로 후원 감시하여 신앙상(信仰上) 탈선적(脫線的) 동향이나 불성결(不聖潔) 색채는 추호도 용납하지 말지니라.

제16장 목회자(牧會者)와 교회(教會) 재정문제(財政問題)

제1절 교회(教會) 재정(財政)의 필요(必要)

교회가 지상에 있는 이상 재정이 필요함은 갱론(更論)할 것도 없다. 황(況) 복음 선전의 영적사업에 물질의 후원이 없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함도 사실이다. 대개 복음의 사업은 보통사회사업과 상이(相異)해야 신령한 능력과 물질실력이 상후(相候)해야 완전한 종교 사업이 성립되나니, 아부라함 시(時) 십일조 헌금법이 생(生)하였고, 모세 시(時)에 제전(祭典)을 맡은 레위인의 공동유지의 법이 생(生)하였고, 광야에서 공동헌물로서 성막제조법이 생(生)하였고, 솔로몬 시(時)에 거대한 재력으로서 사십육 년간(四十六年間) 공사를 하여 장엄한 성전을 건축하였고, 기후(其後) 포로귀환 후(後)에 피등(被等)이 금은보패(金銀寶貝)를 투합(投合)해야 성전재건운동을 한 것과 사도시대에 주정(主定) 헌금(獻金)과 특별헌금법이 유(有)하였고, 기후(其後) 복음이 만방에 광포(廣布)됨을 따라 각국 성도들이 복음 선전에 필요한 물질을 자유 헌상(獻上)해야 교회당을 건축하며, 전도인(傳道人)을 공궤(供饋)하였다.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 발호기(跋扈期)를 당하여 일종 폐해(弊害)로 화(化)해야 물질편주적(物質偏主的) 경향으로 심지어 속죄(贖罪) 전표(錢票)를 매매하는 일까지 있었다. 누터의 개종 후(後)에 복음은 일시 유평리(幽閉裡)에서 해방 되어 일대(一大) 비약적(飛躍的) 파죽지세(破竹之勢)로 각국 민족의게 전파되는 동시에 구미(歐美) 각(各) 국민(國人)이 환호(歡呼) 수신(受信)하고, 복음 선전을 위하여 심신물(心身物)을 헌(獻)해야 교회마다 외국선교부가 조직되고, 신앙 남녀청년들이 신(身)을 헌(獻)해야 외국선교사가

되야 앞우리카, 남미(南美), 동아(東亞), 호주, 심지어 도중(島中) 식인종(食人種)에게까지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각(各) 성도들이 거대한 물질을 수합(收合)해야 외국전도부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 목적 하(下)에 의료, 교육, 자선, 제반 부속사업으로 복음전도에 간접으로 방조(幫助)하여왔다. 말세(末世)에 주의 말삼대로 지극(地極)까지 복음전파에 주의 내적 섭리(攝理)도 유(有)하거니와 외적 물질상 후원도 막대함을 지(知)할지니라. 이와 같이 개(個) 교회에서도 위선(爲先) 교역자들의 생활비와 기타 사업에 재정이 필요함은 물론 의 사(事)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직접 재정문제를 간섭하는 것보다 일반 신자들의게 재정이 필요함과 헌금의 의무를 교시(敎示)한 후에 특별히 목회 재정위원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곰 장리(掌理)케 함이 합당하니라.

제2절 재정(財政) 모집(募集) 방법(方法)

제1조 십일조(十一條) 헌금(獻金)

1. 십일조(十一條)의 유래(由來)

대개 십일조 법은 아부라함 시(時)에 시작되었나니, “아부라함이 기득(既得)한 것에서 십분지일(十分之一)을 멜기세덱에게 주더라”(창 14:20). 아부라함의 손(孫)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아(我)에게 사(賜)하신 모든 것에서 십분(十分)의 일(一)을 하나님께 헌(獻)하겠나니다”(창 28:22). 기후(其後) 모세 시(時)에는 이색열민(以色列民)에게 대(對)한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선민의 일대 의무가 되었나니, “토지 소산의 곡(穀)이나 과실(果實)이나 십분(十分)의 일(一)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 전(前)에 성물(聖物)이라”(레 27:30). 차(此) 십일조(十一條)의 약속은 선민의 축복의 표(表)가 되었다(말 3:8). 영적 선민된 신자들의게도 그 약속과 축복은 계승하였나니, 실로 십일조 헌금은 신자 생활 축복의 비결이니라.

2. 십일조(十一條)의 목적(目的)

미신자(未信者)의 생활법은 물질중심이요, 신자의 생활은 신앙중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因)하나니, 십일조(十一條)는 신(新) 인간(人間)에 체결(締結)된 약속(約束) 수형(手形)이다. 그런고(故)로 천부(天父)의 축복은 십일조(十一條)를 통(通)하여 신자(信者)에게 임(臨)하나니라. 말낙기 선지는 차사(此事)에 대(對)하여 강조하였다. 원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으니, 십분의 일을 불납(不納)하면 하나님의 것을 절취(竊取)한 것이나 무이(無異)하니, 축복의 약속이 해소(解消)될 것이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십이지파 중 레위 지파는 성사제(聖司祭)의 직(職)이니, 농상공업(農商工業)에 종사치 않고 봉사로서 공생애(公生涯)를 보내는 자(者)이다. 그런고로 십일지파가 각자 십일조를 수합(收合)하여 레위인에게 주어서 봉피(奉皮) 생활에 이용케 하였나니, 그런고로 신약시대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公義)와 애(愛)를 마땅히 행하고, 십일조인 피(彼)도 기(棄)할 것은 안이다(눅 11:42) 하시였고, 사도시대에는 신자들이 소유물을 사도의게 봉납(奉納)하였으며, 재물을 소허(小許)라도 저희 것이라 하는 자가 무(無)하였다. 바울은 매주일 수일(首日)에 각각 기이(其利)를 득(得)하는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자기가 갈 때에 연보(捐補)를 하지 안케 하라(고전 16:2) 하였고, 또는 교회에 탈취(奪取)하듯 하여 료(料)를 득(得)한 것과 마게도니아로 부터는 형제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조(補助)한 사실을 보면 교역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신자들이 헌금한 것이다.

3. 십일조(十一條) 방법(方法)

십일조(十一條)를 헌납(獻納)하는 방법은 토농공상업간(土農工商業間)에 수입 중 이익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하는 것이니, 상인은 매 월말일에 그달 결산에서 이익금 중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하고, 봉급생활하는 인(人)은 매월 봉급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하고, 농부는 매년 추수기에 소작(小作)이면 지주(地主)에게 소작료(小作料)를 제(除)하고 이익에서 십분의 일을 헌(獻)할지니라.

4. 십일조(十一條) 헌금(獻金)

교회는 십일조 헌금이 천국백성의 의무요, 축복의 근원이 됨을 전술(前述)한바 언이와 한국교회가 부진(不振)의 원인은 신자들의 십일조를 긍납(肯納)하지 않는데 있다. 기(其) 결과는 교회재정이 궁핍하고 차(此)로 인(因)하여 신령한 교역자를 청빙(請聘)할 수 없다.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신령한 진리의 양식을 득식(得食)할 수 있을까? 신앙상 영양(榮養)이 부족함으로 교회는 영락피폐(零落疲弊)하게 된다. 그런즉 신자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각성하여 십일조 헌금을 실행 하되. 필히 교회에 하고, 혹 개인적으로 하인(何人)을 보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橫領)하는 것이니, 그리하지 말고 조심하여 교회에 신령한 교역자를 양성(養成)하며 청빙(請聘)할지니라.

제2조 주정(週定) 헌금(獻金) 주일(主日) 헌금(獻金)

신약시대에는 주정(週定) 헌금법이 유(有)하였다. “매주일 수일(首日)에 너희가 각기 이(利)를 얻는 데로 저치(儲置)하야”(고전 6:2). 예배 후 주간(週間)에 수일(首日)되는 일요일에 득리(得利)한 것을 전부 헌납하는 법이니, 주정헌금이라고 한다. 그것을 주일에 헌금하는 것을 운(云)함인듯하다. 신자로서 십일조 헌금만 꼭 한다면, 기타헌금은 없을지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됨이다. 주일헌금을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여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일조 헌금을 많이함으로 매월 교역자의 생활비로 월정금(月定金)을 하며, 기타 헌금의 종(種)이 다(多)하나 신자가 각기 십일조만 하면 기타 헌금이 없어도 무방(無妨)할지니라.

제3조 추수(秋收) 헌금(獻金)

차(此)는 매년 양기(兩期)를 분(分)하여 유월 맥추기(麥秋期) 맥추(麥秋) 헌금(獻金)이 있고, 십일월에 추수(秋收) 헌금(獻金)이 있나니, 기(其) 원인(原因)은 이색열민(以色列民)이 신(神)의 명(命)에 의(依)하야 가남지(迦南地)에서 실행한 예(例)가 있었다. “맥추절(麥秋節)을 수(守)할지니, 이는 너희 농작 중에서 초수(初收)한 것이오, 추수절(秋收節)을 수(守)할지니, 차(此)는 농작 중에서 마즈막 수(收)함이라”(출 22:16) 추수절만 수(守)하는대도 있고, 맥추(麥秋) 양절(兩節)을 개수

(皆守)하는대도 유(有)하나니, 각기 수확에서 감사함으로 헌(獻)하는 것인데, 비록 농작을 안이 하는 인(人)이라도 현금으로 헌납하여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헌(獻)하나니, 차(此) 현금의 용도(用途)는 대략 내외국(内外國) 전도(傳道)로 사용함이 적합하도다.

제4조 특별(特別) 헌금(獻金)

차(此) 헌금은 특별한 경우에 헌(獻)하는 임시 헌금이니, 부흥회(復興會)나 사경회(查經會) 등의 비용을 위(爲)하여 헌금하는 것도 유(有)하나니, 집회코저 하는 시(時)에 위선(爲先) 집회에 대하여 사용할만한 비용을 예산하여 준비할 것이오, 집회 중에서도 집회 후에 헌금하는 사(事)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유(有)하나니, 차(此)는 심령과 물질이 혼동케 하난 까닭이다. 우(又)는 기타 교회비용이 부족할 시(時)에는 특별 사항에 의(依)하여 임시특별헌금할지니라.

제5조 선교(宣敎) 헌금(獻金)

1. 국내(國內) 전도비(傳道費) 헌금(獻金)

교회 존립의 목적은 단 자기교회만 위함이 안이오, 복음을 미문(未聞)한 영혼(靈魂)의게 구원의 도(道)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귀(貴)한 사(事)이다. 그런고로 교회는 차사업(此事業)을 위하여 진력(盡力) 헌금하여 일(一) 교회 독력(獨力)으로 못하면, 기(幾) 교회(敎會)가 연합하여 복음 미간지(未墾地)에 전도인을 송(送)하며, 전도비(傳道費)를 조달하는 것은 교회가 의당히 할 사(事)이니라.

2. 국외(國外) 선교비(宣敎費)

외국인을 위하여 우(又)는 재외동포를 위하여 선교사를 선송(選送)함은 신약시대에 안디옥교회의 모본이다. 차(此)에 대하여 각 교회에서 성의로 하여야 할 것을 우리도 선교사를 통(通)하여 복음을 청(聽)하고 각신회개(覺信悔改)하여 사죄(赦罪)의 침례(浸禮)를 수(受)하고 중생(重生)의 성신(聖神)을 은혜로 수(受)하여 구원을 득(得)하였으니, 차(此) 구원의 복음을 직접 혹 간접적으로 만방에 전(傳)할 의무

가 유(有)함은 주님의 사명이니라.

3. 선교(宣敎) 헌금(獻金) 방법(方法)

교회 중에서 차(此)에 대하여 이론(理論)하지 말고, 성의(誠意)로 하되, 교회당에 선교헌금 함(函)을 치(置)하고, 각 신자들이 일 개월에 일차식은 다소를 불구하고 투입한다면, 교회가 다(多)하여지고, 신자가 다(多)하여질수록 선교자금이 거대(巨大)하여져서 다수(多數)의 선교사를 선송(選送)할지니라.

제6조 건축(建築) 헌금(獻金)

교회에서 교회당 건축헌금, 증축, 개축, 부속가옥, 건축헌금 등 일체 교회 소속 가옥을 시기(時期)에 건축하는 비용을 헌금하는 것이니, 먼저 건축예산을 편성한 후에 해(該) 건축을 위하여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여 일반신자로 하여금 건축필요를 심각화(深刻化)하게 하고 차(此)를 위하여 기도열과 신앙심을 고취하여 특별집회를 한 후에 대중의 열망에 의하여 특별헌금을 할지니, 하여간 예산을 확립한 후에 건축을 착수할 것이요, 예산 없이 건축을 시작함은 비합리적이다.

제7조 구제(救濟) 헌금(獻金)

차(此) 구제헌금은 각종 자선사업에 사용하는 헌금이니, 의당히 있을 헌금이다.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위하여 칠(七) 집사를 선택하였다. 그런즉 구제 사업은 교회에서 필히 하여야 한다. 구제하는 사(事)가 상제(上帝) 전(前)에 상달(上達)하는 동시에 기억하신다<행(行) 10:4>. 차(此)는 축복의 원(源)이 된다. 자선할 심리가 감동될 시(時)에 신앙 중에서 구제함을 교회당에 괘치(掛置) 하고 무시(無時)로 신도들이 투입하여 저축하였다가 신자 중에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인(因)하여 환난을 당하던가 기타 난관에 이(罹)하는 동시에 물질상 구조할진니라.

제3절 재정(財政) 사용(使用) 방법(方法)

1. 교회 내에 재정위원을 치(置)할 것. 교회내 재무와 회계는 물론 유(有)하거니와 차(此)를 보좌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일절 협의케 하되, 재무는 재정을 맡고, 회계는 장부와 통장을 맡고, 직원회장은 인장을 맡으되, 대소(大小) 금액은 통장 임치제(任置制)로 하고 수금(收金) 급(及) 사용에는 직원회의 결재에 의(依)하여 사용이나 현금하되, 교회 공용재정은 사용(私用) 사대(私貸)는 하지말지니라.

2. 목적(目的)대로 사용(使用)할 것

무슨 현금이던지 사용상 목적이 유(有)하나니, 현금 시에 목적인 그대로 사용할 것이오, 타건(他件)에 변용(變用)치 말지니, 원래 현금 시에 하(何) 목적을 정(定)하고, 제사(諸事)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獻)한 금액을 목적을 변(變)하여 타(他) 방면(方面)에 사용한다면, 처제는 하나님을 속임이 되고, 둘째는 신자를 기(欺)함이니, 만일 의외 타사에 사용할 필요가 유(有)할 시(時)에는 회의로서 대출(貸出)하고, 추후 해(該) 당사(當事)에 현금하여 충당 보고할지니라.

3. 예산(豫算)에서 초과(超過)치 말 것

무슨 현금이던지 예산을 정하고 현금한 것은 예산 이상을 사용치 말지니, 교회는 여하(如何)한 사(事)를 막론하고 부채(負債)하지 말지니, 개인이나 가정생활이나 부채는 결국 파산의 시작이니, 교회도 예산 없이 사용한다면, 결국 부채될 수밖에 타치(他置)가 무(無)하나니라.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직원회 동의를 수(受)하여 재 현금으로 보(補) 부족(不足)할지니라.

4. 매월(每月) 재정(財政) 보고(報告) 할 것

매월 말에 재정위원회를 개(開)하고, 전월(前月) 분(分)의 재정수지를 결산하여 익월(翌月) 주일에 전월 수지결산을 교회 전(前)에 보고하여 일반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재정수지를 명지(明知)하도록 함이

합당하니라.

5. 연중(年中) 급(及) 연말(年末) 결산보고(決算報告)

연중은 6개월 결산보고를 말함시오, 연말은 12개월분 결산보고를 운(云)함이니라. 교회재정은 가장 명백함을 요(要)할지니, 일인(一人) 신자(信者)의게라도 미(未) 분명(分明)하다는 의심을 회(懷)케 말지니, 그것은 수지(收支) 보고(報告)가 명백하여야 한다. 연고(緣故)로 재정 위원회는 연중 연말에 회합하여 반년 우(又)는 일년 결산을 작성하여 당회 또는 교회에 보고할지니라.

6. 신년도(新年度) 예산편성(豫算編成)

재정위원회는 거년도(去年度) 재정(財政) 결산보고(決算報告)를 작성하는 일방(一方) 신년도예산을 편성할 것이니, 거년도(去年度) 수지(收支)에 대하여 가능한 정도 하에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회의 합의를 경(經)하여 당회에 재가(裁可)를 수(受)하여 할지니라. 일차(一次) 예산편성(豫算編成)을 작성한 이상에는 경경(輕輕)히 변(變)하지 말고 예산대로 수지(收支)를 맞추어야 할지니라.

제4절 교역자(敎役者)의 보수(報酬) 문제(問題)

목장(牧場)에는 군양(群羊)과 목자(牧者)가 있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사업에 전무(專務)하는 목회자를 청빙(請聘)하여 교회 사무를 일임(一任)함은 의당한 사(事)일 것이다. 그러나 차(此)에 대하여 부속(附屬) 수종(隨從)되는 문제는 교역자의 생활보장 문제이다. 구약 이삭열(以色列) 12지파는 제사(祭祀)의 직(職)을 전무(專務)함으로 십일 지파가 십일조 헌납으로 생활 보장하여주었다. 교회가 자기네의 목자를 위하여 육신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성경상(聖經上) 당연한 사(事)니, 주 예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고군(雇軍)이 고가(雇價)를 수(受)하는 것이 의당(宜當)하니라”(눅 10:7).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에, “누

가 자비량(自費糧)하고 병정(兵丁)으로 단이겠느냐? 누가 포도(葡萄)를 종(種)하고 기(其) 과실(果實)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군(羊群)을 양(養)하고, 그 양(羊)의 유(乳)를 식(食)치 않겠느냐?”(고전 9:7). 모세 법에도 “곡(穀)을 떠는 우구(牛口)에 망(網)을 씌우지 말라”(신 25:4). 바울 사도가 또 말하기를, “성전(聖典)의 사(事)를 하는 인(人)은 성전(聖典)으로 유(由)하여 식(食)하며, 제단(祭壇)을 시(侍)하는 인(人)은 제단(祭壇)과 분(分)하는 것을 이등(爾等)이 지(知)치 못하니, 여차(如此)히 주(主)께서 명(命)하시기를, 복음(福音) 전(傳)하는 자가 복음(福音)으로 유(由)하여 활(活)하리라”(고전 9:13-14). 그러므로 교회가 자기들의 목자를 위하여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 영(靈)의 양식을 득식(得食)하고, 목자(牧者)는 영양(靈糧)을 먹여주고 생활을 유지(維持)함이 맞이 양(羊)이 목자(牧者)에게 유(乳)를 주고, 추(芻)를 득식(得食)함과 목자(牧者)가 꼴을 주고 유(乳)를 식(食)함과 같이 호상(互相) 불가분리(不可分離)의 사(事)니,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가 여차(如此)하니라.

1. 교역자(敎役者)에 대(對)한 충고(忠告)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영적집단인 동시에 차(此)에 종사하는 교역자(敎役者) 역시 속세에서 분리 되어 영적에만 전력(專力)해야만 하니,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교역(敎役)이라는 사업자체가 고난을 경(經)하여야 성공하는 사업이다. 차(此)에는 영적 고난뿐 아니라 육체적 고난도 의미함이니, 차(此)는 생활상 곤란이다. 그러므로 몬저 심절(深切)한 각오 하(下)에서 헌신할 것이요, 일차 헌신한 이상에는 배수진(背水陣)의 작전전(作戰的)으로 영역(靈域)을 다수(多數) 점령(占領)하여 전리적(戰利的) 수량이 막대하면 자연 풍족한 것은 교회에서 성의를 진(盡)하여 공급하난 까닭이다. 그러나 교역자는 생활 정도를 족부족간(足不足間)에 검박(儉朴) 절약(節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할 것이요, 신자나 외인(外人)에게 부채(負債)나 외상(外上) 거래는 될 수 있는 데로 피(避)하며, 생활난(生活難)의 구가(口歌)를 창(唱)치 말고, 소임(所任)의 영적사업에 전력을 진(盡)하여 치중(置重)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되면 자기 교역자의 생활을 보장

하야 줄 것은 정칙(定則)이다. 말이 목자가 양을 먹여 살찌게 하면 유량(乳量)이 다(多)하고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 수확이 다(多)함은 물론의 사(事)이다. 만일 생활난이라는 이유 하에서 불평불만을 갖이고 영적사업에 열심 하지 안으면, 자연 교회가 쇠퇴하야 점점 비운(悲運)에 함(陷)하기 이(易)함이 먹지 못한 양이 유(乳)를 출(出)할 수 없으며, 농부가 농사에 나태(懶怠)하면 추수가 소(小)함과 동일한 이도(理到)이다. 교역자의 생활여하에 의하여 교회의 부흥이 재(在)하고, 교회 부흥여하에 의하여 교역자의 생활문제가 타개(打開)된다.

2. 교역자(敎役者)의 보수(報酬) 표준(標準)

사회에는 계급을 따라 봉급제도가 차이의 별(別)이 있고, 교회 내에도 법칙상으로 목사 대(對) 전도사 차이와 목사 대(對) 목사 차이가 유(有)하나 차(此)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상으로는 불연(不然)하니, 사회는 지위나 명예로 일하나 교회에는 실지활동으로 역사(役事)케 되나니, 비록 목사라도 전도사보다 활동이 부족한 이도 유(有)하고 목사 중에도 명망(名望)있는 목사보다 무명(無名)의 목사가 실지사회상에는 성공하는 수가 유(有)하니, 요컨대 보수문제는 교역자의 실지활동과 교회 실력 문제에 재(在)하였는지라. 차(此)를 설명하면, 교역자가 영적활동이 열심하야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재정이 자연히 유여(有餘)할 것이오, 유여(有餘)하면, 담임 교역자의 생활보수가 넉넉할 것은 필연적이니라. 그러나 일중 고려할 것은 계급의 문제보다도 가족문제의 표준(標準) 함이 합당한 줄로 사(思)하노라. 가족비례를 따라서 교역자가 가족생활유지에 염려로 인(因)하야 목회사업에 지장이 무(無)하도록 할지니, 예컨대 가족 5인의 생활비가 60만원이라면, 가족 8인의 생활비는 구십만 원으로도 감내(堪耐)키 난(難)할지니, 차점(此點)에 가급적 교회는 고려하야 교회만 바라고 일생(一生)을 헌신한 자기 목자를 위(爲)하야는 최(最) 우선(優先)한 예의로서 대접할지니라.

3. 교역자(敎役者) 생활비(生活費) 지급(支給) 방법(方法)

우리 한국 교회의 실력을 삼종(三種)으로 별(別)할 수 있나니, 대도시, 중도시, 농촌이다. 대도시는 상공업자의 거주처이니, 신자의 대부분이 상공업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제반 헌금도 현금일 것이다. 매월 중(終)마다 회계는 현금으로 소정액(所定額)대로 지불할지니, 별 문제가 없는 것이오, 중도시는 군읍소재지니, 반농(半農) 반상공업자(半商工業者)로 조직되었나니, 반전(半錢) 반곡식(半穀式)으로 지불하면 편리할 것이니, 추수감사 헌곡(獻穀)이나 십일조 헌곡(獻穀)을 일 년간 양미(糧米)로 일시 지불하고 기여일(其餘日) 용전(用錢)은 상공업자의 현금으로서 보충하면 이상적일 것이오, 농촌에는 매월 금전 지불은 곤란한 사(事)니 추수기에 곡(穀)으로서 일 년 양미(糧米)와 의류 일용비(日用費)를 대곡(代穀)으로 지불함이 편리할지니라.

제5절 교회(教會) 기본재산(基本財産) 적립(積立)의 필요(必要)

교회(教會) 재정(財政) 문제에 대하여 양론(兩論)이 유(有)하니, 1은 기본재산적립 필요론자요, 2는 임시 신앙 진행론자(進行論者)이다. 갱언(更言)하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이다. 연즉(然則) 금(今)에 찬부론자(贊否論者)의 소론(小論)을 약기(略記)하노라.

1. 찬성론자(贊成論者)

교회는 일 개인의 유지(維持)가 안이오, 공동(公同) 유지(維持)니, 상비 적금이 무(無)하면 일조(一朝)에 교회가 쇠퇴하던지, 유사시(有事時)에는 유지난(維持難)에 함(陷)하여 폐문(閉門)의 난경(難境)에 지(至)할 터이니, 예선(預先) 준비함은 교회 영구(永久) 유지(維持)를 위하여 불가무(不可無)의 일이다. 개인 가정의 장래를 위하여 저축이 필요하고, 국가 영복(永福)을 위하여 준비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물질 준비는 의당한 급무(急務)이다. 황(況) 한국교회 각파들은 대부분이 외국 선교 보조를 수(受)하는 중에 재(在)하고, 비록 자립하였다하여도 기(其) 기본이 미확(未確)한 차시(此時)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는 일일(一日)이라도 원칙적으로 급속(急速)히 장래를 예비치 않으면, 점차 쇠퇴할 것은 사실일 것이다. 현재 각 교파 교회에서도 재정난으로 교역자를 청빙(請聘)하지 못하여 쇠퇴 자멸함을 목도(目睹)한다. 연즉(然則) 우리 신자와 교역자들은 경성(警醒)해야 소규모라도 장래를 위하여 기본금을 적립할 것을 적극 통론(痛論)한다.

2. 반대론자(反對論者)

교회는 물질에 재(在)한 것이 안이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자의 신앙에 재(在)하나니, 과거 교회 역사를 볼지라도 정권이나 물질의 력(力)을 교회가 의뢰(依賴)할 시(時)에는 언제든지 타락(墮落) 쇠퇴(衰退)하였나니, 원래 종교와 물질은 불가(不可) 양립(兩立)의 사(事)이다. 교회 기본금이 유(有)하면, 신자 헌금열이 감퇴되는 동시에 신앙심이 약하여진다. 따라서 신자가 교회를 애호하는 심리가 박약하여질 뿐만 아니라, 재는(財者)는 난지시(難之始)라는 고어(古語)와 같이 교회에 물질이 있으면 분란한 사(事)가 유(有)하기 쉽다. 우(又)는 기본금이 유(有)하면, 신자나 교역자의 열성이 식어진다. 기본금을 적립하라는 것은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신에서 떠나 인위적인 물질방면에만 경향(傾向)하는 증거이다. 현재 유지에도 곤란한 터에 장래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용(無用)의 염려이다. 하시(何時)든지 교회 유지는 각 신자의 신앙증심에 재(在)하나니, 내일 사(事)는 내일 염려할지니라. 염려는 불신앙의 사(事)라 하여 기본금 적립문제를 통절(痛切)히 배격(排擊)한다.

제6절 기본금(基本金) 적립(積立) 방법(方法)

이상(以上) 찬부(贊否) 양론(兩論)에 각자 일리(一理)가 유(有)하다. 각기(各其) 극단적 논리는 피(避)하고 정견(正見) 중론(中論)을 취(取)하려면, 할 수 있으면 교회가 기본재산을 예비함이 무리라고 할 수 없음을 현하(現下) 정세를 보아서 선지(善知)할 수 있는 사(事)이다. 만일 교회에서 매월 천원 식(式)만 별도 적립을 하여 일 년 일만 이

천 원이 될 것이니, 기년(幾年)이 되면, 토지 기평(幾坪)을 매입하여 수입과 우(又) 적립금과 병합하여 다액(多額)이 되면, 전후 통합하여 수천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연(年年)히 원금과 소출을 합하면 십년 후에는 가경(可驚)할 기본금이 될 것이니, 역시 유지난(維持難)을 면(免)할 수 있다. 차(此)는 도시와 농촌에 해당하는 정도로 하되, 동심 합력한다면, 결코 불능한 사(事)는 아니다. 적립재산의 목록은 결코 동산(動産)은 불가(不可)하니, 부동산 중에도 토지가 견고하다. 공동 소유물은 더욱이 토지가 우호 완전하니라.

제7절 기본금(基本金) 모집(募集) 방법(方法)

기본금 적립의 필요를 인지(認知)할 진데, 위선(爲先) 기본금 적립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할지니, 신자로 하여금 자유 헌납케 하되, 생일 헌금, 개인 특별 감사헌금, 맥추헌금, 중 일부 교회 연말 결산시(決算時) 잉여금 혹은 교우 중 별세시(別世時)에 기념헌금이나 결혼, 회갑, 기념헌금이나 고인의 유산 중 유언으로 헌납한 것 등으로서 교역자의 자급이나 교회 비용 외에 별도 집회법으로 하되, 일차 적립재산은 목적인 기간 내에는 수하여(雖何如)한 곤란이 있더라도 용(用)치 말며, 사대(私貸) 사채(私債)치 말고, 엄연(嚴然) 진행할지니, 교회가 여차(如此)한 정신 하(下)에서 십년만 진력한다면, 하(何) 교회든지 자립, 자치, 자급이 완성될 줄 믿노라. 물론 이론과 실지(實地)와는 차이점이 다소(多少) 있을지라도, 부단(不斷)의 노력만 한다면, 필(畢)히 성공할 수 있나니라.

필요종교지도교회 한도후
연도별 세례교인 행행

연도	수세라수	총수세라
1952	14	
53	7	
54	8	
55	4	
56	8	
57	8	
58	12	
59	56	
60	7	
61	13	
62	3	
64	2	

제17장 교회(教會) 창립(創立)과 직원(職員)에 대(對)하여

제1절 교회(教會) 창립자(創立者)와 명칭(名稱)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것이다. 그럼으로 교회창립자는 그리스도시오. “아(我)가 차(此) 반석상(磐石上)에 아(我)의 교회(教會)를 건(建)하리니” <태(太) 16:18하> 하셨다. 차(此) 반석(磐石)이란 말은(새 28:16)에 예언한 그리스도 반석(磐石)이오. 아(我)의 교회(教會)라 함은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란 말이니, 교회는 누구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등기(登記) 증명(證明)하였다. 그럼으로 교회 창립자도 그리스도시오. 우(又)는 교회란 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작어(創作語)이다. 연(然)이나 악마 사단이 베드로에게 입(入)하여 교회창립에 계획의 파괴를 꾀하다가 주님께서 사탄을 축출(逐出) 명령(命令)하시였다 <태(太) 16:23>. 악마 사탄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창 1:1)를 혼돈시키였었다(창 1:2). 그럼으로 하나님이 천지(天地) 개조(改造)하신 바 육시기(六時期)로 분(分)하여 역사한 것이다(육일간). 그럼으로 사탄은 갱(更)히 에덴 동산 하와의게 침범하여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인류를 사망에 추입(推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갱(更)히 제이(第二) 아담을 조성하신바 그리스도 무죄(無罪)하신 성자(聖子)시다. 인류 회복운동을 시작하시라고 침례를 통하여 성신(聖神)을 수(受)하신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시험하다가 실패하였었다 <태(太) 4:11>. 그리고 베드로에게 재차(再次) 출현하였으나 주님의 축출(逐出) 명령에 또 실패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부단(不斷)의 활동을 한다. 보라. 가룟 유다에게 입(入)하여(눅 22:3) 그리스도의

체(體)를 곧 교회를 예매(豫賣)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혈(血)로 가(價)를 주고 득(得)하시었다<행(行) 20:28>. 연즉(然則)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기 혈가(血價)로 매수(買受)하고(고전 6:20) 갱(更)히 등록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죄(罪)가 되나니라<태(太) 7:21, 눅 6:46-49>.

제2절 교회원(敎會員)<성도(聖徒) 그리스도인>(빌 1:1)

복음을 청취한 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자 그리스도와 성신 보혜사를 확실히 신앙하고 과거불신의 죄와(요 16:9) 불의와(요일 5:17) 선(善)을 불행(不行)과(약 4:17) 불법의 죄와(요일 3:4) 기타 제반 죄를 일일이 회개 자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신앙함을 구(口)로 증거고백<롬10:10, 태(太) 16:16, 행(行) 8:37>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명(名)으로 침례를 수(受)해야<태(太) 28:19, 막 16:16, 행(行) 8:38> 죄사함과 성신의 내주(內住)함으로 중생(重生)의 은혜(요 3:5)를 받아 천부(天父)의 자녀가 되며, 성자 그리스도인인 성도로 성결의 생애에서 성신(聖神)의 과실을(갈 5:22-23) 결(結)하는 중(中) 신령과 진리로 곧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칠일(七日) 중(中) 수일(首日)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집(會集)하는 남녀 성도가 곧 교회원이다.

제3절 감독(監督)들<장로(長老)들>(빌 1:2)

교회의 감독은 교회원인 성도들을 목양(牧養)하는 장로들을 지(指)함인데, 교회에 성직인 동시에 성경적인 자격자를 추천하되, 이인(二人) 이상으로 하고, 교회원 삼분의이(三分之(二)) 이상의 득점자로 장립(將立)할지니라.

제1조 감독(監督)<장로(長老)들>의 직분(職分)(딤후 3:5, 5:17, 딤후 1:7)

감독들의 직분은 자기 가정과 교회를 선찰(善察)하며, 전도의 진리

를 교수(敎授)하기에 수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家)인 교회를 사(司)한 자(者)이니, “인(人)이 의당(宜當)히 아등(我等)을 그리스도의 고군(雇軍)이오, 상제(上帝)의 오묘(奧妙)한 도(道)를 사(司)한 자(者)로 녀일지니라. 또한 사(司)한 인(人)의게 구(求)할 것은 충성(忠誠)이니라(고전 4:1-2) 하였으니, 교회인 하나님의 가(家)를 사(司)한 자(者)로서 사(死)하도록 충성할지니라(계 2:10).

제2조 감독(監督)<장로(長老)들>의 자격(資格)

감독들의 자격은 “미쁘다 이말이여 인(人)의 감독(監督)의 직분(職分)을 득(得)하라면, 미사(美事)를 모(慕)한다하니, 감독(監督)은 책망(責望)할 것이 무(無)하며 일처(一妻)의 부(夫)가 되며, 준절(摠節)하며, 근신(謹慎)하며, 아담(雅淡)하며, 빈(賓)을 수(受)하며, 교(敎)하기를 선(善)하며, 주(酒)를 불호(不好)하며, 구타(毆打)하지 안이하며, 오직 온유(溫柔)하고, 쟁경(爭競)치 안이하며, 전(錢)을 수(受)하지 안이하며, 자기(自己)의 가(家)를 선리(善理)하야 자녀(子女)들로 하여곰 단정(端正)함으로 복종(服從)케 할지니, 대개(大概) 인(人)이 자기(自己)의 가(家)를 리(理)할줄 지(知)치 못하면, 얻이 상제(上帝)의 교회(敎會)를 찰(察)하리오”(딤후 3:1-5) 하였으니, 이상(以上) 십칠조행(十七操行)이 분명하며, 대중 신도들의게 본이 되어야 하며(벧전 5:1-3), 34년간 성도를 교양(敎養) 수료(修了)하여야 할지니라<행(行) 30:31>.

제4절 집사(執事)들(빌 1:1)

교회의 집사들은 장로들과 같이 남자들을 표준으로 한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최초로 집사들을 선택할 시(時)에 부인(婦人) 사업인 과부(寡婦) 구제봉사인 동시에 여자가 적당하지만, 칠(七) 집사(執事) 중(中)에 여자는 일인(一人)도 선택치 않은 사실로 보아서 남자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교파교회에서는 여집사(女執事)를 선정함은(롬 16:1)에 자매 뵈뵈를 원어(原語)에는 여복(女僕) 곧 일꾼이라는 말을 집사로 오역함을 보고 오선(誤選)함이다. 우(又)는 디모데

전(前) 3장 11절에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한 말을 부녀(婦女)들도 라고 오역(誤譯)한대서 비성경적인 여직(女職)을 선(選)하고 있다.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남자 표준으로 할지니라.

제1조 집사(執事)들의 직분(職分)

집사들은 교회에서 구제 사업에 봉사<행(行) 6:1-6>와 복음을 전하는 의무의 성직이다. 스테반과 빌립을 보아서<행(行) 6:1-15, 8:5-13, 35-40> 잘 알 수 있다. 그런즉 교회에 없지 못할 직분이니, 자격자를 발견할 시(時)는 이인(二人) 이상을 선택할지니라.

제2조 집사(執事)들의 자격(資格)

집사들의 자격은 “이와 같이 집사(執事)들도 의당(宜當)히 단정(端正)하고,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지 안이하고, 주(酒)를 다음(多飲)하지 안이하고, 청(淸)한 양심(良心)으로 신(神)의 오묘(奧妙)한 것을 지(持)한 자(者)라야 할 것이니, 이에 차인(此人)들을 선찰(先察)하고 기후(其後)에 책망(責望)이 없으면 집사(執事)의 직분(職分) 할 것이오, 처(妻)들도 여차(如此)히 단정(端正)하고, 참소(讒訴)하지 말며, 준절(摶節)하며, 제사(諸事)에 충성(忠誠)한 자(者)가 될지니라. 집사(執事)된 자(者)들은 일처(一妻)의 부(夫)가 되며, 자녀(子女)와 자기(自己)의 가족(家族)을 선리(善理)할 것이니(딤후전 3:8-12) 하였으니, 집사(執事)의 자격(資格)이 장로(長老)와 같이 자기(自己) 가(家)를 선리(善理)하고, 기처(其妻)도 집사(執事) 자격(資格)과 같이 단정(端正)하고, 자녀(子女)들도 선교(善敎)하야 진리(眞理)를 순종(順從)하도록 하여야 자격(資格)이 합당(合當)하니라.

제5절 전도사(傳道師)<조사(助師)>

차(此) 전도사는 성경학교 우(又)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연소자 독신자로서 목사의 조수(助手)가 되어 전도 급(及) 목회에 실습자로 교회를 조력함도 있고, 상당한 신앙과 지식적 실력은 있으나 목

사 자격 중에 처(妻)와 자녀(子女)가 없던지, 있어도 신앙상 진리를 순종치 않는 가족이면 목회할 수 없어 개척 전도 우(又)는 순회전도하게 되는 자(者) 혹은 자급 자유 전도자를 운(云)함인데, 조직되지 못한 교회에 교역할 수 있고, 조직된 교회에서는 목회자 조사(助師)로 채용할 수 있다. 혹은(或云) 강도사(講道師)라고도 한다 (신학교 졸업자).

제6절 여전도사(女傳道師)

여전도사는 곧 여교역자를 말함인데, 교회에서는 필요한 역군(役軍)이다. 초대 겐그레아 교회 중에 역군(役軍)된 비비 자매(姊妹)를 로마에 있는 교회 역군(役軍)으로 천거(薦擧)하며, 그 이의 용도(用度)를 조급(助給)하라 함은 유급(有給) 전도(傳道) 부인(婦人)인 것이며, 국외 선교직이니, 신앙과 지식이 여류계(女流係)에 상당한 줄로 알게 된다. 그런즉 현금(現今) 교회에서 여교역자가 되려면, 신앙과 성경지식이 신학을 졸업한 자로 교회에서 생활보장을 하게하고, 남교역자를 봉사적으로 조력(助力)하는 동시에 남녀 신도(信徒)들의게 신앙상 건덕(健德)하며, 여자계(女子係)에 성경지식을 함양(涵養)하고, 심방(尋訪)을 적극적으로 충성을 진(盡)하여야 한다. 우(又)는 교회 중에서 부인 중 독신자를 성경 교수(教授)하여 자발적으로 전도 급(及) 심방(尋訪)에 열심하는 의무 전도자로 피택(被擇)하되, 소(小) 교회라도 2, 3인(人)이오, 대(大) 교회에서는 다수(多數)라도 무방(無妨)하니라. (교과 교회의 여집사(女執事)와 동양(同樣)으로 함).



제18장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파교회

제1절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것이다. “아(我)가 차반석(此盤石) <곧 그리스도 기초석, 새 28:16> 상(上)에 아(我)의 교회를 건(建)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승(勝)치 못하리라” <태(太) 16:18> 하시었으니, 아(我)가 곧 그리스도가 아(我)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차반석(此盤石), 곧 그리스도 수치(修置)한 기초상(基礎上)에 교회를 건(建)하신 것이요, 교회란 말도 그리스도께서 창작어(創作語)니, 자기교회란 전용어(專用語)요, 타명(他名)의 교회라는 것은 아니다. “인(人)마다 여하(如何)히 기상(其上)에 건(建)하기를 근신(謹慎)할지니라” <고전 3:10> 하신 말씀이 곧 이 까닭이다. 타명(他名)은 죄가 된다. 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 <롬 16:16>라고 한 것을 타명(他名)으로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니, 죄가 된단 말이다. “아(我)다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진입(盡入)할 것이 아니요, 다만 천(天)에 재(在)하신 아부(我夫)의 지(旨)대로 행하는 자라야 입(入)하리라. 기일(其日)이 다인(多人)이 아(我)다려 청(請)하대, 주의 주여 아등(我等)이 주의 명(名)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명(名)으로 사귀(邪鬼)를 축(逐)하며, 주의 명(名)으로 제반능사(諸般能事)를 행(行)치안이 하였나니까? 하리니, 기시(其時)에 아(我)가 차등(此等)다려 명언(明言)해대, 아(我)가 니(你)를 도는지(都是知)치 못하나니, 불법(不法)한 <요일 3:4> 사(事)를 행(行)하는 자들아, 아(我)의게서 리(離)하야 거(去)하라 하리라. 연고(然故)로 아언(我言)을 청(聽)하고 행(行)하는 자들은 말이 지혜(智慧)가 유(有)한 인(人)이 옥(屋)을 <신(神)의 옥(屋) 곧 교회> 반석상(盤石上)에 건(建)함과 여(如)하리니, 우

(雨)가 강(降)하고, 창수(漲水)가 생(生)하고, 풍(風)이 취(吹)하야 기옥(其屋)에 충(衝)하되, 경괴(傾壞)치 안는 것은 반석상(盤石上)에 건(建)한 연고(緣故)요, 아언(我言)을 청(聽)하고 행(行)치안이하는 자들은 맞이 우인(愚人)이 옥(屋)을 사상(沙上)에 건(建)함과 여(如)하리니, 우(雨)가 강(降)하고, 창수(漲水)가 생(生)하고, 풍(風)이 취(吹)하메, 기옥(其屋)에 충(衝)하되 경괴(傾壞)함이 대단(大段)하니라”<태(太) 7:21-27>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 교회를 건(建)하는 자(者)의게 대한 경계(警誡)하심인데, 불법한 사(事)를 행하는 자들은 아(我)의게서 이거(離去)하라고 엄명(嚴命)을 하(下)할 것을 예언(豫言)하시고, 지혜자는 옥(屋) 곧 교회를 반석, 곧 그리스도상(上)에 건(建)하되, 주님의 언(言)인 성지(聖旨)대로 할 것과 구(口)로는 호주(呼主)하며, 우(又)는 주의 명(名)으로 선지자 축귀(逐鬼) 제반능사(諸般能事) 등을 행하였을지라도, 불법한 사(事)를 행한 자들아 이거(離去)하라<불법은 죄, 요일 3:4>. 연고로 바울이 “아(我)가 상제(上帝)의 은혜를 수(受)한대로 지혜로운 장인(匠人)과 같이 기(其)를 수치(修置)하며, 타인(他人)이 기상(其上)에 건(建)하나 연(然)이나 인(人)마다 기상(其上)에 건(建)하기를 근신(謹慎)할지니라”<고전 3:10>. 차언(此言)은 하경우(何境遇)에 하신 말씀인가하면, 바울이 자기(自己)의게 속한 자요, 아불로의게 속한 자라한 까닭에 교파적 사상에 반대한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주님의 성지(聖旨)를 잘 읽으로 “교파의 효(酵)를 신(愼)하라고 언(言)하신 줄을 각(覺)하고”<태 16:11-12> 이와 같이 “차수(此修)한 기(基)는 즉(卽)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하>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이고, 교파교회는 죄가 되는 줄을 모르는 우인(愚人)인 선지자들이 현세(現世) 다(多)하니 신(愼)할지니라.

제1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체(體)

교회는 그리스도의 체(體)이다. “교회는 즉(卽) 기신(其身)이다. 차(此)는 만물에 충만하신 주의 충만한 것이 되었나이라”<엡 1:23> 하였고, 또는 “아(我)가 금(今)에 니등(你等)을 위하야 고(苦)되움을 수(受)하는 것을 낙(樂)하고 그리스도의 당(當)한 고난을 아(我)의 육체에 보충하노니, 차(此)는 기신(其身)이된 교회를 위함이라”<골 1:24>

하시였다. 연즉(然則) 그리스도의 체(體)된 교회를 수(誰)가 부정하랴?

1. 교회의 수(首)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상제(上帝)의 가(家)이요, 그리스도의 체(體)이라고 상술한바 갓건이와 체(體)가 유(有)한즉 수(首)가 있을 것이다. “대개(大概) 부(夫)가 부녀(婦女)의 수(首)가 됨이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수(首)가 됨과 여(如)하니, 그가 친(親)히 신(身)의 구주(救主)시니라” <엡 5:23> 하시였으며, 또는 “피(彼)는 수(首)요, 교회는 신(身)이라” <골 1:18> 하였으니, 교회의 두령(頭領)은 곧 그리스도시니, 인간 중에 수(誰)가 능(能)히 교회의 두령(頭領)과 교주(敎主)가 될 것이야. 그러나 사도들도 수(誰)도 교주가 되지 못하는 각교파에는 교주가 있고, 국교황(國敎皇), 법왕(法王)이라고도 한다. 교파에서는 인정할지언정 성경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수(首)이시니라.

2. 교회원은 그리스도의 지체(肢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체(體)도 되고, “차(此)와 갓이 그리스도내(內)에 재(在)하여 일신(一身)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니라” <롬 12:5> 하였으며, 또는 “니등(你等)은 그리스도의 체(體)요, 또 각각 기 지체(其肢體)라” <고전 12:27> 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체(體)요, 그 지체이니, 성찬(聖餐)인 주님의 육(肉)과 혈(血)로 호상(互相) 연합(聯合)하여 일체(一體)가 됨을 신행(信行)할지니라 <고전 10:17>.

제2절 교파교회

신약시대에 주님 창립하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기원 30년 오순절에 시작한바 일세기까지는 사도들이 목회 하시며 경계(警誡)도 하시며 <고전 1:10-13, 3:4-15>, 주님의 성지(聖旨)대로 계속하여 오다가 최초에 희랍교가 분열된바, 그 교(敎)에서도 기원 303년에 아리안파가 분열됨. 기원 622년경에 모하멜교가 또 분열하였으며, 기원 860년경에

유아도 세례 후에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고, 마리아와 성도들의 성화와 유물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이단(一異端)적 교파가 된 것이요, 기차(其次)에는 3세기 4세기 중에 로마교가 분열되어서 시작하여 606년경에 저스테이안이 카토릭 교주가 되고 기후(其後)에 포가스 황제가 보니, 파스2세 법왕이 모든 교회의 수(首)가 됨을 주장하였고, 기후(其後) 기원 753년경에 법왕 스투분2세가 에들퍼스가(家)에서 침례를 약식세례를 시작하였고, 태양신인지 마티안인지 하여간 우상경배하는 이단파의 또 일(一)이다. 이상 이(二) 교파의 신조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에 없는 것인 동시에 신약성서에 위반이니라.

제1조 개혁 신교파

소위 개혁 신교파는 기원 1500년경으로부터 1580년경까지 4대 종파가 로마교의 부패(腐敗)와 흑암(黑暗)한 막(幕)을 피출(拔出)하여 대혁명을 기(期)한 개신종파를 시작하였는데, 혁명의 기세에 치중(置重)하다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고(詳考)치 안이하고 각기 일단(一端)만 파악하고, 자기 소각(小覺)만 고집하고, 로마교 습성의 잔재로 개종파 간에 또 모해(謀害) 급(及) 모살(謀殺)적 행위는 상제(上帝)의 진노(震怒)를 불량(不良)한 것을 필자는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오호(嗚呼) 통재(痛哉)라, 그대들의 로마교의 암흑막(暗黑幕)에서 탈출한 용단성은 가찬(可讚)할지언정, 교파적 주장에서 동지(同志)를 모살(謀殺)적 행위는 신의 진노를 초래(招來)치 않을가? 현금(現今)에도 교파적 야심에서 그들의 교주의 유습(遺習)인지, 각기 치명적 손상을 주는 사(事)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파중(派中)에서도 모략 급(及) 혈투적(血斗的)은 대투적(帶套的)이 아닐가? 예수님이 바리새교 양파의 상두(相斗)하심을 이용하시였고, 바리새교인과 사두게교인의 직(職)을 신(愼)하라 하심은 기(其) 교훈을 신(愼)함이라<태(太) 16:11-12>. 차는 교파적 신앙과 주의를 경계(警誡)하심이니, 구교파나 신교파나 근신(謹愼)할지니라.

1. 마틴 루터의 교파

기원 1528년경에 마틴 루터가 독일 위틴백에서 소각(小覺)의 신앙

을 로마교의 박해를 무릅쓰고, 전섭(傳攝)하여 교회가 성립됨에 따라서 루터교회라고 한 것인데, 현금(現今)에는 루터교파 중에서도 분열된 것 27종파로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대로 침례(浸禮)가 안이오, 로마교의 유전(遺傳)으로 약식세례(略式洗禮)를 행하는 비성경적인 것을 유감이라고 많이 할 수 없다.

2. 침례교파

기원 1520년경에 코날드 그레벨이 개혁운동자의 일인(一人)으로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와 여(如)히 침례를 주장하였으나, 필경은 교파를 단서주(端西州) 텍시(市)에서 조직되고 말았다. 신약시대교회로 환원(還元)하라다가 장족진보(長足進歩)가 되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근세(近世)에는 신약시대교회로 환원자수가 각 교파보다 제일 대다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한다. 차교파내(此教派內)에서도 분열된 것이 20여 종파라고 한다.

3. 감독교회(성공회)

차(此) 감독교회는 헨리 8세가 기원 1534년경에 영국 런던에서 로마교회에서 라틴 신경주장(信經主掌)하고 분열 성립한 교파인데 런던 교라고도 하고 고등교회라고도 한다. 의식은 로마교회와 비슷하다. 기원 1650년경에 채크파와 친구파가 분파하였고, 기원 1784년경에 요한 웨슬네가 영국 옥스포드에서 감리교가 분열한 것이다.

4. 장로교파

장로교회는 존 낙쓰가 기원 1587년경에 존 칼빈의 주의(主義) 사상 으로 스카트랜드 진벽시(市)에서 로마교회개혁으로서 최초에는 매주 일 성만찬을 하다가 기후(其後)에는 일개월 중에 1-2회식(式)하던 것이 현대에는 일년에 1-2회식(式)하고 침례식은 로마교의 유전적인 약식세례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유감이라고 많이 할 수 없다.

5. 기타 각 교파

상술한바와 같이 기원 1500년경부터 로마 천주교파에서 이상 4대

교파가 대(大)혁명적으로 분열된바, 그들의 종파에서도 분쟁적으로 또 분열이 되었다. 열거하면, 감독교파 곧 영국성공회에서 웨크파, 제칠일안식교(1610년), 감독교파 등이 분열하였고, 감독교파에서 구세군파가 분열되었고, 침례교파에서도 기원 1671년경에 제칠일침례(안식파)교파가 분열되고, 루터교파에서 기원 1800년경에 독일복음교파가 분열되고, 장로교파에서 기원 1800년경에 조합개정교파가 분열되고 또는 칼빈감독교파가 분열되고, 일신회중교파가 로마법왕교파 등이 분열된 것뿐만 아니라 파(派)에서 파(派)로 분열된 것이 현대 와서는 360여 종파로 분파로 각립(各立)되어 있으니 비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의 교회는 유일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태(太) 16장 18절에 등록하였고, 더 확실하게 바울 사도는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등기하였다<롬 16:16>.

제3절 유일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신약서중(新約書中)에 상고하면, 여호와 일신신자(一神信者)의 부(父)께서 구약에 예언(豫言)테로 신(神)의 말씀인 곧 진리도(真理道)가 육신이 되어 부(父)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1:14>가 탄생하사, 자기의 교회를 건(建)하시여 음부의 권세 곧 사망을 승(勝)하신 것이다<태(太) 16:18, 막 16:9, 행 2:21>. 연고(然故)로 죄인들이 여호와 신을 신앙하는 동시에 구주 상제(上帝)이신 줄을 신(信)하고<딤후 1:1-3>, 또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동시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혈(血)로 구원하심과<태 1:21, 롬 5:8-10> 주를 신앙함으로 구원을 득(得)할 것이오<행 16:21>, 또는 신앙고백 곧 구(口)로 증거한 즉, 구원에 지(至)하고<롬 10:9-10, 행 8:38>,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수(受)하고 구원함으로<행 2:38, 막 16:16>, 수(水)와 성령으로 중생<롬 6:4, 골 2:12, 요 3:5>한 후에 천부상제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칠일중 수일(首日) 매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여 주님의 명령을<눅 22:19-20> 순종하여 예배하는 교회가 신약서중(新約書中)에 재(在)한 유일한 그리스도

의 교회이다. 교파들은 교회명칭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타인의 명으로, 우(又)는 국명지명 절기와 일(日)과 기타로 칭명(稱名)하며, 신앙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신자가되면 주일성찬으로 예배하는 신약 중 그리스도의 교회와 여(如)치 않고 각각 이점(異點)이 다(多)하다. 혹(或)은 신주(信主)만하면 구원한다고 침례도 시행치 않으며, 가교훈(假敎訓)을 한다. 왜야하면 신앙만이란 문자(字)가 성경에 말삼하였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함과 그리스도의 혈(血)로 구원한다는 말삼은 무용(無用)일 것이다. 다만 자(字)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무(無)한 자(字)를 가(加)하고 교훈하여 성경을 파손한다. "믿고 침례를 수(受)하는 인(人)은 구원을 득(得)할 것이오"<막 16:16>.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면 침례란 말은 할 필요도 없지 안을가?

혹(或)은 제팔일 안식일에 예배한다. 교회는 오순절 일요일 주님 부활일에 시작하였다. 침례 수(受)한 자(者) 3천명이 차일(此日)에 병(餅)을 벽(擘)하며 식(食)하고 성만찬으로<행 2:42-27, 20:7> 기배(紀拜)하였다. 칠일중 수일(首日)은 주일이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령한 예배를 한다. 유대교는 안식일에 예배한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간치 못하고 혼돈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건(建)하였다<태(太) 16:18>. 주일집회는 성찬하기 위하여<행 20:7> 집회하였다. 그러 고로 차(此) 집회를 폐(廢)하지 말라고 하였고, 오직 상권(相勸)해야 기일(其日)이 근(近)할수록 더욱 더 집회하라고<히 10:25>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곧 주님의 부활일에 십자가를 기념하지 않은 교회가 다수이다. 혹(或)은 매주일에 성찬을(미사제)하면서도 포도주잔은 폐하고 병(餅)만 식(食)한다. 악마는 교회의 지도자의 심중에 입(入)하야<태 16:22-23, 눅 22:3> 상제(上帝)의 성지(聖旨)를 손할(損割)시킨다. 연즉(然則) 성서를 감하지도 말고, 이점(異點)을 가하지도 말고, 신약서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還元)하야 일 교회(一敎會)가 되도록 기도하며, 역사(役事)할지니다. 우리 주님도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였다<요 17:11, 20-23>. 바울 사도도 "체(體)도 일(一)오"<엡 4:4>. 차 체(此體)는 이(而)교회라고<엡 1:23, 골 1:24> 하시였다. 그리스도의 체(體)인 교회가 유일이다. 현대 각교파와 종파

의 통일방법은 주님 기도문 중에 포함 되어 있다. "피등(彼等)으로 하여금 다 완전함을 성(成)하야 일(一)이 되게 하야 줍소서"<요 17:23> 하시였다. 완전함을 성(成)하야 차(此)가 방법이다. 완전은 상제의 말씀인 성경이라고<딤후 3:16-17> 하였으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로 각파(各派), 종(宗)들이 환원하야 주님의 통일의 기도가 성취한다. 하시(何時)에 "기약이 만(滿)할 시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내(內)에 통일하게 하라 함이라"<엡 1:10>. "피등(彼等)으로 하여금 다 완전함을 성(成)하야 일(一)이 되게 하야 줍소서"<요 17:23>함과 같이 "각 교파와 종파들이여, 다 성서대로 완전함을 성(成)하야 통일이 되기를 필자 성시온(成時溫)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名)으로 천부상제께 기도 합니다" 아멘.